



정책보고서 2013-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박세경·이철선·이정은·신수민  
강상경·김진·신창환

**【책임연구자】**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서비스 발전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유망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공저)

**【공동연구진】**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신수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창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제 출 문 <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 계약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기초분석 보고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최 병 호





본 보고서는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심층분석보고서」에 연계된  
부가 보고서로서, 연구 진행과정에서 검토한 사회서비스 관련 국내외 통계  
자료 생산 현황 및 분석대상 변수의 기초 분석결과 위주로 구성하였음



# 목 차

제1장 국내외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관련 통계자료 생산 현황 .....	9..... 1
제1절 국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관련 실태조사 .....	9..... 1
제2절 국외 사회서비스 관련 지표 및 통계 생산 현황과 시사점 .....	1..... 3
제2장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의 설계 .....	9..... 7
제1절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의 개요 .....	9..... 7
제2절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 8
제3장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 분석 결과 .....	1..... 9
제1절 사회서비스 영역별 이용 및 욕구 현황 .....	1..... 9
제2절 사회서비스 세부 영역별 이용 및 욕구 현황 .....	701
제3절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 의견 .....	72
제4절 사회서비스 이용과 일상생활의 변화 .....	232
제4장 2013년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의 설계 .....	142
제5장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공급 실태 분석 결과 .....	152
제1절 사회서비스 사업체 기본 현황 .....	152
제2절 사업의 주요 대상 및 서비스 내용 현황 .....	572
제3절 사업체 재정 현황 .....	6

---

제6장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고용 실태 분석 결과 .....	723
제1절 고용 현황 .....	27
제2절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제도 현황 .....	853

부록: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조사표

[가구용] .....	73
[사회서비스 사업체용] .....	193

## 표 목차

〈표 1-2-4〉 OECD 사회복지지출의 영역과 분류 <sup>25</sup> .....	9
〈표 1-1-1〉 국내 사회서비스 관련 수요 실태조사 현황 .....	5..... 2
〈표 1-1-2〉 국내 사회서비스 관련 공급 실태조사 현황 .....	0..... 3
〈표 1-2-2〉 ILO 노동통계의 주요 지표 .....	4..... 3
〈표 1-2-3〉 OECD 사회복지 지출의 영역과 분류 .....	6..... 3
〈표 1-2-4〉 OECD 사회복지지출의 영역과 분류 .....	7..... 3
〈표 1-2-5〉 한국 사회복지지출 중 사회서비스 관련 지출 .....	9..... 3
〈표 1-2-6〉 EUROSTAT 2013 통계연보의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항목 .....	2..... 4
〈표 1-2-7〉 ESSPROS의 사회적 보호 지출 통계의 (예: 가족/아동) .....	5..... 4
〈표 1-2-8〉 MISSOC의 하위 영역 .....	6..... 4
〈표 1-2-9〉 잉글랜드의 사회서비스 통계지표: 대인사회서비스 지출 및 단위비용 .....	0..... 5
〈표 1-2-10〉 잉글랜드의 사회서비스 통계지표: 제공인력 .....	2..... 5
〈표 1-2-11〉 잉글랜드의 사회서비스 통계지표: 사회서비스 활동 .....	4..... 5
〈표 1-2-12〉 잉글랜드의 사회서비스 통계지표: 서비스 이용자 서베이 .....	6..... 5
〈표 1-2-13〉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체계의 하위 지표: 아동 .....	9..... 5
〈표 1-2-14〉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체계의 하위 지표: 성인 .....	1..... 6
〈표 1-2-15〉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체계의 하위 지표: 신체 및 감각장애 .....	2..... 6
〈표 1-2-16〉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체계의 하위 지표: 학습장애 .....	3..... 6
〈표 1-2-17〉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체계의 하위 지표: 정신건강 .....	4..... 6
〈표 1-2-18〉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체계의 하위 지표: 제공인력 .....	5..... 6
〈표 1-2-19〉 연방정부의 통계초록2011: 사회보험 및 인간서비스'의 하위 영역 및 통계표 구성 현황 .....	6
〈표 1-2-20〉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서비스 통계항목: 아동 및 보육 .....	0..... 7
〈표 1-2-21〉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서비스 통계항목: 비영리부문 및 자원봉사 .....	1..... 7
〈표 1-2-22〉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서비스 통계항목: 사회부조 및 기타 .....	2..... 7
〈표 2-1-1〉 일반가구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경험가구의 모집단 분포 .....	1..... 8
〈표 2-1-2〉 표본배분 및 제곱근 비례할당 결과 .....	3..... 8
〈표 2-2-1〉 조사대상 가구의 제 특성 .....	5..... 8
〈표 2-2-2〉 조사대상 가구의 건강상태 및 도움필요 정도 .....	7..... 8
〈표 2-2-3〉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 특성 .....	8..... 8

〈표 3-1-1〉 「사회서비스 영역별 세부 서비스 분류표」 .....	1	9
〈표 3-1-2〉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	5	9
〈표 3-1-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	7	9
〈표 3-1-4〉 가구유형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	8	9
〈표 3-1-5〉 가구특성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	0	0 1
〈표 3-1-6〉 사회서비스 유형별 향후 1년 이내 이용 희망 비율 .....	2	0 1
〈표 3-1-7〉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희망 비율 .....	4	0 1
〈표 3-1-8〉 가구유형별 사회서비스 희망 비율 .....	5	0 1
〈표 3-1-9〉 가구특성별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 비율 .....	7	0 1
〈표 3-2-1〉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	9	0 1
〈표 3-2-2〉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	1	1 1
〈표 3-2-3〉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	2	1 1
〈표 3-2-4〉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	3	1 1
〈표 3-2-5〉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	4	1 1
〈표 3-2-6〉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	6	1 1
〈표 3-2-7〉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	7	1 1
〈표 3-2-8〉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	8	1 1
〈표 3-2-9〉 재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	0	2 1
〈표 3-2-10〉 재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	1	2 1
〈표 3-2-11〉 재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	3	2 1
〈표 3-2-12〉 재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	4	2 1
〈표 3-2-13〉 재활 지원 서비스 욕구 가구의 경제적 특성 .....	5	2 1
〈표 3-2-14〉 재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	6	2 1
〈표 3-2-15〉 재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	7	2 1
〈표 3-2-16〉 재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	8	2 1
〈표 3-2-17〉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	0	3 1
〈표 3-2-18〉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	2	3 1
〈표 3-2-19〉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	4	3 1
〈표 3-2-20〉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	5	3 1
〈표 3-2-21〉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욕구 가구의 경제적 특성 .....	7	3 1
〈표 3-2-22〉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	8	3 1

〈표 3-2-23〉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9	3	1
〈표 3-2-24〉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0	4	1
〈표 3-2-25〉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2	4	1
〈표 3-2-26〉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4	4	1
〈표 3-2-27〉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6	4	1
〈표 3-2-28〉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7	4	1
〈표 3-2-29〉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	8	4	1
〈표 3-2-30〉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9	4	1
〈표 3-2-31〉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1	5	1
〈표 3-2-32〉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2	5	1
〈표 3-2-33〉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4	5	1
〈표 3-2-34〉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6	5	1
〈표 3-2-35〉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7	5	1
〈표 3-2-36〉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8	5	1
〈표 3-2-37〉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	9	5	1
〈표 3-2-38〉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0	6	1
〈표 3-2-39〉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1	6	1
〈표 3-2-40〉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2	6	1
〈표 3-2-41〉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3	6	1
〈표 3-2-42〉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5	6	1
〈표 3-2-43〉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6	6	1
〈표 3-2-44〉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8	6	1
〈표 3-2-45〉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	9	6	1
〈표 3-2-46〉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0	7	1
〈표 3-2-47〉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1	7	1
〈표 3-2-48〉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2	7	1
〈표 3-2-49〉	고용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4	7	1
〈표 3-2-50〉	고용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6	7	1
〈표 3-2-51〉	고용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8	7	1
〈표 3-2-52〉	고용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9	7	1
〈표 3-2-53〉	고용지원 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	0	8	1

〈표 3-2-54〉	고용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1	8	1
〈표 3-2-55〉	고용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3	8	1
〈표 3-2-56〉	고용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3	8	1
〈표 3-2-57〉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5	8	1
〈표 3-2-58〉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7	8	1
〈표 3-2-59〉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8	8	1
〈표 3-2-60〉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9	8	1
〈표 3-2-61〉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	0	9	1
〈표 3-2-62〉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1	9	1
〈표 3-2-63〉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2	9	1
〈표 3-2-64〉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2	9	1
〈표 3-2-65〉	문화 및 여가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3	9	1
〈표 3-2-66〉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5	9	1
〈표 3-2-67〉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7	9	1
〈표 3-2-68〉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8	9	1
〈표 3-2-69〉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	9	9	1
〈표 3-2-70〉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0	0	2
〈표 3-2-71〉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1	0	2
〈표 3-2-72〉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1	0	2
〈표 3-2-73〉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2	0	2
〈표 3-2-74〉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4	0	2
〈표 3-2-75〉	지역사회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6	0	2
〈표 3-2-76〉	지역사회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6	0	2
〈표 3-2-77〉	지역사회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	8	0	2
〈표 3-2-78〉	지역사회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9	0	2
〈표 3-2-79〉	지역사회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9	0	2
〈표 3-2-80〉	지역사회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0	1	2
〈표 3-2-81〉	환경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1	1	2
〈표 3-2-82〉	환경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3	1	2
〈표 3-2-83〉	환경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4	1	2
〈표 3-2-84〉	환경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4	1	2



〈표 3-2-85〉	환경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	5·1·2
〈표 3-2-86〉	환경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6·1·2
〈표 3-2-87〉	환경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7·1·2
〈표 3-3-1〉	사회전체의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영역별 필요도	8·1·2
〈표 3-3-2〉	사회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정책 인지도 차이(이용자 vs 비이용자)	9·2·2
〈표 3-3-3〉	사회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정책 인지도 차이	1·2·2
〈표 3-3-4〉	사회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정책 인지도 차이(가구특성별)	2·2·2
〈표 3-3-5〉	사회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정책 인지도 차이(생애주기별)	3·2·2
〈표 3-3-6〉	사회서비스 인지 경로 차이(이용자 vs 비이용자)	5·2·2
〈표 3-3-7〉	사회서비스 인지 경로 차이(바우처 표본 vs 일반표본)	6·2·2
〈표 3-3-8〉	사회서비스 이용 경로 차이(가구특성별)	7·2·2
〈표 3-3-9〉	사회서비스 이용 경로 차이(생애주기별)	7·2·2
〈표 3-3-10〉	사회서비스 이용료 부담 주체에 대한 의견(생애주기별)	9·2·2
〈표 3-3-11〉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한 의견(생애주기별)	9·3·2
〈표 3-3-12〉	서비스 이용료 차등지급에 관한 의견(생애주기별)	1·3·2
〈표 3-3-13〉	사회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의견	2·3·2
〈표 3-4-1〉	서비스 이용시 고려 정도(생애주기별)	3·3·2
〈표 3-4-2〉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의견(이용자 vs 비이용자)	4·3·2
〈표 3-4-3〉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의견(생애주기별)	5·3·2
〈표 3-4-4〉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 정도(이용자 vs 비이용자)	6·3·2
〈표 3-4-5〉	서비스 이용으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 정도(생애주기별)	6·3·2
〈표 4-1-1〉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모집단 구성표	3·4·2
〈표 4-1-2〉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표본의 규모 산정 기준	4·4·2
〈표 4-1-3〉	2013년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Q영역 부차모집단별 최종 표본규모	6·4·2
〈표 5-1-1〉	사회서비스 공급실태 분석 대상 사업체 현황 비교(2009 vs 2013)	3·5·2
〈표 5-1-2〉	사업체 창설 시기: 전체 사업체	4·5·2
〈표 5-1-3〉	사업체 창설 시기: 생활시설	6·5·2
〈표 5-1-4〉	사업체 창설 시기: 이용시설	7·5·2
〈표 5-1-5〉	사업체 창설 시기: 일반사업체	8·5·2
〈표 5-1-6〉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 형태: 전체 사업체	9·5·2
〈표 5-1-7〉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형태: 생활시설	9·6·2

〈표 5-1-8〉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형태: 이용시설	1·6·2
〈표 5-1-9〉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형태: 일반사업체	2·6·2
〈표 5-1-10〉	주요 사업 지역 범위: 전체사업체	4·6·2
〈표 5-1-11〉	주요 사업 지역 범위: 생활시설	5·6·2
〈표 5-1-12〉	주요 사업 지역 범위: 이용시설	6·6·2
〈표 5-1-13〉	바우처, 보육, 장기요양 사업 운영 지역 범위 비교	7·6·2
〈표 5-1-14〉	주요 사업 지역 범위: 일반사업체	8·6·2
〈표 5-1-15〉	지역 내 동일한서비스 제공 사업체 존재 여부 및 경쟁 사업체 수	9·6·2
〈표 5-1-16〉	사업체 유형별 서비스이용자 확보를 위한 역점 활동	1·7·2
〈표 5-1-17〉	사업체 유형별 서비스 손익분기점	2·7·2
〈표 5-1-18〉	사회서비스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요사항	3·7·2
〈표 5-1-19〉	사회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애로사항	4·7·2
〈표 5-1-20〉	사회서비스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5·7·2
〈표 5-2-1〉	본 조사에서 구성한 「사회서비스 영역별 세부 서비스 분류표」	6·7·2
〈표 5-2-2〉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주요 사업 대상 현황	9·7·2
〈표 5-2-3〉	수행 단위사업 수: 전체 사업체	1·8·2
〈표 5-2-4〉	수행 단위사업 수: 생활시설	1·8·2
〈표 5-2-5〉	수행 단위사업 수: 이용시설	1·8·2
〈표 5-2-6〉	수행 단위사업 수: 일반사업체	1·8·2
〈표 5-2-7〉	사회서비스 영역별 운영 사업체 현황(2013년): 전체 사업체	3·8·2
〈표 5-2-8〉	사회서비스 영역별 운영 사업체 현황(2009년): 전체 사업체	4·8·2
〈표 5-2-9〉	사회서비스 영역별 운영 사업체: 생활시설	5·8·2
〈표 5-2-10〉	사회서비스 영역별 운영 사업체: 이용시설	6·8·2
〈표 5-2-11〉	사회서비스 영역별 운영 사업체: 일반사업체	7·8·2
〈표 5-2-12〉	상담: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8·8·2
〈표 5-2-13〉	재활: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9·8·2
〈표 5-2-14〉	돌봄: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1·9·2
〈표 5-2-15〉	돌봄: 아동보육 및 보호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2·9·2
〈표 5-2-16〉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3·9·2
〈표 5-2-17〉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 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4·9·2
〈표 5-2-18〉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5·9·2

〈표 5-2-19〉 주거보호 및 지원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	6-9-2
〈표 5-2-20〉 문화 및 여가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	7-9-2
〈표 5-2-21〉 지역사회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	9-9-2
〈표 5-2-22〉 환경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	0-0-3
〈표 5-3-1〉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현황(2013년): 전체 사업체 .....	1-0-3
〈표 5-3-2〉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현황(2009년): 전체 사업체 .....	2-0-3
〈표 5-3-3〉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규모별 분포: 전체 사업체 .....	3-0-3
〈표 5-3-4〉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규모 분포: 생활시설 .....	4-0-3
〈표 5-3-5〉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규모 분포: 이용시설 .....	5-0-3
〈표 5-3-6〉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규모 분포: 일반사업체 .....	6-0-3
〈표 5-3-7〉 사업체 유형별 수입의 세부항목 비율 비교(2009 vs 2013): 전체 사업체 .....	8-0-3
〈표 5-3-8〉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현황: 생활시설 .....	9-0-3
〈표 5-3-9〉 사업체 유형별 수입의 세부항목 비율: 생활시설 .....	0-1-3
〈표 5-3-10〉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현황: 이용시설 .....	1-1-3
〈표 5-3-11〉 사업체 유형별 수입의 세부항목 비율: 이용시설 .....	1-1-3
〈표 5-3-12〉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현황: 일반사업체 .....	2-1-3
〈표 5-3-13〉 사업체 유형별 수입의 세부항목 비율: 일반사업체 .....	3-1-3
〈표 5-3-14〉 사업체 유형별 지출액 현황 비교(2009 vs 2013): 전체 사업체 .....	5-1-3
〈표 5-3-15〉 사업체 유형별 지출의 세부항목 비율 비교(2009 vs 2013): 전체 사업체 .....	6-1-3
〈표 5-3-16〉 사업체 유형별 지출액 현황 및 지출의 세부항목 비율: 생활시설 .....	7-1-3
〈표 5-3-17〉 사업체 유형별 지출액 현황 및 지출의 세부항목 비율: 이용시설 .....	8-1-3
〈표 5-3-18〉 사업체 유형별 지출액 현황 및 지출의 세부항목 비율: 일반사업체 .....	0-2-3
〈표 5-3-19〉 연간 바우처 총 이용자 수 .....	2-2-3
〈표 5-3-20〉 연간 바우처 총 매출액 .....	3-2-3
〈표 5-3-21〉 추가구매 및 일반구매자 보유 비율 .....	4-2-3
〈표 6-1-1〉 사업체 유형별 총취업자 현황 비교(2009 vs 2013): 전체 사업체 .....	9-2-3
〈표 6-1-2〉 사업체 유형별 총취업자 현황: 생활시설 .....	9-2-3
〈표 6-1-3〉 사업체 유형별 총취업자 현황: 이용시설 .....	0-3-3
〈표 6-1-4〉 사업체 유형별 총취업자 현황: 일반사업체 .....	1-3-3
〈표 6-1-5〉 사업체 유형별 직접고용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 비교(2009 vs 2013): 전체사업체 ....	3
〈표 6-1-6〉 사업체 유형별 직접고용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 생활시설 .....	4-3-3

〈표 6-1-7〉	사업체 유형별·직접고용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 이용시설 .....	5	3	3
〈표 6-1-8〉	사업체 유형별·직접고용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 일반사업체 .....	6	3	3
〈표 6-1-9〉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직접고용 종사자 현황 비교(2009 vs 2013): 전체사업체 ....	7	3	3
〈표 6-1-10〉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직접고용 종사자 현황: 생활시설 .....	9	3	3
〈표 6-1-11〉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직접고용 종사자 현황: 이용시설 .....	0	4	3
〈표 6-1-12〉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직접고용 종사자 현황: 일반사업체 .....	1	4	3
〈표 6-1-13〉	사업체 유형별 파트타임 종사자 현황 비교(2009 vs 2013): 전체 사업체 .....	3	4	3
〈표 6-1-14〉	사업체 유형별 파트타임 종사자 현황: 생활시설 .....	4	4	3
〈표 6-1-15〉	사업체 유형별 파트타임 종사자 현황: 이용시설 .....	5	4	3
〈표 6-1-16〉	사업체 유형별 파트타임 종사자 현황: 일반사업체 .....	5	4	3
〈표 6-1-17〉	사업체 유형별 간접고용 종사자 현황 비교(2009 vs 2013): 전체 사업체 .....	7	4	3
〈표 6-1-18〉	사업체 유형별 간접고용 종사자 현황: 생활시설 .....	8	4	3
〈표 6-1-19〉	사업체 유형별 간접고용 종사자 현황: 이용시설 .....	9	4	3
〈표 6-1-20〉	사업체 유형별 간접고용 종사자 현황: 일반사업체 .....	0	5	3
〈표 6-1-21〉	직종별 종사자 현황 비교(2009 vs 2013) .....	4	5	3
〈표 6-1-22〉	전문직-준전문직(직접서비스인력) 직종별 현황 .....	5	5	3
〈표 6-1-23〉	사회서비스 사업체 유형별·직종별 고용 인원 비교(2009 vs 2013) .....	6	5	3
〈표 6-1-24〉	사회서비스 사업체 고용 동향 비교(2009 vs 2013) .....	7	5	3
〈표 6-2-1〉	사업체 유형별 평균 복리후생제도 운영 수 .....	9	5	3
〈표 6-2-2〉	복리후생제도 운영 현황: 전체 사업체 .....	1	6	3
〈표 6-2-3〉	복리후생제도 운영 현황: 생활시설 .....	2	6	3
〈표 6-2-4〉	복리후생제도 운영 현황: 이용시설 .....	3	6	3
〈표 6-2-5〉	복리후생제도 운영 현황: 일반사업체 .....	4	6	3

## 그림 목차

[그림 1-2-1]	ESSPROS 체계의 개관 .....	4	4
------------	----------------------	---	---



## 제1장

# 국내외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관련 통계자료 생산 현황

제1절 국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관련 실태조사

제2절 국외 사회서비스 관련 지표 및 통계 생산 현황과 시사점



# 1

## 국내외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관련

### 통계자료 생산 현황 < <

#### 제1절 국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관련 실태조사

##### 1. 국내 사회서비스 수요 관련 실태조사

- 국내 사회서비스 부문의 수요 실태조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수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검토하였음
  - 검토 대상으로 포함한 실태조사는 사회복지 수요 부문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조사 및 통계청 승인 조사의 조건을 갖춘 실태조사에 한정
  -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나, 일부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의 지속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사회서비스 수요 부문 조사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정기 조사도 포함
  -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의 경우, 시계열 자료의 축적을 통해 사회서비스 관련 수요의 동태적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가. 유망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박세경 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2011년에 수행된 유망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는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현황을 분석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성과평가 등을 위한 기초통계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음
  - 유망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는 4개 전자바우처 사업(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장애인동재활치료서비스) 및 4개 유망사회서비스(노인맞춤형운동

처방서비스, 아동발달지원서비스,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문제 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이용경험자 및 비경험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조사

- 조사대상 8개 서비스 유형별로 유의할당을 실시하였으며, 서비스 내 이용자와 비경험자 비율을 3:7로 조정하여 조사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원이 표본대상을 직접 방문, 컴퓨터이용 개인면접조사(CAPI: Computer-Aided Personal Interview) 실시
- 서비스 이용경험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현황, 서비스 수용도 등을 질문하였으며, 비경험자의 경우는 서비스 인지도 문항이 추가로 포함

#### 나.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노인보건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 생산을 위해 실시되는 노인실태조사는 2004년 최초로 실시, 3년을 주기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조사는 2011년에 실시되었음

○ 2011년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는 63세 이상 노인 11,542명이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방문면접조사로 실시

- 주요 조사내용으로 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형태, 부모·형제·자매·친인척·친구·이웃과의 관계,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건강상태, 건강행태, 신체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수발, 경제상태, 경제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노후생활과 삶의 질, 생활환경, 인지기능과 관련 문항과 사회서비스 수요를 간접 확인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의 항목이 포함

○ 노인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 노인일자리사업,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치매조기검진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치매예방프로그램, 식사서비스, 경로우대, 노인의 현재 걱정 및 고민하는 상황, 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복지서비스, 필요한 노인용품 등에 대해 조사



#### 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1)

-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2011년에 최초로 실시된 조사로서 3년 주기로 진행되는 국가승인통계 실태조사임
- 중장기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실증적 자료에 입각한 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수립 기초자료 및 외국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조사 목적으로 제시
  - 2008년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부처 이관 후 ‘아동종합실태조사’로 변경되면서 청소년 부문은 ‘청소년종합실태조사’로 신규 실시
  - 전국 2,200가구의 조사 청소년 부모(주양육자) 2,200명과 가구내 대상 청소년인 만 9~24세 청소년 3,492명을 대상으로 통계청 전문조사원이 가구 방문 후 면접조사를 실시
-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는 양육, 생활환경, 안전 및 인권에 대한 조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건강, 인권, 사회·문화, 가정생활, 학교생활 및 방과후 활동, 진로·아르바이트 관련 조사로 구성
  -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항목 중 사회서비스 수요 관련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양육과 관련하여 양육에 대한 조언·정보획득 경로, 도움 경험 여부 등을 질문하였으며, 생활시설영역(근린생활시설)의 시설 접근성 등을 조사
  - 만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항목 중 사회서비스 수요 관련 주요 조사내용은 사회문화 영역에서 개인활동(문화예술, 자원봉사, 진로, 참여, 교류) 및 시설이용(수련관, 유스호스텔 등)관련 내용, 학교생활 및 방과 후 영역에서 방과 후 활동(보호자 없는 빈도, 방과 후 주요활동) 등

#### 라. 장애인실태조사(김성희 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장애인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승인지정통계로서 전국 장애인 수 및 장애 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함

○ 최근 조사는 2011년도에 실시되었으며,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에 이은 8회차 조사가 완료되고 14년도에 9차 조사 실시 예정

○ 제8차 장애인실태조사는 가구관별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와 사회복지시설 조사로 구분하여 진행

－ 장애인 개별 조사는 총 200개 조사지역의 가구 중 38,231가구에 대해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이들 가구원 중 장애인은 모두 6,010명

－ 한편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총 72,351명의 등록장애인이 조사에 포

○ 조사내용은 가구 및 장애인관별조사와 장애인 심층면접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서비스 수요 관련한 조사문항은 장애인 심층면접조사의 보건의료 영역, 장애인보조기구 영역, 복지서비스 영역에 포함

－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재활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구 영역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 소지여부 및 종류, 이용만족도,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종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지원 경험 여부 및 지원내용을 조사

－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이용경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경험,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

마. 가족실태조사(조희금 외, 여성가족부·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 한국 가족의 실상과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가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임

○ 2005년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가 실시

- 제2차 가족실태조사는 전국 2,500개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컴퓨터이용개인면접조사(CAPI) 방식의 일대일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
  - 응답 가구원은 총 4,754명으로 질문지는 가구대표용과 가구원용을 구분
  - 사회서비스 수요와 관련한 조사문항은 영유아 돌봄 영역에서 영유아의 교육·교육기관 이용에 관한 내용,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영역에서 저출산 문제해법의 우선순위, 배우자 출산 시 무급의 출산휴가제도 인지여부,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 육아휴직제도 이용방식,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여부 및 참여도, 가족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정도 등의 문항 포함

바. 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 보육실태조사는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서 2012년 실시된 제3차 보육실태조사는 가구조사와 보육시설조사(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음
- 보육실태조사 중 사회서비스 수요와 관련한 가구조사는 수요자의 다양한 보육·교육 관련 기관 및 서비스의 이용, 요구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보육시설 공급과 이용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보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정책수립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자료 생산에 목적
  - 제3차 보육실태조사의 가구조사는 가구주가 응답하는 가구조사와 아동이 응답하는 아동조사로 구분되며, 각각 2종의 조사표로 구성
  - 전국 300개 조사구로 영유아 가구 총 2,528가구에서 영아 1,802명, 유아 1,541명으로 총 3,343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별 조사 실시
  - 보육실태조사 중 가구조사는 사회서비스 수요와 관련한 조사문항은 보육·교육에 관한 의견으로 대상별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등 신규 정책 인지도,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관련 정보 제공처, 정책에 대한 만족도, 아이돌보미 인지 및 이용 경험 등에 대해 조사

- 아동조사의 경우는 보육 교육 이용 경험, 미취학 아동 하루 중 시간 단위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 미취학 아동 현재 보육 또는 교육 기관 이용 항목, 미취학 아동 요구도, 전체 아동 특기교육 학원 및 보습학원 이용, 전체 아동 개별·그룹 교육 지도 및 학습지 활용 교육 이용, 전체 아동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방과후 보육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수요와 관련한 조사문항이 포함

사. 유망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조사: 아동분야 유망사회서비스 시장조사 중심  
(이봉주 외, 보건복지가족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 유망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조사(아동분야 유망사회서비스 시장조사)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
- 조사방법은 첫 번째로는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외 아동관련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현황 파악과 함께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서비스의 개념정의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확립하였으며,
- 두 번째로는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여 6개 아동분야 유망사회서비스를 개발 및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 분야 사회서비스 실수요 추정을 위해 선정된 아동분야 유망사회서비스의 컨셉을 기반으로 시장조사를 실시
- 사례조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서울시 꿈나무 프로젝트, 삼성 포괄적 보육 서비스, 산후매니저 서비스, 방과후매니저 서비스,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미국 ABCD Activities, 미국, 호주 EIP, 미국 Parenting Education, 미국 CHIP(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호주 일시돌봄서비스, 캐나다 British Columbia 보육정보센터, 미국 Healthy Start Program, 스웨덴의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검토
- FGD(Focus Group Discussion)에서는 아동 연령에 따라 맞춤형 발달진단서비스, 진로탐색 서비스, 아동 건강생활 관리서비스, 직장여성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리더십 캠프 서비스, 일시 돌봄 서비스 등 6개 아동분야 유망사회서비스를 선정

- 마지막으로 유망사회서비스 시장조사는 전국 중 3 이하의 자녀가 있는 총 3,500가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
  - 사회서비스 수요와 관련한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 인지 및 이용실태 영역의 아동양육서비스 이용현황, 바우처 제도 인지 여부, 바우처 제도 이용 경험 등이 조사
  - 서비스 컨셉 평가 영역(6개 아동분야 유망사회서비스)에서 서비스 컨셉에 대한 전반적 느낌, 서비스 필요도, 서비스 차별화 정도,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최대 지불 의향 비율, 예상 서비스 이용 시기, 서비스별 이용 의향 순위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

〈표 1-1-1〉 국내 사회서비스 관련 수요 실태조사 현황

조사명	조사개요	서비스 수요관련 조사항목
유망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2011)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 이용, 조사원이 표본 대상 직접 방문하여 컴퓨터이용개인 면접조사(CAPI) 실시  조사대상 및 규모: - 4개 전자바우처 사업 및 4개 유망사회 서비스이용경험자 및 비경험자 3,000명	- 수요실태 조사 및 수요예측 대상으로 선정된 8개 유망사회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아동발달지원서비스,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이용경험, 인지도, 서비스 수용도, 서비스 수준 평가(내용, 가격 적정성 등)
노인실태조사 (2011)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방문면접조사  조사대상 및 규모: - 전국 거주 63세 이상 노인 11,542명 조사 완료	- 노인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 노인 일자리사업,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치매조기검진 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치매예방프로그램, 식사서비스, 경로우대, 노인의 현재 걱정 및 고민하는 상황, 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복지 서비스, 필요한 노인용품 등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2011)	조사방법: - 통계청 전문조사원 가구방문 후 면접 조사식(필요에 따라 자기기입식 병행)  조사대상 및 규모: - 청소년 자녀 있는 전국의 2,200가구의 주양육자 1인(2,200명), 가구내 9~24세 청소년 3,492명	주양육자용 - 양육영역(양육에 대한 조인·정보획득 경로, 도움 경험 여부 등) 및 생활시설영역(근린생활시설)  청소년용 - 사회문화 영역(개인활동(문화예술, 자원봉사, 진로, 참여, 교류) 및 시설이용(수련관, 유스 호텔 등), 학교생활 및 방과 후 영역: 방과 후 활동(보호자 없는 빈도, 방과 후 주요활동)

조사명	조사개요	서비스 수요관련 조사항목
장애인실태조사 (2011)	<p>조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개별조사: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li> <li>-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조사: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e음으로 파악</li> </ul> <p>조사대상 및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개별조사: 38,231가구의 6,010명의 장애인에 대해 조사 완료</li> <li>-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조사: 행복e음을 통해 총 72,351명 분석</li> </ul>	<p>장애인 심층면접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영역: 재활치료서비스 이용 현황</li> <li>- 장애인보조기구영역: 장애인보조기구 소지여부 및 종류, 이용만족도,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외부지원 경험 여부 및 지원내용</li> <li>- 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이용경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지 및 이용경험,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등</li> </ul>
가족실태조사 (2010)	<p>조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일대일 면접조사 진행(CAPI) 활용</li> </ul> <p>조사대상 및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의 일반 가구와 일반가구에 속한 15세 이상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2,500가구의 가구원 4,754명을 조사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저출산 문제해법의 우선순위, 배우자 출산 시 무급의 출산휴가제도 인지여부,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 육아휴직제도 이용방식,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여부 및 참여도, 가족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정도</li> </ul>
보육실태조사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2004 개정)에 따라 3년마다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와 보육시설조사로 구분)</li> </ul> <p>조사대상 및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이하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로서 지역특성에 따른 층화표집을 통해 총 2,528가구, 3,343명의 아동에 대한 조사 완료</li> </ul> <p>조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방문면접조사</li> </ul>	<p>가구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li> <li>- 미취학 아동 서비스 이용 및 요구</li> <li>-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요구</li> <li>- 시간제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li> <li>-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li> <li>- 보육정책 관련 인지 및 의견</li> <li>- 영유아보육법(2004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실시(가구조사와 보육시설조사로 구분)</li> </ul>
유망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조사: 아동분야 유망사회서비스 시장조사 중심 (2009)	<p>조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조사 통해 국내외 아동관련서비스 및 프로그램 현황 파악,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서비스의 개념정의 및 서비스 분류체계 확립</li> <li>-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여 6개 아동분야 유망사회서비스 개발 및 선정</li> <l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실수요 추정위해 선정된 아동분야 유망사회서비스 컨셉기반 시장조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아동분야 서비스 사례조사: 서울시 꿈나무 프로젝트, 삼성 포괄적 보육서비스, 산후매니저 서비스, 방과후매니저 서비스,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미국 ABCD Activities, 미국, 호주 EIP, 미국 Parenting Education, 미국 CHIP(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호주 일시돌봄서비스, 캐나다 British Columbia 보육정보센터, 미국 Healthy Start Program, 스웨덴의 아동돌봄서비스</li> </ul>

## 2. 국내 사회서비스 공급 관련 실태조사

□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과 관련한 국내 실태조사는 대부분 개별 서비스별로 수행되고 있으며, 제도 및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시설, 보육기관, 사회적기업과 같은 일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통계가 있으나 실태조사의 성격보다는 보

고통계의 형식을 띠고 있는 조사가 다수를 차지함<sup>1)</sup>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서비스 범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실태조사는 매우 드문 상황으로, 사회서비스부문의 공급 파악을 주요 목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강혜규 외, 2009)가 사회서비스 공급 관련 실태조사로는 유일
- 한편,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반적인 서비스업 관련 조사에서는 사회 서비스의 일부 영역이 여러 산업분류에 걸쳐 포함되고 있어서 사회서비스 영역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sup>2)</sup>
- 본 절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승인통계인 경제총조사, 서비스업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현황을 검토하였음

#### 가. 경제총조사

- 경제총조사는 5년으로 주기로 실시된 지정, 조사통계로서 2011년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 등을 통합하여 실시된 조사임
-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하여 통일된 조사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구조와 분포, 경영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부의 경제 및 산업별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평가의 기초자료 및 각종 통계의 모집단 자료, 국내총생산(GDP), 지역내총생산(GRDP), 산업연관표 작성의 기초자료, 월간 및 연간통계의 기준점(Bench-Mark) 자료, 소지역단위 통계작성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조사 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대분류(A~U) 중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 기관(U)을 제외한 산업의 모든 사업체(약 330만개)의 공통항목, 산업별 특성

1)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관련 실태조사로는 ‘보육실태조사(보육시설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사회적기업 성과평가 자료’ 등이 있음.

2) 한국표준산업분류(2009 개정)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는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주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교육서비스업(P), 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O) 분류에 포함될 수 있음. 그밖에 사업시설 관리 및 금융 및 보험업(K),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지원서비스업(N),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등에 일부 포함됨.

항목 등으로 구성

- 조사방법은 주로 임시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를 병행하며, 일부 업종은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

○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은 함께 묶어 공통조사표를 활용

- 관련 조사문항은 사업체명,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창설연월, 사업의 종류 및 종사자 수 등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자본금 및 유·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매출액·영업비용·영업이익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 나. 서비스업조사

□ 서비스업조사는 1988년 ‘서비스업통계조사’로 시작되었으며, 2008년부터 ‘서비스업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산업대분류 중 전국의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약 60,000개 사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및 구조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조사 목적으로 함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가 원칙이며, 자기기입식 조사 및 인터넷 조사 병행
- 조사항목은 공통항목과 특성항목으로 구분되는데, 공통항목으로는 사업체 일반사항,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영업개월 수, 일일 평균 영업시간, 사업체 정기휴무일수,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 등을 질문하며, 특성항목은 이용인원 수, 직능별 종사자 수, 전산장비 보유대수, 무형자산 보유건수 등의 내용 포함



## 다. 서비스업동향조사

- 서비스업동향조사는 2000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지정, 조사(표본)통계로서 2008년에는 그 명칭이 ‘서비스업동태조사’에서 ‘서비스업동향조사’로 변경되었음
- 매월 작성되는 서비스업동향조사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조사 목적으로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3개 대분류에 속하는 사업체 중 서비스업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약 9,200개 대상처(사업체, 기업체, 기관 등)를 대상으로 하며,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
- － 조사담당자가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하는 방법과 조사담당자 기입방식 및 응답자 기입 방식을 병행
- － 조사표는 업종에 따라 총 5종으로 구성되며(2009년), 기본항목과 업종별 특성항목으로 구분하고 기본항목에서는 사업체 명, 행정구역분류부호, 산업분류,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고유번호, 월간 영업일수, 월말 종사자 수, 월간매출액(판매액), 비고(매출액 증감사유 및 사업체 특이사항)에 관한 항목 및 업종별 특성항목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특성항목은 월간 매출액 등 지수 계열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업종별 1~2개 항목을 포함

〈표 1-1-2〉 국내 사회서비스 관련 공급 실태조사 현황

	경제총조사(통계청)	서비스업조사(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통계청)
조사 목적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연구소 등의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영역)을 비롯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지난 1년간의 경영실태 및 구조변화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과 연구·분석의 기초자료 제공	- 서비스업 부문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 경제정책과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경기 동향 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서비스업생산지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조사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중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J.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서비스업, O.교육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별 사업체 대상 조사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서비스 부문 대분류에 포함되는 사업체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서비스업, O.교육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11개 대분류에 포함되는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포함되지만,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S.가사서비스업은 제외
조사 규모		-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표본으로 선정된 약 49,000개 사업체 (사회복지사업체는 수용복지시설과 비수용복지시설로 구분)	- 재화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 조사대상 포괄업종(11개 산업대분류)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수행 대상처(사업체, 기업체, 기관 등) 10,000개소
조사 방법	- 타계식 면접조사, 인터넷조사 병행	- 면접조사 원칙, 자기기입식 병행	- 면접조사 이후 자기기입식, 인터넷 조사 병행(CASI)
조사 주기	- 5년 주기	- 매년	- 매월
주요 조사 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체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체 창설연월, 사업의 종류(사업내용), 종사자수, 영업기간,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 사업장 건물면적, 사업실적(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내용, 조직형태, 연간 영업개월수, 일일영업시간, 사업체 정기 휴무일수,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사업체 건물 연면적, 영업실적(매출액, 영업 비용 등), 전자상거래 활용여부, 체인점 가입여부	- 사업체 구분, 월간영업일수, 종사자수, 사업의 종류, 월간 매출액 등
비고	- 기존 「서비스업총조사」가 2010년 8월 「경제총조사」로 통합	- 기존 「서비스업통계조사」가 「서비스업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 제2절 국외 사회서비스 관련 지표 및 통계 생산 현황과 시사점

- 본 절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국제기구들의 통계지표 및 각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사회서비스에 대한 통계 생산은 국가별로 수집하는 항목이나 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국제 비교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실정
- 따라서 거시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를 파악하며, 다양한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기구에서의 사회부문 통계생산 현황과 세부적으로 국외 사례로는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즈)과 미국을 검토

### 1. 국제기구 사회서비스 관련 지표 및 통계

#### 가. 국제연합(UN)의 사회지표

- 국제연합(UN)의 통계 생산은 주로 인구 및 경제 관련 중심으로 진행
- 국제연합(UN)의 193개 회원국에 대한 인구주택 총조사, 국제교역, 국민계정 등과 관련된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부문에 대한 통계자료는 다소 제한되어 있는 실정
- 그나마 사회보장, 복지, 소득불평등 및 빈곤 등과 관련된 자료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보건관련 자료는 국제보건기구(WHO) 등이 주로 담당하고 있고, 보건사회 부문과 관련된 통계지표는 주로 UN의 산하기구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통계를 생산
- 〈표 1-2-1〉에서 볼 수 있듯이, UN은 독자적인 사회지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OECD 사회지표와 비교할 때 그 범위와 지표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
- 193개 회원국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UN의 사회지표 체계는 인구,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 5개 영역과 20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

- 사회지표는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며, 주로 사회서비스의 ‘수요’측면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인구의 구성(노인·아동의 비율, 부양비율 등), 인구변동, 출산율 관련 지표, 실업 및 고용관련 지표 등은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서비스(사회복지 일반)에 대한 개략적 수요 규모의 추정을 가능케 하는 지표

〈표 1-2-1〉 UN의 사회지표

영역	하위영역	주요 지표
1. 인구	1a. 인구규모	총 인구 및 성별 인구, 성비
	1b. 인구의 구성	15세미만, 60세 이상 인구비율, 노인 성비
	1c. 인구성장 및 분포	연간 인구증가율, 도시인구비율, 이민자 성비
2. 보건	2a. 기대수명	출생시 기대수명, 성별 60세 기준 기대여명
	2b. 모성 및 영아 사망률	모성사망률, 영아 사망률, 5세미만 사망률
	2c. 출산	청소년 출산율, 합계출산율
	2d. 피임율	가임기 여성 피임율
	2e. HIV/AIDS	HIV/AIDS 보균자, 보균자중 여성비율
3. 주거	3a. 방 1개당 사람 수	도시/농촌지역의 방 1개당 평균 사람 수
	3b. 거주지	도시/농촌지역의 인구분포 및 인구변동율
	3c. 급수 및 위생	도시/농촌지역의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및 위생
4. 교육	4a. 문자해독율	성별 성인 및 15-24세 문자해독율
	4b. 초등교육	성별 초등교육 등록율 및 여학생 비율
	4c. 중등교육	성별 중등교육 등록율 및 여학생 비율
	4d. 고등교육	성별 고등교육 등록율 및 여학생 비율
	4e. 재학년수	성별 재학년수(school life expectancy)
5. 고용	5a. 소득 및 경제활동	성별 15세 이상 경제활동율, 1인당 GDP
	5b. 파트타임 고용	성별 성인 파트타임 고용비율 및 여성비율
	5c. 고용상태별 고용분포	성별 고용인, 피고용인, 무급가족종사 비율
	5d. 성인실업	성별 실업율

자료: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products/socind/default.htm> (검색일 2013. 11. 18)

## 나.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통계

-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조사는 전 세계 사회보장에 대한 통계적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SSI 질문지를 보내어 사회보장지출과 수입, 재정, 수혜자와 급여수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이렇듯 국제노동기구(ILO)는 빈곤 및 소득불평등, 사회보장지출 등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계지표를 생산하거나 공표하지는 않음
- 사회복지지출의 경우에도 ILO기준 보다는 OECD 기준의 추계가 더 많이 쓰이며, ILO 통계자료는 현금급여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기에도 제한적인 상황
- 다만, ILO의 고유 영역인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폭넓은 노동통계 지표를 수집, 생산하며, ILO의 노동통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는 항목을 추출 시도 가능
- ILO 노동통계의 구조 및 지표체계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며 한국의 노동통계 역시 ILO의 기준과 지표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ILO 노동통계는 <표 1-2-2>와 같이,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근로시간, 임금, 노동비용, 소비자물가지수, 산업재해, 노사분규 등 노동시장·노동조건·노사관계의 차원을 포괄
  - 특히 연령, 성별, 직종, 업종별로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표 획득이 가능
  - 업종(산업) 분류에 따른 노동통계 지표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노동통계가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 및 노동관련 정보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의미
  - 또한 이러한 사회서비스 업종(산업)의 노동시장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지표는 사회서비스의 ‘종사자’ 측면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서

비스업 피고용인의 고용상태(정규직 vs 비정규직),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이 이에 해당

- 아울러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규모 역시 사회서비스 ‘공급’ 측면을 나타내는 통계항목으로 분류 가능

〈표 1-2-2〉 ILO 노동통계의 주요 지표

영역	주요 지표
경제활동인구	연령, 성, 교육수준, 산업, 직종별 경제활동인구
고용	총 고용, 경제활동, 직종, 산업별 고용; 제조업 고용
	성별 및 세부 직종별 고용
	공공부문 고용
실업	총 실업,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직종별 실업
근로시간	경제활동별 근로시간, 제조업 근로시간
	159개 직종별 근로시간
	근로시간별 고용 분포
해외노동력	해외근로자 성비, 성별 및 연령별 해외구직자
청년근로	청년실업 및 청년고용
	학력 저조한 청년 고용 및 실업
임금	경제활동별 임금수준, 제조업 임금수준
	159개 직종별 임금수준
노동비용	제조업의 노동비용
수익 및 고용관련 소득	근로자 월평균 소득, 소득분포, 자영업 근로자 월평균 근로 소득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상실일수, 산업재해율, 경제활동별 상실일수
파업 및 직장폐쇄	파업, 직장폐쇄, 참여노동자, 노동상실일 등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단체교섭 담보비율(고용주 성비, 근로자 성비, 경제활동 기관 부문 등)
	노동조합 밀도(전체고용자 성비, 근로자 성비, 경제활동, 기관부문 등)
빈곤노동자	빈곤노동자 성비, 저임금가구주근로자 성비
근로 감독	근로 감독비율, 근로지 감독 등록여부, 근로지 감독자 방문횟수

자료: [http://www.ilo.org/ilostat/faces/home/statisticaldata/data\\_by\\_subject?\\_afz.ctrl-state=klqkne4\\_4&afzLoop=87632581634000](http://www.ilo.org/ilostat/faces/home/statisticaldata/data_by_subject?_afz.ctrl-state=klqkne4_4&afzLoop=87632581634000)

(검색일 2013. 11. 18)

## 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사회복지지출과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SOCX) 체계는 국제기구가 생산하는 통계 자료 중에서 현금급여와 서비스(현물)급여를 구분하여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추계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원임

○ OECD는 사회복지지출구조를 9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표 1-2-3 참조)

- 1. 노령; 2. 유족; 3. 근로무능력; 4. 보건; 5. 가족; 6. 적극적 노동시장(ALMP); 7. 실업; 8. 주거; 9. 기타 사회정책을 의미
- 각 영역별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현금성 급여와 사회서비스(현물) 급여로 추계되고 있지만, 6. 적극적 노동시장의 경우 현금과 서비스 급여를 구분하지 않으며, 7. 실업의 경우 현물급여는 해당사항이 없음

○ 9개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현물급여의 지출규모가 추계되고 있지만, 대상별 사회서비스 급여체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 노령: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 근로무능력: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 보건: 보건의료 서비스
- 가족: 아동 및 여성 대상 사회서비스
- 적극적 노동시장: 노동복지 및 고용관련 서비스
- 기타: 저소득층, 이주민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 이러한 OECD의 사회복지 기능별 분류체계에 의하여 한국의 사회서비스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표 1-2-4〉와 같음

- 결국, OECD 사회복지지출 추계 체계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급여의 지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전체 사회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서비스의 비중, 그리고 기능별 혹은 대상집단별 사회서비스 지출규모를 가늠할 수 있음
- OECD의 사회지표체계의 틀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규모는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한 ‘사회(국가)의 대응’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표 1-2-3〉 OECD 사회복지 지출의 영역과 분류

기능별 영역	급여 형태	하위 영역
1. 노령	1.1. 현금급여	1.1.1. 연금 1.1.2. 조기퇴직연금 1.1.3. 기타 현금급여
	1.2. 현물급여	1.2.1. 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 1.2.2. 기타 현물급여
2. 유족	2.1. 현금급여	2.1.1. 연금 2.1.2. 기타 현금급여
	2.2. 현물급여	2.2.1. 장례비 2.2.2. 기타 현물급여
3. 근로무능력 (장애, 산재, 질병)	3.1. 현금급여	3.1.1. 장애연금 3.1.2. 연금(산업재해) 3.1.3. 유급질병휴가(산업재해) 3.1.4. 유급질병휴가(기타 질병수당) 3.1.5. 기타 현금급여
	3.2. 현물급여	3.2.1. 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 3.2.2. 재활서비스 3.2.3. 기타 현물급여
4. 보건	4.1. 현금급여	
	4.2. 현물급여	
5. 가족	5.1. 현금급여	5.1.1. 가족수당 5.1.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5.1.3. 기타 현금급여
	5.2. 현물급여	5.2.1. 아동 주간보호/가사서비스 5.2.2. 기타 현물급여
6. 적극적 노동시장		6.0.1. PES와 행정 6.0.2. 직업훈련 6.0.3. 일자리 순환 및 일자리나누기 6.0.4. 고용인센티브 6.0.5. 지원고용 및 재활 6.0.6.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6.0.7. 취업인센티브
7. 실업	7.1. 현금급여	7.1.1. 실업보상/해고수당 7.1.2. 노동시장의 환경으로 인한 조기퇴직
	7.2. 현물급여	
8. 주거	8.1. 현금급여	
	8.2. 현물급여	8.2.1. 주거보조 8.2.2. 기타 현물급여
9. 기타 사회정책	9.1. 현금급여	9.1.1. 소득지원 9.1.2. 기타 현금급여
	9.2. 현물급여	9.2.1. 소득지원 9.2.2. 기타 현물급여

출처: OECD(2007); 고경환 외(2011) 156-157pp. 재인용

주: 한국의 경우 '7. 실업'에는 현물급여가 존재하지 않으며, '8. 주거'에서 해당되는 급여 역시 존재하지 않음.



〈표 1-2-4〉 OECD 사회복지지출의 영역과 분류

영역	하위 영역	프로그램 또는 하위항목(보건) 예시
1. 노령	2.1.0 시설보호/재가서비스	
	2.1.1 노인복지시설	
	2.1.2 노인재가서비스	노인돌보미바우처, 독거노인도우미과건 등
	2.1.3 노인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양로요양시설 등
	2.1.4 노인생활시설	노인생활시설기능 보강, 노인그룹홈신축지원
	2.1.5 노인인적자원개발사업	노인일자리지원,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2.1.6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만 제외
	2.2.0 기타현물급여	
	2.2.1 노인교통비	노인교통비
	2.2.2 노인요금할인	고속철도, 일반철도, 지하철, 고궁릉입장료
2. 유족	2.2.3 공공임대주택건설비	전가구 중 노인가구 비율에 대한 건설비
	2.2.4 기타	장수노인 기념품 증정, 노인의 날 행사
3. 근로 무능력	2.1.0 장제비용	
	2.1.1 건강보험의 장제비용	
	2.2.0 기타 현물급여	
	2.1.0 시설보호/가사보조서비스	
	2.1.1 장애인복지시설	
	2.1.2 장애인에 대한 자본이전	시각장애인안마센터, 장애인편의증진지원 등
	2.1.3 장애인 보호시설	
	2.1.4 장애인사회활동지원	
	2.1.5 장애인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생활시설
	2.1.6 장애인가사보조서비스	장애인가족도우미, 교육비, 휴식지원
	2.1.7 장애인인적자원개발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2.1.8 장애인사회지원	장애인단체,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
	2.1.9 공공임대주택건설비	전가구 중 장애인가구 비율에 대한 건설비
	2.1.10 기타	
4. 보건	2.2.0 재활서비스	
	2.2.1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보강
	2.2.2 재활훈련 및 치료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2.3.0 기타현물급여	
	2.3.1 장애인 보조기구지원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보장구구입 지원
	2.3.2 장애인학교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병원학교 운영 지원
	2.3.3 장애인교육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
	2.3.4 장애인 요금감면	철도, 지하철, TV시청료, 통행료
	2.3.5 기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등
4. 보건	치료서비스	입원치료, 외래치료, 재가치료 서비스
	재활서비스	입원재활, 외래재활, 재가재활 서비스

영역	하위 영역	프로그램 또는 하위항목(보건) 예시
	장기간호케어서비스	입원장기간호케어, 재가장기간호케어 서비스
	보조의료서비스	임상병리검사, 진단영상, 환자수송/응급구조
	외래용의료제화	약품/기타의료소모품, 치료용구/기타의료내구재
	예방/공중보건	모자보건/가족계획·상담, 학교보건, 전염병예방
	보건관리/건강보험	일반정부보건관리, 민간건강보험관리
	보건관련기능	공급기관 고정자본형성,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5. 가족	2.1.0 시설보호/가사보조서비스	
	2.1.1 아동청소년 주간보호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2.1.2 보육시설(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종사자인건비, 평가인증운영비
	2.1.3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유아교육비지원, 대체교사인건비 등
	2.1.4 가족이용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5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긴급전화, 상담소 운영비 지원
	2.1.6 가사보조서비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2.1.7 여성인적자원개발	여성일자리창출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2.2.0 기타 현물서비스	
	2.2.1 아동복지시설	
	2.2.2 아동양육시설지원	
	2.2.3 아동시설	
	2.2.4 가족복지시설	
	2.2.5 아동청소년 생활시설	아동시설확충, 요보호아동 그룹홈지원
	2.2.6 여성 및 가족 생활시설	한부모가족시설, 한부모가족단체지원
	2.2.7 아동청소년 보호	위기청소년지원, 인터넷중독피료, 청소년상담
	2.2.8 기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회서비스관리센터
6. ALMP	0.1.0 PES와 행정	직업안정기관, 직업상담원, 고용안정사업 등
	0.2.0 직업훈련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새터민 직업훈련
	0.3.0 일자리 순환 및 나누기	교대제전환지원금, 무급휴업근로자지원 등
	0.4.0 고용인센티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지원금
	0.5.0 지원고용 및 재활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0.6.0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청년인턴,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창업보육
	0.7.0 취업인센티브	창업점포지원, 청년벤처지원, 기술창업아카데미
9. 기타	2.1.0 공공부조	
	2.1.1 푸드뱅크	푸드뱅크,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
	2.2.0 기타현물서비스	
	2.2.1 급여감면	
	2.2.2 부랑인지원	
	2.2.3 사할린동포및위안부지원	사할린귀국동포입소시설, 일본위안부피해자지원
	2.2.4 새터민	북한이탈청소년지원, 교육훈련
	2.2.5 자활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자활공동체
	2.2.6 자연재해	이재민구호, 피해복구비

영역	하위 영역	프로그램 또는 하위항목(보건) 예시
	2.2.7 저소득가구 요금감면	TV 시청료 감면
	2.2.8 공공주택임대건설비	공공임대주택건설비
	2.2.9 기타	차상위층양곡할인, 긴급복지지원 등

출처: 고경환 외(2011) <표 2-4> 와 <표 2-11> 에서 재구성

- 한편, <표 1-2-5> 는 제도의 형태별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서비스는 시설보호, 재가복지, 근로복지, 보건의료, 주거, 교육복지 등으로 구분
- － 공공부문과 법정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지출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지출비중은 1990년 9.3%에서 2009년 16.8%로 증가

<표 1-2-5> 한국 사회복지지출 중 사회서비스 관련 지출

(단위: 십억원, %)

	1990	1995	2000	2005	2007	2009
합계	5,900 (100)	14,542 (100)	33,407 (100)	60,842 (100)	79,967 (100)	110,548 (100)
공공부조	599 (10.2)	1,042 (7.2)	3,199 (9.6)	8,462 (13.9)	10,990 (13.7)	16,223 (14.7)
사회보장	355 (6.0)	711 (4.9)	1,051 (3.1)	1,756 (2.9)	2,128 (2.7)	2,502 (2.3)
사회복지서비스	547 (9.3)	1,446 (9.9)	4,884 (14.6)	8,716 (14.3)	13,395 (16.8)	18,531 (16.8)
시설보호	39	291	545	161	758	4,338
재가복지	104	424	1,152	3,129	5,536	5,130
근로복지	51	166	1,862	269	252	204
보건의료	353	565	1,119	1,808	2,659	3,510
주택보급	—	—	—	2,776	3,159	3,621
교육복지	—	—	206	573	1,031	1,137
교통통신 감면	—	—	—	—	—	581
아동발달계좌	—	—	—	—	—	10
사회보험	3,896 (66.0)	10,068 (69.2)	19,808 (59.3)	36,955 (60.7)	47,445 (59.3)	64,513 (58.4)
민간복지서비스	—	55 (0.4)	272 (0.8)	715 (1.2)	915 (1.1)	557 (0.5)
기업복지	502 (8.5)	1,220 (8.4)	4,193 (12.6)	4,240 (7.0)	5,093 (6.4)	8,211 (7.4)

출처: 고경환 외(2011) <부표 16> 및 <부표 18> 에서 재구성.

## 라. 유럽연합의 사회부문 통계

### 1) EUROSTAT(Eurostat Regional Yearbook 2013)

□ EUROSTAT은 유럽연합의 공식 통계체계로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경제, 인구, 보건, 교육, 노동시장, 관광, 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대한 대표적 통계항목을 인터넷과 통계연보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음

○ 매년 발간되는 통계연보는 EUROSTAT의 15개 통계 영역의 주요 지표에 대해서 표와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EUROSTAT 통계연보의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음

#### [참고]

##### 〈EUROSTAT 통계연보의 구성: 2013〉

1. 경제 (Economy)
2. 인구 (Population)
3. 보건 (Health)
4. 교육 (Education)
5. 노동시장 (Labour Market)
6. 구조적 경영통계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7. 관광 (Tourism)
8. 정보사회 (Information society)
9. 농업 (Agriculture)
10. 운송 (Transport)
11. 과학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12. 유럽 국가(European cities)
13. 도시지역 (Cities and metro regions)
14. 소득과 삶의 조건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5. 지역 발전 (Rural Development)

○ 2013년 EUROSTAT 통계연보에 나타난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항목은 다음

〈표 1-3-6〉에 제시

- 인구영역의 경우 광범위한 사회서비스 수요 관련 통계 항목들이 포함된다. 주요 연령대별 인구 구조와 관련된 각종 부양비 지표, 80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의 비율 등이 주요 통계지표에 포함
- 이밖에도 결혼과 이혼, 출산, 사망률 및 기대수명, 이민 등에 관한 통상적인 통계 항목이 제공

- 보건의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의 보건지출, 기능별 보건지출, 제공자별 보건지출 등을 사회서비스와 관련
  - 이 가운데 기능별 보건지출은 재활과 장기요양 지출이 구분 가능한 기능별 범주로 세분화
  - 더불어 제공자별 보건지출에서는 병원, 공중보건소 등과 함께 장기요양 및 양로시설(long-term nursing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을 통한 보건지출 규모를 파악 가능
- 교육의 영역에서는 평생교육이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평생교육과 관련된 통계지표로 25~64세 사이 성인의 평생교육참가율과 평생교육참가 이유(동기)에 대한 조사결과가 함께 수록
-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고용율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과 관련된 통계지표들이 제공
  - 특히 성별로 살펴본 고용율에서는 여성의 고용율 증가가 사회서비스의 잠재적 수요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 필요
  - 이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과 관련된 통계항목에서는 GDP 대비 공공지출의 수준과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별(훈련, 순환고용 및 일자리나누기,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고용보조 및 재활, 직접고용창출, 창업지원 등) 참가자 수가 포함
- 소득과 삶의 조건영역에서는 빈곤율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관한 주요 지표가 포함
  - 빈곤율 관련 지표들은 빈곤율, 빈곤선 수준, 사회보장 급여 수급 이후의 빈곤율 변화 등을 제시
  - 삶과 관련된 소득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지표의 수는 많지 않아,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가구 구조, 과밀화된 가구, 과부담된 주거비 정도를 포함
  - 이밖에 연금에 대한 지출, 급여 대체율 등이 포함

〈표 1-2-6〉 EUROSTAT 2013 통계연보의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항목

하위영역	통계항목
2. 인구	주요 연령대별(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구조
	인구 연령구조 지표: 노령부양비, 총부양비, 80세 이상 비율 등
	결혼 및 이혼: 결혼율 및 이혼율
	출산율: 합계출산율
	사망률 및 기대수명: 영아 사망율, 출생시 및 65세 시점 기대수명
	이민: 이민자수, 시민권 취득 건수
3. 보건	보건지출: 공공 및 민간보건지출, 기능별 보건지출, 제공자별 보건지출
4. 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참가율(25-64세), 참가이유
5. 노동시장	고용/실업율: 성별 고용율 및 실업율
	적극적 노동시장: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공공지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별 참가자 수
14. 소득과 삶의 조건	빈곤율: 빈곤율 및 빈곤선 수준, 이전 후 빈곤율
	사회적 배제,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가구, 주거비 과부담,

자료: Eurostat Regional Yearbook 2013

□ EUROSTAT에서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서비스 산업)의 각종 통계지표를 포함 (하위 영역 '6.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에서 Industrial and Service specialization).

○ 그러나 다음의 EUROSTAT의 서비스 산업의 범위(하위 분류)에서 보듯, 사회 서비스(공공행정, 공공서비스, 교육서비스 등)는 하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데, EUROSTAT이 정의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 **[참고]** —

〈EUROSTAT의 서비스 산업 분류〉

- 숙박 및 외식서비스 (Accommodation & food services)
- 광고 및 시장조사 (Advertising & market research)
- 항공운송 (Air transport)
- 건축 및 공학기술 (Architectural & Engineering act; technical testing & analysis)
- 영화, 영상, TV, 음반, 공연 서비스 (Cinema, video & TV production, sound record. & music publish)
-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Computer programming, consultancy & related activities)
- 고용서비스 (Employment activities)
- 정보서비스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 육상수송 (Land transport & transport via pipelines)
- 법률, 회계, 경영자문 (Legal,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ancy activities)
- 자동차 교역 (Motor trades)
- 사무행정 및 보조 (Office admin., office support & other business support)
- 기타 전문 과학기술 활동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 technical activities)

- 우편 및 택배 (Postal and courier activities)
- 프로그래밍과 보도 (Programming & broadcasting activities)
- 출판 (Publishing activities)
- 소매 (Retail trade)
- 보안 및 조사 (Security & investigation activities)
- 통신 (Telecommunications)
- 여행 및 관광 (Travel agency, tour operator reservation & related activities)
- 등대 및 운송보조 (Warehousing & support activities for transportation)
- 물수송 (Water transport)
- 도매 (Wholesale 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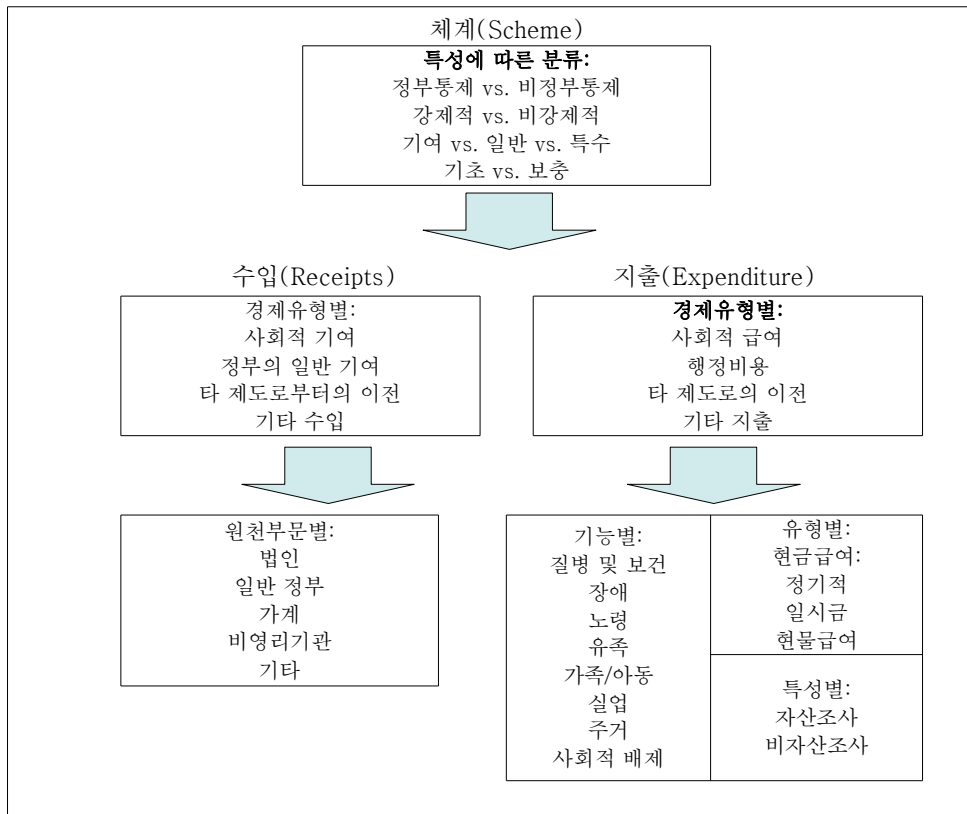
## 2) 통합 사회적 보호 통계체계(The 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Social Protection Statistics, ESSPROS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일반통계 체계인 EUROSTAT 외에도, 사회 급여(social protection benefits)에 특화된 통합 사회적 보호 통계 체계(ESSPROS)라는 사회복지 관련 통계체계를 구축해 왔음

○ ESSPROS는 사회 급여 및 이와 관련된 재정을 다루고, 국제비교를 촉진하며, 유럽연합 회원국의 사회적 보호 현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적 급여란 다수의 위험이나 욕구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구(households)에 이전되는 현금이나 현물을 의미
-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란 정의된 위험이나 욕구에 대한 개인이나 가구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공적, 사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개입을 의미하지만, 개인적 수단(individual arrangement)과 동시적인 호혜성(simultaneous reciprocal)이 나타나지 않는 사회적 성격을 강조(EUROSTAT, 2011).
- 전술된 위험이나 욕구의 범주는 1.질병/보건; 2. 장애; 3.노령; 4.유족; 5.가족/아동; 6.실업; 7.주거; 8.기타 사회적 배제로 구분된다. 또한, 급여의 형태는 현금급여, 지출변제(reimbursement of expenditure), 현물과 서비스 등으로 구분

[그림 1-2-1] ESSPROS 체계의 개관



○ [그림 1-2-1]과 같이 ESSPROS 체계는 크게 수입(receipts)과 지출(expenditure)

측면의 통계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수입은 사회보험 등의 사회적 기여; 정부의 일반재정; 다른 제도로부터의 이전; 기타로 구분되고, 지출은 사회적 급여; 행정비용; 다른 체계로의 이전; 기타 지출로 구분
- 사회적 급여는 다시 자산조사와 비자산조사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하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benefits in kind)로, 현금 급여는 다시 정기적 급여(periodic)와 일시금(lump sum)으로 분류
- 이에 따라 가족/아동 영역에서의 통계표를 제시하면 <표 1-3-7> 과 같음



〈표 1-2-7〉 ESSPROS의 사회적 보호 지출 통계의 (예: 가족/아동)

사회적 보호 지출
비자산조사 (Non Means-tested)
현금 (Cash benefits)
정기적 급여 (Periodic)
아동출생에 의한 소득보장 (Income maintenance in the event of children)
부모휴가급여 (Parental leave benefit)
아동/가족수당 (Family or child allowance)
기타 (Other cash periodic benefits)
일시적 급여 (Lump sum)
출산급여 (Birth grant)
부모휴가급여 (Parental leave benefit)
기타 (other cash lump sum benefits)
현물 (Benefits in kind)
아동보육 (Child day care)
시설서비스 (Accommodation)
재가서비스 (Home help)
기타현물급여 (Other benefits in kind)
자산조사 (Means-tested)
현금 (Cash benefits)
현물 (Benefits in kind)

### 3) 사회적 보호에 관한 상호정보체계(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 MISSOC)

- 유럽연합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상호정보체계(MISSOC)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총 31개 유럽 국가의 사회복지제도(social protection system)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주기적으로 최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간 비교가 가능
- MISSOC은 사회복지제도의 영역을 12개 하위 영역과 300개 이상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MISSOC의 하위 영역은 다음과 같음

〈표 1-2-8〉 MISSOC의 하위 영역

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 MISSOC	
- 재정 (financing)	- 유족 (survivors)
- 보건 (healthcare)	- 산업재해 (employment injuries and occupational disease)
- 질병 (sickness)	- 실업 (unemployment)
- 모성 (maternity)	- 가족 (family)
- 무능력 (invalidity)	- 최저생활보장 (guaranteed minimum resources)
- 노령 (old-age)	- 장기요양 (long-term care)

○ MISSOC은 기능상으로 구분된 각 하위 영역별로 법적 근거(applicable statutory basis), 기본 원칙(basic principle), 적용범위(field of application), 급여조건(conditions), 재원(taxation and social contribution)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밖에도 각 하위 영역의 특성별, 세부 급여항목 별로 부가적인 내용 포함

- 예를 들어, 12개 하위 영역 가운데 사회서비스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장기요양 영역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benefits in kind’(현물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서비스 형태의 급여로, 재가서비스(Home care), 준시설급여(Semi-residential care), 시설급여(Residential care), 기타(Other benefits) 등이 포함

## [참고]

## 〈MISSOC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 XII. 장기요양서비스

적용가능한 법적근거

기본 원칙

보장되는 위험(정의)

적용 영역

급여조건

1. 자격요건 기간

2. 자산조사

3. 최소의존수준

4. 연령

5. 급여기간

조직/기구 (Organization)

1. 평가자

2. 제공자/비공식돌봄제공자/전문적서비스제공자

3. 돌봄의존의 평가(지표와 범주)

현물급여

1. 재가보호

2. 준시설보호

3. 시설보호

4. 기타급여

현금급여

1. 금액

2. 재량적 활용

급여의 결합

1. 혼합급여

2. 현물, 현금급여간의 자유로운 선택

돌봄제공자에 대한 급여

이용자 요금

조세

출처 <http://www.missoc.org/MISSOC/INFORMATIONBASE/COMPARATIVETABLES/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earch.jsp>

(검색일: 2013.11.18)

- MISSOC은 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각국의 상황과 제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비교 정책적 차원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자료원이지만 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인 수적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음
  - 일례로 급여대상자의 수, 프로그램별 지출액, 서비스 제공 기관의 수, 서비스 충족율과 같은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적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 MISSOC은 제도의 내용에 대한 기술을 목적으로 제도의 법적 근거, 자격요건, 급여의 내용,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급여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면에서 의의

## 2. 영국과 미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 생산 현황

### 가. 영국

- 영국의 국가 통계 체계는 각 분야와 영역별로 세분화된 조사와 통계 수집체계를 하나의 포털로 연결시키는 형태임
- 이러한 영국의 국가통계포털(UK National Statistics) 체계는 다음과 같은 10개 하위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하위 주제 중에서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보건 및 사회적 보호(Health and Social Care)’

#### [참고]

##### 〈영국 국가통계포털의 하위 주제(영역)〉

- |  |                                  |
|--|----------------------------------|
| - 농업 및 환경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
| - 산업 및 에너지 (Business and Energy)               |                                  |
| - 아동, 교육 및 기술 (Children, Education and Skills) |                                  |
| - 범죄 및 사법 (Crime and Justice)                  | - 정부 (Government)                |
| - 보건 및 사회적 보호 (Health and Social Care)         |                                  |
| - 노동시장 (Labour Market)                         | - 인간과 장소 (People and Places)     |
| - 인구 (Population)                              | - 여행 및 운송 (Travel and Transport) |

- ‘보건 및 사회적 보호’는 다시 보건서비스체계(Health Care System), 전문적 보건 서비스(Specialist Health Services), 국민의 건강상태(Health of the Population), 사회적 보호(Social Care)로 구성되는데, 영국에서는 보건을 제외한 사회서비스 영역은 ‘사회적 보호(Social Care)’ 영역에 포함
- 또한 사회적 보호 영역은 다시 2개의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수요측면의 사회서비스 통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보호 대상자(Social Care Client)’와 공급측면의 통계항목을 모아 놓은 ‘사회적 보호 인력, 재정 및 성과(Social Care Personnel, Finance, and Performance)’으로 구성
- 이렇게 크게 2가지 측면으로 분류되어 있는 영국의 사회서비스 통계체계는 공급 및 수요측면 모두 각각 수 십여 가지의 통계조사와 발간물을 연결시키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 뚜렷한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통계생산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님
- 영국의 사회서비스 통계생산은 일차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에 의해 관련 자료가 수집되고 통계보고(statistical return) 형식으로 중앙 통계생산 기관에 의해 취합되고 있음
- 영국의 사회서비스는 크게 성인 대상 서비스와 아동대상 서비스로 구분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교육부에서 통계생산을 담당
  - 성인은 18~64세 사이의 비노인 일반성인과 65세 이상 노인으로 다시 구분되며,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인 사회서비스 통계는 국민보건서비스 정보센터(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에서 주로 작성, 공표
-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공식적 국가통계체계(National Statistics)로 분류된 대표적 발간물을 중심으로 검토, 논의
-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4개 지방으로 구분되는데,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우 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및 통계 생산체계도 동일하지 않음

- 따라서, 영국 사례연구에서는 잉글랜드의 성인대상 서비스 통계지표 항목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독특하게 광역 지방정부 수준에서 독자적인 사회서비스 통계체계를 갖춘 웨일즈 지방의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Social Service Statistics, Wales 2011-12)’를 분석

## 1) 잉글랜드의 성인대상 사회서비스 통계

- 영국의 사회서비스 통계는 크게 ‘돌봄대상자(Social Care Client)’, 즉 수요자와 관련된 통계 항목들과,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재정 및 성과(Social Care Personnel, Finance, and Performance)’로 크게 분류됨
- 잉글랜드 성인대상 사회서비스 통계지표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인사회서비스: 잉글랜드의 사회서비스 지출 및 단위비용(Personal Social Services: Expenditure and Unit Costs - England)’, ‘대인사회서비스: 잉글랜드의 사회서비스 부문의 제공인력(Personal Social Services: Staffs of Social Services Departments, England)’ 통계보고서를 통해 사회서비스 재정과 인력에 관한 통계지표들을 검토
- 또한, 수요자 측면과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통계 항목들은 ‘잉글랜드 지역 사회보호통계(Community Care Statistics 2010-11: Social Services Activity Report, England)’ 보고서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베이 보고서인 ‘성인대상 대인사회서비스 서베이 보고서(Personal Social Services Survey of Adult Social Carers in England, 2012-13)’를 검토하였음
- 먼저 〈표 1-2-9〉은 잉글랜드 성인대상 사회서비스의 지출 및 단위비용에 관한 통계 지표들을 요약한 것으로, 대인사회서비스 지출 및 단위비용과 관련된 통계 지표들은 다시 지출액, 지출추이, 급여 유형별 지출, 보조금, 단위비용 등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 통계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관은 NHS의 보건 및 사회서비스 정보센터(Heal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임

- 첫째, 지출액에서는 서비스 대상별 대인사회서비스 지출과 관련된 통계지표들과, 그 변화율, 그리고 서비스 대상 및 급여유형별 대인사회서비스 총 지출액 등을 보여주는 통계지표들이 포함
  - 둘째, 지출추이 하위 영역에서는 사회서비스 총 지출액의 연도별 추이, 서비스 대상집단별 지출액의 연도별 추이, 통계보고서 작성 시점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사회서비스 지출액 추이 등을 나타내는 통계지표들이 포함
  - 셋째, 급여유형별 지출로는 주거시설급여 및 주간보호/재가서비스 지출액을 대상 유형과 시설 및 서비스 유형별로 구분한 지출액을 주요 통계지표로 구성
  - 넷째, 보조금은 사회서비스의 주요 공급자인 비영리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서비스 대상집단별로 비영리 기관에 지급된 보조금 추정액을 통계지표로 설정
  - 마지막으로 단위비용은 성인대상 사회서비스 이용자 1인당 1주일간 소요된 비용을 단가로 표시한 통계지표이며 노인 및 일반 성인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별 단위비용과 함께 그 연도별 추이를 통계지표로 제시
    - 재정에 관한 지표로 정부의 총 지출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단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 또한 비영리 부문에 대한 보조금 규모에 대한 통계도 따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
- 〈표 1-2-10〉은 성인대상 사회서비스의 제공인력에 관한 통계지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공인력에 대한 통계지표는 다시 조직수준의 특성, 일자리의 개별 특성, 사회사업가와 전문치료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직의 특성 등 총 3개 하위 영역으로 분류

〈표 1-2-9〉 잉글랜드의 사회서비스 통계지표: 대인사회서비스 지출 및 단위비용

하위 영역	통계지표	주요 범주 및 구분
지출액	대인사회서비스 지출	서비스 대상(노인, 장애인 등) 별 총비용, 수입, 순지출액
	대인사회서비스 지출의 변화율	서비스 대상(노인, 장애인 등) 별 총비용, 수입, 순지출액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하위 영역	통계지표	주요 범주 및 구분
	급여유형별 총 지출액	서비스 대상(노인, 장애인 등) 및 급여유형(관리운영,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 별 사회서비스 지출액
지출 추이	사회서비스 총 지출액 추이	총 지출 및 순지출액의 연도별 추이
	서비스 대상별 지출액 추이	서비스 대상(노인, 장애인 등) 별 사회서비스 지출액 연도별 추이
	불변가격기준 지출액 추이	2010-11년 불변가격 기준 서비스 대상(노인, 장애인 등) 별 사회서비스 지출액 연도별 추이
급여 유형별 지출	주거시설급여 지출액	노인 (요양 및 양로) 및 일반 성인 (지체 장애, 학습장애, 정신지체) 시설유형별 총 지출액 및 순 지출액
	주간보호 및 재가서비스 지출액	노인 (직접 지불, 주간보호, 재가, 급식 등) 및 일반 성인 (지체 장애, 학습장애, 정신지체)에 대한 총 지출액 및 순 지출액
보조금	비영리 기관에 대한 보조금	서비스 대상(노인, 장애인 등)별 비영리 기관에 대한 보조금 추정액
단위 비용	성인대상 사회서비스 단위비용	노인 및 일반 성인에 대한 세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별 단위 가격 (1인, 1주일 당 서비스 단위비용)
	성인대상 사회서비스 단위비용의 연도별 추이	노인 및 일반 성인에 대한 세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별 단위 가격 (1인, 1주일 당 서비스 단위비용)의 최근 3년 추이. 실질 가격 기준

자료: Personal Social Services Survey of Adult Carer in England: Expenditure and Unit Costs 2012-13,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 첫째, 제공인력의 조직수준 특성을 보여주는 통계지표로는 직종, 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일자리의 수와 비율, 제공인력의 수와 전일제 환산 시 일자리의 수, 공급주체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일자리 수의 변화율, 이직·채용·결원 등 고용변동에 관한 지표, 고용지위별 분포와 서비스 제공 능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 포함
- 둘째, 일자리의 개별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는 성별·연령·인종별 사회서비스 종사인력의 비율과 급여와 근로조건 등 고용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통계지표들로 구성
- 셋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에 관한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사회사업가와 전문 치료사의 수와 일자리 규모, 고용변동, 인구학적 특성 및 고용관련 세부사항 등이 포함
- 대체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통계지표들은 사회서비스 고용의 규모와 질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 제공인력과 전문가 직종의 특성을 분리하여 제공인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인력과 관련된 통계지표 역시 NHS의 보건 및 사회서비스 정보센터에서 담당

〈표 1-2-10〉 잉글랜드의 사회서비스 통계지표: 제공인력

하위 영역	통계지표	주요 범주 및 구분
조직 수준	총 일자리 수	직종(직접 제공, 전문가, 관리자 등) 및 서비스 유형(시설, 주간보호, 지역사회서비스, 재가서비스 등) 별 성인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수 및 비율
	인력의 수	직종 및 서비스 유형 별 성인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수 및 비율
	전일제 시간환산 일자리 수	직종별 성인대상 사회서비스의 전일제 시간 환산 일자리 비율; 환산 시간 기준 총 일자리의 직종별 비율
	전체 성인 서비스 인력	공급 주체(지방정부, 영리, 시장, NHS 등) 별 성인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율
	전년 대비 비교	성인대상 사회서비스 총 일자리 수 및 직종별 일자리 수의 전년 대비 비교 및 변화율
	고용 변동	직종별 이직율, 신규 채용 비율 및 결원율
	고용 지위	고용 지위(상용직, 임시직, 기타) 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율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유형(재가, 주간보호, 식사지원 등) 별 서비스 제공 능력, 실제 이용자(서비스) 수 및 활용율
개별 특성	인구학적 특성	성인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성별, 연령별, 인종별 비율
	고용 관련 세부 사항	세부 직급별 연평균 급여, 연평균 질병기간, 직급별 전일제/반일제 고용비율
사회 사업가 및 전문 치료사	일자리 및 환산 일자리 수	성인대상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회사업가와 전문치료사의 총 일자리 및 전일제 환산 일자리 수
	전년 대비 비교	사회사업가와 전문치료사 일자리 수의 전년대비 비교 및 변화율
	고용 변동	사회사업가와 전문치료사의 이직율, 신규 채용 비율 및 결원율
	인구학적 특성	사회사업가와 전문치료사의 성별, 연령별, 인종별 비율
	고용 관련 세부 사항	사회사업가와 전문치료사의 연간 급여 분포 및 평균 질병기간

자료: Personal Social Services Survey of Adult Carer in England: Expenditure and Unit Costs 2012-13,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 〈표 1-2-11〉 은 성인대상 지역사회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통계 지표들로, 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성인대상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포함

○ 이 영역은 서비스 접근성, 서비스 패키지,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시설보호 및 돌봄제공자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NHS의 보건



및 사회서비스 정보센터에서 해당 통계보고서를 발간

- 첫째, 서비스 접근성은 새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뢰, 사정,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지표들로 구성
- 둘째, 서비스 패키지는 사정완료 시점에서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기 까지 소요된 시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이용자의 인종별 분포 등의 통계지표들이 포함
- 셋째, 지역사회기반서비스는 연령 및 세부 프로그램별 이용자의 수, 재가서비스 제공시간 및 1인당 연간 이용시간, 인종별 분포 등 서비스 이용자들이 어떠한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들로 구성
- 넷째, 시설보호는 시설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별 분포, 입소자의 수 및 인구대비 비율, 시설보호 유형별 이용자 비율, 위탁가정 및 공동가정 서비스 이용자 현황 등을 보여주는 통계지표들이 포함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가족·친지나 이웃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제공자의 수와 특성, 그리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돌봄제공자의 수와 연령별 분포 등을 보여주는 통계항목들 포함

○ 이러한 5개 하위영역에 걸친 지역사회서비스 활동을 나타내는 통계지표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 발생 시점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성 및 사정관련 지표들을 포함

- 실제로 제공받는 서비스 시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비공식적 돌봄제공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특징 내포

〈표 1-2-11〉 잉글랜드의 사회서비스 통계지표: 사회서비스 활동

하위 영역	통계지표	주요 범주 및 구분
서비스 접근성	의뢰건수(referrals)	새로운 클라이언트와의 서비스 계약 건수, 추가 조사나 사정으 로의 의뢰건수
	사정완료까지의 대기 시간	최초 계약에서 사정 완료까지 소요된 시간(일수) 범주 별 클라 이언트의 수와 비율 - 클라이언트 연령 (전체, 일반 성인, 노인) 및 클라이언트 유형 (지체장애, 학습장애, 정신지체, 기타 등)
	사정(assessment)	클라이언트 연령 별 사정 완료된 클라이언트의 수와 비율; 사정 완료 클라이언트의 유형 및 인종별 비율
	심사(review)	클라이언트 연령별 심사완료된 서비스 이용자의 수와 비율; 심 사완료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 유형별 비율
	심사건수(review events)	클라이언트 연령별 서비스 이용자의 심사건수 및 비율
서비스 패키지	사정에서 서비스 제공까지의 대기기간	연령별 (노인 및 일반 성인) 신규 클라이언트의 사정완료시점에 서 서비스 제공까지 소요된 기간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 비스의 유형	서비스 유형 (지역사회기반, 시설보호, 요양보호 등) 및 연령별 서비스 이용자의 수
	서비스 이용자의 인종별 분포	연령별 (노인 및 일반 성인) 서비스 이용자의 인종별 분포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 이용자특성별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연령별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이용자의 수; 연령별 및 세부 프로 그램(재가, 주간보호, 급식, 단기보호 등) 별 서비스 이용자의 수; 직접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급받는 서비스 이용자의 수
	재가보호	부문(지방정부, 비영리) 별 재가서비스 제공 총 시간; 서비스 이 용자 1인당 연간 재가서비스 이용시간; 방문 회수 별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
	직접 서비스 이용 보조	지방정부의 직접 서비스 이용보조를 받는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 - 연령별, 클라이언트 유형별, 인종별 분포
시설 보호	등록된 시설서비스 유형	시설 서비스 유형(지방정부 운영, 비영리 주거, 비영리 요양) 별 거주인의 수; 연령별 시설서비스 이용자 비율; 클라이언트 유형 별 시설서비스 이용자 비율
	입소(Admission)	주거 및 요양시설 영구 입소자의 수, 클라이언트 유형별 비율; 인구 10만 명 당 영구입소자의 수 (노인 및 일반 성인)
	시설보호 수준의 변화	시설보호 유형(영구 입소, 일시에서 영구입소로의 전환, 영구 이 전(주거에서 요양 또는 요양에서 주거)) 별 이용자의 비율
	성인위탁 및 공동가정	클라이언트 유형 및 연령별 성인위탁 혹은 공동가정 이용자 수, 영구입소자 수
돌봄 제공자	돌봄제공자의 사정 및 심사	돌봄제공자의 연령별, 클라이언트 유형별 사정 혹은 심사받은 돌봄제공자의 수
	돌봄제공자에 대한 서비스	돌봄제공자의 연령별, 서비스 지원받은 돌봄제공자의 수와 비 율; 클라이언트 유형별 서비스 지원받은 돌봄제공자의 수

자료: Personal Social Services Survey of Adult Carer in England: Expenditure and Unit Costs 2012-13,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 마지막으로 〈표 1-2-12〉는 성인대상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 만족도 등 이용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제시된 통계지표들로 요약

○ 이 조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조사 결과는 삶의 질, 서비스 만족도, 존엄성, 정보습득, 안전, 건강과 웰빙, 주거 및 거주환경, 타인으로 부터의 도움 현황 등 총 8개 하위영역에 걸친 다양한 통계지표들로 산출

- 첫째, 삶의 질 영역은 전반적 삶의 질, 영역별 삶의 질, 삶의 질 점수의 분포, 다른 영역과의 관계, 인구학적 특성별 삶의 질, 삶의 질 문항간의 교차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파악 가능
- 둘째, 서비스 만족도 영역은 제공받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만족도의 최근 4년간 추이, 만족도와 다른 문항간의 관계, 인구학적 특성별 만족도, 제공받은 서비스 유형별 만족도 등의 통계지표들을 포함
- 셋째, 존엄성 영역은 사회서비스와 클라이언트의 존엄성과 관련된 인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관련 문항의 응답 범주별 분포와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분포를 제시
- 넷째, 정보 영역은 사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와 조언을 습득할 수 있는 정도, 인구학적 특성별 정보 습득의 용이성 분포, 타항목과의 관계 등의 지표들로 구성
- 다섯째, 안전 영역은 가정 안과 바깥에서 학대나 신체적 공격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함을 느끼는 지에 관한 것으로, 전반적인 인식의 정도,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 타 문항과의 관계 등의 지표들이 포함
- 여섯째, 건강과 웰빙 영역은 서비스 이용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인구학적 특성별 건강상태, 타문항과의 관계 지표들과 함께, 고통/불편 및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지표, 일상생활동작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들과 함께 구성
- 일곱째, 주택 및 근교의 거주환경 영역은 주택의 구조가 적절한지 그리고 동네와 근교를 잘 돌아다닐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인구학적 특성 및

타 문항과의 관계에 대한 지표 역시 포함

- 마지막으로, 타인의 도움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이용자의 수와 함께, 인구학적 특성과 다른 문항과의 관계를 교차시켜 통계지표를 산출

○ 이러한 통계지표들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공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넘어,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와 전반적의 삶의 질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에 따른 복지적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

〈표 1-2-12〉 잉글랜드의 사회서비스 통계지표: 서비스 이용자 서베이

하위 영역	통계지표	주요 범주 및 구분
삶의 질	전반적 삶의 질	전반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범주(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 7점 척도) 별 응답자 분포
	영역별 삶의 질	일상생활통제정도, 자기관리, 음식, 주거, 안전, 사회적 접촉, 일, 존엄성 등 각 영역별 인식점수 분포
	삶의 질 결합 점수 분포	8개 하위 영역 합산 점수의 분포 - 전체, 연령별, 성별, 인종별, 클라이언트 유형별
	삶의 질과 타 문항과의 관계	삶의 질과 타문항 응답 분포와의 관계 - 만족도, 자기통제, 안전, 건강상태
	인구학적 특성별 삶의 질	연령별, 성별, 인종별, 클라이언트 유형별, 서비스 유형별, 전반적 삶의 질 범주 별 분포
	하위 영역 문항 간의 관계	8개 하위 영역 간 응답분포 교차표
서비스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제공받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나타내는 범주(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족까지 7점 척도) 별 응답자 분포
	전반적 만족도 추이	사회서비스 만족도 범주별 응답자 분포의 최근 4년간 추이
	만족도와 타 문항과의 관계	만족도와 타문항 응답 분포와의 관계 - 자기통제, 자기관리, 음식, 주거, 안전 등 삶의 질 하위영역
	인구학적 특성별 만족도	연령별, 성별, 인종별, 클라이언트 유형별, 서비스 유형별, 전반적 서비스 만족도 범주별 분포
	서비스 유형별 만족도	제공받은 서비스 유형(주거시설, 요양, 재가, 주간보호, 급식, 단기보호 등) 별 서비스 만족도
존엄성	관련 질문별 응답분포	사회서비스와 클라이언트 존엄성과 관련된 인식을 측정.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에 대한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서비스를 받을 때 존중받고 있는지 등 2개 질문 문항별 응답분포; 이 질문 응답 분포에 대한 교차표
	인구학적 특성별 존엄성 인식	연령별, 성별, 인종별, 클라이언트 유형별 존엄성 문항 범주별 분포

하위 영역	통계지표	주요 범주 및 구분
정보	정보와 조언의 습득 용이성	정보와 조언을 습득할 수 있는 정도(매우 용이함에서 매우 어려움까지 4점 척도)에 대한 응답범주별 분포
	인구학적 특성별 정보와 조언의 습득 용이성	연령별, 성별, 인종별, 클라이언트 유형별 정보와 조언 습득의 용이성 범주별 분포
	타문항과의 관계	정보와 조언 습득 용이성과 타문항과의 관계 - 서비스 만족도, 삶의 질, 자기통제 등
안전	안전에 대한 인식	가정 안과 밖에서 학대, 신체적 공격 등과 관련된 위협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안전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범주(매우 안전에서 전혀 안전함 느낄 수 없음까지 4점 척도)별 응답분포
	인구학적 특성별 안전	연령별, 성별, 인종별, 클라이언트 유형별 안전에 대한 인식 범주별 분포
	안전과 타문항과의 관계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타문항과의 관계 - 서비스 만족도, 삶의 질, 자기통제 등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과 웰빙	전반적 건강상태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 5점 척도) 범주별 응답분포
	인구학적 특성별 건강상태	연령별, 성별, 인종별, 클라이언트 유형별 건강상태
	건강상태와 타문항과의 관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과 타문항과의 관계 - 서비스 만족도, 삶의 질, 자기통제, 음식 등
	고통/불편 및 불안/우울	고통/불편 및 불안/우울 정도를 나타내는 범주(매우 심함에서 전혀 없음까지 3점 척도) 별 응답분포
	일상생활동작(ADLs)	일상생활동작 8개 지표별 응답(쉽게 가능, 어려움, 전혀 할 수 없음 등 3점 척도) 분포
주택 및 근교의 구조	주택 구조 및 근교 접근성	주택 구조가 욕구 충족에 적절한지, 집에서 나와 동네를 잘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 등 2개 질문 문항별 응답분포
	인구학적 특성별 주택 구조 및 근교 접근성	연령별, 성별, 인종별, 클라이언트 유형별 주택 구조 및 근교 접근성 응답분포
	타 문항과의 관계	주택 구조 및 근교 접근성과 타문항과의 관계 - 서비스 만족도, 삶의 질, 일상생활동작지표
타인의 도움	전반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는 정도	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는 서비스 이용자의 수; 추가적인 보호나 지원을 구매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수
	인구학적 특성별 타인의 도움 받는 정도	연령별, 성별, 인종별, 클라이언트 유형별 타인의 정기적 도움이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수
	타 문항과의 관계	타인의 정기적 도움이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과 타문항과의 관계 - 삶의 질 범주 및 삶의 질 평균점수

자료: Personal Social Services Survey of Adult Carer in England: Expenditure and Unit Costs 2012-13,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 2) 웨일즈의 사회서비스 통계

□ 영국 본토인 브리튼 섬 서쪽에 위치한 웨일즈 자치정부는 광역지방의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사회서비스 통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웨일즈 정부는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며 매년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 (Social Service Statistics, Wales 2011-12)’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체계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 대상 집단별로 아동, 성인, 신체/감각장애, 학습장애, 정신건강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를 6번째 하위 영역으로 살펴보았음

### [참고]

####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의 하위영역 구성〉

1. 아동 (Children)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인 (Adults receiving services)
3. 신체/감각 장애 (Physical/sensory disability)
4. 학습장애 (Learning disability)
5. 정신건강 (Mental health)
6. 제공인력 (Staffing)

○ 먼저 〈표 1-2-13〉는 아동영역에 해당하는 21개의 통계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표들은

- 첫째, 보호아동의 수에 대한 지표로 연령 및 성별 보호아동 수, 배정된 보호유형별 보호아동 수, 1년간 배정된 보호 장소의 개수에 따른 보호아동 수, 위탁유형별 보호아동 수, 법적지위별 보호아동 수, 인종별 보호아동 수, 보호중단 사유별 보호중단 아동 수, 배정된 보호유형별 일시보호대상 아동 수 등을 포함
- 둘째, 입양과 관련된 지표들로는 성별, 위탁가정 입양 여부별 아동 수, 아동의 입양시점 연령별 아동 수, 아동의 연령별 입양 또는 보호 장소에 배정까지 소요된 시간 등
- 셋째, 보호중단 관련 지표에는 교육수준별 16세 이후 보호중단 아동 수, 주거 및 활동유형별 19세 아동보호 만료자의 수 등을 포함

- 넷째는 요보호 아동 및 아동보호등록자에 대한 통계로서, 요보호아동의 연령별, 보호유형별 아동 수 및 비율, 연령별 아동보호체계에 등록된 아동 수 및 비율, 학대유형별 아동보호체계에 등록된 아동 수 및 비율 등
- 이외에도 학습장애로 등록된 아동의 보호형태별 아동 수, 위탁가정 부모 및 위탁서비스 건수, 사적기관에 의해 연계된 위탁서비스 이용 아동 수, 1989년 아동보호법에 의하여 감독이 명령된 아동의 수 등이 아동영역의 통계지표들로 포함

〈표 1-2-13〉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체계의 하위 지표: 아동

통계지표	주요 범주 및 구분	작성기관/출처
보호아동 수, 연령 및 성별	성별, 연령별 아동 수 및 아동 1만명당 보호아동 수	SSDA903 <sup>1)</sup>
보호아동 수, 보호배정별	보호배정별 (시설, 입양, 위탁가정 등) 아동 수 및 비율	SSDA903 <sup>1)</sup>
보호아동의 보호배정	1년간 배정된 보호장소의 수에 따른 아동 수 및 비율	SSDA903 <sup>1)</sup>
위탁유형별 보호아동	위탁유형(친척, 지자체 의뢰, 기관의뢰) 및 위치별 (지자체 내, 외부) 아동 수	SSDA903 <sup>1)</sup>
보호아동 수, 법적지위별	아동복지법, 보호명령, 기타 경우 등 아동 보호근거에 따른 아동 수 및 비율	SSDA903 <sup>1)</sup>
보호아동 수, 인종별	백인, 혼혈, 아시아계, 흑인, 기타 등 인종유형별 아동 수 및 비율	SSDA903 <sup>1)</sup>
보호중단아동, 사유별	입양, 가정복귀, 독립가정 등 보호중단사유별 아동 수 및 비율	SSDA903 <sup>1)</sup>
일시보호아동, 보호배정별	위탁, 지역사회가정, 기타 등의 보호장소 배정별 아동 수	SSDA903 <sup>1)</sup>
입양	성별, 위탁가정 입양 여부별 아동 수	SSDA903 <sup>1)</sup> , AD1
입양, 아동의 입양시점 연령별	아동의 입양시점 연령별 아동 수 및 비율	SSDA903 <sup>1)</sup> , AD1
보호아동 수, 입양소요기간	아동의 연령별, 입양 및 기타 보호장소의 배정까지 소요된 시간 (일수)	AD1
16세 이후 보호중단 아동, 교육수준별	16세 이후 보호가 중단된 아동의 최종 교육수준별 아동 수	OC1 <sup>2)</sup>
16세 이후 보호 중단된 아동의 교육수준	16세 이후 보호가 중단된 아동의 교육수준별 아동의 성별 분포	OC1 <sup>2)</sup>
19세 아동보호 만료자, 주거 및 활동별	주거 및 활동유형 (고용, 훈련 등)에 따른 19세 아동보호 만료자들의 수	OC3 <sup>3)</sup>
요보호아동, 연령 및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의 연령별, 보호유형별 아동 수 및 비율	CIN census
아동보호등록자, 연령별	연령별 아동보호체계에 등록된 아동 수 및 비율	PM1 <sup>4)</sup>

통계지표	주요 범주 및 구분	작성기관/출처
아동보호등록자, 학대유형별	학대유형별 아동보호체계에 등록된 아동 수	PM1 <sup>4)</sup>
학습장애 아동	학습장애로 등록된 아동의 보호형태 별 아동 수	SSDA901 <sup>5)</sup>
위탁가정 부모 및 위탁서비스 건수	지방정부에 의해 승인된 위탁부모 및 이들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위탁서비스 건수	SSDA904 <sup>6)</sup>
사적 위탁서비스	사적기관에 의해 연계된 위탁보호서비스 이용 아동 수	SSDA904 <sup>6)</sup>
1989년 아동보호법에 의한 감독명령 아동 수	1989년 아동보호법에 의해 감독이 명령된 아동의 수	PM1 <sup>4)</sup>

주: 1) Statistical return on children looked after by the local authority

2) Statistical return on educational qualifications of children looked after by local authorities who leave care

3) Statistical return on children looked after by local authorities who leave care on their 19th birthday

4) Statistical return on performance management – children's services

5) Statistical return on the register of persons with learning disabilities

6) Statistical return on fostering

자료: Social Service Statistics Wales 2011-12

○ 〈표 1-2-14〉는 성인 영역에 해당하는 4개의 통계지표들을 요약·제시

- 첫째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성인 클라이언트의 수로서 서비스 유형(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지방정부의 주거시설서비스, 민간부문 주거시설 서비스, 요양시설 등)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 18세 이상에서 64세 미만 사이의 일반 성인에 대한 서비스와 65세 이상 노인을 구분하여 통계표를 구성
- 둘째, 지역사회기반 사회서비스는 재가주간보호·일시보호·급식 등 지역사회서비스의 세부 프로그램별 클라이언트의 수를 일반 성인과 노인으로 구분하여 제공
- 셋째, 주거 및 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통계지표는 양로시설 및 주거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수를 일반성인과 노인으로 분류하여 제공
- 마지막으로 재가서비스는 1주일 당 제공받는 서비스 시간 별 클라이언트의 수를 일반 성인과 노인으로 구분하여 통계표가 구성



〈표 1-2-14〉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체계의 하위 지표: 성인

통계지표	주요 범주 및 구분	작성기관/출처
서비스 제공받는 성인	사회서비스 유형별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지방정부의 주거 시설서비스, 민간부문 주거시설서비스, 요양시설 등) 클라이언트의 수, 65세 이상 노인 및 18~64세 성인으로 구분	PM2 <sup>1)</sup>
지역사회기반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세부 프로그램(재가, 주간보호, 일시보호, 급식 등) 별 클라이언트의 수, 일반 성인과 노인 구분.	PM2 <sup>1)</sup>
주거 및 요양시설 서비스	양로시설 및 주거시설 클라이언트의 수, 일반 성인과 노인 구분,	PM2 <sup>1)</sup>
재가서비스	주당 서비스 시간별 (5시간 미만, 5~10시간, 10~15시간, 20시간 이상) 재가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수, 일반 성인과 노인 구분	PM2 <sup>1)</sup>

주: 1) Statistical return on performance management – adults' services

자료: Social Service Statistics Wales 2011-12

○ 〈표 1-2-15〉 은 신체 및 감각장애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지표들을 요약 제시한 것

- 첫째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등 감각장애 유형별로 등록된 장애인의 수
- 둘째, 신체 및 감각장애인에게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장애인 차량 배지를 제공한 것을 기반으로 장애인 차량용 배지 등록건수를 장애인 개인 및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으로 구분하여 파악
- 셋째 서비스 유형(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지방정부의 주거시설서비스, 민간 부문 주거시설 서비스, 요양시설 등)별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신체 및 감각 장애인의 수를 제시
- 넷째는 지역사회서비스 세부 프로그램(재가, 주간보호, 일시보호, 급식 등) 별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신체 및 감각장애인의 수를 제공
- 마지막은 요양시설 및 주거시설 서비스를 제공받는 신체 및 감각장애인의 수를 파악

〈표 1-2-15〉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체계의 하위 지표: 신체 및 감각장애

통계지표	주요 범주 및 구분	작성기관/출처
등록 감각장애인	감각장애 유형별(시각, 청각 등) 등록장애인 수	SSDA900 <sup>1)</sup>
장애인 차량 배지 배부	신체 및 감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차량 배지 등록건 수, 개인 및 기관 구분	PM2 <sup>2)</sup>
서비스 제공받는 육체/감각장애인	사회서비스 유형별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지방정부의 주거시설서비스, 민간부문 주거시설서비스, 요양시설 등) 신체/감각장애인 수	PM2 <sup>2)</sup>
지역사회기반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세부 프로그램(재가, 주간보호, 일시보호, 급식 등) 별 신체/감각장애인 수.	PM2 <sup>2)</sup>
주거 및 요양시설 서비스	요양시설 및 주거시설 육체/감각장애인 수 및 인구 1만 명 당 신체/감각장애인 수	PM2 <sup>2)</sup>

주: 1) Statistical return on the register of physically disabled persons

2) Statistical return on performance management - adults' services

자료: Social Service Statistics Wales 2011-12

○ 〈표 1-2-16〉 은 학습장애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지표들을 요약

- 첫째로 등록된 학습장애인의 수를 거주 유형(지역사회 거주, 보건시설, 지방정부 주거시설, 민간의 주거시설 등)별로 구분하여 제공
- 둘째는 학습장애인을 연령별로 16세 미만, 16~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그 수를 집계
- 셋째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학습장애인들의 수를 세부적인 거주 유형(자에서 혼자 거주, 가족과 동거, 위탁가정, 보호주택 등)별로 구분
- 넷째로 서비스 유형(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지방정부의 주거시설서비스, 민간부문 주거시설 서비스, 요양시설 등) 별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습장애인의 수를 제시
- 다섯째는 지역사회서비스 세부 프로그램(재가, 주간보호, 일시보호, 급식 등) 별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습장애인의 수를 파악하였다. 여섯째는 요양시설 및 주거시설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습장애인의 수를 인구 1만 명 당 비율로 표시한 지표

〈표 1-2-16〉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체계의 하위 지표: 학습장애

통계지표	주요 범주 및 구분	작성기관/출처
등록 학습장애인	거주 유형별(지역사회, 보건시설, 지방정부 주거시설, 민간 주거시설 등) 학습장애인 수	SSDA901 <sup>1)</sup>
연령별 학습장애인	연령별 (16세 미만, 16-64세, 65세 이상) 학습장애인 수	SSDA901 <sup>1)</sup>
지역사회 거주 학습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유형별 (자가, 가족과 동거, 위탁가정, 보호 주택 등) 학습장애인 수	SSDA901 <sup>1)</sup>
서비스 제공받는 학습장애인	사회서비스 유형별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지방정부의 주거시설서비스, 민간부문 주거시설서비스, 요양시설 등) 학습장애인 수	PM2 <sup>2)</sup>
지역사회기반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세부 프로그램(재가, 주간보호, 일시보호, 급식 등) 별 학습장애인 수	PM2 <sup>2)</sup>
주거 및 요양시설 서비스	양로시설 및 주거시설 육체/감각장애인 수 및 인구 1만명 당 학습장애인 수	PM2 <sup>2)</sup>

주: 1) Statistical return on the register of persons with learning disabilities

2) Statistical return on performance management – adults' services

자료: Social Service Statistics Wales 2011-12

○ 〈표 1-2-17〉 은 정신건강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통계지표들

- 첫째, 1983년 정신보건법상 지방정부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정신질환자의 수를 전체 환자 수와 입원대상 환자 수로 구분하여 집계
- 둘째, 서비스 유형(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지방정부의 주거시설서비스, 민간 부문 주거시설 서비스, 요양시설 등) 별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신장애인의 수
- 셋째, 지역사회서비스 세부 프로그램(재가, 주간보호, 일시보호, 급식 등) 별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신장애인의 수를 파악
- 넷째는 인구 1만명 당 주거 및 요양시설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신장애인의 수

□ 한편, 웨일즈의 사회서비스 통계체계는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다양한 관련 지표 역시 포함하고 있음(〈표 1-2-18〉 참조)

○ 첫째, 서비스 유형별로 구분된 사회서비스 인력의 수, 자격증 및 고용형태별로 구분된 직원의 수, 고용유형별 사회사업가 및 전문 치료사의 수 등 전체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규모와 특성 제시

○ 둘째,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세분화된 인력 규모와 특성을 제공해주는 지표들

## 을 포괄

- 사정 및 사례관리, 재가서비스, 주거시설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각 서비스 영역별로 자격증의 유무와 고용형태에 따른 서비스 제공인력의 규모를 포함

- 셋째, 서비스 인력의 자격증 보유 현황에 대한 지표들로서, 서비스 유형별 자격증 보유현황, 사회서비스부서 직급별 관리자격증 보유자 수, 주거시설서비스·주간보호·재가서비스 영역에서 직급별 자격증 보유자의 수를 서비스 대상별로 구분하여 제시
- 마지막은 웨일즈 자치정부의 웨일즈어 사용 장려시책에 따라, 웨일즈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의 수를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직급별로 구분하여 제시

〈표 1-2-17〉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체계의 하위 지표: 정신건강

통계지표	주요 범주 및 구분	작성기관/출처
1983년 정신보건법상 지방정부 후견대상 정신질환자 수	1983년 정신보건법 상, 의사의 진단으로 지방정부가 후견인이 되어야 할 환자 및 입원대상 환자의 수	PM2 <sup>1)</sup>
서비스 제공받는 정신장애인	사회서비스 유형별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지방정부의 주거시설서비스, 민간부문 주거시설서비스, 요양시설 등) 정신장애인 수	PM2 <sup>1)</sup>
지역사회기반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세부 프로그램(재가, 주간보호, 일시보호, 급식 등) 별 정신장애인 수	PM2 <sup>1)</sup>
주거 및 요양시설 서비스	양로시설 및 주거시설 옥체/감각장애인 수 및 인구 1만명당 정신장애인 수	PM2 <sup>1)</sup>

주: 1) Statistical return on performance management – adults' services

자료: Social Service Statistics Wales 2011-12

〈표 1-2-18〉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체계의 하위 지표: 제공인력

통계지표	주요 범주 및 구분	작성기관/출처
사회서비스부서 인력, 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유형별(지원 및 경영, 사회사업, 재가, 주거, 병원, 주간보호 서비스 등) 직원 수	STF1, 2, 3 <sup>1)2)3)</sup>
사회서비스부서 인력, 자격증 및 고용형태별	자격증 유무, 고용유형 (전일제 및 반일제) 별 직원 수	STF1, 2, 3 <sup>1)2)3)</sup>
사회서비스 전문가	사회사업가 및 전문 치료사의 수, 고용유형별	STF1 <sup>1)</sup>
사정, 사례관리 담당 인력	고용유형별 사정, 사례관리 담당 직원의 수	STF1 <sup>1)</sup>
재가서비스 인력	자격증 유무, 고용유형 (전일제 및 반일제) 별 재가서비스 담당 직원 수	STF2 <sup>2)</sup>
주거시설서비스 인력	자격증 유무, 고용유형 (전일제 및 반일제) 별 주거시설서비스 담당 직원 수	STF2 <sup>2)</sup>
주간보호서비스 인력	자격증 유무, 고용유형 (전일제 및 반일제) 별 주간보호서비스 담당 직원 수	STF3 <sup>3)</sup>
자격증 보유 현황	서비스 유형별(지원 및 경영, 사회사업, 재가, 주거, 병원, 주간보호 서비스 등) 자격증 보유 직원 수	STF1, 2, 3 <sup>1)2)3)</sup>
관리자격증 보유한 사회서비스 부서 인력	사회서비스 부서 직급별 관리자격증 보유자 수	STF1, 2, 3 <sup>1)2)3)</sup>
주거시설서비스 인력의 자격증 보유 현황	직급별 자격증 보유자의 수, 시설서비스 대상별 (노인 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STF2 <sup>2)</sup>
주간보호서비스 인력의 자격증 보유 현황	직급별 자격증 보유자의 수, 서비스 대상별 (노인, 장애인, 아동)	STF3 <sup>3)</sup>
재가서비스 인력의 자격증 보유 현황	직급별 자격증 보유자의 수, 서비스 대상별 (성인 및 아동 대상)	STF1 <sup>1)</sup>
웨일즈어 구사 가능한 인력	각 지자체 및 직급별 웨일즈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 수	STF1, 2, 3 <sup>1)2)3)</sup>

주: 1) Statistical return on local authority central management and support, social work and domiciliary services staff

2) Statistical return on residential services staff of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departments

3) STF3: Statistical return on day services staff of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departments

자료: Social Service Statistics Wales 2011-12

- 웨일즈의 사회서비스 통계체계는 광역정부 수준에서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통계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민간 제공기관을 관리하여 구축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보고에 근거하여 웨일즈 정부의 사회서비스 통계국이 통계체계를 생산
- 웨일즈의 지방정부들은 영역별로 매우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통계정보를 보고
  - 첫째,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수요 및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보고체계로서 신체장애인의 등록에 대한 통계보고(SSDA900), 학습장애인의 등록에 대한 통계보고(SSDA901), 지방정부에 의해 보호되는 아동에 대한 통계보고(SSDA903), 위탁에 대한 통계보고(SSDA904) 등을 수행
  -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보고체계로서, 지방정부의 중앙행정, 지원, 사회사업 및 주거지원 사업의 인력에 관한 통계보고(STF1),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서의 주거시설서비스 인력에 대한 통계보고(STF2),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서의 주간보호서비스 인력에 대한 통계보고(STF3) 진행
  - 아울러 요보호 아동의 현황에 관한 통계보고체계로서 입양(AA1), 보호중단 아동의 교육수준(OC1), 19세에 보호 종료된 아동(OC3)에 대한 통계보고 체계 역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수행 및 관리와 관련된 통계보고 체계로서 아동에 대한 체계(PM1)와 성인에 대한 체계(PM2)로 구분된 연령에 따른 대상 체계도 구축

#### 나. 미국

- 미국 연방정부의 통계 체계는 연방통계청(U.S. Census Bureau)이 매년 발간하는 전미통계연감(The National Data Book)의 통계초록(The Statistical Abstract)을 통해 확인 가능함
- 2012년 전미통계연감 통계초록(The 2012 Statistical Abstract)에 근거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서비스 통계 지표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연방정부의 통계생산 분야를 총 30개 영역으로 분류

○ 30개 영역 가운데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것은 ‘11. 사회보험 및 인간서비스’ 영역에 제시하고 있으며, 〈표 1-2-19〉와 같이 세부 서비스 영역은 다음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하위 영역들은 보다 세부적인 통계지표들을 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지표들은 ‘✓’로 표시

- 아동양육보조, 헤드스타트, 보육(Child Support, Head Start, Child Care);
- 피고용인 급여, 정부의 이전급여, 사회부조(Employee Benefits, Government Transfer Payments, Social Assistance);
- 식품지원 프로그램 (Food Programs);
- 자선, 비영리기관 및 자원봉사 (Philanthropy, Nonprofit Organizations, Volunteering);
- 사회보장 및 퇴직급여 (Social Security, Retirement Plans);
- 보충적 소득보장급여, 요보호가족에 대한 급여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 실업, 장애 및 재해보상(Unemployment, Disability, Workers' Compensation)

#### [참고]

##### 〈미국 2012년 통계초록의 구성〉

1. 인구 (Population)
2. 출생, 사망, 혼인, 이혼 (Birth, Deaths, Marriages, and Divorces)
3. 건강 및 영양 (Health and Nutrition)
4. 교육 (Education)
5. 법의 집행, 법원, 수감 (Law enforcement, Courts, and Prisons)
6. 지리 및 환경 (Geography and Environment)
7. 선거 (Election)
8.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 및 고용 (State and Local Government Finances and Employment)
9. 연방정부의 재정 및 고용 (Federal Local Government Finances and Employment)
10. 국가안보 및 재향군인 (National Security and Veterans Affairs)
11. 사회보험 및 인간서비스 (Social Insurance and Human Services)
12. 노동력, 고용, 소득 (Labor Force, Employment, and Earnings)
13. 소득, 지출, 빈곤 및 부 (Income, Expenditures, Poverty, and Wealth)
14. 물가 (Prices)
15. 기업 (Business Enterprise)
16. 과학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17. 농업 (Agriculture)
18. 임업, 어업, 광업 (Forestry, Fishing, and Mining)

19. 에너지 및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사업 (Energy and Utilities)
20. 건설 및 주택 (Construction and Housing)
21. 제조업 (Manufactures)
22. 도소매업 (Wholesale and Retail Trade)
23. 운송 (Transportation)
24. 정보통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5. 은행, 금융, 보험 (Banking, Finance, and Insurance)
26. 예술, 여가, 관광 (Arts, Recreation, and Travel)
27. 숙박, 요식업, 기타서비스 (Accommodation, Food Services, and Other Services)
28. 국제무역 및 원조 (Foreign Commerce and Aid)
29. 푸에르토리코와 도서지역 (Puerto Rico and the Island Areas)
30. 국제통계 (International Statistics)

출처: <http://www.census.gov/compendia/statab/2012edition.html> (검색일: 2013. 11. 19)

〈표 1-2-19〉 연방정부의 통계초록2011: 사회보험 및 인간서비스의 하위 영역 및 통계표 구성 현황

<b>아동양육보조, 헤드스타트, 보육 (Child Support, Head Start, Child Care)</b>	
✓ 568. 아동양육보조 - 양육 부모의 수급 지위	
✓ 569. 아동양육비 강제 집행(enforcement) 프로그램 - 담당건수와 집행실적	
✓ 574. 헤드스타트 - 요약	
✓ 578. 미취학아동의 보육 형태	
<b>피고용인 급여, 정부의 이전급여, 사회부조 (Employee Benefits, Government Transfer Payments, Social Assistance)</b>	
538. 기능별 급여액	
539. 정부의 이전급여 - 요약	
540. 정부의 이전급여 - 기능별	
541. 정부의 이전급여 - 주(state)별	
542. 소득유형별 소득자의 수	
✓ 543. 현물급여 수급자 수	
✓ 575. 노숙지원체계의 임시거주(emergency and transitional beds) 서비스	
✓ 576. 사회부조서비스 - 기업의 수입 (Revenue for employer firms)	
✓ 577. 사회부조서비스 - 자영업 시설수 및 수입 (Nonemployer establishments and receipts)	
<b>식품지원 프로그램 (Food Programs)</b>	
✓ 570. 연방정부 식품지원 프로그램	
✓ 571. 연방정부 보충적 영양보조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프로그램, 주(state) 별	
✓ 572. 식료품권 수혜 가구 및 수혜자의 특성	
✓ 573. 연방정부 보충적 영양보조 프로그램 수혜 가구 및 수혜자 - 요약	
<b>자선, 비영리기관 및 자원봉사 (Philanthropy, Nonprofit Organizations, Volunteering)</b>	
✓ 580. 민간자선기금 - 형태 및 분야	
✓ 581. 비영리재단 - 기관 수 및 재정, 자산 규모별	
✓ 582. 국내민간재단 - 조세정보검색 (information returns)	
✓ 583. 비영리자선조직 - 조세정보검색	
✓ 584. 개인의 기부, 주별	
✓ 585. 자원봉사자, 주요 특징별	
<b>사회보장 및 퇴직급여 (Social Security, Retirement Plans)</b>	
544. 사회보장 - 적용대상, 수입 및 기여율	
545. 사회보장(노령연금, OASDI) - 수급자 유형별 급여	
546. 사회보장 - 수혜자, 연간급여액, 월평균 급여, 주(state) 별	



547. 사회보장기금	
548. 공공부문 퇴직프로그램 - 가입자 및 재정	
549. 연방정부 공무원 연금	
550.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 연금 - 가입자 및 재정	
551. 연금(퇴직) 프로그램 가입율, 근로자 유형별	
552. 사적연금 - 요약, 유형별	
553. 확정급여 퇴직프로그램 - 주요 특징	
554. 개인저축계좌(IRAs)를 보유한 가구 비율	
555. 개인저축계좌 보유가구의 특징	
556. 개인저축계좌 기금의 운용	
557. 401k 제도 - 가입자, 자산, 기여, 급여	
<b>보충적 소득보장급여, 요보호가족에 대한 급여</b>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563. 보충적 소득보장 - 수혜자 및 지출액	
564. 보충적 소득보장 - 수혜자 및 지출액, 주(state) 별	
565. 요보호가족에 대한 사회부조 (TANF) - 가족 및 수혜자	
566. 요보호가족에 대한 사회부조 (TANF) - 주(state) 별 수혜자	
567. 요보호가족에 대한 사회부조 (TANF) - 유형별, 주(state) 별 지출액	
<b>실업, 장애 및 재해보상 (Unemployment, Disability, Workers' Compensation)</b>	
558. 주(state)의 실업보험 - 요약	
559. 실업보험 - 주(state) 별	
✓ 560. 근로 장애자 (persons with work disability), 주요 특징별	
561. 산재보상 급여	
562. 산재보상 급여, 주(state) 별	

자료: The 2012 Statistical Abstract, The National Data Book. U.S. Census Bureau.

- 〈표 1-2-20〉은 아동 및 보육에 해당하는 통계지표들을 정리한 것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통계조례체계는 아동 및 보육 영역에 아동양육보조, 아동양육비 강제집행, 헤드스타트, 미취학 아동의 보육 등 4개의 통계표를 포함
- 첫째, 아동양육보조에 관한 통계표는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양육비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며, 총 양육비 지급 건수와 총 금액 등을 연방 통계청에서 작성
  - 둘째, 아동양육비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정부가 그 집행을 강제하는 명령 건수와 그 금액을 집계한 통계표이며, 연방 보건복지부 아동양육비집행국의 자료에 근거하여 통계표 작성
  - 셋째, 헤드스타트와 관련된 주요 지표가 요약된 통계표로, 헤드스타트는 빈곤 가정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을 주요 통계영역으로 하는데,

- 헤드스타트 통계표에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 수, 지출액, 아동의 연령별 분포, 아동 1인당 프로그램 비용, 관련 인력에 대한 정보 수록
  - 연방 보건복지부 아동가족과에서 통계자료의 조사와 수집 담당
- 넷째, 미취학 아동의 보육 형태에 대한 통계표는 아동의 연령, 인종, 가구소득별로 보육 대상 아동 수 및 보육유형별 비율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으며, 역시 연방 보건복지부 아동가족과에서 통계자료를 수집

〈표 1-2-20〉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서비스 통계항목: 아동 및 보육

통계표 항목	통계지표의 내용	조사 및 작성기관
아동양육보조	양육권 가진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양육비: 건수, 연평균 금액 등	연방 통계청 <sup>1)</sup>
아동양육비 강제 집행	혼외로 출생한 아동에 대한 부의 양육비 지원과 기타 양육비 지원 명령에 의한 강제 집행: 집행 건수 및 금액	연방 보건복지부, 아동양육비집행국 <sup>2)</sup>
헤드스타트	헤드스타트 관련 주요 지표: 등록아동 수, 지출액, 연령별 비율, 인종별 비율, 아동 1인당 비용, 유급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수	연방 보건복지부, 아동가족과 <sup>3)</sup>
미취학 아동의 보육 형태	대상 아동 수, 보육유형별(부모, 친척, 보육기관): 연령별, 인종별, 가구소득별	연방 보건복지부, 아동가족과 <sup>3)</sup>

주: 1) U.S. Census Bureau

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자료: The 2012 Statistical Abstract, The National Data Book. U.S. Census Bureau. Table No. 568, 569, 574, 578.

○ 〈표 1-2-21〉은 미국 사회서비스의 핵심적인 공급기관인 비영리 부문과 자원봉사에 관한 통계표 항목 포함

- 첫째, 민간자선기금에 관한 통계표는 자선재단의 운영주체와 활동분야별 분포 제시
- 둘째, 비영리재단에 관한 통계로서 자산규모별 재단의 수, 비영리부문의 자산, 기부금 및 총수입 등을 포함하며, 민간자선기금 및 비영리재단에 관한 통계는 전미기부재단에서 자료를 수집
- 셋째, 국세청의 국세정보에서 재단의 수, 자산, 수입, 지출 등 재정관련 항목을 추출하여 미국 내 민간재단과 관련된 통계지표를 발간
- 넷째, 비영리자선조직의 활동분야, 총자산, 수입, 지출 등을 보고하는 통계표로서, 민간재단 지표와 더불어 연방 국세청이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정보

를 제공

- 다섯째, 개인의 기부에 관한 자료는 국세청의 소득통계자료에 나타난 개인들의 기부건수 및 기부금액을 통해 통계지표가 생산
- 마지막은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자원봉사자의 수, 인구대비 비율, 자원봉사자 연인원 및 총 자원봉사시간, 자원봉사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포함하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연방 노동통계청이 담당

〈표 1-2-21〉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서비스 통계항목: 비영리부문 및 자원봉사

통계표 항목	통계지표의 내용	조사 및 작성기관
민간자선기금의 형태와 분야	민간자선재단의 운영주체별 형태(개인, 재단, 법인, 자선 유증) 및 분야(종교, 보건, 교육, 인간서비스, 문화예술, 환경, 국제, 재단지원 등)	전미기부재단 <sup>1)</sup>
비영리재단	연도별 및 자산규모별 재단의 수, 자산, 기부금 수입, 총수입	전미기부재단 <sup>1)</sup>
국내민간재단	국세청 정보망에서 검색된 재단의 수, 자산총액, 총수입, 총지출, 순투자소득 등	국세청 소득통계 <sup>2)</sup>
비영리자선조직	활동분야별 기관의 수, 총자산, 수입(프로그램 수입,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 지출 등	국세청 소득통계 <sup>2)</sup>
개인의 기부	각 주별 기부건수 및 기부금액	국세청 소득통계보고서 <sup>3)</sup>
자원봉사자 특징	자원봉사자 수, 인구대비 비율, 연간자원봉사시간 및 분야별 봉사 시간 (중위값) - 성별, 교육수준별	연방 노동통계청 <sup>4)</sup>

주: 1) Giving USA Foundation

2) Internal Revenue Services, Statistics of Income

3) Internal Revenue Services,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4)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 The 2012 Statistical Abstract, The National Data Book. U.S. Census Bureau. Table No. 580-585.

○ 〈표 1-2-22〉는 사회부조 및 기타 분야에서의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표 항목을 보여줌

- 첫째, 현물급여 수급자를 보여주는 통계표이다. 연령별, 성별, 인종별 사회부조 수급가구 및 그 비율에 대해 담고 있으며 연방통계청에서 통계정보를 담당 및 제공

- 둘째, 노숙자의 거주지원 서비스에 대한 통계 항목들은 거주지원 서비스의 세부 유형별 숙소/침상의 수를 요약하고 있으며, 연방 도시개발부에서 통계 생산 담당
- 셋째, 사회부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통계는 각종 개인 및 가족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를 제시해주며, 연방 통계청의 서비스 산업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
- 넷째, 사회부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으로서 유급 피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로, 세부 서비스 유형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연방 통계청의 자영업 통계에서 추출
- 마지막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자의 주요 특징에 관한 통계표는 연령별 근로장애자의 수, 장애인 가운데 사회보장급여, 의료부조, 공공주택 등 수급자의 인구대비 비율 등을 담고 있으며 연방 통계청이 자료의 수집과 생산을 담당

〈표 1-2-22〉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서비스 통계항목: 사회부조 및 기타

통계표 항목	통계지표의 내용	조사 및 작성기관
현물급여 수급자 수	연령별, 성별, 인종별 사회부조급여 유형별 수급가구 수 및 비율: 현금, 식료품권, 의료부조, 공공임대주택	연방 통계청 <sup>1)</sup>
노숙자 거주지원 서비스	노숙자 응급 쉼터, 단기숙소, 영구주거지원 등 노숙자 거주지원 서비스: 숙소/침상 수	연방 도시개발부 <sup>2)</sup>
사회부조서비스 - 기업	사회부조서비스 제공기업의 수 (과세대상, 면세기업, 합계): 개인 및 가족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기타 대상); 지역사회 및 응급구호서비스 (지역사회 식품지원, 지역사회 주거지원, 응급구호 및 기타 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아동보육서비스	연방 통계청, 서비스 산업 조사 <sup>3)</sup>
사회부조서비스 - 자영업	유급 피고용이 없는 자영업 시설 수 및 수입: 개인 및 가족지원서비스; 지역사회 및 응급구호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아동보육서비스	연방 통계청, 자영업 통계 <sup>4)</sup>
근로 장애자의 주요 특징	연령별 근로장애자의 수, 인구대비 비율; 장애인 중 사회보장급여, 식료품권, 의료부조, 공공주택, 주택보조 수급자 비율	연방 통계청 <sup>1)</sup>

주: 1) U.S. Census Bureau.

2)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3) U.S. Census Bureau, Service Annual Survey.

4) U.S. Census Bureau, Nonemployer Statistics.

자료: The 2012 Statistical Abstract, The National Data Book. U.S. Census Bureau. Table No. 543, 560, 575-577.

### 3. 국외 사회서비스 관련 지표 및 통계 생산방식의 시사점

□ 앞서 살펴본 UN, ILO,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의 사회부문 및 사회서비스 관련 지표 체계를 검토하여 통계지표를 크게 3가지 차원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첫째, 사회서비스의 수요 측면에서 연령 계층별 인구구성과 인구변동, 출산율, 실업·고용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지표 체계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현황 부문에 속하는 지표들로 이해 가능

○ 둘째, 사회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 국민계정의 사회서비스 생산량(화폐가치), 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출 수준(대상 및 기능별) 등이 이에 포함

○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측면으로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규모, 종사상 지위, 임금 및 노동조건 등 주로 노동통계체계에서 발견되는 지표들 포함

○ 하지만 OECD와 유럽연합(EU)의 사회복지 지출 통계에서는 급여의 형태에 따른 분류와 같은 일차적인 기능에 집중하고 있음

– 다시 말해, 사회복지 지출을 일단 기능적 측면으로 분류한 후, 급여의 형태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는 체계로,

– 결국 OECD와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의 사회복지지출 자료에서 사회서비스를 통계적으로 체계화 하는 경우는 부재

○ 이러한 검토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국제기구의 통계 체계에서 소득보장(현금급여)의 경우에는 소득 불평등이나 빈곤과 같은 결과적 지표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의 공급에 따른 측면은 파악이 어렵다는 추론 가능

– 예를 들어 EUROSTAT의 서비스 산업 가운데에는 공공서비스 혹은 사회서비스라는 항목 자체가 부재

–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국제기구의 사회부문 통계체계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급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분리된 지표가 매우 미비한 실정

– 사회서비스의 내용이 각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여,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국제기구의 지표체계에 표준화하여 적용시키기 힘들기 때문

– 나아가 사회서비스가 전체 사회복지의 제도적 측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 대한 추가적 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 한편, 영국(잉글랜드, 웨일즈)의 사회서비스 통계 지표들과 미국 연방정부의 통계 초록을 검토하면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영국과 미국 모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통계 지표들은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분류

- 웨일즈 사회서비스 통계 체계에서 아동영역과 미국 연방정부의 통계초록 중 아동 및 보육 영역에서 나타나듯,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다른 성인 대상 사회서비스 지표와 분리
- 특히 잉글랜드의 경우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표들은 교육관련 서비스와 함께 교육부처에서 생산

○ 둘째, 미국의 경우 사회서비스의 주요 공급자인 비영리영역에 대한 통계지표가 생산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자원봉사 및 기부와 관련된 통계지표들이 연방정부의 통계체계에 포함되어 민간의 자발적 활동에 대해서 통계지표를 통하여 강조하는 경향

- 영국의 경우에도 비영리기관과 관련된 지표가 일부 포함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통계지표들은 서비스 수요자의 특성이나 서비스 제공활동, 인력, 재정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자원봉사나 기부와 같은 개인의 자발적 활동까지 포함시키는 경향은 미진
- 한국의 사회서비스 통계체계 구축에서 주요 공급주체인 비영리부문과 자원봉사 영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 필요

○ 셋째, 미국과 영국 사례 모두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회서비스 통계지표를 체계화하려는 시도 미흡

- 예를 들어 수요와 공급의 특성을 분리한다거나 전달과 성과지표를 구분하려는 시도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영국 잉글랜드 사례는 재정, 인력, 활동, 성과를 구분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통계체계로서 총괄되어 있기 보다는 각각의 통계체계로서 존재하고 있는 실정

- 영국 웨일즈 사례의 경우, 사회서비스 통계체계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지표들을 모아놓고 있지만 분류 항목의 체계화는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단순한 영역의 분리만 있는 수준
- 한국의 사회서비스 통계지표의 구축에 있어서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고민 필요

○ 마지막으로 통계생산체계에 대한 시사점은 미국과 영국의 사회서비스 통계지표들이 다양한 부처(미국)나 지방으로부터의 통계보고체계(영국)를 통해 수집되고 있다는 점

- 하나의 단일 기관이 모든 사회서비스 지표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원을 파악하고, 어떠한 자료들을 사회서비스 통계체계에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
- 이처럼 산재되어 존재하는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정보들을 수집하고, 체계화된 발간물로 통계체계를 산출하는 것은 정보의 정확한 접근과 처리가 가능한 하나의 담당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미국 연방차원의 통계체계는 미국 연방정부 통계청에서,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NHS의 정보센터(HSCIC)가, 영국 웨일즈는 자치정부의 사회서비스국이 이를 총괄
- 한국의 경우에도 사회서비스 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할 경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생산하고 집적·관리할 부처 혹은 담당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
  - 현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주관 기관으로서 관련 통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타 사회서비스는 관련 부처별 파편화된 정보관리 시스템 상에서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







## 제2장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의 설계

제1절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의 개요

제2절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제1절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의 개요

## 1. 조사의 준비

- 향후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잠재 및 유효 수요의 파악을 위한 시계열 자료로서 축적, 집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서 가구단위의 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음
- 기존 실태조사의 단편적 서비스 이용 희망 의향을 파악하던 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중범위 수준에서 사회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였으며, 가구특성과 가구생애주기를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에서 조사표 설계 진행
- 가구단위의 수요조사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 응답을 원칙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구원을 대표하여 개별 가구원의 특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 가구원 관련 사항을 응답할 수 있는 경우 조사에 참여
  - 따라서 행정서류상, 세대주 또는 호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로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가 대부분
  - 현장 실사는 외부 전문조사업체에 위탁으로 수행
- 외부 전문조사업체의 조사원에 대한 교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에 의해 직접 수행되었는데, 조사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위한 role-play 등을 실시
  - 교육대상은 조사원뿐만 아니라 조사업체에서 자료입력, 오류검증, 자료분석 등 실제 본 조사업무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2013.8.28.)
  - 이후 약 일주일간 대전, 광주, 부산, 대구, 강원, 제주 등 6개 지방 실사 면접원에 대한 순회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교육이 완료된 지사에서부터 순차적

으로 조사가 개시

- 조사원의 모집 및 실사팀의 구성과 운영 등의 사항은 조사업체에서 일괄 진행
- 현지조사는 이로부터 약 60일간 수행되었는데, 조사원들이 조사표에 대한 이해도가 점증적으로 개선되는 조사 초기단계에는 연구진에 의한 조사진행 과정의 지도,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 또한 조사팀과 조사지역 행정기관 및 주민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원은 보건복지부의 협조공문을 항시 소지
- 공문에는 본 실태조사의 취지, 조사기간, 통계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

## 2. 표본설계

-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조사는 총 4,000 표본을 목표로 조사를 설계하였음
- 4,000개의 전체 표본 중에서 1,200개의 표본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의 공식 자료 공개요청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자료 협조를 통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이용 경험에 있는 표본으로 임의할당
- 나머지 2,800 표본은 2013년 6월 기준 사회서비스 잠재수요 계층으로 일반가구를 목표 모집단으로 하여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 중 전국 세대분포 자료를 표집틀로 활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표본과 일반가구 표본의 비율을 3:7로 강제 할당한 이유는 본 실태조사의 주요 과업 중의 하나로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에 대한 정책만족도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정책노출 대상의 확인이 사전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임

### 가. 모집단 층화

- 일반가구로서 조사 모집단은 2013년 6월 기준 사회서비스 잠재수요 계층으로서 일반 국민 전체를 고려하였음

○ 정부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소득이나, 질병 및 장애 여부, 가족구성 상의 특이 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가구 전체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는 것은 향후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가시화될 수 있는 일반가구 차원에서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함

－ 표본 추출틀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 중 전국 세대 분포(2013년 6월 기준)를 사용

□ 한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경험 표본의 경우, 본 연구용역의 발주부처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와 협의하여 2013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경험자 및 이용 가구를 표집 대상으로 구축하였음

○ 표집 대상 7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이 포함

〈표 2-1-1〉 일반가구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경험가구의 모집단 분포

(단위: 가구)

지역	일반가구 (세대 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경험 표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서울	4,181,577	3,543	12,857	10,334	1,042	11,041	252	67,623
부산	1,398,062	3,008	4,170	4,085	1,035	4,298	74	47,809
대구	954,909	1,766	2,885	4,658	565	3,993	67	40,851
인천	1,108,281	1,666	2,936	4,274	581	4,384	97	38,276
광주	559,606	2,588	2,056	2,348	545	2,537	56	28,681
대전	580,723	1,082	2,393	2,658	271	3,131	73	39,635
울산	427,102	444	674	1,348	289	1,435	20	14,698
세종	47,994	83	76	92	26	97	3	1,620
경기	4,675,231	6,432	10,369	17,010	1,662	16,382	292	125,599
강원	660,846	2,411	1,311	2,206	704	2,095	50	27,873
충북	639,082	1,582	1,658	2,604	413	2,421	60	29,148

지역	일반가구 (세대 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경험 표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충남	850,636	2,735	1,735	2,931	609	2,470	116	33,606
전북	763,138	4,454	1,802	3,221	1,493	3,251	78	31,779
전남	812,667	4,808	1,863	2,640	1,223	2,801	53	37,317
경북	1,131,718	4,691	2,027	4,703	885	4,507	93	51,152
경남	1,310,249	4,027	2,800	4,941	999	5,390	91	43,288
제주	235,239	732	608	1,338	257	1,963	17	15,086
소계	20,337,060	46,052	52,220	71,391	12,599	72,196	1,492	674,041

## 나. 표본규모 및 배분원칙

□ 본 조사의 경우 사회서비스 비경험자 조사표본(일반가구 표본)과 서비스 이용 경험표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자 표본)의 비율을 7:3으로 조정하여 표본을 구축하였음

○ 일반가구 표본의 경우 전체 국민의 잠재수요 파악을 위한 일반가구 전체를 모집단 대상으로 하였고, 서비스 이용 경험표본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이용 경험자를 모집단으로 설정

－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노출 정도와 인지 수준, 정책수행 과정에 대한 의견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사 예산의 규모 내에서 전체 4,000 표본을 7개 서비스 이용자와 비경험자로 구분하여 제곱근비례할당을 이용하여 배분

- 일반가구의 경우, 2013년 6월 기준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세대수 기준)를 표본 추출틀로 활용하여 지역을 층화변수로 활용해 제곱근 비례배분방식으로 표본을 할당
- 한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경험 표본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13년 4월 30일 기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경험자 명부를 활용하였으며, 서비스이용별로 특성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 서비스 이용자별 특성 비율에 대한 허용 오차가  $\pm 7\%$  이내가 되도록 지역별로 제곱근비례할당을 실시

〈표 2-1-2〉 표본배분 및 제공근 비례할당 결과

지역	비경험 표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경험 표본							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서울	341	13	24	17	13	17	18	14	116
부산	197	12	14	11	13	11	10	12	83
대구	163	9	11	11	9	11	9	11	71
인천	175	9	12	11	9	11	11	10	73
광주	125	11	10	8	9	8	9	9	64
대전	127	7	10	9	6	9	10	11	62
울산	109	5	6	6	7	6	5	6	41
세종	36	2	2	2	2	2	2	2	14
경기	360	17	22	22	16	21	20	19	137
강원	135	11	8	8	10	8	8	9	62
충북	133	9	9	9	8	8	9	9	61
충남	154	11	9	9	10	8	12	10	69
전북	146	15	9	10	15	9	10	9	77
전남	150	15	9	9	14	9	8	10	74
경북	177	15	10	12	12	11	11	12	83
경남	191	14	11	12	12	12	11	11	83
제주	81	6	5	6	6	7	5	7	42
합계	2,800	181	181	172	171	168	171	171	1,212

#### 다. 가구 및 조사대상자 추출 방법

○ 일반가구 모집단의 경우,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 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행정 구역상의 읍/면/동을 조사구 단위(unit)로 활용하였으며, 일반 가구 모집단 현황에 맞게 동읍면 지점을 선정한 후 선정지점으로부터 랜덤하게 대상가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

– 시도내 할당된 읍/면/동을 계통추출하여, 조사지점을 1차로 선정한 후 선정된 조사지점(동)에서 10가구를 계통 추출법을 활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경험 대상자 집단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협조 하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주소 명부를 확보하여 이용자 거주지 크기별로 유효표본이 확보되도록 권역과 지역크기(대도시 vs 중소도시 vs 농어촌지역)를 고려하여 계통 추출방식으로 대상자를 추출<sup>3)</sup>

3) 추정식 참고: 전체 모비율은 다음과 같이 추정

### 3. 조사의 진행

□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자와 비이용자로 나누어 진행되는 수요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직접 면접조사로 수행되었음

○ 특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경험자 표본의 경우, 응답자가 조사 대상가구가 리스트에 제공된 정보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 중 설문 응답이 불가능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에 한해, 주 양육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

○ 표준화된 응답자 접촉 가이드를 활용한 사전 전화 접촉을 통해 조사 가능 시간을 확인한 뒤, 약속된 시간에 방문 조사를 실시

○ 조사대상 리스트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비이용자(일반가구)의 경우, 선정된 조사지점 내 10가구를 추출하여 적격 대상 가구조사를 진행

– 비이용 가구 역시, 주 응답대상을 가구주나 주양육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가구 내에 적격 조사 대상자가 없는 경우, 해당 가구를 기준으로 앞뒤 인접 가구로 대체하여 접촉

$\hat{p} = \sum_{h=1}^{17} \sum_{s=1}^7 w_{sh} \hat{p}_{sh}$	$\hat{p}$	특정 변수에 대한 모비율 추정치
	$\hat{p}_{sh}$	특정 변수에 대한 $(s, h)$ 셀의 모비율 추정치
	$w_{sh}$	$(s, h)$ 셀의 가중치

– 전체 모비율의 표본오차 =  $1.96 \times \sqrt{\hat{V}(\hat{p})}$

– 서비스별 특성에 대한 비율 및 분산 추정식

$$\hat{p}_s = \sum_{h=1}^{17} w_{hs} \hat{p}_{hs} \quad \hat{V}(\hat{p}_s) = \sum_{h=1}^{17} w_{sh}^2 \left( \frac{N_{sh} - n_{sh}}{N_{sh}} \right) \frac{\hat{p}_{sh}(1 - \hat{p}_{sh})}{n_{sh}}$$

– 95% 신뢰구간: $\hat{p}_s \pm 1.96 \times \sqrt{\hat{V}(\hat{p}_s)}$	$\hat{V}(\hat{p})$	모비율에 대한 분산
	$\hat{V}(\hat{p}_s)$	서비스별 모비율에 대한 분산



## 제2절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의 현장 조사 완료에 따라 총 4,038가구(서비스 이용 경험자 1,238가구, 일반가구 2,800가구)의 조사 자료가 확보되었으며, 자료 에디팅 및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음<sup>4)</sup>

○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은 〈표 2-3-1〉 과 같음

- 가구생애주기별 구성을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가 21.0%로 가장 많았으며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14.7%)’, ‘경제활동자녀 동거 및 비동거기(14.4%)’ 순
- 가구원 수는 35.0%의 응답가구에서 4명, 21.1%는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으로는 ‘부부+자녀(조카)’의 2세대로 구성된 가구가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인 가구(17.6%)’, ‘부부가구(13.9%)’ 순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5.6%였으며, ‘300~4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경우는 22.6%
- 조사대상 가구의 42.7%가 ‘중소도시’, 42.5%가 ‘대도시’에 거주

〈표 2-2-1〉 조사대상 가구의 제 특성

(단위: %, 가구)

	전 체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없음
가구생애주기			
미혼가구	6.9	3.0	10.4
첫 자녀 출생 전	2.8	0.4	4.9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	14.7	27.7	3.3
첫 자녀 초등학교 재학기	12.0	16.9	7.6
첫 자녀 중고등학교 재학기	12.9	11.3	14.4
첫 자녀 대학 교육기	11.4	4.4	17.5

4) 에디팅 단계는 조사가 완료되어 본사에 입고된 설문지는 1차 에디팅을 거쳐, 에디팅 부서로 이관되어, 2차 에디팅을 진행함. 2차 에디팅을 거친 설문지는 다시 전산검증을 거쳐 최종 데이터로 입력됨. 또한 조사 종료 후, 조사 과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 진행 부수의 60% 이상 검증 작업을 실시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확인함.

- 조사방법의 준수 여부 : 전화, 팩스 등의 대체조사 절대금지(발견 시 폐기조치)
- 응답자 선정방식 및 본인의 응답 여부(면접원의 자의적 실사, 허위작성 판별)
- 조사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 조사자의 설문 진행 태도 및 성실성(조사품질 판별)
- 응답자 사례품 전달 여부 등

	전 체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없음
비경제활동 자녀 동거기	3.6	5.5	2.0
경제활동자녀 동거 및 비동거기	14.4	9.4	18.8
노인(단독)가구	21.0	21.0	20.9
기타(이혼 단독가구 등)	0.3	0.4	0.1
가구원 수			
1명	17.6	19.0	16.3
2명	17.7	10.9	23.7
3명	21.1	23.9	18.6
4명	35.0	33.5	36.2
5명 이상	8.7	12.7	5.2
가구유형			
(한)조부모+부모+자녀	4.1	6.8	1.8
부부+자녀(조카)	57.5	58.7	56.5
한부모+자녀	5.5	7.7	3.5
(한)조부모+손자녀	0.6	1.0	0.2
부부(부부+부부의 형제자매)	13.9	5.8	21.0
1인 가구	17.6	19.0	16.3
기타	0.8	1.1	0.6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5.4	26.3	5.7
100~200만원 미만	21.6	20.3	22.8
200~300만원 미만	25.6	26.0	25.3
300~400만원 미만	22.6	17.4	27.2
400만원 이상	14.7	9.9	19.0
거주 지역 특성			
대도시	42.5	45.0	40.3
중소도시	42.7	41.7	43.5
농어촌	14.8	13.3	16.1

○ 다음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78.9%가 장애가 있는 가구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

- 12세 미만 아동, 노인 가구원, 장애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돌봄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36.5%가 ‘일주일 대부분, 하루 8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
- 노인가구원의 경우, 절반 이상의 가구에서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5%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 조사대상 가구의 35.8%가 ‘맞벌이 가구’였으며, 13.0%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로 구성

〈표 2-2-2〉 조사대상 가구의 건강상태 및 도움필요 정도

(단위: %)

	전 체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없음
장애 가구원의 유무			
있음	21.2	42.3	2.3
없음	78.9	57.7	97.7
12세 미만 아동 돌봄 필요 정도 <sup>1)</sup>			
일주일 대부분, 하루 8 시간 이상 필요	36.5	38.1	34.9
일주일 대부분, 하루 4 시간 미만 필요	21.7	22.9	20.5
일주일, 밤시간에 지속적·반복적 도움 필요	1.5	1.9	1.2
일주일, 낮과 밤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3.4	3.4	3.4
주말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1.9	1.1	2.7
비정기적으로, 경우에 따라 도움 필요	34.9	32.7	37.4
노인가구원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sup>1)</sup>			
모든 일상생활 혼자 수행 가능	41.0	34.4	48.7
대부분의 일상에서 혼자 수행 가능	22.2	22.5	21.8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도움 필요	18.4	22.0	14.3
일부의 일상생활에서 도움 필요	10.9	12.4	9.3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 필요	7.5	8.8	6.0
장애가구원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sup>1)</sup>			
모든 일상생활 혼자 수행 가능	9.1	9.0	9.1
대부분의 일상에서 혼자 수행 가능	16.6	15.4	18.6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도움 필요	36.6	40.5	30.0
일부의 일상생활에서 도움 필요	20.7	18.6	24.3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 필요	17.1	16.5	18.0
가구 특이 사항 <sup>2)</sup>			
맞벌이 가구	35.8	26.3	44.1
주말부부 가구	1.4	1.7	1.1
기러기 가족	0.0	0.1	0.0
다문화 가구	0.5	0.8	0.3
기초보장 수급가구	13.0	26.5	1.1

주: 1) 해당 가구원(12세 미만 아동, 노인, 장애가구원)이 있는 경우만 분석에 포함하였음.

2) 조사대상 전체 대비 가구 유형별 출현율을 제시한 것임.

- 조사대상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310.7만원으로 대도시 거주가구가 323.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302.9만원), 농어촌(296.3만원) 순
- － 생애주기별로는 미혼가구가 368.7만원으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에 놓인 가구의 경우 243.7만원으로 가장 낮았음

- 월평균 가구지출은 전체 가구 평균 319.9만원으로 소득 대비 지출 규모가 평균 9만원 가량 많은 것이 조사되었으며, 가계 총 부채액의 경우 평균 1,494.3만원으로 나타남
-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1,718.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의 경우 795.7만원으로 가장 적은 수준
- 생애주기별로 부채액은 ‘노인(단독)가구’에서 1,929.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에 놓인 가구에서 1,074.5만원으로 가장 낮았음

〈표 2-2-3〉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 특성

(단위: 만원)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지출	총가계 부채액
전 체	310.7 (339.40)	319.9 (2,732.76)	1,494.3 (4,566.34)
거주 지역 특성			
대도시	323.5 (413.68)	251.3 (138.96)	1,513.1 (4,526.09)
중소도시	302.9 (178.50)	246.1 (139.72)	1,718.0 (5,118.81)
농어촌	296.3 (440.82)	229.4 (124.63)	795.7 (2,430.66)
생애주기별			
미혼가구	368.7 (166.63)	292.2 (129.27)	1,722.0 (4,718.46)
첫 자녀 출생 전	298.2 (191.94)	235.3 (137.63)	1,187.5 (2,452.21)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	243.7 (165.86)	205.0 (131.93)	1,074.5 (3,747.09)
첫 자녀 초등학교 재학기	333.27 (854.63)	230.0 (131.30)	1,263.4 (3,884.21)
첫 자녀 중고등학교 재학기	303.9 (172.24)	436.8 (4,368.30)	1,158.5 (2,716.75)
첫 자녀 대학 교육기	324.61 (194.97)	257.2 (152.27)	1,565.5 (4,168.64)
경제활동자녀 동거 및 비동거기	300.3 (170.32)	379.0 (3,697.01)	1,606.8 (6,095.59)
노인(단독)가구	332.8 (173.07)	384.1 (3,431.51)	1,929.3 (5,085.84)

주: 분석대상이 경제적 특성(소비, 지출, 부채액)에 따라 상이한 경우, 가장 많은 사례수를 제시하였음.



## 제3장

#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 분석 결과

제1절 사회서비스 영역별 이용 및 욕구 현황

제2절 사회서비스 세부 영역별 이용 및 욕구 현황

제3절 사회서비스 정책관련 의견

제4절 사회서비스 이용과 일상생활의 변화



## 제1절 사회서비스 영역별 이용 및 욕구 현황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욕구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13년 실태 조사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11개의 영역, 기타를 제외한 130개 세부 영역 서비스로 유형화 살펴보았음

○ <표 3-1-1> 에서 제시한 「사회서비스 영역별 세부 서비스 분류표」 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 영역별, 세부 서비스별 이용 및 욕구 실태를 분석 진행

<표 3-1-1> 「사회서비스 영역별 세부 서비스 분류표」

A. 상담: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서비스	101. 전문 상담서비스(개별상담, 집단상담) 102. 사례관리 서비스 103. 돌봄가족원(부양자) 지원 서비스 104. 가족 상담 서비스(부모상담, 부부상담 등) 105. 위기가정 문제 관련 지원·상담 서비스 106. 폭력·학대관련 상담 서비스 (아동학대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991.기타	151. 정신보건증진센터 152.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게임중독 상담센터 153. Wee프로젝트 이용 (학교부적응 및 위기에 처한 학생 상담) 154.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서비스 155.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B.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201. 장애인단·관정 서비스 202. 신체적 재활 서비스(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203. 직업재활 서비스 204.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205.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 심리치료 206. 언어치료 207. 알코올·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 208. 수화 서비스 992. 기타	251. 발달재활서비스 252.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53. 시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C.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301. 주간보호·야간보호·주간보호·단기보호 302. 간호 및 간병서비스(일반) 303. 방문목욕 304. 복지용품 급여/ 보장구 지급 305. 산후조리서비스(일반)1051 306. 활동보조 서비스(일반) 307.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가사서비스, 목욕, 이·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이동지원) 308. 식사제공 서비스 (급식서비스, 경로식당, 밀반찬배달) 993.기타	351.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352.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5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바우처) 354.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바우처) 355.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바우처) 356.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시설급여/ 기타 재가급여 357.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358.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359.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 360.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D.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401.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0~5세,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형태) 402.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0~5세, 돌봄시설에 직접 아동이 방문하는 형태) 403. 재가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형태) 404. 방과후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돌봄시설에 직접 아동이 방문하는 형태) 405. 장애아동 돌봄 406.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프로그램(시설기관의 청소년 문화놀아오프로그램) 407.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서비스 408. 학교부적응, 위기청소년 지원 994. 기타	451.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452.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만0~2세, 누리과정, 장애아 무상/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453. 아이돌보미 서비스 454.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455. 초등 돌봄교실 45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457. 아동임양 관련 서비스
E.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501. 건강관리서비스 502. 운동처방서비스 995. 기타	551. 산전후 건강관리사업(고온맘카드) 552. 보건소 건강증진 방문 보건 서비스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553. 임신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 서비스 554. 보건소 금연클리닉 555.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인공임신 중절예방
F.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	601.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 602. 장애아동(특수)교육 603. 성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604. 부모교육 605. 교육관련 상담, 평가 및 정보제공 606.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607. 세무관련 서비스 608. 법률지원 서비스 609. 진학 및 진로상담 996. 기타	651.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바우처) 652. 유치원이용(유아학비지원- 만3~4세, 누리과정 교육비, 다문화 교육비지원) 653.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654.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서비스 655.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656.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 구조 지원 서비스
G.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	701. 구직·일자리 알선 702. 간병관련 일자리 지원 703. 가사지원 관련 일자리 지원 704. 자영자 창업지원 705.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 706. 근로의욕고취 및 근로관련 심리상담·사회적 지원 997. 기타	751. 정부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공공근로/자활근로) 752.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이용 753.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 및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754.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75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75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757.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758. 출소자를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H. 주거보호 및 지원서비스	801. 대규모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 생활 지원 802. 20명 이내 소규모 그룹홈 등 공동생활가정의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803. 일시보호(일시보호시설, 쉼터 등) 804. 주거비 지원 998. 기타	851. 장애인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852. 요보호 아동을 위한 그룹홈 거주 853.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854. 주택 바우처
I. 문화 및	901. 문화/예술 서비스 902. 체육/스포츠 서비스	951.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운영: 지방문화원 952. 여행 바우처



여가서비스	903. 여행/관광 서비스 999. 기타	953. 문화 바우처 954. 스포츠 바우처
J.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1001. 자원봉사자 양성 및 참여 1002. 사회복지관 9910. 기타	105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1052. 드림스타트(지역사회 중심 아동통합 서비스지원) 105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방과후 돌봄 외 기타 프로그램) 1054. 건강가정지원센터 1055.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청소년 수련 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등) 105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057.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상담, 법률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등) 1058. 노인보호 전문기관(학대노인 대상 법률지원, 보호, 상담 등) 1059.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정, 경로당 등)
K. 환경	1101. 청소 및 환경정비 서비스 1102. 방역서비스 1103. 환경 가꾸기(숯가꾸기, 텃밭 운영 등) 1104. 냉난방 지원서비스(무더위쉼터) 9911. 기타	1151. 사회복지시설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1152.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1153. 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 1.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 사회서비스 영역별 이용률을 확인해보면, 돌봄과 관련한 서비스 영역의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서비스’의 이용률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는 13.0%였음

- 다음으로는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7.9%)’,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6.5%)’,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5.2%)’,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 서비스(4.9%)’, ‘문화 및 여가 서비스(2.4%)’, ‘고용 지원 서비스(1.4%)’순이었으며,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지원) 서비스(0.9%)’, ‘주거보호 및 지원서비스(0.5%)’, ‘환경 서비스(0.3%)’는 1% 미만의 낮은 서비스 이용률 확인
  -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평균 서비스 갯수는 0.7(SD=0.83)개인 것으로 확인

- 본 조사는 앞서 조사개요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사 설계시 2012년 9월 기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자(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를 전체 표본의 30%(1,238 가구)로 할당하였으므로, 앞서 살펴본 전체 이용률의 분포는 실제보다 높게 추정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이용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 이용자로서 할당된 30%(1,238 가구)의 표본과 무작위로 추출된 70%(2,800 가구)의 일반 표본을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률을 비교 분석

- 분석 결과, 일반 표본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은 ‘아동 보호 및 보호서비스 (10.1%)’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4% 미만의 낮은 수치 확인
- 이는 앞서 제시한 전체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자로 할당된 30%의 높은 이용률로 수렴되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결과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본이 강제 할당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이 포함된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재활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영역의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경험)률이 일반가구 표본의 이용률에 비해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70배 까지 높은 것을 확인<sup>5)</sup>

○ 또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아동 보호 및 보호서비스’,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 서비스’,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의 경우도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 이용자로 할당된 집단에서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음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이 충족된 가구에 한해 서비스 이용 자격이 부여되므로<sup>6)</sup> 상대적으로 할당된 표본 집단에 사회서비스를 필

5)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로 할당된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는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재활 서비스’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에 포함되었음.

6) 노인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는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의 산모, 가사간병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 안내, 2013).

- 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가 많이 포함되었을 것이며,
- 이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를 제외한 타 사회서비스의 이용률도 일반 표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
  - 반면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지원) 서비스’, ‘고용지원 서비스’, ‘문화 및 여가 서비스’, ‘환경 서비스’는 근소한 차이지만 일반 표본에서 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2〉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단위: %, 가구)

	전체	표본 할당에 따른 구분 <sup>1)</sup>	
		서비스 이용자 할당 표본	일반 표본
A.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0.9	0.8	0.9
B. 재활 지원 서비스	7.9	24.6	0.4
C.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22.4	70.4	1.1
D.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13.0	19.6	10.1
E. 보건의료 및 건강 관리	5.2	7.8	4.1
F.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4.9	9.0	3.0
G. 고용지원 서비스	1.4	0.2	2.0
H.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0.5	1.0	0.3
I. 문화 및 여가 서비스	2.7	2.4	2.8
J. 지역사회서비스	6.5	14.6	2.9
K. 환경 서비스	0.3	0.1	0.4
평균 이용서비스 개수 <sup>2)</sup>	0.7 (0.83)	1.5 (0.70)	0.3 (0.55)
계(가구 수)	4,038	1,238	2,800

주: 1) 본 수요조사는 2012년 9월 기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자(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를 전체 표본의 30%로 할당하였으므로 이용률 해석 시 유의해야함. ‘서비스 이용자 할당 표본’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자 표본으로 할당된 표본을 의미하며, ‘일반 표본’은 이용자 할당에 포함되지 않고 무작위 추출된 표본집단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3) 복수의 서비스 선택이 가능함.

□ 다음은 가구생애주기를 8단계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살펴 보았음

○ ‘미혼가구’의 경우 다른 영역의 서비스 이용률은 낮았으나, 성인돌봄 및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영역의 경우 13.6%로 높게 나타났음

- ‘첫 자녀 출생 전’의 가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이용률이 낮았으나, 첫 자녀가 출생한 이후 사회서비스 이용률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첫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의 주기에 놓인 가구의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타 생애주기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해당주기에 이용하고 있는 세부 서비스 영역을 확인해보면,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가 51.4%로 가장 높았으며,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39.7%),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서비스(15.1%),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12.4%),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11.3%),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10.8%) 등 절반 이상의 서비스 영역에서 10% 이상의 높은 서비스 이용률을 기록
- 다음으로 ‘첫 자녀 초등학교 재학기’의 가구도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가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활 서비스(19.8%),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15.3%),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12.4%),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13.4%)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첫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의 주기와 유사한 이용 경향
  - ‘첫 자녀 중고등학교 재학기’의 가구는 재활지원 서비스(15.7%),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11.3%)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첫자녀 대학 교육기’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낮았으나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5.0%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임
  - ‘성인자녀동거기’와 ‘노인가구’의 경우는 전반적인 서비스 이용률은 높지 않으나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각각 20.3%, 39.0%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률도 절대적으로는 낮은 수치(6.7%, 5.7%)이나 타 주기에 비해 높은 편
-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을 둔 가구(‘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 ‘첫 자녀 초등학교 재학기’, ‘첫 자녀 중고등학교 재학기’)에서 이용률이 높은 것을 확인

- 평균 서비스 이용 개수도 ‘첫 자녀 초등학교 재학기’에 평균 1.4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음
-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 가구의 경우 평균 1.0개,
- ‘첫 자녀 중고등학교 재학기’ 가구는 평균 0.6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주기의 가구에 비해 서비스 이용 개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1-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단위: %, 가구)

	미혼가구	첫 자녀 출생 전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	첫 자녀 초등학교 재학기	첫 자녀 중고등학교 재학기	첫 자녀 대학 교육기	성인 자녀 동거기	노인 가구
A.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0.7	0.9	0.5	1.4	1.0	1.7	0.4	0.7
B. 재활 지원 서비스	2.1	-	11.3	19.8	15.7	1.5	6.0	1.7
C.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13.6	1.8	39.7	12.4	11.3	5.0	20.3	39.0
D.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	-	51.4	31.6	9.0	0.4	2.3	-
E. 보건의료 및 건강 관리	1.4	1.8	12.4	4.1	1.3	2.4	6.7	5.1
F.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1.1	0.9	15.1	13.4	4.0	1.5	0.8	0.4
G. 고용지원 서비스	1.4	0.9	0.7	1.0	1.1	2.4	2.2	1.3
H.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0.4	-	-	-	0.8	0.4	1.1	0.6
I. 문화 및 여가 서비스	1.1	0.9	0.5	3.3	5.2	2.8	3.7	2.1
J. 지역사회서비스	1.8	0.9	10.8	15.3	7.3	3.3	5.1	3.3
K. 환경 서비스	-	-	-	-	0.6	-	0.3	0.6
평균 이용서비스 개수 <sup>2)</sup>	0.2 (0.51)	0.1 (0.36)	1.4 (0.86)	1.0 (0.94)	0.6 (0.81)	0.2 (0.49)	0.4 (0.70)	0.5 (0.66)
계(가구 수)	280	112	595	484	522	459	729	846

주: 1) 본 분석표의 이용률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자(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로 활동된 표본과 일반 가구 표본을 합한 전체 표본이 응답한 수치로서 이용률 해석 시 유의해야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3) 복수의 서비스 선택이 가능함.

□ 가구의 구성을 ‘조부모+부모+자녀’로 구성된 3세대 가족부터 ‘1인가구’까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가구유형별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았음

○ 사회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노인과 아동 자녀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부모+부모+자녀’로 구성된 3대 가구에서 전반적인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26.3%),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26.3%), 재활 지원 서비스(24.0%),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16.2%),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10.2%),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서비스(9.6%) 영역의 이용률이 높았음
-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구에서는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이용률이 19.8%로 가장 높았으며,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15.7%), 재활 지원 서비스(9.0%) 순
- ‘한부모+자녀’가구에서는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률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재활 지원 서비스는 16.7%,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는 7.7%
- ‘조부모+손자녀’가구는 재활 지원 서비스(37.5%)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가 각각 12.5%를 차지
- ‘부부’로 구성된 가구에서는 전반적인 서비스 이용률이 타 가구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10.0%로 가장 높은 수치
-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낮았으나,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영역의 경우 45.1%로 타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 노인 1인가구의 응답이 지배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음

〈표 3-1-4〉 가구유형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단위: %, 가구)

	조부모 +부모 +자녀	부부 +자녀	한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부부	1인가구
A.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0.6	1.0	0.5	—	0.7	0.7
B. 재활 지원 서비스	24.0	9.0	16.7	37.5	1.3	2.0
C.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26.3	15.7	43.9	25.0	10.0	45.1
D.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26.3	19.8	7.7	12.5	—	—
E. 보건의료 및 건강 관리	10.2	5.7	3.2	8.3	4.1	3.7
F.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9.6	7.1	3.6	4.2	0.7	0.4
G. 고용지원 서비스	0.6	1.4	3.6	—	1.1	1.4
H.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2.4	—	4.1	4.2	0.4	0.6

	조부모 +부모 +자녀	부부 +자녀	한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부부	1인가구
I. 문화 및 여가 서비스	3.0	2.8	5.4	4.2	1.3	2.0
J. 지역사회서비스	16.2	7.8	5.9	12.5	2.9	2.8
K. 환경 서비스	—	0.2	—	—	0.5	0.4
평균 이용서비스 개수 <sup>2)</sup>	1.9 (0.91)	0.7 (0.87)	0.9 (0.93)	1.1 (0.78)	0.2 (0.51)	0.6 (0.66)
계(가구 수)	167	2,323	221	24	560	709

주: 1) 본 표의 이용률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자(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로 할당된 표본과 일반 가구 표본을 합한 전체 표본이 응답한 수치로서 이용률 해석 시 유의해야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3) 복수의 서비스 선택이 가능함.

□ 돌봄가구원이 한명이라도 동거하는 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 특징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12세 미만 아동 가구원이 있는 가구’,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로 구분하여 각각 서비스 이용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를 <표 3-1-5>에 제시하였음

○ ‘12세 미만 아동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의 이용이 41.0%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25.6%), 재활지원 서비스(16.4%),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서비스(13.3%),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12.9%)의 순

○ ‘65세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는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외한 타 영역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은 10%미만으로 낮았음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8%의 수준

○ 한편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5%로 높은 수치였으며, 재활지원 서비스의 이용도 35.6%로 높게 나타났음

□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의 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의 이용률이 15.2%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8.2%),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서비스(6.2%)의 순으로 나타났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경우 83.0%가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재활 서비스(15.8%),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6.1%)의 순으로 확인되었음

〈표 3-1-5〉 가구특성별 사회서비스 이용률

(단위: %, 가구)

	돌봄가구원 존재 여부			맞벌이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12세 미만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		
A.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0.6	0.7	1.2	0.9	1.0
B. 재활 지원 서비스	16.4	6.8	35.6	5.3	15.8
C.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25.6	42.9	65.3	5.9	83.0
D.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41.0	4.3	10.2	15.2	6.1
E. 보건의료 및 건강 관리	7.8	8.0	3.2	3.1	4.6
F.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13.3	1.9	3.9	6.2	2.9
G. 고용지원 서비스	0.6	1.0	0.7	1.2	1.3
H.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0.2	1.5	0.9	—	2.5
I. 문화 및 여가 서비스	1.9	2.4	3.8	2.2	5.9
J. 지역사회서비스	12.9	8.4	5.3	8.2	5.1
K. 환경 서비스	—	0.1	0.1	0.3	—
평균 이용서비스 개수 <sup>2)</sup>	1.2 (0.91)	0.8 (0.72)	1.3 (0.71)	0.5 (0.77)	1.3 (0.72)
계(가구 수)	1,237	722	850	1,444	525

주: 1) 본 표의 이용률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자(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로 할당된 표본과 일반 가구 표본을 합한 전체 표본이 응답한 수치로서 이용률 해석 시 유의해야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3) 복수의 서비스 선택이 가능함.

## 2. 사회서비스 영역별 욕구 현황

-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에 이어 사회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11개의 사회서비스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향후 1년 이내에 이용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용 희망 의사가 있는 서비스 영역에 대해 조사하였음



○ 향후 1년 이내 서비스 이용 희망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 영역으로는 문화 및 여가 서비스(29.6%)였으며,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23.4%),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21.6%),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19.4%) 순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희망율 대비 이용(경험)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이용비율을 <표 3-1-6>에 함께 제시하였음

○ 대부분의 서비스 영역에서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 희망율에 비해 이용(경험)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외한 10개의 영역에서 모두 서비스 희망율은 이용(경험)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문화 및 여가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경험)율은 2.7%에 불과했으나 이용희망율은 29.6%로 희망 비율과 이용 비율의 격차가 26.9%p로 나타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으로 밝혀졌음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이용 비율은 5.2%였으나, 23.4%의 응답자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고 있어 18.2%p의 격차를 보였으며, 고용지원 서비스 영역의 경우도 이용 비율(1.4%)에 비해 희망 비율이 약 15배가량 높은 15.0%로 나타났다

－ 반면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이용(경험)율이 타 서비스 영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 22.4%였으나, 이용 희망 비율은 0.8%p 적은 21.6%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음

○ 평균 이용 희망 서비스 개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1.6개(SD=0.95)의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서비스 이용은 0.7(SD=0.83)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희망하는 서비스와 이용 경험 간에 격차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표 3-1-6〉 사회서비스 유형별 향후 1년 이내 이용 희망 비율

(단위: %, 가구)

	서비스 희망 비율	서비스 이용 비율 <sup>1)</sup>
A.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4.8	0.9
B. 재활 지원 서비스	8.6	7.9
C.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21.6	22.4
D.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19.4	13.0
E. 보건의료 및 건강 관리	23.4	5.2
F.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16.8	4.9
G. 고용지원 서비스	15.0	1.4
H.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4.3	0.5
I. 문화 및 여가 서비스	29.6	2.7
J. 지역사회서비스	10.8	6.5
K. 환경 서비스	5.6	0.3
평균 이용 및 희망서비스 개수 <sup>1)</sup>	1.6 (0.95)	0.7 (0.83)
계(가구 수)	4,038	

주: 1) 본 수요조사는 2012년 9월 기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자(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를 전체 표본의 30%로 할당하였으므로 이용률 해석 시 유의해야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3) 복수의 서비스 선택이 가능함.

○ 생애주기로에 따라 사회서비스 희망율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생애주기와 무관하게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애주기 후반기에 근접할수록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욕구가 높았음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미혼가구’나 ‘첫 자녀 출생전’에 높았던 욕구가 생애주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점차 낮아졌으며, 다시 생애주기 후반기에 증가하는 경향

－ 고용지원 서비스는 ‘미혼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며,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생애주기 후반에 이르러 다시 높아지는 추이를 보여 청년 및 중장년층의 서비스 욕구가 공통적으로 높은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표 3-1-7> 참조),

- ‘미혼가구’의 경우 문화 및 여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39.6% 가장 높았으며, 고용지원 서비스(29.6%),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23.2%)의 순
- ‘첫 자녀 출생 전’의 시기에는 ‘미혼가구’와 마찬가지로 문화 및 여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49.1%),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33.9%),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19.6%)가 높은 욕구 영역
  -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미혼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았음
-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에는 절대적으로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에 대한 희망 비율이 높으며(68.9%), 문화 및 여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제일 적은 시기(17.5%)
  - 그 밖에 이 시기에는 아동과 관련한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서비스의 욕구가 25.0%로 높았음
- ‘첫 자녀 초등학교 재학기’에는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가 49.0%로 가장 욕구가 높았으며,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서비스(34.9%), 문화 및 여가 서비스(30.4%) 순이었으며,
  - ‘첫 자녀 중고등학교 재학기’에는 문화 및 여가 서비스가 36.8%로 다시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고, 교육 및 정보제공에 대한 욕구가 다음으로 높았음(26.8%)
- ‘첫자녀 대학 교육기’에는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욕구가 39.4%로 가장 높았음
  - 이 시기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는 시기로서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희망률은 31.2%,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27.9%로 나타나 높은 수준
- ‘성인자녀 동거기’에는 앞서 살펴본 ‘첫자녀 대학 교육기’와 마찬가지로 문화 및 여가 서비스(32.2%),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31.1%), 고용지원 서비스(18.4%)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25.8%)
- 마지막으로 ‘노인 가구’는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욕구가 51.4%로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34.2%), 문화 및 여가 서비스(20.1%), 고용지원 서비스(13.0%)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7〉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희망 비율

(단위: %, 가구)

	미혼가구	첫 자녀 출생 전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	첫 자녀 초등학교 재학기	첫 자녀 중등학교 재학기	첫 자녀 대학 교육기	성인 자녀 동거기	노인 가구
A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6.4	4.5	2.5	5.6	6.7	5.7	4.1	4.6
B. 재활 지원 서비스	3.6	—	9.4	18.6	12.8	2.8	7.7	6.4
C.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16.1	18.8	4.5	8.3	11.7	10.5	25.8	51.4
D.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1.4	19.6	68.9	49.0	14.0	2.0	3.7	0.1
E. 보건의료 및 건강 관리	23.2	33.9	7.7	10.7	15.7	31.2	31.1	34.2
F.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5.7	11.6	25.0	34.9	26.8	15.9	10.0	5.3
G. 고용지원 서비스	29.6	8.0	5.7	7.9	12.8	27.9	18.4	13.0
H.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5.4	6.3	1.8	3.7	4.2	6.1	4.1	5.1
I. 문화 및 여가 서비스	39.6	49.1	17.5	30.4	36.8	39.4	32.2	20.1
J. 지역사회서비스	4.3	6.3	7.6	16.1	13.6	11.8	13.2	8.9
K. 환경 서비스	3.2	5.4	2.4	5.8	6.3	5.4	6.9	6.9
평균 희망서비스 개수 <sup>1)</sup>	1.4 (1.39)	1.6 (1.63)	1.5 (1.53)	1.9 (1.91)	1.6 (1.61)	1.6 (1.59)	1.6 (1.57)	1.6 (1.56)
계(가구 수)	280	112	595	484	522	459	729	846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복수의 서비스 선택이 가능함.

□ 희망 사회서비스 항목에 대해 가구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3-1-8〉과 같음

○ 우선 ‘조부모+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34.7%),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30.5%),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서비스(24.0%)의 이용 희망 비율이 높은 반면,

– 환경 서비스(1.8%), 고용지원 서비스(7.2%),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7.2%)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문화 및 여가 서비스(32.6%)의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28.8%),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서비스(23.3%),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20.0%) 순으로 높은 욕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

- ‘한부모+자녀’ 가구의 경우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47.5%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 및 여가 서비스(24.9%), 재활지원 서비스(18.6%)의 욕구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조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는 재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33.3%로 가장 높았고,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29.2%,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25.0%로 제시되어 높은 수준
- ‘부부’가구의 경우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43.4%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 및 여가 서비스(31.8%), 성인 돌봄 서비스(25.4%) 순으로 높은 욕구 분포
- ‘1인가구’의 경우는 1인가구의 절반이상의 응답자가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51.6%)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23.6%), 문화 및 여가 서비스(23.3%) 순으로 높았음
- 희망 사회서비스 갯수는 노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거주하는 ‘조부모+부모+자녀’ 유형에서 1.9개(SD=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가 1.8개로 나타나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각각 SD=1.25, 1.05)

〈표 3-1-8〉 가구유형별 사회서비스 희망 비율

(단위: %, 가구)

	조부모 +부모 +자녀	부부 +자녀	한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부부	1인가구
A.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9.6	4.3	7.2	4.2	5.7	4.2
B. 재활 지원 서비스	19.2	8.6	18.6	33.3	5.4	4.7
C.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0.5	7.7	47.5	29.2	25.4	51.6
D.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34.7	28.8	11.8	12.5	4.1	0.6
E. 보건의료 및 건강 관리	18.0	20.0	13.1	25.0	43.4	23.6
F.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24.0	23.3	10.0	8.3	8.0	3.9
G. 고용지원 서비스	7.2	14.9	17.2	12.5	16.8	15.4
H.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7.2	3.2	8.6	8.3	5.0	5.2
I. 문화 및 여가 서비스	17.4	32.6	24.9	20.8	31.8	23.3

	조부모 +부모 +자녀	부부 +자녀	한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부부	1인가구
J. 지역사회서비스	19.2	11.5	11.8	20.8	10.9	6.1
K. 환경 서비스	1.8	5.3	10.0	8.3	7.3	4.7
평균 이용서비스 개수 <sup>1)</sup>	1.9 (1.14)	1.6 (1.00)	1.8 (1.25)	1.8 (1.05)	1.6 (0.83)	1.4 (0.67)
계(가구 수)	167	2,323	221	24	560	709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복수의 서비스 선택이 가능함.

□ 가구 특성별로 사회서비스 욕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돌봄가구원 존재여부에 따라 ‘12세 미만 아동 가구원이 있는 가구’,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우선 12세 미만 아동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는 아동돌봄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있는 비율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서비스(28.5%), 문화 및 여가 서비스(23.8%) 순으로 높았음

○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55.8%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29.8%),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15.2%), 문화 및 여가 서비스(15.1%)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는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64.7%)이 절대적으로 높은 욕구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지원 서비스(34.6%), 문화 및 여가 서비스(16.2%),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16.0%)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 맞벌이 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서비스 욕구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맞벌이 가구’는 문화 및 여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34.9%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24.9%),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서비스(20.4%),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20.2%)에 대한 욕구가 높은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는 성인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가구가 전체 수급가구 중 82.3%를 차지하여 상당히 높은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

었고, 이어서 재활지원 서비스(17.3%), 문화 및 여가 서비스(12.4%),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11.6%)의 순

〈표 3-1-9〉 가구특성별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 비율

(단위: %, 가구)

	돌봄가구원 존재 여부			맞벌이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가구
	12세 미만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		
A.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4.0	5.3	4.7	4.4	2.5
B. 재활 지원 서비스	13.9	8.9	34.6	5.5	17.3
C.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7.0	55.8	64.7	7.6	82.3
D.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58.0	5.1	16.0	20.2	8.0
E. 보건의료 및 건강 관리	9.1	29.8	10.4	24.9	11.6
F.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28.5	7.9	11.2	20.4	5.1
G. 고용지원 서비스	6.9	9.0	5.5	14.9	5.1
H.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2.9	5.8	4.7	3.	6.9
I. 문화 및 여가 서비스	23.8	15.1	16.2	34.9	12.4
J. 지역사회서비스	11.9	15.2	9.6	13.4	8.0
K. 환경 서비스	4.0	5.5	4.1	5.5	4.0
평균 이용서비스 개수 <sup>1)</sup>	1.7 (1.17)	1.6 (0.90)	1.8 (1.24)	1.6 (0.88)	1.6 (1.03)
계(가구 수)	1,237	722	850	1,444	525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복수의 서비스 선택이 가능함.

## 제2절 사회서비스 세부 영역별 이용 및 욕구 현황

□ 본 절에서는 11개 사회서비스 영역별 하위 세부 서비스를 구분하여 세부 서비스 유형별 이용 및 욕구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서비스 이용 현황으로는 11개 서비스 영역별로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 당사자인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서비스 이용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제시하였음

□ 이어서 영역별 세부 서비스에 따른 기초 이용 실태(월평균 이용 시간 및 서비스

지출액, 경제상황대비 부담정도, 이용후 삶의 질 개선정도, 공급량 적정성에 대한 의견, 서비스 이용 만족도)을 살펴보았음

○ 서비스 욕구와 관련해서는 11개 서비스 영역별로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세부 서비스 유형별로 서비스 필요도, 비이용 사유, 이용의향 정도, 서비스 지불의사, 이용 희망 시간 등을 분석하였음

## 1.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가.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 가구(4,038가구) 대비 0.9%인 35가구에 거주하는 41명의 가구원이 이용하고 있었음

○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는 가구주 본인과 배우자의 이용률이 전체의 2/3가량을 차지하였으며 이용자 평균 연령도 41.7세로 나타나 성인의 이용 비율이 높음을 짐작해볼 수 있음

- 교육수준은 고졸이하(26.8%), 대졸이상(46.3%)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
- 경제활동상태는 상용근로자(26.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학업(19.5%), 주부(19.5%), 무직·퇴직(14.6%)의 순
-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원의 경우 장애를 가진 이용자는 29.3%였으며, 만성질환 보유 비율 역시 약 25%(신체적 질환+정신적 질환)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전체의 2/3 차지



〈표 3-2-1〉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단위: %, 세)

	이용 가구원 수 (n=41)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34.1
배우자	34.1
미혼자녀	29.3
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	—
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2.4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조부모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
기타친족 및 비혈연 동거인	—
성별	
남	58.5
여	41.5
연령	
10세 미만	4.9
10~19세	12.2
20~29세	9.8
30~39세	14.6
40~49세	14.6
50~59세	26.8
60~69세	12.2
70세 이상	4.9
평균연령(표준편차)	41.7(18.18)
교육수준	
미취학(만6세 이하)	4.9
초졸이하	12.2
중졸이하	9.8
고졸이하	26.8
대졸이상	46.3
혼인상태	
미혼	34.1
유배우	58.5
별거	—
이혼	4.9
사별	2.4
경제활동상태	

	이용 가구원 수 (n=41)
상용근로자	26.8
임시/일용 근로자	9.8
고용주/자영업자	2.4
무급가족종사자	—
일시휴직	2.4
구직활동	—
주부(임신/출산, 돌봄, 가사)	19.5
학업	19.5
무직/퇴직	14.6
해당없음 <sup>1)</sup>	4.9
기타	—
장애여부	
장애없음	70.7
장애있음	29.3
만성질환	
신체적 질환	19.5
정신적 질환	4.9
만성질환 없음	75.6
주관적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함	2.4
별로 건강하지 못함	29.3
대체로 건강함	36.6
매우 건강함	31.7

주: 1) 미취학 아동의 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응답하였음.

-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35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소득은 297.3만원으로 분석
- 주관적인 경제상태는 2.29점으로 약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으며, 주관적으로 판단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9단계 중 '중하'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가구가 37.1%로 가장 많았음
  -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없었으며,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하상+하중+하하)'라고 응답

〈표 3-2-2〉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이용 가구 (N=35)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7.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4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7.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1
	400만원 이상	37.1
	평균 월소득(만원)	297.3 (156.68)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sup>1)</sup>	2.29 (0.79)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
	상하	—
	중상	—
	중중	14.3
	중하	37.1
	하상	8.6
	하중	22.9
	하하	17.1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35가구를 대상으로 세부 서비스별 이용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의 경우 민간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로 ①개별상담, 집단 상담을 포함하는 전문 상담서비스, ②사례관리서비스, ③돌봄가족원(부양자) 지원 서비스, ④부모상담이나 부모상담 등을 의미하는 가족상담서비스, ⑤위기가정에 대한 위기가정 문제 관련 지원·상담 서비스, ⑥아동학대나 방임·노인학대·성폭력·가정폭력 등과 관련한 폭력·학대 관련 상담 서비스로 구분하였으며, 상담관련 정부서비스로 ⑦정신보건 증진센터의 이용, ⑧알코올 또는 약물중독·게임중독 상담센터, ⑨학교부적응 및 위기에 처한 학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Wee 프로젝트 이용, ⑩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서비

스, ⑪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였다.

-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중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세부 서비스는 ‘전문상담 서비스’였으며, ‘가족상담 서비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절대적인 이용 가구 수는 매우 낮은 실정
- 월 평균 이용 시간은 최대 54.8시간(돌봄가족원 지원서비스)에서 최소 3.7시간(정신보건증진센터 이용)
  - 월평균 지출액은 ‘전문상담 서비스’의 경우 월 평균 약 90,000원으로 가장 지출액이 높았으며, ‘정신보건증진센터’는 무료로 이용
  -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사용시간과 월평균 서비스 지출액이 낮게 나타났음

〈표 3-2-3〉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단위: %, 가구, 시간, 원)

		이용률 <sup>1)</sup>		월평균 사용시간 (시간)	월평균 서비스 지출액 (원)
		비율	가구 수		
민간 서비스	전문상담 서비스	45.7	16	25.3 (89.26)	90,000 (92159.28)
	돌봄가족원 지원 서비스	17.1	6	54.8 (45.93)	60,333 (38893.02)
	가족상담 서비스	20.0	7	3.3 (0.95)	66,000 (45003.70)
정부 제공 서비스	정신건강증진센터	8.6	3	3.7 (0.58)	- -
	알콜 및 약물중독, 게임중독 상담센터	5.7	2	9.0 (8.49)	15,000 (21213.20)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20.0	7	5.9 (6.64)	47,571 (57136.84)

주: 1) 중복응답 문항으로, 상담영역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세부 서비스 이용 비중을 산출함. 즉,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35가구 중 45.7%가 전문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상담영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세부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조사하였음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출비용이 각 가구의 경제상황 대비 어느 정도 부담스러

운지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1.3~2.7점 수준에 분

- ‘돌봄가족원 지원서비스(respite care)’가 2.7점으로 가장 부담 정도가 큰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부담 정도는 정부제공 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 치였으며, ‘정신보건증진센터’ 이용이 1.3점으로 가장 부담 정도가 낮았음
- 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질문한 ‘이용후 삶의 질 개선 정도’는 4점 만점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세부 서비스 영역에서 3점 이상으로 개선정도를 높게 평가
- 삶의 질 개선 정도는 ‘정신보건증진센터’의 경우 3.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전문 상담서비스’는 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 편의 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느낀 서비스 제공 기관 수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은 전반적으로 3점대로 나타나 적당한 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3.5~3.8점으로 제시되어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2-4〉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경제상황 대비 부담 정도 <sup>2)</sup>	이용후 삶의 질 개선정도 <sup>3)</sup>	공급량 적정성 판단 <sup>4)</sup>	서비스 이용 만족도 <sup>5)</sup>
민간 서비스	전문상담 서비스	2.2 (0.83)	2.9 (0.44)	2.7 (0.60)	3.6 (0.52)
	돌봄가족원 지원 서비스	2.7 (0.82)	3.2 (0.41)	3.0 (0.89)	3.8 (0.98)
	가족상담 서비스	2.3 (0.95)	3.3 (0.49)	3.3 (0.49)	3.6 (0.53)
정부 제공 서비스	정신건강증진센터	1.3 (0.58)	3.7 (0.58)	3.0 (1.00)	3.7 (1.53)
	알콜 및 약물중독, 게임중독 상담센터	2.0 —	3.5 (0.71)	3.0 —	3.5 (0.71)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9 (1.07)	3.4 (0.53)	2.9 (0.90)	3.6 (0.53)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해당 서비스 이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부담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 ‘별로 부담되지 않음(2점)’, ‘대체로 부담되는 편(3점)’, ‘매우 부담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3)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오히려 악화되었음(1점)’, ‘별다른 변화 없음(2점)’, ‘대체로 나아짐(3점)’, ‘매우 좋아짐(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개선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4)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 편의 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에 대해 ‘매우 부족(1점)’, ‘대체로 부족(2점)’, ‘적당한 편(3점)’, ‘충분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제공기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5)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 ‘대체로 불만족(2점)’, ‘보통(3점)’, ‘대체로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나.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욕구 현황

-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욕구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향후 1년 이내에 해당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였음
-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응답 가구 대비 4.8%인 195가구로 나타났으며,
- 이 중 1/3은 월평균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평균 소득액은 325.5만원(SD=171.73만원)으로 분석
- 주관적인 경제상태는 2.53점으로 보통 이하의 약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3의 가구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중상+중중+중하)’으로 답하였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상중+상하)’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가구도 약 5%로 나타났음

〈표 3-2-5〉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욕구 보유 가구 (N=195)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6.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7.4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9.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1.0
	400만원 이상	35.9
	평균 월소득	325.5 (171.73)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53 (0.68)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0.5
	상하	3.1
	중상	6.2

	욕구 보유 가구 (N=195)
중중	25.1
중하	28.7
하상	20.0
하중	10.3
하하	6.2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표출된 욕구의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세부 서비스 별 욕구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의 세부 서비스별 필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3-2-6> 과 같음

-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가운데 41.5%는 '전문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가장 필요도가 높은 영역이었으며,
- '정신보건증진센터(26.7%)', '가족상담 서비스(20.0%)'의 필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세부 서비스의 욕구가 있는 가구 중 해당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필요도에 비해 이용률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전문 상담서비스의 경우 욕구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41.5%인데 반해 3.6%의 가구만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약 38%p로 보고되었음
- '위기가정 문제 관련 지원 상담서비스', '폭력·학대관련 상담서비스', 'Wee프로젝트 이용',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서비스'는 필요도는 있었으나, 현재 서비스 이용자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6〉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단위: %)

		필요도 <sup>2)</sup>	이용률 <sup>3)</sup>
민간 서비스	전문 상담서비스	41.5	3.6
	사례관리서비스	2.1	2.1
	돌봄가족원 지원서비스	8.7	1.0
	가족상담서비스	20.0	0.5
	위기가정 문제 관련 지원 상담서비스	1.5	—
	폭력/학대관련 상담서비스	4.1	—
정부 제공 서비스	정신보건증진센터	26.7	1.0
	알콜 및 약물중독, 게임중독 상담센터	4.1	0.5
	Wee프로젝트 이용	2.6	—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서비스	6.2	—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2.8	0.5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필요도는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195 가구를 대상으로 각 세부서비스 별 필요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함.

3) 이용률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로서, 앞서 살펴본 서비스 이용현황의 이용률과 상이할 수 있음.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욕구현황의 이용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앞서 〈표 3-2-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향후 1년 이내 상담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며, 필요도가 높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비이용 사유에 대해 조사하였음

○ 전반적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사례관리 서비스’는 75.0%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 답하였으며,

○ ‘위기가정 문제 관련 지원 상담서비스(66.7%)’, ‘가족상담서비스(63.2%)’, ‘폭력·학대관련 상담서비스(62.5%)’, ‘돌봄가족원 지원 서비스(60.0%)’ 등 서비스 정보부족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한편 ‘제공기관 정보 부족’을 현재 서비스 비이용 사유로 꼽은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서비스(58.3%)’, ‘정신보건증진센터(46.0%)’, ‘Wee프로젝트 이용(40.0%)’의 경우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이 이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 ‘알콜 및 약물중독, 게임중독 상담센터’의 경우는 서비스의 불만족으로 인해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7.1%로 불만족을 야기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표 3-2-7〉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단위: %, 가구)

		비이용 사유					계 <sup>2)</sup>
		비용부담	제공기관 부족	서비스의 불만족	서비스 정보 부족	제공기관 정보 부족	
민간 서비스	전문 상담서비스	17.6	13.5	4.1	36.5	28.4	100.0(74)
	사례관리서비스	—	25.0	—	75.0	—	100.0( 4)
	돌봄가족원 지원서비스	6.7	—	6.7	60.0	26.7	100.0(15)
	가족상담서비스	13.2	5.3	2.6	63.2	15.8	100.0(38)
	위기가정 문제 관련 지원 상담서비스	—	—	—	66.7	33.3	100.0( 3)
	폭력/학대관련 상담서비스	12.5	—	—	62.5	25.0	100.0( 8)
정부 제공 서비스	정신보건증진센터	20.0	14.0	4.0	16.0	46.0	100.0(50)
	알콜 및 약물중독, 게임중독 상담센터	—	14.3	57.1	28.6	—	100.0( 7)
	Wee프로젝트 이용	—	20.0	—	40.0	40.0	100.0( 5)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서비스	—	8.3	—	33.3	58.3	100.0(12)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4.2	4.2	8.3	45.8	37.5	100.0(24)

주: 1) 괄호 안은 가구 수임.

2) 해당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질문임.

□ 서비스 욕구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세부 서비스별 이용 의향의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대부분 3.5점 이상으로 의향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보건증진센터’의 이용이 4.3점으로 이용의향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제시

○ 그러나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 지불 의사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용의향이 가장 높았던 ‘정신보건증진센터’의 경우 25.0%만이 이용료를 지불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상담 서비스’는 30.9%,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서비스’는 33.3%만이 이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반면 ‘위기가정 문제 관련 지원 상담서비스’의 경우 가장 높은 66.7%의 욕구 보유자가 이용료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불가능 비용은 최소 15,000원(사례관리 서비스)에서 최대 67,000원(가

족상담 서비스)사이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 한달 평균 대부분 10시간 미만의 서비스 이용을 희망

〈표 3-2-8〉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단위: %, 원, 시간)

		서비스 이용의향 <sup>2)</sup>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5)</sup>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3)</sup>	지불 가능 비용 <sup>4)</sup>	
민간 서비스	전문 상담서비스	4.1 (0.86)	30.9	40,800.0 (30127.51)	9.7 (39.53)
	사례관리서비스	3.8 (0.50)	50.0	15,000.0 (7071.07)	3.3 (2.22)
	돌봄가족원 지원서비스	4.2 (0.56)	35.3	56,666.7 (36696.96)	21.9 (36.90)
	가족상담서비스	4.1 (0.42)	35.9	67,142.9 (55943.46)	5.0 (3.72)
	위기가정 문제 관련 지원 상담서비스	3.7 (0.58)	66.7	35,000.0 (21213.20)	5.0 (4.58)
	폭력/학대관련 상담서비스	3.5 (0.76)	—	—	7.4 (3.38)
정부 제공 서비스	정신보건증진센터	4.3 (0.74)	25.0	73,846.2 (44821.58)	5.4 (3.11)
	알콜 및 약물중독, 게임중독 상담센터	3.6 (0.92)	50.0	57,500.0 (29860.79)	4.8 (3.58)
	Wee프로젝트 이용	4.0 —	—	—	7.2 (7.16)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서비스	4.3 (0.65)	33.3	45,000.0 (40414.52)	11.0 (7.65)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4.1 (0.53)	48.0	37,083.3 (14841.33)	8.3 (9.10)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서비스 이용 의향은 서비스 욕구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의향의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혀 의향 없음(1점)~반드시 이용(5점)

3)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4) 지불가능비용이란 해당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에서 월평균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평균임.

5)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한 달 평균 총 이용시간의 평균임.

## 2. 재활 지원 서비스

### 가. 재활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 재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 가구(4,038가구) 대비 7.9%인 317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구에 거주하는 385명의 가구원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음
  - 재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미혼자녀가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82.9%, 평균 이용자 연령은 15.4세로 아동·청소년 이용자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유추
  - 재활 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75.6%가 장애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약 절반가량의 이용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대체로 건강함+매우 건강함)고 응답한 비율과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
- 재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이용 가구 중 약 1/3이 월평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소득 수준을 보였으며, 평균 소득은 230.8만원으로 나타났음
  - 주관적 경제상태는 1점='매우 어려움'에서 5점='매우 여유로움'으로 분포된 가운데 평균 2.12점(SD=.73)으로 약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유추 가능
  -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중상+중중+중하)'이나 '하(하상+하중+하하)'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절반을 차지 유추 가능
  -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중상+중중+중하)'이나 '하(하상+하중+하하)'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절반을 차지

〈표 3-2-9〉 재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단위: %, 세)

	이용 가구원 (N=385)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7.5
배우자	2.9
미혼자녀	84.2
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	—
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	4.7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0.3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조부모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0.5
기타친족 및 비혈연 동거인	—
성별	
남	64.7
여	35.3
연령	
10세 미만	38.7
10~19세	44.2
20~29세	5.2
30~39세	1.3
40~49세	3.4
50~59세	4.4
60~69세	2.3
70세 이상	0.5
평균연령(표준편차)	15.4(14.81)
교육수준	
미취학(만6세 이하)	26.2
초졸이하	41.8
중졸이하	14.5
고졸이하	16.4
대졸이상	1.0
혼인상태	
미혼	92.5
유배우	4.4
별거	0.3
이혼	1.3
사별	1.6
경제활동상태	

	이용 가구원 (N=385)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 근로자	1.3
고용주/자영업자	0.3
무급가족종사자	—
일시휴직	0.3
구직활동	—
주부(임신/출산, 돌봄, 가사)	1.8
학업	56.4
무직/퇴직	13.2
해당없음 <sup>1)</sup>	26.5
기타	0.3
장애여부	
장애없음	24.4
장애있음	75.6
만성질환	
신체적 질환	18.2
정신적 질환	24.4
만성질환 없음	57.4
주관적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함	17.4
별로 건강하지 못함	26.5
대체로 건강함	35.8
매우 건강함	20.3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를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표 3-2-10〉 재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이용 가구 (N=317)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2.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2.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6.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2
	400만원 이상
	9.8
	230.8
	(131.17)

		이용 가구 (N=317)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12 (0.78)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0.3
	상하	0.3
	중상	2.2
	중중	18.3
	중하	28.4
	하상	15.1
	하중	15.1
	하하	20.2

□ 재활 지원 서비스의 세부 서비스 영역별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세부 서비스 영역을 다음과 같이 11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민간 서비스는 ①장애진단판정 서비스, ②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을 포함하는 신체적 재활 지원 서비스, ③직업재활서비스, ④사회심리재활 서비스, ⑤음악·놀이·미술 등 특수 심리치료, ⑥언어치료, ⑦알코올 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 ⑧수화 서비스로 구분
- 정부제공 재활 지원 서비스는 ⑨발달재활 서비스, ⑩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⑪시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등 포함
- 재활 지원 서비스의 세부 영역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는 정부제공 서비스인 ‘발달재활서비스’와 시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에게 제공되는 ‘언어발달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민간 서비스로는 ‘신체적 재활 서비스’, ‘언어치료’ 서비스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월평균 이용시간은 202.5시간으로 제시된 ‘수화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서비스가 11시간에서 24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진단판정 서비스’가 4.5시간으로 가장 적었음
- 월평균 서비스 지출액은 ‘직업재활 서비스’가 68,333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진단판정 서비스’가 5,000원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월 평균 20,000~50,000원 가량의 서비스

## 이용료를 지불

〈표 3-2-11〉 재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단위: %, 가구, 시간, 원)

		이용 가구		월평균 사용시간 (시간)	월평균 서비스 지출액 (원)
		비율	가구 수		
민간 서비스	장애진단·판정 서비스	1.9	6	4.5 (3.83)	5,000 (8366.60)
	신체적 재활 서비스	14.8	47	22.3 (28.46)	53,085 (106147.52)
	직업재활 서비스	0.9	3	11.7 (8.51)	68,333 (114054.08)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2.8	9	12.4 (9.04)	34,444 (36780.13)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 심리치료	7.6	24	14.9 (14.65)	43,520 (46017.36)
	언어치료	13.2	42	24.9 (60.86)	36,595 (43821.18)
	수화서비스	0.6	2	202.5 (279.31)	20,000 (28284.27)
정부 제공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53.3	169	20.7 (43.61)	45,736 (51455.40)
	언어발달 서비스 <sup>3)</sup>	26.2	83	12.7 (34.94)	23,530 (25561.66)

주: 1) 중복응답 문항으로, 재활 영역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세부 서비스 이용 비중을 산출함. 즉,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317가구 중 1.9%가 장애진단·판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3) 시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서비스를 의미

○ 재활 지원 서비스 영역의 세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으로 경제상황 대비 부담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이용자가 1.5~2.5점으로 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부담 정도가 큰 서비스는 ‘직업재활 서비스’로 확인

– 해당 서비스는 앞서 〈표 3-2-11〉에서 재활 지원 서비스 영역 내 월평균 이용료 지불 비용이 가장 큰 서비스 영역(68,333원)으로 제시된 바 있음

○ 서비스 이용 후 나타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는 1점=‘오히려 악화되었음’에서 4점=‘매우 좋아짐’으로 분포한 응답에 대해, 대부분의 세부 서비스 이용자가 3점대의 긍정적인 결과를 응답

○ 서비스의 공급량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걱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5점 만점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 심리치료’, ‘수화서비스’ 영역에서 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의 세부 서비스도 모두 3.5점 이상의 높은 수치로 나타나 재활 지원 서비스의 세부 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사료

〈표 3-2-12〉 재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sup>2)</sup>	이용후 삶의 질 개선정도 <sup>3)</sup>	공급량 적정성 판단 <sup>4)</sup>	서비스 이용 만족도 <sup>5)</sup>
민간 서비스	장애진단·판정 서비스	1.5 (0.55)	3.0 (0.63)	2.7 (1.03)	3.7 (1.37)
	신체적 재활 서비스	1.9 (0.84)	3.2 (0.58)	2.9 (0.86)	3.8 (0.67)
	직업재활 서비스	2.3 (0.58)	3.7 (0.58)	2.3 (0.58)	3.7 (0.58)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1.7 (0.87)	3.3 (0.50)	2.9 (0.93)	4.0 (0.87)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 심리치료	2.2 (0.96)	3.4 (0.58)	2.8 (0.82)	4.0 (0.59)
	언어치료	2.2 (0.84)	3.1 (0.49)	2.8 (0.74)	3.8 (0.68)
	수화서비스	2.5 (0.71)	3.5 (0.71)	2.5 (0.71)	4.0 (1.41)
정부 제공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2.1 (0.97)	3.5 (0.63)	3.0 (0.85)	3.9 (0.77)
	언어발달 서비스 <sup>3)</sup>	1.9 (0.97)	3.2 (0.69)	2.9 (0.84)	3.8 (1.01)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해당 서비스 이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부담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 ‘별로 부담되지 않음(2점)’, ‘대체로 부담되는 편(3점)’, ‘매우 부담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3)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오히려 악화되었음(1점)’, ‘별다른 변화 없음(2점)’, ‘대체로 나아짐(3점)’, ‘매우 좋아짐(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개선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4)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 편의 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에 대해 ‘매우 부족(1점)’, ‘대체로 부족(2점)’, ‘적당한 편(3점)’, ‘충분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제공기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5)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 ‘대체로 불만족(2점)’, ‘보통(3점)’, ‘대체로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6) 시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서비스를 의미



## 나. 재활 지원 서비스 욕구 현황

□ 현재 재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재활 지원 서비스 욕구가 어떠한지, 그 현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재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 의사가 있는 가구는 전체 응답 가구 중 8.6%인 347가구로 나타났다

○ 이용 희망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2.2%

○ 주관적 경제상태는 2.16점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26.8%로 가장 많았으며 ‘하(하상+하중+하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

〈표 3-2-13〉 재활 지원 서비스 욕구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욕구 보유 가구 (N=347)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7.6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9.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2.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8.4
	400만원 이상	12.1
	평균 월소득	226.9 (141.84)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16 (0.78)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0.6
	상하	1.4
	중상	2.3
	중중	17.3
	중하	26.8
	하상	15.6
	하중	14.4
	하하	21.6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재활 지원 서비스 영역의 세부 서비스별 욕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부 서비스 필요도는 ‘발달재활 서비스(37.2%)’, ‘신체적 재활 서비스(28.2%)’, ‘언어발달 서비스(17.3%)’, ‘언어치료(14.4%)’ 순
- 한편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는 응답자 중,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언어치료’와 ‘언어발달 서비스’의 경우 욕구와 실제 이용간의 격차가 가장 작은 영역
  - ‘언어발달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비율과 이용자의 비율이 17.3%로 동일하게 분석
  - ‘언어치료 서비스’의 경우 14.4%의 응답자가 욕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10.4%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욕구대비 이용률이 높은 수준임을 가늠

〈표 3-2-14〉 재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단위: %)

		필요도 <sup>2)</sup>	이용률 <sup>3)</sup>
민간 서비스	장애진단·관정 서비스	2.3	0.3
	신체적 재활 서비스	28.2	11.8
	직업재활 서비스	4.6	0.3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7.8	2.0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 심리치료	11.2	5.2
	언어치료	14.4	10.4
	알콜·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	0.9	—
	수화서비스	2.3	0.6
정부 제공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37.2	34.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2	—
	언어발달 서비스 <sup>4)</sup>	17.3	17.3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필요도는 재활 지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347명을 대상으로 각 세부서비스별 필요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함.

3) 이용률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로서, 앞서 살펴본 서비스 이용현황의 이용률과 상이할 수 있음.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욕구현황의 이용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4) 청각장애부모를 둔 자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임.

- 한편 서비스 욕구가 있음에도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비이용 사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재활 지원 서비스 세부 영역에서 ‘서비스 정보 부족’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알콜·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 서비스는 응답자 전수가 서비스 정보 부족이라 답했으며, ‘직업재활 서비스’는 46.7%, ‘장애진단·판정 서비스’는 42.9%의 응답자가 서비스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표출
- 비이용 사유로 ‘정보부족’에 이어 ‘비용 부담’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언어치료’의 경우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비용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 ‘발달재활서비스’(44.4%),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 심리치료(38.1%)’ 등 치료와 관련된 세부 서비스 영역에서 비용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어서 ‘제공기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 특정 요건 충족(장애등급등)을 전제하는 재활 지원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대상자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용 비율도 높은 수준

〈표 3-2-15〉 재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단위: %, 가구)

		비이용 사유							계 <sup>2)</sup>
		비용 부담	제공 기관 부족	서비스 불만족	서비스 정보 부족	제공 기관 정보 부족	시간 부족	대상자 요건 미충족	
민간 서비스	장애진단·판정 서비스	14.3	28.6	14.3	42.9	—	—	—	100.0( 7)
	신체적 재활 서비스	14.0	14.0	8.8	38.6	21.1	3.5	—	100.0(57)
	직업재활 서비스	13.3	6.7	—	46.7	13.3	6.7	13.3	100.0(15)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10.0	10.0	20.0	25.0	25.0	—	10.0	100.0(20)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 심리치료	38.1	9.5	—	28.6	9.5	9.5	4.8	100.0(21)
	언어치료	57.1	—	—	21.4	14.3	7.1	—	100.0(14)
	알콜·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	—	—	—	100.0	—	—	—	100.0( 3)
	수화서비스	—	—	—	66.7	16.7	—	16.7	100.0( 6)

		비용 사유							계 <sup>2)</sup>
		비용 부담	제공 기관 부족	서비스 불만족	서비스 정보 부족	제공 기관 정보 부족	시간 부족	대상자 요건 미충족	
정부 제공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44.4	11.1	11.1	11.1	22.2	-	-	100.0( 9)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5.0	-	-	25.0	50.0	-	-	100.0( 4)
	언어발달 서비스 <sup>4)</sup>	-	-	-	-	-	-	-	-

주: 1) 괄호 안은 가구 수임.

2) 해당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질문임.

□ 재활 지원 서비스 세부 영역의 이용의향 정도는 세부 서비스 종류에 관계없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반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지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는데, ‘장애진단·판정 서비스’와 ‘알콜·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의 경우는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 ‘사회심리재활 서비스’는 22.2%의 응답자가 지불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25.0%의 응답자만이 지불의사가 있었음

○ 지불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은 ‘발달재활 서비스(50.4%)’,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 심리치료(48.7%)’, ‘언어치료(46.0%)’의 순

○ 세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불 가능 비용 편차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수화 서비스(약 2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약 40,000원~60,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2-16〉 재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단위: %, 원, 시간)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4)</sup>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2)</sup>	지불 가능 비용 <sup>3)</sup>	
민간 서비스	장애진단·판정 서비스	4.6 (0.52)	-	-	128.3 (351.85)
	신체적 재활 서비스	4.3 (0.72)	30.6	44000.0 (31111.59)	19.0 (20.27)
	직업재활 서비스	4.5 (0.52)	31.3	41000.0 (10246.95)	23.4 (28.43)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4.3 (0.53)	22.2	58333.3 (70828.43)	10.8 (8.95)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 심리치료	4.6 (0.59)	48.7	48157.9 (29259.88)	16.4 (17.95)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2)</sup>	지불 가능 비율 <sup>3)</sup>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4)</sup>
	언어치료	4.5 (0.81)	46.0	45000.0 (26713.97)	28.9 (83.88)
	알콜·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	4.7 (0.58)	—	— —	19.7 (12.66)
	수화서비스	4.1 (0.64)	37.5	20000.0 (17320.51)	85.3 (208.23)
정부 제공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4.8 (0.45)	50.4	53815.4 (48124.80)	27.7 (69.91)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3.8 (0.50)	25.0	50000.0 —	11.5 (5.74)
	언어발달 서비스 <sup>4)</sup>	4.7 (0.58)	38.3	42652.2 (37670.35)	11.3 (8.70)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3) 지불가능 비용이란 해당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에서 월평균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평균임.

4)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한달 평균 총 이용시간의 평균임.

### 3.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가.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 가구 (4,038가구) 대비 22.4%인 904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구에 거주하는 984명의 가구원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음

○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경우 가구주 본인과 배우자의 이용 비율이 약 80%로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성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40세 이상의 이용이 2/3 이상을 차지하여 이용자의 평균연령은 50.4세 (SD=21.26)였으며, 중졸 이하의 교육을 받은 이용자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여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

○ 서비스 이용자의 유배우 비율이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나,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놓여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다른 세부 서비스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경제활동 상태는 무직·퇴직이 55.7%로 가장 많았으며, 28.4%는 주부로 나타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용자의 비율이 높았음
- 서비스 이용자의 2/3가량이 장애를 겪고 있으며, 만성질환 보유 비율은 57.3%(신체적 질환+정신적 질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약 30%의 이용자만이 건강하다고 응답

〈표 3-2-17〉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단위: %, 세)

	이용 가구원 (N=984)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51.3
배우자	32.1
미혼자녀	11.3
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	0.5
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	0.4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3.5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조부모	0.2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0.4
기타친족 및 비혈연 동거인	0.3
성별	
남	34.6
여	65.4
연령	
10세 미만	0.7
10~19세	5.1
20~29세	9.8
30~39세	22.8
40~49세	13.5
50~59세	13.5
60~69세	9.6
70세 이상	25.1
평균연령(표준편차)	50.4 (21.26)
교육수준	
미취학(만6세 이하)	0.3
초졸이하	39.2
중졸이하	13.9

	이용 가구원 (N=984)
고졸이하	26.0
대졸이상	20.5
혼인상태	
미혼	23.1
유배우	38.7
별거	0.7
이혼	10.7
사별	26.8
경제활동상태	
상용근로자	4.7
임시/일용 근로자	2.8
고용주/자영업자	1.3
무급가족종사자	0.7
일시휴직	0.2
구직활동	—
주부(임신/출산, 돌봄, 가사)	28.4
학업	5.1
무직/퇴직	55.7
해당없음 <sup>1)</sup>	0.7
기타	0.4
장애여부	
장애없음	37.9
장애있음	62.1
만성질환	
신체적 질환	48.8
정신적 질환	8.5
만성질환 없음	42.7
주관적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함	29.3
별로 건강하지 못함	36.6
대체로 건강함	17.7
매우 건강함	16.5

주: 1)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다음으로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대해 확인한 바, 다른 세부 서비스 영역에 비해 경제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전체 이용 가구의 절반 가량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보고하였으

며 평균 역시 163.6(SD=138.90)만원에 그쳤음

- 주관적 경제상태는 1점=‘매우 어렵다’에서 5점=‘매우 여유롭다’의 분포 가운데 평균 2.02점(SD=0.81)으로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응답가구의 2/3가량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하상+하중+하하)’라고 응답하였음

〈표 3-2-18〉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이용 가구(N=904)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5.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9.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6.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1.3
	400만원 이상	7.5
	평균 월소득	163.6 (138.90)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02 (0.81)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0.3
	상하	0.1
	중상	1.5
	중중	9.7
	중하	20.7
	하상	20.7
	하중	15.7
	하하	31.2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세부 서비스는 총 18개에 대해 서비스 이용 현황과 향후 이용의사를 살펴보았음

- 세부 서비스 가운데 민간 서비스로는 ①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②방문요양 및 간호, ③방문목욕, ④복지용품 급여 및 보장구 지급, ⑤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산후조리서비스, ⑥개인이 이용료를 전액 지불



하는 활동보조서비스, ⑦가사서비스, 목욕, 이·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이동지원 등이 포함되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 ⑧급식서비스, 경로식당 이용, 밀반찬 배달 등 식사제공 서비스가 포함

- 정부 제공 서비스로는 ⑨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사업, ⑩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⑪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⑫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사업, ⑬가사간병방문서비스 바우처 사업, ⑭재가급여, 시설급여, 기타 재가 급여를 포함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⑮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 돌보미, ⑯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한 인력지원, ⑰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 ⑱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분
-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세부 서비스 항목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는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로 나타났다
  - 이는 앞서 4장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 이용자가 표본의 30%로 할당됨에 따른 결과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민간서비스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월평균 이용시간의 경우, 시설서비스로 제공되는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의 경우 326.7시간으로 서비스 이용 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복지용품 급여 및 보장구 지급’ 서비스의 경우 8.7시간으로 짧게 나타났다
- 월평균 서비스 지출액은 민간이 제공하는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가 약 280,000원, 일반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산후조리서비스(일반)’가 282,500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액수였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월 평균 100,000원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 ‘방문요양’, ‘복지용품 급여 및 보장구 지급’,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의 경우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표 3-2-19〉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단위: %, 가구, 시간, 원)

		이용 가구		월평균 사용시간 (시간)	월평균 서비스 지출액 (원)
		비율	가구 수		
민간 서비스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0.3	3	326.7 (340.78)	283,333 (144337.57)
	방문요양	0.6	5	25.4 (46.21)	— —
	방문목욕	1.3	12	11.1 (21.39)	838,333 (2885228.03)
	복지용품 급여/ 보장구 지급	0.3	3	8.7 (9.87)	— —
	산후조리서비스(일반)	0.4	4	94.0 (89.28)	282,500 (351034.19)
	활동보조서비스(일반)	0.4	4	56.3 (57.56)	36,500 (47563.99)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3	21	26.4 (33.30)	10,952 (18095.51)
	식사제공서비스	2.4	22	461.9 (508.99)	3,181 (14924.05)
정부 제공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24.3	220	37.6 (57.72)	57,361 (674667.6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0.7	6	22.7 (19.66)	12,500 (30618.6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	25.9	234	157.1 (651.76)	32,694 (46167.97)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바우처)	27.9	252	92.9 (34.62)	77,889 (75510.29)
	가사간병방문서비스(바우처)	21.6	195	30.1 (34.17)	4,146 (15731.15)
	장기요양보험	0.2	2	60.0 (28.28)	100,000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서비스	0.1	1	3.0 —	— —

주: 1) 중복응답 문항으로,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세부 서비스 이용 비중을 산출함. 즉,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904가구 중 0.3%가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의견으로 경제상황 대비 부담 정도는 대부분의 세부 서비스 영역에서 2점 미만으로 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산후조리서비스(일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3.3점으로 이용

료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짐작해볼 수 있음

-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활동보조서비스(일반)’의 서비스 이용료 역시 2.3점으로 다른 세부 서비스 영역에 비해 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나타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는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에 무관하게 3.5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 세부 서비스 공급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4점 만점에 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 ‘복지용품 급여 및 보장구 지급’ 서비스의 경우 2.3점으로 다른 세부 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편의나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대부분의 영역에서 최고 5.0점(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서비스)에서 최저 4.0점(장기요양보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으로 나타나 앞서 분석한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재활 서비스의 세부 영역의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지게 높은 결과임이 확인되었음

〈표 3-2-20〉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sup>2)</sup>	이용 후 삶의 질 개선정도 <sup>3)</sup>	공급량 적정성 판단 <sup>4)</sup>	서비스 이용 만족도 <sup>5)</sup>
민간 서비스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2.3 (1.15)	3.7 (0.58)	3.3 (1.15)	4.7 (0.58)
	방문요양	1.0 —	3.8 (0.45)	3.6 (0.55)	4.8 (0.45)
	방문목욕	1.3 (0.65)	3.4 (0.67)	3.1 (0.79)	4.3 (0.65)
	복지용품 급여/ 보장구 지급	1.0 —	3.7 (0.58)	2.3 (0.58)	4.3 (1.15)
	산후조리서비스(일반)	3.3 (1.50)	3.8 (0.50)	3.0 (1.15)	4.5 (0.58)
	활동보조서비스(일반)	2.3 (1.50)	3.8 (0.50)	3.8 (0.50)	4.3 (0.50)
	일상생활지원서비스	1.6 (0.97)	3.5 (0.51)	3.2 (0.62)	4.0 (0.59)
	식사제공서비스	1.0	3.7	3.1	4.5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sup>2)</sup>	이용 후 삶의 질 개선정도 <sup>3)</sup>	공급량 적정성 판단 <sup>4)</sup>	서비스 이용 만족도 <sup>5)</sup>
		—	(0.46)	(0.87)	(0.74)
정부 제공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1.4 (0.75)	3.6 (0.55)	3.2 (0.73)	4.4 (0.70)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7 (1.03)	3.7 (0.52)	3.2 (0.75)	4.3 (0.8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	1.7 (1.00)	3.5 (0.59)	3.1 (0.82)	4.2 (0.72)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바우처)	1.7 (0.72)	3.5 (0.57)	3.4 (0.68)	4.2 (0.81)
	가사간병방문서비스(바우처)	1.4 (0.69)	3.5 (0.60)	3.1 (0.78)	4.1 (0.93)
	장기요양보험	3.0 —	3.5 (0.71)	3.5 (0.71)	4.0 (1.41)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서비스	1.0 —	4.0 —	4.0 —	5.0 —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해당 서비스 이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부담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 '별로 부담되지 않음(2점)', '대체로 부담되는 편(3점)', '매우 부담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3)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오히려 악화되었음(1점)', '별다른 변화 없음(2점)', '대체로 나아짐(3점)', '매우 좋아짐(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개선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4)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 편의 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에 대해 '매우 부족(1점)', '대체로 부족(2점)', '적당한 편(3점)', '충분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제공기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5)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 '대체로 불만족(2점)', '보통(3점)', '대체로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나.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욕구 현황

□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욕구를 보유한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욕구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873가구로 전체 응답가구의 21.6%를 차지하였음

○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 역시 이용 가구와 유사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는데, 50%를 상회하는 응답자가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소득 역시 152.4만원(SD=146.07)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주관적 경제상태도 2.0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약 70%에 육박하

는 이용자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하상+하중+하하)’라고 응답하였음

〈표 3-2-21〉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욕구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욕구 보유 가구 (N=873)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50.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1.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6.9
	400만원 이상	9.4
	평균 월소득	152.4 (146.07)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06 (0.84)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0.3
	상하	0.2
	중상	1.6
	중중	10.3
	중하	21.6
	하상	17.2
	하중	16.3
	하하	32.4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하위 세부 서비스 별 욕구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서 서비스 필요도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26.8%)’,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26.6%)’, ‘가사간병방문서비스(26.3%)’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이들 3가지 유형의 서비스의 이용률은 각각 23.8%, 24.2%, 19.7%로 이용 욕구 희망율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

— 그러나 이 수치는 앞서 설명했던 대로 표집단계에서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를 전체 표본의 30%로 할당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일상생활지원서비스(10.1%)’, ‘식사제공서비스(10.0%)’도 높은 수준의 필요도를 보였으나, 이용률의 측면에서 보면 앞서 표본으로 할당된 3개의 세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욕구 대비 이용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2-22〉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단위: %)

		필요도 <sup>2)</sup>	이용률 <sup>3)</sup>
민간 서비스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3.4	0.1
	방문요양	3.7	0.3
	방문목욕	4.2	0.7
	복지용품 급여/ 보장구 지급	1.7	0.1
	산후조리서비스(일반)	1.9	—
	활동보조서비스(일반)	2.2	0.5
	일상생활지원서비스	10.1	1.8
	식사제공서비스	10.0	2.1
정부 제공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26.8	23.8
	노인돌봄기본서비스	9.3	0.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	26.6	24.1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바우처)	2.2	0.2
	가사간병방문서비스(바우처)	26.3	19.7
	장기요양보험	1.8	0.2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3.1	—
	취약농가 인력지원	0.9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서비스	0.3	0.1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0.3	—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필요도는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873명을 대상으로 각 세부서비스별 필요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함.

3) 이용률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로서, 앞서 살펴본 서비스 이용현황의 이용률과 상이할 수 있음.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욕구현황의 이용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욕구 대비 낮은 이용률의 원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과 ‘제공기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응답이 많았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비이용자의 69.2%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을 지적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64.3%가 서비스 정보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음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식사제공 서비스’ 등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복지용품 급여·보장구 지급’의 경우는 서비스 비용이 장애요인임으로 밝혀졌으며, ‘산후조리서비스’와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는 대상자 요건의 미충족으로 인해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활동보조 서비스’의 경우는 제공기관이 부족함에 따라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22.7%, 13.8%, 13.3%로 다른 세부 서비스 영역에 비해 높은 수준

〈표 3-2-23〉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단위: %, 가구)

		이용 사유							계 <sup>2)</sup>
		비용부담	제공기관 부족	서비스의 불만족	서비스 정보 부족	제공기관 정보 부족	필요성이 낮음	지원대상자 요건 미충족	
민간 서비스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13.8	13.8	—	48.3	17.2	—	6.9	100.0(29)
	방문요양	13.8	—	13.8	55.2	17.2	—	—	100.0(29)
	방문목욕	16.1	—	6.5	54.8	19.4	—	3.2	100.0(31)
	복지용품 급여/ 보장구 지급	28.6	7.1	21.4	35.7	7.1	—	—	100.0(14)
	산후조리서비스(일반)	—	5.9	5.9	11.8	29.4	23.5	23.5	100.0(17)
	활동보조서비스(일반)	6.7	13.3	13.3	46.7	13.3	—	6.7	100.0(15)
	일상생활지원서비스	4.2	—	6.9	54.2	19.4	—	2.8	100.0(72)
	식사제공서비스	—	5.8	7.2	44.9	37.7	—	4.3	100.0(69)
정부 제공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	3.8	69.2	19.2	—	7.7	100.0(2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9	9.2	6.6	44.8	27.6	5.2	2.6	100.0(7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9.1	22.7	4.5	18.2	31.8	—	13.6	100.0(22)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5.9	5.9	—	41.2	17.6	5.9	23.5	100.0(17)
	가사간병방문서비스	3.4	5.2	6.9	60.3	20.7	3.4	—	100.0(58)
	장기요양보험	—	—	—	64.3	35.7	—	—	100.0(14)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3.7	7.4	7.4	48.1	33.3	—	—	100.0(27)
	취약농가 인력지원	—	—	12.5	37.5	50.0	—	—	100.0( 8)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서비스	50.0	—	—	50.0	—	—	—	100.0( 2)

	비용부담	제공기관 부족	서비스의 불만족	비용 사유				지원대상 자 요건 미충족	계 <sup>2)</sup>
				서비스 정보 부족	제공기관 정보 부족	필요성이 낮음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	-	-	33.3	66.7	-	-	-	100.0( 3)

주: 1) 괄호 안은 가구 수임.

2) 해당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질문임.

□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세부 서비스 영역별 비용 지불 의사는 몇 개의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복지용품 급여·보장구 지급’ 서비스가 88.2%로 지불의사가 가장 높았으며, ‘산후조리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의 경우도 47.4%로 절반 이상의 욕구 보유자가 이용비용을 지급할 의사를 표명

○ 반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서비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은 지불 의사가 전무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10% 미만의 낮은 지불 의사가 있는 서비스 영역으로 확인

○ 지불 가능 비용은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가 약 295,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약 225,000원,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 약 144,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지불 가능 수준이 높았음

○ 희망 서비스 이용 시간은 ‘장기요양보험’이 월평균 221.6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127.4시간)’, ‘산모신생아도우미(102.9시간)’ 순

〈표 3-2-24〉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단위: %, 원, 시간)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4)</sup>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2)</sup>	지불 가능 비용 <sup>3)</sup>	
민간 서비스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4.1 (0.78)	21.9 (111,361.89)	79.4 (177.10)
	방문요양	4.3 (0.72)	16.2 (15,735.92)	25.8 (28.99)
	방문목욕	4.4 (0.75)	20.0 (8,366.60)	6.9 (6.53)
	복지용품 급여/ 보장구 지급	4.5 (0.52)	88.2 (11,547.01)	95.4 (253.13)
	산후조리서비스(일반)	4.1	47.4	466,666.7 109.8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4)</sup>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2)</sup>	지불 가능 비용 <sup>3)</sup>	
	(0.56)		(534,745.16)	(76.45)
활동보조서비스(일반)	4.3 (0.56)	19.3	63,666.7 (56,356.01)	83.5 (225.05)
일상생활지원서비스	4.5 (0.55)	8.0	40,294.1 (44,104.65)	19.7 (25.93)
식사제공서비스	4.5 (0.63)	17.5	45,714.3 (19,880.60)	159.3 (356.98)
정부 제공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4.7 (0.52)	47,250.5 (41,770.93)	38.9 (36.88)
	노인돌봄기본서비스	4.1 (0.73)	72,000.0 (47,839.02)	38.2 (111.0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	4.7 (0.51)	60,738.4 (41,274.29)	127.4 (112.01)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바우처)	4.3 (0.67)	295,000.0 (645,067.05)	102.9 (93.51)
	가사간병방문서비스(바우처)	4.7 (0.51)	48,873.3 (57,026.42)	34.9 (51.40)
	장기요양보험	4.3 (0.60)	225,000.0 (160,468.07)	221.6 (306.00)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4.1 (0.72)	— —	85.7 (196.03)
	취약농가 인력지원	3.9 (0.83)	65,000.0 (49,497.47)	20.6 (7.11)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서비스	4.7 (0.58)	— —	5.7 (3.79)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4.7 (0.58)	— —	25.0 (1.73)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3) 지불가능비용이란 해당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에서 월평균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평균임.

4)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한달 평균 총 이용시간의 평균임.

#### 4.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 가.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이용 현황

□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는 전체 응답가구(4,038 가구) 대비 22.4%인 525가구의 559명의 가구원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용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이용자의 연령은 5.2세로서 미취학인 경우가 76.2%,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상태가 21.6%로 나타나 대부분 유아동기

### 에 놓인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 장애나 만성질환의 보유비율은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를 상회하며 이용자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은 양호

〈표 3-2-25〉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단위: %, 세)

	이용 가구원 (N=559)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
배우자	—
미혼자녀	97.3
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	—
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	2.5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조부모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
기타친족 및 비혈연 동거인	0.2
성별	
남	52.6
여	47.4
연령	
10세 미만	86.2
10~19세	13.8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69세	—
70세 이상	—
평균연령(표준편차)	5.2(21.26)
교육수준	
미취학(만6세 이하)	76.2
초졸이하	21.6
중졸이하	2.0
고졸이하	0.2

	이용 가구원 (N=559)
대졸이상	—
혼인상태	
미혼	100.0
유배우	—
별거	—
이혼	—
사별	—
경제활동상태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 근로자	—
고용주/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일시휴직	—
구직활동	—
주부(임신/출산, 돌봄, 가사)	—
학업	23.8
무직/퇴직	—
해당없음 <sup>1)</sup>	76.2
기타	—
장애여부	
장애없음	91.8
장애있음	8.2
만성질환	
신체적 질환	3.9
정신적 질환	2.9
만성질환 없음	93.2
주관적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함	2.7
별로 건강하지 못함	3.6
대체로 건강함	25.4
매우 건강함	68.3

주: 1)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이용 가구의 90% 가량이 월소득 2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하였으며, 평균 소득 액수는 359.7(S=685.09)만원으로 노인돌봄서비스가 163.6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임

- 주관적 경제상태는 2.54점으로 스스로의 경제상태를 약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약 80%의 이용 가구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중상+중중+중하)’이라고 응답

〈표 3-2-26〉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이용 가구 (N=525)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5.9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3.1
	400만원 이상	28.6
	평균 월소득	359.7 (685.09)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54 (0.74)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0.2
	상하	1.1
	중상	5.3
	중중	24.6
	중하	32.6
	하상	23.0
	하중	7.0
	하하	6.1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영역의 세부 서비스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4개의 세부 서비스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세부 서비스 가운데 민간영역의 서비스는 ①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②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시설에 아동이 방문하는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③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④6~12세 아동이 돌봄시설에 방문하는 방과후 아이돌봄 서비스, ⑤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⑥시설 기관의 청소

년 문화·놀이·오락 프로그램인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프로그램, ⑦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⑧학교부적응, 위기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포함

○ 정부 제공 서비스로는 ⑨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⑩만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장애아 무상·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어린이집 이용 서비스, ⑪아이돌보미 서비스, ⑫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⑬초등 돌봄교실, ⑭방과 후학교 자유수강권, ⑮아동 입양 관련 서비스로 구분

○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세부 영역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만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집 이용’이었으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월평균 이용시간은 시설 서비스인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0~5세)’,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각각 112.3시간, 120.6시간으로 이용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는 월평균 4.5시간으로 가장 이용시간이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월평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출 액수는 민간서비스인 ‘재가 아이돌봄서비스(0~5세)’가 약 114,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그 액수가 가장 높았음

－ 정부 지원 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서비스’ 역시 월 평균 105,000원 지출로 여타 아동돌봄 세부 서비스 영역의 월평균 지출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정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

※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서비스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며,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경우, 전액 자부담 이용 가능

〈표 3-2-27〉 아동 보호 및 보호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단위: %, 가구, 시간, 원)

		이용 가구		월평균 사용시간 (시간)	월평균 서비스 지출액 (원)
		비율	가구 수		
민간 서비스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0~5세)	2.5	13	56.3 (45.93)	114,307.7 (92,310.51)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0~5세)	23.8	125	112.3 (56.29)	74,174.4 (75,664.68)
	재가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1.0	5	30.4 (15.65)	48,000.0 (50,199.60)
	방과후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5.0	26	64.6 (59.33)	46,000.0 (39,029.22)
	장애아동 돌봄	2.7	14	57.7 (48.24)	22,957.1 (38,480.14)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프로그램	1.5	8	13.1 (12.53)	1,9750.0 (21,789.58)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0.2	1	20.0 —	30,000.0 —
정부 제공 서비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4.0	21	83.5 (59.53)	57,476.2 (48,275.89)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등)	50.1	263	120.6 (45.62)	56,554.8 (57,817.89)
	아이돌보미 서비스	0.8	4	29.5 (12.15)	105,000.0 (82,259.7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0.4	2	4.5 (0.71)	— —
	초등돌봄교실	9.3	49	36.5 (30.33)	23,530.6 (34,775.5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5.3	28	21.4 (16.19)	12,607.1 (23,198.56)

주: 1) 중복응답 문항으로, 아동 보호 및 보호서비스 영역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세부 서비스 이용 비중을 산출함. 즉, 아동 보호 및 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525가구 중 2.5%가 재가아이돌봄 서비스(0~5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아동 보호 및 보호서비스 영역 세부 서비스별 이용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표 3-2-28〉에 제시하였음

○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를 질문한 결과 평균 1.5~2.6점으로 부담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평균 지출 비용이 높았던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0~5세)’,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경제적 부담 정도가 2.6점으로 타 세부 서비스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음

○ 해당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서비스

영역에서 3.5점으로 삶의 질 개선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개선정도가 2.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서비스의 접근과 이용편의와 관련하여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질문한 결과 대부분 약 3점대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의 경우 2.0점으로 나타나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

○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4점대 초반의 점수 분포로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으나,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의 경우 3.0점 (SD=1.41)으로 상대적 낮게 나타나 세부 서비스 영역별 편차를 확인할 수 있음

〈표 3-2-28〉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sup>2)</sup>	이용 후 삶의 질 개선정도 <sup>3)</sup>	공급량 적정성 판단 <sup>4)</sup>	서비스 이용 만족도 <sup>5)</sup>
민간 서비스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0~5세)	2.6 (1.19)	3.5 (0.66)	2.8 (0.80)	3.9 (1.04)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0~5세)	2.2 (0.93)	3.4 (0.56)	3.0 (0.82)	4.0 (0.74)
	재가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1.8 (0.84)	3.4 (0.89)	3.2 (0.84)	4.6 (0.55)
	방과후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1.8 (0.83)	3.3 (0.63)	3.1 (0.77)	3.7 (0.84)
	장애아동 돌봄	1.9 (1.03)	3.5 (0.65)	2.9 (0.92)	4.1 (0.53)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프로그램	1.5 (0.76)	3.1 (0.64)	3.3 (0.71)	4.1 (0.64)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2.0 —	3.0 —	2.0 —	4.0 —
정부 제공 서비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1.9 (1.00)	3.6 (0.51)	3.4 (0.59)	4.1 (0.65)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등)	1.7 (0.82)	3.6 (0.58)	3.2 (0.74)	4.1 (0.57)
	아이돌보미 서비스	2.5 (1.00)	3.3 (0.50)	3.3 (0.96)	4.0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 (1.41)	2.5 (0.71)	3.0 (1.41)	3.0 (1.41)
	초등돌봄교실	1.6 (0.76)	3.4 (0.54)	3.3 (0.68)	4.1 (0.7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6 (1.03)	3.8 (0.52)	3.5 (0.69)	4.0 (0.69)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2) 해당 서비스 이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부담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 '별로 부담되지 않음(2점)', '대체로 부담되는 편(3점)', '매우 부담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3)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오히려 악화되었음(1점)', '별다른 변화 없음(2점)', '대체로 나아짐(3점)', '매우 좋아짐(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개선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4)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 편의 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에 대해 '매우 부족(1점)', '대체로 부족(2점)', '적당한 편(3점)', '충분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제공기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5)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 '대체로 불만족(2점)', '보통(3점)', '대체로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나.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욕구 현황

□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유한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구는 총 응답가구의 19.4%인 783가구로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65.0만원(SD=670.75)으로 나타났음

○ 이는 현재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주관적 경제 상태는 평균 2.62점(SD=0.74)으로 보통에 근접한 수준이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약 80%가 '중(중상+중중+중하)'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3-2-29〉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욕구 보유 가구 (N=783)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6.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3.2
	400만원 이상	29.1
	평균 월소득	365.0 (670.75)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62 (0.74)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0.3
	상하	1.3



		욕구 보유 가구 (N=783)
	증상	5.0
	증중	24.3
	증하	37.4
	하상	20.1
	하중	6.9
	하하	4.9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영역의 세부 서비스 욕구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아동 돌봄 영역 중에서는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등)’이 34.7%로 가장 욕구가 높았으며,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0~5세)’는 23.0%, ‘초등돌봄교실’이 12.0%의 순으로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영유아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욕구 대비 이용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필요도의 절반가량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0~5세)’와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등)’은 약 11%p 격차를 보였음

– ‘초등돌봄교실’은 약 7%p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학교부적응, 위기청소년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의 경우 욕구는 존재하였으나, 이용 경험자는 본 조사에서 분석사례에 포함되지 않았음

〈표 3-2-30〉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단위: %)

		필요도 <sup>2)</sup>	이용률 <sup>3)</sup>
민간 서비스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0~5세)	8.3	1.3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0~5세)	23.0	12.4
	재가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5.0	0.3
	방과후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9.5	1.7
	장애아동 돌봄	4.0	1.7

		필요도 <sup>2)</sup>	이용률 <sup>3)</sup>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프로그램	6.8	0.4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0.6	—
	학교부적응, 위기청소년 지원	0.6	—
정부 제공 서비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6.5	2.0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등)	34.7	23.4
	아이돌보미 서비스	3.4	3.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0.6	—
	초등돌봄교실	12.0	5.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8.0	1.5
	아동입양 관련 서비스	—	—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필요도는 아동 보호 및 보호서비스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783명을 대상으로 각 세부서비스별 필요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함.

3) 이용률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로서, 앞서 살펴본 서비스 이용현황의 이용률과 상이할 수 있음.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욕구현황의 이용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세부 영역별 사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3-2-31> 과 같음

○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영역도 대부분의 세부 서비스가 서비스 정보 부족으로 인한 비이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학교부적응, 위기청소년 지원(80.0%)’, ‘초등돌봄교실(53.7%)’, ‘재가 아동돌봄 서비스: 6~12세(51.4%)’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 서비스의 정보 접근성이 부족함에서 오는 비이용이라고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는 제공기관 정보 부족에서 오는 비이용으로서 ‘장애아동 돌봄(33.3%)’,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40.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27.5%)’의 서비스 등이 해당되었음

○ 비용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한 서비스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 ‘장애아동 돌봄(22.4%)’, ‘아이돌보미 서비스(22.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20.0%)’은 서비스 제공비용이 이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 그밖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는 응답자의 40.0%가 제공기관이 부족하여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 서비스 이용기준이 명확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0~5세)’는 각각 40.0%, 26.5%의 응답자가 ‘지원 대상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

〈표 3-2-31〉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단위: %, 가구)

		비이용 사유								계 <sup>2)</sup>
		비용부담	제공기관 부족	서비스의 불만족	서비스 정보 부족	제공기관 정보 부족	지원대상 안됨	가정에서 해결 (불필요)	대기중	
민간 서비스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0~5세)	3.6	18.2	7.3	36.4	24.8	12.7	—	—	100.0(55)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0~5세)	6.0	9.6	3.6	28.9	22.9	26.5	—	2.4	100.0(83)
	재가 아동돌봄 서비스 (6~12세)	5.4	5.4	10.8	51.4	21.6	5.4	—	—	100.0(37)
	방과후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13.6	15.4	10.2	45.8	13.6	1.7	—	—	100.0(59)
	장애아동 돌봄	22.2	11.1	—	27.8	33.3	—	5.6	—	100.0(18)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프로그램	6.0	16.0	—	52.0	22.0	2.0	2.0	—	100.0(50)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	40.0	—	20.0	40.0	—	—	—	100.0( 5)
	학교부적응, 위기청소년 지원	—	—	—	80.0	20.0	—	—	—	100.0( 5)
정부 제공 서비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11.4	8.6	2.9	45.7	22.9	8.6	—	—	100.0(35)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등)	3.4	13.5	2.2	27.0	2.70	11.2	15.7	—	100.0(89)
	아이돌보미 서비스	22.2	7.4	3.7	33.3	25.9	—	7.4	—	100.0(27)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0	—	—	20.0	20.0	40.0	—	—	100.0( 5)
	초등돌봄교실	—	1.9	11.1	53.7	25.9	5.6	1.9	—	100.0(5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7.8	11.8	3.9	47.1	27.5	2.0	—	—	100.0(51)
	아동입양 관련 서비스	—	—	—	—	—	—	—	—	—

주: 1) 괄호 안은 가구 수임.

2) 해당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질문임.

○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의 세부 서비스에 대해 향후 1년 이내에 이용 의향 정도는 평균 4.3점 이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지불 의사도 타 서비스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대부분의 영역에서 해당 서비스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는데, 단순 돌봄서비스 영역 보다는 ‘학교

부적응, 위기청소년 지원(80.0%)’, ‘장애아동 돌봄(77.4%)’,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60.0%)’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지불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초등돌봄교실(64.9%)’,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프로그램(60.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58.7%)’ 등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불 의사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보였음

○ 지불 가능 비용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0~5세)’가 월평균 약 137,000원으로 가장 지불액수가 컸으며, 대부분의 영역에서 50,000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희망 서비스 이용 시간은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0~5세)’,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등)’에서 100시간 이상으로 가장 높았음

〈표 3-2-32〉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단위: %, 원, 시간)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4)</sup>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2)</sup>	지불 가능 비용 <sup>3)</sup>	
민간 서비스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0~5세)	4.3 (0.65)	47.7 (173586.02)	137,205.9 (52.15)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0~5세)	4.6 (0.54)	50.6 (55914.66)	81,532.6 (61.71)
	재가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4.3 (0.61)	46.2 (39575.12)	58,095.2 (26.06)
	방과후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4.3 (0.66)	55.6 (36277.10)	54,687.5 (39.55)
	장애아동 돌봄	4.5 (0.51)	77.4 (31797.21)	55,542.9 (43.25)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프로그램	4.2 (0.55)	60.4 (41507.31)	51,428.6 (19.99)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4.6 (0.55)	20.0 (40285.44)	46,250.0 (14.82)
	학교부적응, 위기청소년 지원	4.4 (0.55)	80.0 -	50,000.0 (18.62)
정부 제공 서비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4.3 (0.78)	43.1 (31688.91)	60,517.2 (54.72)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등)	4.6 (0.62)	48.9 (35375.75)	67,395.7 (53.74)
	아이돌보미 서비스	4.3 (0.67)	55.6 (80795.05)	78,750.0 (63.21)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4)</sup>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2)</sup>	지불 가능 비용 <sup>3)</sup>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4.4 (0.89)	60.0	35,000.0 (21213.20)	70.4 (122.45)
초등돌봄교실	4.4 (0.60)	64.9	42,939.4 (38642.54)	38.1 (31.5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4.4 (0.52)	58.7	55,000.0 (48020.83)	28.7 (28.80)
아동입양 관련 서비스	— —	—	— —	— —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3) 지불가능비용이란 해당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에서 월평균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평균임.

4)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한달 평균 총 이용시간의 평균임.

## 5.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 가.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현황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은 전체 응답가구 대비 약 5.2%인 210가구의 284명의 가구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 서비스 이용자는 가구주 본인이거나 배우자인 경우가 약 90%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인 경우도 타 서비스에 비해 높은 수치(각각 5.3%와 0.4%)

○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분포는 고르게 나타났는데, 30~39세의 이용자가 38.0%로 가장 많았으나, 아동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10% 내외의 이용률

○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43.3%, 고졸 이하가 34.5%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81.0%를 차지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51.4%는 주부였으며, 무직·퇴직의 경우도 16.5%

－ 장애 비율은 8.5%로 낮은 편이었으나, 만성질환은 약 28%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약 30%의 이용자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낮게 평가

〈표 3-2-33〉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단위: %, 세)

	이용 가구원 (N=284)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28.5
배우자	61.6
미혼자녀	3.9
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	0.4
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5.3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조부모	0.4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
기타친족 및 비혈연 동거인	—
성별	
남	26.1
여	73.9
연령	
10세 미만	2.1
10~19세	0.7
20~29세	14.8
30~39세	38.0
40~49세	6.7
50~59세	11.6
60~69세	15.8
70세 이상	10.2
평균연령(표준편차)	44.2(18.58)
교육수준	
미취학(만6세 이하)	1.8
초졸이하	9.5
중졸이하	10.9
고졸이하	34.5
대졸이상	43.3
혼인상태	
미혼	6.3
유배우	81.0
별거	—
이혼	3.9
사별	8.8
경제활동상태	

	이용 가구원 (N=284)
상용근로자	10.9
임시/일용 근로자	7.0
고용주/자영업자	7.7
무급가족종사자	1.8
일시휴직	0.7
구직활동	—
주부(임신/출산, 돌봄, 가사)	51.4
학업	0.7
무직/퇴직	16.5
해당없음 <sup>1)</sup>	1.8
기타	1.4
장애여부	
장애없음	91.5
장애있음	8.5
만성질환	
신체적 질환	27.1
정신적 질환	0.7
만성질환 없음	72.2
주관적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함	6.0
별로 건강하지 못함	26.4
대체로 건강함	33.1
매우 건강함	34.5

주: 1)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은 295.4만원으로 200만원 이상이 29.0%, 400만원 이상이 26.7%

- － 해당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2.37점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편이라고 보고
- － 응답가구의 절반을 상회하는 비율이 스스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하상+하중+하하)'라고 판단

〈표 3-2-34〉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이용 가구 (N=21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1.9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6.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9.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6.2
	400만원 이상	26.7
	평균 월소득	295.4 (186.21)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37 (0.82)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0.5
	상하	0.5
	중상	5.7
	중중	18.1
	중하	26.2
	하상	31.4
	하중	11.9
	하하	5.7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의 세부 서비스 영역에 대해 민간서비스로

①건강관리 서비스, ②운동처방 서비스가 있으며, 정부 제공 서비스로는 ③고운맘카드 등 산전후 건강관리사업, ④보건소 건강증진 방문 보건 서비스, 지역 사회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⑤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⑥보건소 금연 클리닉, ⑦인공 임신 중절 예방과 관련한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세부 영역 중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산전후 건강관리사업(고운맘카드)', '보건소 건강증진 방문 보건 서비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음



- 월평균 이용시간은 ‘보건소 건강증진 방문 보건 서비스·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서비스’가 23.3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산전후 건강관리사업(고운맘카드)’이 각각 2.2시간, 2.6시간으로 가장 짧았음
- 서비스 이용비용은 타 사회서비스 영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은 액수였는데, 최대 지출 비용이 26,000원(건강관리 서비스)으로 대부분 약 10,000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

〈표 3-2-35〉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단위: %, 가구, 시간, 원)

		이용 가구		월평균 사용시간 (시간)	월평균 서비스 지출액 (원)
		비율	가구 수		
민간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24.3	51	5.0 (5.02)	26,372.5 (48734.78)
	운동처방 서비스	9.5	20	10.3 (8.54)	14,110.0 (18771.48)
정부 제공 서비스	산전후 건강관리사업(고운맘카드)	32.4	68	2.6 (5.98)	8,970.6 (25282.86)
	보건소 건강증진 방문 보건 서비스/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27.6	58	23.3 (131.91)	13,275.9 (22273.26)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33.8	71	2.2 (5.76)	549.3 (3702.47)
	보건소 금연클리닉	7.6	16	6.9 (5.92)	19,875.0 (27560.54)

주: 1) 중복응답 문항으로,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세부 서비스 이용 비중을 산출함. 즉,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210가구 중 18.0%가 장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세부 서비스별 이용비용의 부담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세부 서비스 영역에서 1점대의 응답률을 보여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 서비스 영역에 비해 서비스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따른 결과로 해석 가능
-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는 3점대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로 삶의 질 개선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 편의 또는 접근성을 고려할 때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숫자는 대부분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3.8점~4.1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음

〈표 3-2-36〉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sup>2)</sup>	이용후 삶의 질 개선정도 <sup>3)</sup>	공급량 적정성 판단 <sup>4)</sup>	서비스 이용 만족도 <sup>5)</sup>
민간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1.8 (0.78)	3.4 (0.57)	3.2 (0.70)	4.0 (0.58)
	운동처방 서비스	1.5 (0.69)	3.3 (0.79)	2.9 (0.64)	3.8 (0.55)
정부 제공 서비스	산전후 건강관리사업(고운맘카드)	1.2 (0.58)	3.9 (0.26)	3.5 (0.82)	4.1 (0.74)
	보건소 건강증진 방문 보건 서비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1.7 (0.83)	3.6 (0.53)	3.2 (0.70)	3.9 (0.69)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1.2 (0.62)	3.9 (0.46)	3.6 (0.80)	4.0 (0.77)
	보건소 금연클리닉	1.6 (0.73)	3.4 (0.62)	3.1 (0.81)	3.8 (0.68)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해당 서비스 이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부담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 '별로 부담되지 않음(2점)', '대체로 부담되는 편(3점)', '매우 부담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3)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오히려 악화되었음(1점)', '별다른 변화 없음(2점)', '대체로 나아짐(3점)', '매우 좋아짐(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개선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4)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 편의 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에 대해 '매우 부족(1점)', '대체로 부족(2점)', '적당한 편(3점)', '충분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제공기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5)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 '대체로 불만족(2점)', '보통(3점)', '대체로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나.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욕구 현황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 현황에 이어 서비스 욕구를 가진 가구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동 서비스 욕구가 있는 가구는 총 944가구로서 전체 가구 대비 23.4%에 해당

○ 이들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 비해 여유로운 편인 것

으로 파악

- 평균 소득은 346.3만원으로 이용가구에 비해 약 50만원 가량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3 가량은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400만원 이상)이라고 보고하여 소득 수준이 높은 수준

○ 주관적인 경제상태에 대한 판단은 2.72점으로 보통(3점)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약 70%의 응답가구가 ‘중(중상+중중+중하)’이라고 응답

〈표 3-2-37〉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욕구 보유 가구 (N=944)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9.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5.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6.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0.3
	400만원 이상	38.9
	평균 월소득	346.3 (532.21)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72 (0.75)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1.4
	상하	2.8
	중상	6.8
	중중	26.4
	중하	35.5
	하상	11.0
	하중	8.8
	하하	7.4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의 세부 서비스 욕구 현황을 살펴보면, 필요도와 이용률의 격차가 타 서비스 영역에 비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
- 특히 ‘건강관리 서비스’나 ‘운동처방 서비스’는 욕구가 있는 대상자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경험은 매우 낮은 2.6%, 0.8%로 나타나 욕구대비 이용 격차가 30배 이상인 62%p, 47%p
  - 또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방문 보건 서비스·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필요도는 10% 이상으로 제시되었으나, 이용률은 각각 3.9%, 0.7%인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

〈표 3-2-38〉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단위: %)

		필요도 <sup>2)</sup>	이용률 <sup>3)</sup>
민간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64.1	2.6
	운동처방 서비스	48.0	0.8
정부 제공 서비스	산전후 건강관리사업(고운맘카드)	3.1	0.1
	보건소 건강증진 방문 보건 서비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19.3	3.9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3.7	0.5
	보건소 금연클리닉	12.5	0.7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	-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필요도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944명을 대상으로 각 세부서비스별 필요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함.

3) 이용률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로서, 앞서 살펴본 서비스 이용현황의 이용률과 상이할 수 있음.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욕구현황의 이용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세부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서비스 정보 부족’이라 답하여 제공되고 있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정보 접근성이 낮음을 유추 가능
- 또한 ‘제공기관 정보 부족’도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밝혀져 전반적으로 서비스와 관련한 홍보 및 이용에 대한 안내가 활발히 진행되어

## 야 할 것으로 판단

- 그 밖에 ‘건강관리 서비스’는 비용이 부담되어 이용을 꺼리는 응답자가 약 10%를 차지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13.3%로 나타났다

〈표 3-2-39〉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단위: %, 가구)

		비용 사유								계 <sup>2)</sup>
		비용 부담	제공 기관 부족	서비스 불만족	서비스 정보 부족	제공 기관 정보 부족	지원 대상 안됨	아직 불필요	시간이 안됨	
민간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10.3	6.2	7.2	49.1	26.2	-	-	0.9	100.0(580)
	운동처방 서비스	9.7	4.3	6.1	47.6	31.0	-	0.2	1.1	100.0(445)
정부 제공 서비스	산전후건강관리사업 (고운맘카드)	-	-	7.1	39.3	32.1	10.7	10.7		100.0( 28)
	보건소 건강증진 방문 보건서비스/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4.8	4.1	4.1	51.8	35.2	-	-	-	100.0(145)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3.3	3.3	13.3	46.7	26.7	3.3	3.3		100.0( 30)
	보건소 금연클리닉	2.7	5.4	9.0	45.0	34.2			3.6	100.0(111)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	-	-	-	-	-	-	-	-

주: 1) 괄호 안은 가구 수임.

2) 해당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질문임.

○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세부 영역에 대한 이용의향은 높게 나타났으나 비용 지불 의사는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50% 이하로 낮은 수준

- ‘운동처방 서비스’는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72.2%가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지불가능 비용은 약 30,000원
- 반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 방문 보건 서비스/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과 ‘금연클리닉’의 경우 서비스 이용의향은 높았으나, 비용 지불 의사는 22.5%, 23.7%로 낮은 수준
- 희망하는 서비스 이용 시간은 ‘산전후 건강관리사업(고운맘카드)’가 월평

### 군 53.6시간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20시간미만

〈표 3-2-40〉 보건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단위: %, 원, 시간)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4)</sup>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2)</sup>	지불 가능 비용 <sup>3)</sup>	
민간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4.3 (0.53)	29.9	31,033.1 (18388.37)	11.0 (15.38)
	운동처방 서비스	4.3 (0.57)	72.2	29,277.8 (25796.01)	15.7 (22.43)
정부 제공 서비스	산전후 건강관리사업(고운맘카드)	4.3 (0.75)	44.8	46,923.1 (76961.53)	53.6 (182.56)
	보건소 건강증진 방문 보건 서비스/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4.3 (0.51)	22.5	27,390.2 (14983.12)	8.0 (15.55)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4.4 (0.60)	45.7	46,562.5 (47844.15)	7.5 (8.81)
	보건소 금연클리닉	4.2 (0.66)	23.7	30,964.3 (16127.92)	22.0 (96.04)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 —	—	— —	— —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3) 지불가능비용이란 해당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에서 월평균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평균임.

4)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한달 평균 총 이용시간의 평균임.

## 6.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 가.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이용 현황

□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는 전체 응답가구 대비 4.9%인 196가구의 218명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83.0%가 미혼자녀로 이용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 연령도 13.4세로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음

○ 장애 및 만성질환 보유 비율은 10% 내외로 나타났으며, 약 90%의 이용자가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

〈표 3-2-41〉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단위: %, 세)

	이용 가구원 (N=218)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8.3
배우자	7.3
미혼자녀	83.0
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	—
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	0.9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0.5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조부모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
기타친족 및 비혈연 동거인	—
성별	
남	45.0
여	55.0
연령	
10세 미만	71.6
10~19세	11.9
20~29세	0.5
30~39세	4.1
40~49세	2.3
50~59세	8.3
60~69세	0.9
70세 이상	0.5
평균연령(표준편차)	13.4(16.46)
교육수준	
미취학(만6세 이하)	63.3
초졸이하	15.1
중졸이하	2.8
고졸이하	5.5
대졸이상	13.3
혼인상태	
미혼	87.2
유배우	8.3
별거	—
이혼	4.6
사별	—
경제활동상태	

	이용 가구원 (N=218)
상용근로자	10.1
임시/일용 근로자	0.5
고용주/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0.5
일시휴직	—
구직활동	—
주부(임신/출산, 돌봄, 가사)	5.0
학업	20.2
무직/퇴직	0.5
해당없음 <sup>1)</sup>	63.3
기타	—
장애여부	
장애없음	89.0
장애있음	11.0
만성질환	
신체적 질환	8.3
정신적 질환	2.8
만성질환 없음	89.0
주관적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함	2.8
별로 건강하지 못함	9.2
대체로 건강함	23.9
매우 건강함	64.2

주: 1)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서비스 이용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평균 월소득은 332.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 대비 각각 31.6%를 차지

- 현재 가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평균 2.51점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약간의 어려운 편이라고 판단하였으며,
- 사회경제적 지위는 응답가구의 약 60% 가량이 '중(중상+중중+중하)'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약 30%는 '하(하상+하중+하하)'라고 응답
  - '상(상상+상중+상하)'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0.5%



〈표 3-2-42〉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이용 가구 (N=196)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1.6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7.0
	400만원 이상	31.6
	평균 월소득	332.7 (129.32)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51 (0.74)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0.5
	상하	—
	중상	7.7
	중중	27.0
	중하	31.1
	하상	22.4
	하중	6.6
	하하	4.6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의 세부 영역에 대한 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세부 서비스 영역을 민간 서비스로 ①아동 학습지원 서비스, ②장애아동 특수 교육, ③성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④부모교육, ⑤교육관련 상담, 평가 및 정보제공, ⑥노후설계지원 서비스, ⑦세무관련 서비스, ⑧법률지원 서비스, ⑨진학 및 진로상담으로 구분하였으며, 정부제공 서비스로는 ⑩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바우처 사업, ⑪유아학비 지원, 만 3~4세 누리과정 교육비, 다문화 교육비 지원 등을 의미하는 유치원 이용, ⑫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⑬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서비스, ⑭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⑮중장기복무 제대 군인 법률 구조 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분

-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영역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세부 서비스

는 ‘유치원 이용’

- 다음으로는 ‘아동학습지원 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바우처)’로 나타나 아동 교육 관련 서비스의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월평균 이용시간은 시설 서비스인 ‘유치원 이용’이 월평균 139.8시간으로 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는 역시 시설(학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인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서비스가 75.0시간으로 높은 수준

- 교육 및 정보와 관련된 상담을 주로 실시하는 ‘진학 및 진로상담(1.7시간)’, ‘노후설계지원 서비스(2.2시간)’, ‘부모교육(4.0시간)’, ‘세무관련 서비스(4.0시간)’ 등의 서비스는 이용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 월평균 서비스 지출액은 전문서비스인 ‘법률지원 서비스’와 ‘세무관련 서비스’가 100,000원 이상으로 가장 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유치원 이용(99,525원)’이었다. 이용 빈도가 낮은 하나 ‘부모교육’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

〈표 3-2-43〉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단위: %, 가구, 시간, 원)

		이용 가구		월평균 사용시간 (시간)	월평균 서비스 지출액 (원)
		비율	가구 수		
민간 서비스	아동학습지원 서비스	15.6	34	16.3 (30.44)	16,735.3 (18482.27)
	장애아동 특수 교육	1.4	3	31.7 (41.93)	26666.7 (30,550.50)
	성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6.9	15	16.5 (14.74)	23,000.0 (25898.15)
	부모교육	0.9	2	4.0 (2.83)	- -
	교육관련 상담, 평가 및 정보제공	5.5	12	14.7 (22.59)	31,250.0 (23560.85)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2.3	5	2.2 (0.45)	34,000.0 (15165.75)
	세무관련 서비스	0.9	2	4.0 -	100,000.0 -
	법률지원 서비스	1.8	4	5.5 (1.91)	111,250.0 (64598.12)
	전화 및 진로상담	1.4	3	1.7 (1.15)	6,666.7 (11547.01)

		이용 가구		월평균 사용시간 (시간)	월평균 서비스 지출액 (원)
		비율	가구 수		
정부 제공 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7.3	16	12.4 (26.52)	27,937.5 (21680.92)
	유치원 이용	55.0	120	139.8 (32.02)	99,525.8 (67626.29)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0.9	2	75.0 (91.92)	15,000.0 (21213.20)

주: 1) 중복응답 문항으로,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세부 서비스 이용 비중을 산출함.  
즉, 교육 및 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196가구 중 15.6 %가 아동학습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경제상황 대비 서비스 이용 부담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세부 서비스 영역 이용자의 경우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2.0점 이하), 위의 〈표 3-2-43〉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비스 지출액이 100,000원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던 ‘세무관련 서비스’, ‘법률지원 서비스’는 각각 3.0점, 2.3점으로 타 서비스에 비해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용후 삶의 질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유치원 이용’이 3.6점으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한 데 반해 ‘장애아동 특수교육’과 ‘진학 및 진로상담’ 영역의 경우는 2.7점으로 변화 정도를 낮게 평가하였음
- 서비스 공급량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영역의 제공 기관 숫자가 부족한 편(2점)에 가깝다는 응답이 두드러졌음
  - ‘장애아동 특수 교육’의 경우 2.0점,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이 2.5점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세부 서비스 영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장애아동의 이용 편의 및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
-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전반적인 세부 서비스영역에서 3점대 후반~4점대로 높게 평가하였으나, ‘노후설계지원 서비스(2.4점)’,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1.9점)’의 만족도 점수는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나 해당 서비스의 만족도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

〈표 3-2-44〉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경제상황 대비 부담 정도 <sup>2)</sup>	이용 후 삶의 질 개선 정도 <sup>3)</sup>	공급량 적정성 판단 <sup>4)</sup>	서비스 이용 만족도 <sup>5)</sup>
민간 서비스	아동학습지원 서비스	1.9 (0.73)	3.3 (0.68)	2.8 (0.94)	3.7 (0.76)
	장애아동 특수 교육	1.7 (0.58)	2.7 (1.15)	2.0 (1.00)	3.0 (1.00)
	성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1.6 (0.74)	3.3 (0.72)	2.9 (0.92)	4.1 (0.64)
	부모교육	2.5 (2.12)	3.5 (0.71)	2.5 (0.71)	3.5 (2.12)
	교육관련 상담, 평가 및 정보제공	1.8 (0.58)	3.1 (0.79)	2.9 (0.79)	3.4 (0.51)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2.0 —	3.2 (1.10)	3.0 —	2.4 (0.55)
	세무관련서비스	3.0 —	3.0 —	3.0 —	4.0 —
	법률지원서비스	2.3 (0.96)	2.8 (0.96)	2.5 (1.00)	4.0 (0.82)
	전화 및 진로상담	1.3 (0.58)	2.7 (0.58)	2.3 (1.15)	4.0 (1.00)
정부 제공 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2.0 (0.73)	3.3 (0.70)	3.2 (0.66)	3.8 (1.06)
	유치원 이용	2.0 (0.97)	3.6 (0.53)	3.2 (0.70)	4.1 (0.47)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1.5 (0.71)	3.0 —	2.5 (0.71)	1.9 (0.73)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해당 서비스 이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부담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 '별로 부담되지 않음(2점)', '대체로 부담되는 편(3점)', '매우 부담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3)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오히려 악화되었음(1점)', '별다른 변화 없음(2점)', '대체로 나아짐(3점)', '매우 좋아짐(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개선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4)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 편의 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에 대해 '매우 부족(1점)', '대체로 부족(2점)', '적당한 편(3점)', '충분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제공기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5)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 '대체로 불만족(2점)', '보통(3점)', '대체로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나.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욕구 현황

□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의 욕구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서비스 희망비율은 전체 응답 가구 대비 16.8%인 678가구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가구의 경제적인 특성은 서비스 이용가구의 특성과 유사

한 경향을 보였음

- 평균 월소득은 332.7만원으로 전체의 90%이상이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경제상태는 2.51점
- －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견은 ‘중중(27.0%)’, ‘중하(31.1%)’, ‘하상(22.4%)’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0%에 육박

〈표 3-2-45〉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욕구 보유 가구 (N=678)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9.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4.5
	400만원 이상	46.0
	평균 월소득	374.7 (165.15)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76 (0.71)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0.9
	상하	1.3
	중상	8.8
	중중	29.1
	중하	36.0
	하상	12.1
	하중	8.1
	하하	3.7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표 3-2-4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영역에서 가장 필요도가 높은 서비스는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로서 29.5%의 응답자가 욕구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성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22.6%)’, ‘유치원 이용(17.6%)’, ‘부모

교육(14.9%)’, ‘노후설계지원 서비스(13.9%)’ 순

- 반면 이용률은 ‘유치원 이용’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교육관련 상담, 평가 및 정보제공’ 서비스는 필요도는 1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용 경험자는 없었으며,
- 전문적인 ‘세무’나 ‘법률’ 관련 서비스 역시 8.6%, 6.6%의 응답자가 서비스 욕구를 가졌으나 이용 경험은 확인되지 않았음

〈표 3-2-46〉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단위: %)

		필요도 <sup>2)</sup>	이용률 <sup>3)</sup>
민간 서비스	아동학습지원 서비스	29.5	6.5
	장애아동 특수 교육	3.0	9.5
	성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22.6	3.3
	부모교육	14.9	1.0
	교육관련 상담, 평가 및 정보제공	10.2	—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13.9	—
	세무관련서비스	8.6	—
	법률지원서비스	6.6	—
	진학 및 진로상담	9.7	3.0
정부 제공 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7.7	9.6
	유치원 이용	17.6	9.0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0.6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서비스	0.9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0.9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서비스	—	—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필요도는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678명을 대상으로 각 세부서비스별 필요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함.

3) 이용률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로서, 앞서 살펴본 서비스 이용현황의 이용률과 상이할 수 있음.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욕구현황의 이용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욕구 대비 이용 차이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비이용 사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서비스 정보 부족’이라도 응답한 비율이 전 영역에 걸쳐 높게 나타남

- 특히 욕구 대비 이용률이 낮았던 ‘부모교육’이나,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교육관련 상담, 평가 및 정보제공’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음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음
- ‘제공기관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 내용만큼이나 많은 응답자들이 제공기관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으로 지적
  -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욕구가 높았던 ‘세무관련 서비스’와 ‘법률지원 서비스’는 욕구 보유자의 27.6%, 26.7%의 응답자가 비용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아동 특수교육’ 서비스 역시 비용부담이 비이용의 주요 사유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아동 특수 교육’이나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경우 15% 이상의 응답자가 서비스 내용에서 오는 불만족을 지적

〈표 3-2-47〉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단위: %, 가구)

		비이용 사유								계 <sup>2)</sup>
		비용부담	제공기관 부족	서비스의 불만족	서비스 정보 부족	제공기관 정보 부족	지원대상 안됨	가정에서 해결 (불필요)	마빠서	
민간 서비스	아동학습지원 서비스	12.8	10.7	7.0	46.0	23.0	0.5	-	-	100.0(187)
	장애아동 특수 교육	21.1	10.5	15.8	31.6	21.1	-	-	-	100.0( 19)
	성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2.7	6.8	4.1	55.4	28.4	-	0.7	2.0	100.0(148)
	부모교육	-	6.0	4.0	63.0	25.0	-	1.0	1.0	100.0(100)
	교육관련 상담, 평가 및 정보제공	1.4	15.9	2.9	46.4	33.3	-	-	-	100.0( 69)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2.1	7.4	4.3	54.3	31.9	-	-	-	100.0( 94)
	세무관련서비스	27.6	10.3	5.2	29.3	27.6	-	-	-	100.0( 58)
	법률지원서비스	26.7	8.9	4.4	33.3	26.7	-	-	-	100.0( 45)
정부 제공 서비스	진학 및 진로상담	3.1	12.5		43.8	40.6	-	-	-	100.0(64)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6.4	8.5	21.1	46.8	34.0	2.1	-	-	100.0( 47)
	유치원 이용	15.5	10.3	1.7	39.7	17.2	15.5	-	-	100.0( 58)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 학급 지원	-	-	-	50.0	50.0	-	-	-	100.0( 4)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서비스	16.7	-	-	33.3	50.0	-	-	-	100.0( 6)
	가정폭력·성폭력	-	16.7	-	50.0	33.3	-	-	-	100.0( 6)

		비용 사유							
		비용부담	제공기관 부족	서비스의 불만족	서비스 정보 부족	제공기관 정보 부족	지원대상 안됨	가정에서 해결 (불필요)	마빠서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중장기복무재대인법 률구조 지원 서비스	-	-	-	-	-	-	-	-

주: 1) 괄호 안은 가구 수임.

2) 해당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질문임.

○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세부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의 정도는 높았으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불 의사는 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음

- 우선 '유치원 이용' 서비스는 욕구 보유자의 2/3이상인 72.3%가 비용 지불 의사를 표명
-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서비스 역시 절반가량의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치원 이용'의 경우 세부 영역 중 제일 많은 약 78,000원의 월평균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부모교육', '진학 및 진로상담'서비스는 20% 미만의 낮은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불액 수도 상대적으로 낮은 10,000~28,000원으로 나타나 차이

〈표 3-2-48〉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단위: %, 원, 시간)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4)</sup>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2)</sup>	지불 가능 비용 <sup>3)</sup>	
민간 서비스	아동학습지원 서비스	4.3 (0.62)	44.5	41,651.7 (28814.89)	14.6 (13.78)
	장애아동 특수 교육	4.3 (0.78)	38.1	47,500.0 (26592.16)	22.4 (24.03)
	성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4.1 (0.68)	46.4	38,380.3 (33303.52)	13.9 (11.22)
	부모교육	4.2 (0.55)	16.8	21,176.5 (13639.26)	6.8 (7.37)
	교육관련 상담, 평가 및 정보제공	4.0	33.3	46,434.8	7.4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4)</sup>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2)</sup>	지불 가능 비용 <sup>3)</sup>	
	(0.61)		(30504.58)	(9.41)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4.2 (0.60)	21.3	44,500.0 (34713.11)	8.0 (9.39)
세무관련서비스	4.3 (0.58)	34.5	44,000.0 (47506.23)	4.7 (4.59)
법률지원서비스	4.3 (0.69)	26.7	38,333.3 (31285.59)	7.1 (9.76)
진학 및 진로상담	4.2 (0.50)	18.2	28,333.3 (14668.04)	5.3 (5.56)
정부 제공 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4.4 (0.66)	35,727.3 (13843.28)	18.9 (56.99)
	유치원 이용	4.5 (0.73)	78,814.0 (51978.84)	123.6 (68.28)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4.8 (0.50)	50,000.0 —	57.3 (69.83)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서비스	4.2 (1.60)	33,000.0 (24041.63)	13.5 (18.0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3.3 (0.82)	10,000.0 —	15.0 (17.33)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법률·구 조 지원 서비스	— —	— —	— —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3) 지불가능비용이란 해당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에서 월평균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평균임.

4)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한달 평균 총 이용시간의 평균임.

## 7. 고용지원 서비스

### 가. 고용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 고용지원 서비스 이용가구 및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가구의 1.4%인 58가구(6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이용자로서 가구주 본인이나 배우자의 비율이 약 90%, 미혼자녀의 이용비율도 10.6%로 높은 수준이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59세의 이용자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39세의 이용자도 30% 이상으로 밝혀져 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뿐 아니라 청년층의 이용률도 높음을 짐작

- 평균 이용자 연령은 46.3세, 교육수준은 절반 이상이 대졸이상이라 답하여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이용자가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
- 배우자가 있는 이용자의 비율이 62.1%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13.6%의 이용자는 이혼상태로 나타나 이혼상태의 이용자 비율이 타 서비스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파악
- 이용자의 39.4%는 상용근로자였으나, 임시·일용 근로자(16.7%), 구직활동(6.1%), 무직·퇴직(13.6%)의 비율도 높은 수준
- 장애 및 만성질환의 보유 비율은 각각 7.6%, 19.7%였으며, 약 20%의 이용자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보고

〈표 3-2-49〉 고용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단위: %, 세)

	이용 가구원 (N=66)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51.5
배우자	37.9
미혼자녀	10.6
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	—
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조부모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
기타친족 및 비혈연 동거인	—
성별	
남	34.8
여	65.2
연령	
10세 미만	—
10~19세	—
20~29세	16.7
30~39세	16.7
40~49세	13.6
50~59세	42.4
60~69세	4.5

	이용 가구원 (N=66)
70세 이상	6.1
평균연령(표준편차)	46.3(13.34)
교육수준	
미취학(만6세 이하)	—
초졸이하	7.6
중졸이하	10.6
고졸이하	24.2
대졸이상	57.6
혼인상태	
미혼	16.7
유배우	62.1
별거	—
이혼	13.6
사별	7.6
경제활동상태	
상용근로자	39.4
임시/일용 근로자	16.7
고용주/자영업자	7.6
무급가족종사자	—
일시휴직	—
구직활동	6.1
주부(임신/출산, 돌봄, 가사)	15.2
학업	1.5
무직/퇴직	13.6
해당없음 <sup>1)</sup>	—
기타	—
장애여부	
장애없음	92.4
장애있음	7.6
만성질환	
신체적 질환	19.7
정신적 질환	—
만성질환 없음	80.3
주관적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함	4.5
별로 건강하지 못함	19.7
대체로 건강함	54.5
매우 건강함	21.2

주: 1)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고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확인해보면, 소득구간별로 이용자가 고루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400만원 이상의 월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32.8%로 가장 높은 편
- 평균 월소득은 313.1만원
  - 주관적 경제상태는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2.50점
  -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약 절반 가량의 이용가구에서 ‘중(중상+중중+중하)’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중하’의 비율이 27.6%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하(하상+하중+하하)’인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가구도 전체의 45%를 차지

〈표 3-2-50〉 고용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이용 가구 (N=58)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3.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3.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0.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9.3
	400만원 이상	32.8
	평균 월소득	313.1 (166.76)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50 (0.76)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
	상하	5.2
	중상	5.2
	중중	15.5
	중하	27.6
	하상	17.2
	하중	20.7
	하하	8.6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직업훈련, 취업훈련 및 기타 고용지원 서비스를 포괄하는 고용지원 서비스 영역은 민간 서비스로 ①구직·일자리 알선, ②간병관련 일자리 지원, ③가사지원 관련 일자리 지원, ④자영업자 창업지원, ⑤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 ⑥근로교육고취 및 근로관련 심리 상담·사회적 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⑦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등을 포함하는 정부일자리사업, ⑧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이용, ⑨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및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⑩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⑪중증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⑫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용, ⑬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⑭출소자를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로 구분
- 고용지원 서비스의 세부 서비스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구직·일자리 알선’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직업 기능 교육 및 훈련’, ‘정부일자리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순
- 월평균 이용시간은 전반적으로 짧았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및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이 100.0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나 이용 가구 수의 숫자가 적어 일반화에 주의할 필요
  - ‘정부일자리사업’은 월평균 42.0시간가량 이용하고 있음
-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무료서비스로 ‘간병관련 일자리 지원’, ‘가사지원 관련 일자리 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및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등이 제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자영업자 창업지원’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한 달 평균 60,000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표 3-2-51〉 고용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단위: %, 가구, 시간, 원)

		이용 가구		월평균 사용시간 (시간)	월평균 서비스 지출액 (원)
		비율	가구 수		
민간 서비스	구직·일자리 알선	51.7	30	5.7 (7.23)	29733.3 (53749.70)
	간병관련 일자리 지원	1.7	1	3.0 —	— —
	가사지원 관련 일자리 지원	3.4	2	6.5 (2.12)	— —
	자영업자 창업지원	3.4	2	5.0 (4.24)	60000.0 (56568.54)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	17.2	10	39.7 (28.61)	38000.0 (46856.76)
	근로교육고취 및 근로관련 심리 상담·사회적 지원	3.4	2	14.0 (14.14)	25000.0 (7071.07)
정부 제공 서비스	정부일자리사업	15.5	9	42.0 (50.14)	4444.4 (13333.33)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및 장애 인 복지일자리 지원	1.7	1	100.0 —	—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7	1	3.0 —	12000.0 —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13.8	8	13.1 (19.14)	68750.0 (35228.84)

주: 1) 중복응답문항으로, 고용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세부 서비스 이용 비중을 산출함. 즉, 고용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58가구 중 51.7%가 구직·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고용지원 서비스의 세부 서비스 별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가 1점대로 부담 정도를 낮게 평가하였으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의 경우 4.0점으로 부담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3점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어서 효과적인 삶의 질 개선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나, ‘자영업자 창업지원(2.5점)’, ‘구직·일자리 알선(2.8점)’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의 양(접근성, 편의 등)에 대해서는 타 서비스 영역에 비해 점수가 낮은 편으로 전반적으로 2~3점(대체로 부족~적당한 편)대에 분포
  - 특히 ‘간병관련 일자리 지원’, ‘정부일자리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2.0점으로 해당 서비스 이용 시 이용 편의나 접근성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음을 유추

○ 서비스 이용만족도는 전반적으로 3점대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여성새로 일하기센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폭 낮은 2.8점

〈표 3-2-52〉 고용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sup>2)</sup>	이용후 삶의 질 개선정도 <sup>3)</sup>	공급량 적정성 판단 <sup>4)</sup>	서비스 이용 만족도 <sup>5)</sup>
민간 서비스	구직·일자리 알선	1.7 (0.64)	2.8 (0.82)	2.5 (0.82)	3.3 (0.91)
	간병관련 일자리 지원	1.0 —	3.0 —	2.0 —	3.0 —
	가사지원 관련 일자리 지원	1.5 (0.71)	3.5 (0.71)	3.0 (1.41)	3.0 —
	자영업자 창업지원	2.5 (0.71)	2.5 (0.71)	2.5 (0.71)	4.0 —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	1.4 (0.52)	3.4 (0.70)	2.7 (0.67)	3.9 (0.57)
	근로교육고취 및 근로관련 심리 상담·사회적 지원	2.5 (0.71)	4.0 —	2.5 (0.71)	4.0 —
정부 제공 서비스	정부일자리사업	1.8 (1.30)	3.3 (0.50)	2.0 (1.00)	3.7 (1.00)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및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0 —	3.0 —	3.0 —	4.0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4.0 —	3.0 —	2.0 —	3.0 —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2.4 (0.74)	3.1 (0.35)	3.0 (0.53)	2.8 (0.71)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해당 서비스 이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부담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 '별로 부담되지 않음(2점)', '대체로 부담되는 편(3점)', '매우 부담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3)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오히려 악화되었음(1점)', '별다른 변화 없음(2점)', '대체로 나아짐(3점)', '매우 좋아짐(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개선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4)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 편의 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에 대해 '매우 부족(1점)', '대체로 부족(2점)', '적당한 편(3점)', '충분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제공기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5)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 '대체로 불만족(2점)', '보통(3점)', '대체로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나. 고용지원 서비스 욕구 현황

□ 고용지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구는 전체 응답가구의 15%인 607가구이며, 희망 가구원 역시 607명으로 동일

○ 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은 다음 <표 3-2-53> 과 같은데, 월평균 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의 39.0%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소득액은 329.6만원

○ 주관적 경제 상태는 평균 2.59점으로 보통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는 전체의 38.2%가 '중하'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중중(24.1%)', '하상(15.0%)' 순이었다. 대부분 중간 이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놓여있다고 인식

<표 3-2-53> 고용지원 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욕구 보유 가구 (N=607)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6.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7.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7.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9
	400만원 이상	39.0
	평균 월소득	329.6 (163.89)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59 (0.67)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0.3
	상하	3.1
	중상	4.4
	중중	24.1
	중하	38.2
	하상	15.0
	하중	9.4
	하하	5.4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교육 서비스에 이어 고용지원 서비스의 세부 서비스별 욕구유형에 대해 필요도와 이용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세부 영역 중 ‘구직·일자리 알선’에 대한 욕구가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직업 기능 교육 및 훈련(28.2%)’, ‘자영업자 창업지원(24.7%)’ 서비스의 욕구가 높았음
- 서비스 이용률은 욕구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는데, 대부분의 영역에서 서비스 욕구가 있는 응답자의 1%미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가장 서비스 욕구가 높았던 ‘구직·일자리 알선’서비스의 경우 필요도 대비 이용률의 차이가 약 52%p로서 욕구가 있는 응답자의 1/50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의 전 영역에서 욕구 대비 이용 비율이 낮은 수준
  - ‘자영업자 창업지원’ 서비스는 욕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24.7%) 이용 경험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

〈표 3-2-54〉 고용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단위: %)

		필요도 <sup>2)</sup>	이용률 <sup>3)</sup>
민간 서비스	구직·일자리 알선	54.2	0.7
	간병관련 일자리 지원	1.5	0.2
	가사지원 관련 일자리 지원	5.9	0.2
	자영업자 창업지원	24.7	—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	28.2	0.5
	근로교육고취 및 근로관련 심리 상담·사회적 지원	4.3	0.2
정부 제공 서비스	정부일자리사업	16.6	0.5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이용	1.5	—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및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6	0.2
	시각장애인 아마사 파견사업	0.8	0.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13.3	0.2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바우처	—	—
	출소자를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	—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필요도는 고용지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607명을 대상으로 각 세부서비스별 필요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함.

3) 이용률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로서, 앞서 살펴본 서비스 이용현황의 이용률과 상이할 수 있음.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욕구현황의 이용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욕구대비 이용 격차가 큰 영역을 중심으로 비이용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 정보에 대한 불충분함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은 반면, 고용 지원 서비스의 세부 영역에서는 ‘제공기관 정보 부족’이 가장 중요한 비이용 사유로 제시되어 차이
  - 특히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이용’,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및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근로소득고취 및 근로관련 심리 상담·사회적 지원’, ‘간병관련 일자리 지원’ 등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제공기관의 정보가 부족하여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파악
  - 다음으로는 ‘서비스 정보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가사지원 관련 일자리 지원’의 경우는 서비스의 불만족스러움을, ‘자영업자 창업지원’서비스는 비용이 부담됨을 사유로 제시하는 등 세부 영역별 비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
- 고용지원 서비스의 세부 서비스별 의용 의향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타 영역에 비해 낮은 편
  - 대부분의 영역에서 욕구 보유자의 1/3가량만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정부 일자리사업(4.0%)’,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4.0%)’,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및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10.0%)’ 서비스는 10% 이하의 낮은 지불의사
- 지불 가능 비용은 타 서비스 영역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은 아니었으며, ‘자영업자 창업지원’서비스의 경우 응답자간 편차가 크나 약 640,000원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간병관련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평균 76,000원,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 서비스’는 약 71,000원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

〈표 3-2-55〉 고용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단위: %, 가구)

		비용 사유								계 <sup>2)</sup>
		비용부담	제공기관 부족	서비스의 불만족	서비스 정보 부족	제공기관 정보 부족	자원대상 안됨	가장에서 해결 (불필요)	바빠서	
민간 서비스	구직·일자리 알선	6.5	12.9	6.2	38.2	33.8	1.2	0.9	0.3	100.0(325)
	간병관련 일자리 지원	12.5	12.5	25.0	12.5	37.5	—	—	—	100.0( 8)
	가사지원 관련 일자리 지원	5.7	31.4	20.0	22.9	20.0	—	—	—	100.0( 35)
	자영업자 창업지원	23.3	13.3	3.3	30.0	27.3	0.7	1.3	0.7	100.0(150)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	12.5	6.0	6.0	38.7	34.5	0.6	0.6	1.2	100.0(168)
	근로교육고취 및 근로관련 심리 상담·사회적 지원	4.0	12.0	8.0	24.0	52.0	—	—	—	100.0( 25)
정부 제공 서비스	정부일자리사업	3.1	16.3	5.1	35.7	35.7	4.1	—	—	100.0( 98)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이용	—	—	11.1	11.1	66.7	11.1	—	—	100.0( 9)
	장애인 행동도우미 지원 및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	11.1	—	22.2	55.6	11.1	—	—	100.0( 9)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25.0	—	—	75.0	—	—	—	—	100.0( 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	—	—	—	—	—	—	—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18.8	17.5	5.0	17.5	40.0	—	—	1.3	100.0( 80)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바우처	—	—	—	—	—	—	—	—	—
	출소자를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	—	—	—	—	—	—	—	—

주: 1) 괄호 안은 가구 수임.

2) 해당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질문임.

〈표 3-2-56〉 고용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단위: %, 원, 시간)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4)</sup>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2)</sup>	지불 가능 비용 <sup>3)</sup>	
민간 서비스	구직·일자리 알선	4.2 (0.59)	14.3	37,446.8 (29979.56)	19.6 (29.40)
	간병관련 일자리 지원	3.8 (0.44)	33.3	76,666.7 (40414.52)	19.0 (23.56)
	가사지원 관련 일자리 지원	4.0 (0.59)	25.0	30,000.0 (10000.00)	16.4 (20.54)
	자영업자 창업지원	4.3 (0.69)	24.0	639,027.8 (3320428.94)	22.9 (24.55)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	4.1	36.3	71,129.0	29.3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4)</sup>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2)</sup>	지불 가능 비용 <sup>3)</sup>	
		(0.75)		(55724.88)	(28.71)
	근로교육고취 및 근로관련 심리 상담·사회적 지원	4.1 (0.71)	30.8	55,625.0 (59966.51)	5.4 (7.96)
정부 제공 서비스	정부일자리사업	4.5 (0.54)	4.0	27,500.0 (5000.00)	47.8 (78.63)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이용	4.2 (0.44)	22.2	35,000.0 (21213.20)	14.1 (13.17)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및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4.7 (0.48)	10.0	30,000.0 —	51.4 (40.67)
	시각장애인 아마사 파견사업	4.2 (0.45)	4.0	60,000.0 (56568.54)	25.0 (41.9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	—	— —	— —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4.3 (0.74)	16.0	56,923.1 (23939.03)	34.0 (34.22)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바우처	— —	—	— —	— —
	출소자를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 —	—	— —	— —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3) 지불가능비용이란 해당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에서 월평균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평균임.

4)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한달 평균 총 이용시간의 평균임.

## 8.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 가.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는 전체 가구의 0.5%인 20가구(20명)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서비스 영역에 비해 이용 경험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

〈표 3-2-57〉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단위: %, 세)

	이용 가구원 (N=2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80.0
배우자	—
미혼자녀	—
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	—
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20.0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조부모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
기타친족 및 비혈연 동거인	—
성별	
남	40.0
여	60.0
연령	
10세 미만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40.0
50~59세	15.0
60~69세	5.0
70세 이상	40.0
평균연령(표준편차)	60.5(16.26)
교육수준	
미취학(만6세 이하)	—
초졸이하	30.0
중졸이하	20.0
고졸이하	35.0
대졸이상	15.0
혼인상태	
미혼	25.0
유배우	10.0
별거	—
이혼	40.0
사별	25.0

	이용 가구원 (N=20)
경제활동상태	
상용근로자	10.0
임시/일용 근로자	10.0
고용주/자영업자	5.0
무급가족종사자	—
일시휴직	—
구직활동	—
주부(임신/출산, 돌봄, 가사)	5.0
학업	—
무직/퇴직	70.0
해당없음 <sup>1)</sup>	—
기타	—
장애여부	
장애없음	65.0
장애있음	35.0
만성질환	
신체적 질환	45.0
정신적 질환	20.0
만성질환 없음	35.0
주관적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함	30.0
별로 건강하지 못함	55.0
대체로 건강함	15.0
매우 건강함	—

주: 1)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타 서비스 영역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
- 응답가구의 절반이 100만원 미만의 월평균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300만원 미만(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
  - 평균 월소득액은 148.7만원으로 낮은 수준
  - 주관적 경제상태는 '어려운 편(2점)'에 가까우나 1.9점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

- －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하(하상+하중+하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85%로 높았으며, 특히 응답가구의 35%는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하’라고 응답

〈표 3-2-58〉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이용 가구 (N=2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5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5.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15.0
	평균 월소득	148.7 (124.07)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1.90 (0.79)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
	상하	—
	중상	—
	중중	—
	중하	15.0
	하상	30.0
	하중	20.0
	하하	35.0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주거보호등 주거와 관련한 지원 서비스를 포괄하는 주거지원 서비스의 세부 영역은 9개 서비스로 구분하였는데, 민간지원 서비스로 ①대규모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②20명 이내의 소규모 그룹홈과 같은 공동생활가정의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③일시보호시설이나 쉼터 등을 포함하는 일시보호 서비스, ④주거비 지원, ⑤도배, 장판 교체 등 집수리 서비스로 구분되며, 정부 제공 서비스는 ⑥장애인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⑦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그룹홈 거주, ⑧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스, ⑨주택 바우처를 포함

- 주거지원 서비스 영역의 세부 서비스 이용률은 ‘주택바우처’가 가장 높았으며, ‘일시보호’, ‘주거비 지원’, ‘집수리 서비스’의 이용률도 이용을 경험한 가구 수가 적으나 경험률은 비슷한 수준
- 월평균 이용 시간은 ‘주택바우처’가 503.3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서비스 지출액은 ‘일시보호’서비스가 약 130,000원으로 절대적인 지출액수가 가장 높았음

〈표 3-2-59〉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단위: %, 가구, 시간, 원)

		이용 가구		월평균 사용시간 (시간)	월평균 서비스 지출액 (원)
		비율	가구 수		
민간 서비스	일시보호	15.0	3	6.7 (2.31)	136,666.7 (70945.99)
	주거비 지원	15.0	3	481.7 (412.81)	46,666.7 (40414.52)
	집수리 서비스	10.0	2	8.5 —	— —
정부 제공 서비스	주택바우처	60.0	12	503.3 (285.97)	61,000.0 (35830.41)

주: 1) 중복응답 문항으로, 주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세부 서비스 이용 비중을 산출함. 즉, 주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20가구 중 15.0%가 일시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주거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질문하였는데, 경제상황 대비 부담 정도는 ‘주거비 지원’, ‘일시보호’의 경우 각각 3.3점, 3.0점으로 부담정도가 높았으며, 이는 ‘집수리서비스’, ‘주택바우처’가 1점대인 것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
- 이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모든 세부 영역에서 3점 이상으로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보고하였고, 서비스 공급량에 대해서는 ‘집수리서비스’의 경우 2.5점으로 타 서비스에 비해 제공기관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모든 세부 서비스 영역에서 4.0~5.0점의 분포를 보여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



〈표 3-2-60〉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경제상황 대비 부담 정도 <sup>2)</sup>	이용 후 삶의 질 개선 정도 <sup>3)</sup>	공급량 적정성 판단 <sup>4)</sup>	서비스 이용 만족도 <sup>5)</sup>
민간 서비스	일시보호	3.0 —	3.0 —	3.0 —	4.0 —
	주거비 지원	3.3 (1.15)	4.0 —	4.0 —	5.0 —
	집수리서비스	1.0 —	4.0 —	2.5 —	4.5 —
정부 제공 서비스	주택바우처	1.9 (0.90)	3.9 (0.29)	3.7 (0.65)	4.8 (0.45)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해당 서비스 이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부담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 '별로 부담되지 않음(2점)', '대체로 부담되는 편(3점)', '매우 부담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3)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오히려 악화되었음(1점)', '별다른 변화 없음(2점)', '대체로 나아짐(3점)', '매우 좋아짐(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개선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4)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 편의 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에 대해 '매우 부족(1점)', '대체로 부족(2점)', '적당한 편(3점)', '충분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제공기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5)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 '대체로 불만족(2점)', '보통(3점)', '대체로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나.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욕구 현황

□ 현재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특성을 파악한 바, 전체 응답자의 4.3%인 175가구가 서비스 이용 의향을 표출하였음

○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2.2만원으로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구(148.7만원)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

—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도 20.6%로 높은 편에 속하나, 400만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4.3%로 높은 수준

○ 주관적 경제상태는 2.44점으로 보통에는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중(중상+중중+중하)'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표 3-2-61〉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욕구 보유 가구 (N=175)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0.6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5.4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4.3
	400만원 이상	34.3
	평균 월소득	302.2 (202.72)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44 (0.81)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상중	2.3
	상하	4.0
	중상	4.0
	중중	19.4
	중하	27.4
	하상	13.7
	하중	14.9
	하하	14.3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의 세부 영역별 욕구를 살펴보면, '주거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64.7%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바우처', '대규모 생활시설 거주'에 대한 욕구도 각각 21.7%, 13.7%로 높은 수준

– 반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서비스 이용 경험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주택바우처'의 경우 욕구보유자의 1/4가량인 5.1%의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지원 서비스 영역의 낮은 욕구대비 이용률의 원인 파악이 필요할 것 판단

〈표 3-2-62〉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단위: %)

		필요도 <sup>2)</sup>	이용률 <sup>3)</sup>
민간 서비스	대규모 생활시설 거주	13.7	—
	소규모 생활시설 거주	3.4	—
	일시보호	6.3	1.7
	주거비 지원	64.6	—
정부 제공 서비스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3.4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그룹홈 거주	2.9	—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3.4	—
	주택바우처	21.7	5.1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필요도는 주거 지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175명을 대상으로 각 세부서비스별 필요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함.

3) 이용률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로서, 앞서 살펴본 서비스 이용현황의 이용률과 상이할 수 있음.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욕구현황의 이용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주요 사유로는 ‘서비스 정보 부족’과 ‘제공 기관 정보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시보호’와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의 경우 90%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

–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그룹홈 거주’ 등의 서비스는 욕구를 가진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지적

–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대규모 생활시설 거주’에 대한 욕구를 가진 이용자의 25.0%가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소규모 생활시설 거주’의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이용의 장애요인으로 제시

○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영역의 세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 정도는 ‘대규모 생활시설 거주’,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일시보호’ 서비스가 3점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그룹홈 거주(80.0%)’, ‘주택바우처(50.0%)’를 제외한 영역에서 40% 미만의 낮은 지불의사가 확인

〈표 3-2-63〉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단위: %, 가구)

		비용 사유						계 <sup>2)</sup>
		비용부담	제공기관 부족	서비스의 불만족	서비스 정보 부족	제공기관 정보 부족	지원대상 안됨	
민간 서비스	대규모 생활시설 거주	4.2	12.5	25.0	45.8	12.5	—	100.0( 24)
	소규모 생활시설 거주	16.7	16.7	16.7	16.7	33.3	—	100.0( 6)
	일시보호	—	—	—	90.9	9.1	—	100.0( 11)
	주거비 지원	8.2	16.4	12.7	40.0	20.9	1.8	100.0(110)
정부 제공 서비스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16.7	16.7	—	50.0	16.7	100.0( 6)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그룹홈 거주	—	—	—	40.0	40.0	20.0	100.0( 5)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	—	—	83.3	16.7	—	100.0( 6)
	주택바우처	10.3	6.9	—	41.4	37.9	3.4	100.0( 29)

주: 1) 괄호 안은 가구 수임.

2) 해당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질문임.

〈표 3-2-64〉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단위: %, 원, 시간)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4)</sup>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2)</sup>	지불 가능 비용 <sup>3)</sup>	
민간 서비스	대규모 생활시설 거주	3.9 (0.68)	37.5	32,777.8 (14813.66)	59.4 (201.93)
	소규모 생활시설 거주	4.5 (0.55)	33.3	75,000.0 (35355.34)	269.0 (351.67)
	일시보호	3.5 (0.69)	27.3	36,666.7 (11547.01)	109.5 (297.08)
	주거비 지원	4.3 (0.60)	24.8	3,640,000.0 (10851614.32)	165.2 (311.66)
정부 제공 서비스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4.5 (0.55)	33.3	100,000.0 —	170.2 (276.14)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그룹홈 거주	4.6 (0.55)	80.0	52,500.0 (34034.30)	24.6 (22.86)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3.8 (0.41)	16.7	50,000.0 —	52.7 (81.82)
	주택바우처	4.6 (0.63)	50.0	80,000.0 (40551.75)	336.2 (341.82)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3) 지불가능비용이란 해당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에서 월평균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평균임.

4)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한달 평균 총 이용시간의 평균임.

## 9. 문화 및 여가서비스

### 가. 문화 및 여가서비스 이용 현황

□ 문화 및 여가서비스 영역의 이용 가구 및 이용 가구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전체 가구원 대비 2.7%인 108가구의 128명의 가구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 본인, 배우자, 미혼자녀가 골고루 이용하고 있었으며, 10세 미만 아동에서부터 60세 이상의 노인까지 서비스 이용이 골고루 분포

－ 평균 서비스 이용 연령은 41.5세

○ 배우자가 있는 비율과 배우자가 없는(미혼+별거+이혼+사별)비율이 약 50%로 각각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학업(24.2%), 주부(24.2%), 무작·퇴직(17.2%)의 비율이 높았음

〈표 3-2-65〉 문화 및 여가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단위: %, 세)

	이용 가구원 (N=128)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35.9
배우자	35.2
미혼자녀	26.6
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	—
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1.6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조부모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
기타친족 및 비혈연 동거인	0.8
성별	
남	39.1
여	60.9
연령	

	이용 가구원 (N=128)
10세 미만	3.9
10~19세	18.8
20~29세	5.5
30~39세	7.8
40~49세	23.4
50~59세	25.0
60~69세	13.3
70세 이상	2.3
평균연령(표준편차)	41.5(18.81)
교육수준	
미취학(만6세 이하)	0.8
초졸이하	16.4
중졸이하	15.6
고졸이하	42.2
대졸이상	25.0
혼인상태	
미혼	32.0
유배우	52.3
별거	1.6
이혼	10.2
사별	3.9
경제활동상태	
상용근로자	16.4
임시/일용 근로자	6.3
고용주/자영업자	6.3
무급가족종사자	4.7
일시휴직	—
구직활동	—
주부(임신/출산, 돌봄, 가사)	24.2
학업	24.2
무직/퇴직	17.2
해당없음 <sup>1)</sup>	0.8
기타	—
장애여부	
장애없음	75.8
장애있음	24.2
만성질환	
신체적 질환	21.1

	이용 가구원 (N=128)
정신적 질환	3.9
만성질환 없음	75.0
주관적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함	3.9
별로 건강하지 못함	18.8
대체로 건강함	46.9
매우 건강함	30.5

주: 1)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확인한 바, 절반에 가까운 44.4%의 가구가 400만원 이상의 월소득을 응답하였으며, 평균 소득액은 321.3만원

-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2.50점으로 보통에는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편인 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9단계의 구분에서 '중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절반이상 이용 가구가 '중(중상+중중+중하)'이라고 답하였다. '하하(19.4%)' 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타 서비스에 비해 높은 수준

〈표 3-2-66〉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이용 가구 (N=108)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8.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5.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0.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1.1
	400만원 이상	44.4
	평균 월소득	321.3 (202.71)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50 (0.91)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0.9
	상하	0.9

	이용 가구 (N=108)
중상	12.0
중중	25.0
중하	22.2
하상	10.2
하중	9.3
하하	19.4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문화 및 여가 서비스의 경우 민간 제공 서비스로 ①문화예술 서비스, ②체육스포츠 서비스, ③여행·관광 서비스로 구분하였으며, 정부제공 서비스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④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이용, ⑤여행바우처, ⑥문화바우처, ⑦스포츠바우처로 구분
- 세부 서비스 중에는 '체육스포츠 서비스', '문화바우처', '문화예술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월평균 이용시간은 '문화바우처'가 329.7시간으로 가장 길었음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월평균 지출액은 민간 서비스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여행·관광 서비스'가 약 44,000원으로 가장 지출액이 컸음
  - 정부서비스의 경우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이용', '여행바우처'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바우처'는 약 5,900원, '스포츠바우처'는 약 18,5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67〉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단위: %, 가구, 시간, 원)

		이용 가구		월평균 사용시간 (시간)	월평균 서비스 지출액 (원)
		비율	가구 수		
민간 서비스	문화/예술 서비스	19.4	21	10.0 (9.30)	29,904.8 (25212.90)
	체육/스포츠 서비스	45.4	49	17.1 (9.38)	28,673.5 (23577.34)
	여행/관광 서비스	7.4	8	6.6 (4.34)	44,875.0 (55382.92)
정부 제공 서비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이용	0.9	1	40.0 —	— —
	여행바우처	4.6	5	204.6 (450.79)	— —
	문화바우처	31.5	34	329.7 (1717.05)	5,929.4 (15292.51)
	스포츠바우처	9.3	10	7.2 (4.52)	18,500.0 (17167.48)

주: 1) 중복응답 문항으로, 문화 및 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세부 서비스 이용 비중을 산출함. 즉, 문화 및 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108가구 중 19.4%가 문화/예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경제적 상황 문화 및 여가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부담정도는 전 영역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부담 정도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
- 이용 후 삶의 질 개선 정도는 3.0~3.6점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체험
- 서비스 공급량과 관련하여서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이용’을 제외한 전반적인 세부 서비스 영역에서 2~3점대의 점수 분포를 보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기관의 증설이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
- 서비스 이용만족도는 전 영역에서 3.7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 표명

〈표 3-2-68〉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sup>2)</sup>	이용후 삶의 질 개선정도 <sup>3)</sup>	공급량 적정성 판단 <sup>4)</sup>	서비스 이용 만족도 <sup>5)</sup>
민간 서비스	문화/예술 서비스	1.8 (0.70)	3.4 (0.68)	2.8 (0.77)	3.9 (0.62)
	체육/스포츠 서비스	2.1 (1.01)	3.3 (0.58)	2.6 (0.79)	3.9 (0.62)
	여행/관광 서비스	1.9 (0.64)	3.6 (0.52)	3.3 (0.71)	4.3 (0.46)
정부 제공 서비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이용	1.0 —	3.0 —	4.0 —	5.0 —
	여행마우처	1.0 —	3.2 (1.30)	2.6 (1.14)	3.8 (1.64)
	문화마우처	1.4 (0.60)	3.3 (0.58)	2.6 (0.70)	3.7 (1.00)
	스포츠마우처	1.9 (0.74)	3.6 (0.52)	2.8 (0.63)	4.1 (0.57)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해당 서비스 이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부담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 '별로 부담되지 않음(2점)', '대체로 부담되는 편(3점)', '매우 부담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3)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오히려 악화되었음(1점)', '별다른 변화 없음(2점)', '대체로 나아짐(3점)', '매우 좋아짐(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개선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4)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 편의 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에 대해 '매우 부족(1점)', '대체로 부족(2점)', '적당한 편(3점)', '충분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제공기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5)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 '대체로 불만족(2점)', '보통(3점)', '대체로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나. 문화 및 여가서비스 욕구 현황

□ 문화 및 여가서비스 욕구를 보유한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은 372.6만원으로 현재 이용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100만원 미만의 월평균 소득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이용가구(18.5%)에 비해 낮은 4.6%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음

○ 주관적 경제상태는 2.78점이었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중(중상+중중+중하)'에 해당된다고 답한 응답가구가 전체의 2/3을 넘는 높은 수준

〈표 3-2-69〉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욕구 보유 가구 (N=1197)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6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2.1
	400만원 이상	41.9
	평균 월소득	372.6(556.14)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78(0.72)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1.3
	상하	2.4
	중상	9.1
	중중	29.7
	중하	35.0
	하상	10.4
	하중	7.7
	하하	4.3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영역의 세부 서비스별 욕구 현황을 살펴보면, 세부 서비스 중 '체육·스포츠 서비스'가 37.4%로 가장 높았으며, '여행·관광 서비스(35.8%)', '문화예술 서비스(31.7%)'등이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으로 확인

○ 이용률의 경우는 타 영역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2%대 미만의 낮은 수준이었는데, 욕구대비 이용 격차는 많게는 60배까지 나타나는 등 서비스별 욕구충족률이 낮음을 확인

〈표 3-2-70〉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단위: %)

		필요도 <sup>2)</sup>	이용률 <sup>3)</sup>
민간 서비스	문화/예술 서비스	31.7	0.7
	체육/스포츠 서비스	37.4	2.7
	여행/관광 서비스	35.6	0.6
정부 제공 서비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이용	3.8	0.1
	여행바우처	16.8	0.3
	문화바우처	13.5	2.1
	스포츠바우처	7.6	0.8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필요도는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1,197명을 대상으로 각 세부서비스별 필요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함.

3) 이용률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로서, 앞서 살펴본 서비스 이용현황의 이용률과 상이할 수 있음.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욕구현황의 이용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서비스 욕구 대비 이용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비이용 사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서비스 유형에서 50%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서비스 정보 부족’을 주요 비이용 사유로 꼽았음

- 다음으로는 ‘제공기관 정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제공기관 부족’, ‘비용 부담’, ‘서비스의 불만족’ 등의 순
- ‘스포츠 바우처’의 경우는 비용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

○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세부 영역에 대한 이용 의향은 높았으며,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

- 특히 민간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 서비스’, ‘체육·스포츠 서비스’, ‘여행·관광 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불 의사가 높았으며,
-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이용’의 경우는 가장 낮은 19.6%의 지불의사를 표출
- 월평균 지불 액수는 20,000~50,000원 가량으로 집계

〈표 3-2-71〉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단위: %, 가구)

		비용 사유								계 <sup>2)</sup>
		비용부담	제공기관 부족	서비스의 불만족	서비스 정보 부족	제공기관 정보 부족	지원대상 안됨	시간이 안됨	필요성 낮음	
민간 서비스	문화/예술 서비스	4.3	10.2	7.0	56.7	20.7	0.3	0.5	0.3	100.0(372)
	체육/스포츠 서비스	7.0	8.9	7.2	46.3	26.4	—	1.6	0.5	100.0(416)
	여행/관광 서비스	7.4	6.7	5.0	50.1	30.3	0.2	0.2	—	100.0(419)
정부 제공 서비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이용	—	13.3	4.4	53.3	28.9	—	—	—	100.0( 45)
	여행바우처	8.1	11.6	3.0	50.5	26.3	0.5	—	—	100.0(198)
	문화바우처	8.8	15.4	2.2	49.3	21.3	1.5	1.5	—	100.0(136)
	스포츠바우처	16.0	12.3	1.2	43.2	24.7	2.5	—	—	100.0( 81)

주: 1) 괄호 안은 가구 수임.

2) 해당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질문임.

〈표 3-2-72〉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단위: %, 원, 시간)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4)</sup>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2)</sup>	지불 가능 비용 <sup>3)</sup>	
민간 서비스	문화/예술 서비스	4.1 (0.56)	51.8	31,548.2 (19678.90)	8.3 (8.37)
	체육/스포츠 서비스	4.2 (0.53)	52.0	35,433.5 (36170.05)	17.8 (48.06)
	여행/관광 서비스	4.2 (0.57)	51.4	49,986.3 (65971.18)	14.5 (49.37)
정부 제공 서비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이용	4.1 (0.71)	19.6	27,777.8 (30322.34)	30.8 (146.07)
	여행바우처	4.4 (0.64)	43.8	40,806.8 (30573.77)	36.8 (139.26)
	문화바우처	4.3 (0.77)	32.3	25,326.9 (16534.84)	38.6 (172.65)
	스포츠바우처	4.3 (0.75)	58.2	27,264.2 (17556.67)	24.3 (104.18)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3) 지불가능비용이란 해당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에서 월평균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평균임.

4)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한달 평균 총 이용시간의 평균임.

## 10. 지역사회서비스

### 가.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가구는 전체 응답 가구 대비 6.5%에 해당되는 262가구의 276명의 가구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미혼자녀의 비율이 62.7%로 전체 이용자의 2/3을 차지하였고, 가구주 본인 및 배우자,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의 이용률도 40%에 육박
-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27.2세로 19세 미만 이용자의 비율이 60.5%를 차지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비율이 높음을 짐작해볼 수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70세 이상이 15.9%를 차지하는 등 이용률이 높았으며, 3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5% 내외의 이용률을 보여 성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의 이용 역시 높은 수준임이 확인
  - 장애나 만성질환 보유 비율은 약 20%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약 70%의 이용자가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

〈표 3-2-73〉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단위: %, 세)

	이용 가구원 (N=276)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16.7
배우자	11.2
미혼자녀	62.7
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	-
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	0.7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7.6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조부모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
기타친족 및 비혈연 동거인	1.1
성별	

	이용 가구원 (N=276)
남	46.7
여	53.3
연령	
10세 미만	48.2
10~19세	12.3
20~29세	2.9
30~39세	5.4
40~49세	5.4
50~59세	5.1
60~69세	4.7
70세 이상	15.9
평균연령(표준편차)	27.2(27.59)
교육수준	
미취학(만6세 이하)	35.1
초졸이하	36.6
중졸이하	6.2
고졸이하	14.9
대졸이상	7.2
혼인상태	
미혼	67.8
유배우	18.1
별거	—
이혼	0.4
사별	13.8
경제활동상태	
상용근로자	3.6
임시/일용 근로자	3.6
고용주/자영업자	3.6
무급가족종사자	1.4
일시휴직	—
구직활동	0.7
주부(임신/출산, 돌봄, 가사)	10.1
학업	26.1
무직/퇴직	15.2
해당없음 <sup>1)</sup>	35.1
기타	0.4
장애여부	
장애없음	86.2

	이용 가구원 (N=276)
장애있음	13.8
만성질환	
신체적 질환	19.9
정신적 질환	2.9
만성질환 없음	77.2
주관적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함	9.8
별로 건강하지 못함	18.5
대체로 건강함	23.2
매우 건강함	48.6

주: 1)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4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23.3%에 달하여 높은 편

○ 주관적 경제상태는 2.49점으로 보통에는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중(27.9%)', '중하(28.6%)', '하상(18.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육박

〈표 3-2-74〉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이용 가구 (N=262)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4.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2.8
	400만원 이상	23.3
	평균 월소득	305.9 (153.76)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49 (0.76)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3.1
	상하	1.1



		이용 가구 (N=262)
	중상	5.3
	중중	27.9
	중하	28.6
	하상	18.7
	하중	7.3
	하하	8.0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세부 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지역사회서비스는 민간 서비스로서 ①자원봉사자 양성 및 참여, ②사회복지관 이용이 있으며, 정부제공 서비스는 ③지역사회 중심의 아동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④아동 방과후 돌봄 등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⑤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⑥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⑦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⑧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법률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등이 이루어지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이용, ⑨학대노인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및 보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⑩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등으로 구분

○ 지역사회서비스 세부 영역 중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는 ‘사회복지관’이 이용되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이용도 높은 이용률을 보였음

- 월 평균 이용시간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평균 86.4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85.1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평균 지출액은 30,000원 미만으로 낮은 액수였으며, ‘드림스타트’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
-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이 월평균 28,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서비스의 세부 서비스 영역 중 가장 지출

## 비용이 높았음

〈표 3-2-75〉 지역사회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단위: %, 가구, 시간, 원)

		이용 가구		월평균 사용시간 (시간)	월평균 서비스 지출액 (원)
		비율	가구수		
민간 서비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참여	11.5	13	10.0 (9.24)	24,615.4 (29044.62)
	사회복지관	40.7	46	26.9 (29.38)	22,717.4 (26249.79)
정부 제공 서비스	드림스타트	1.8	2	7.0 (4.24)	- -
	지역아동센터 이용	9.7	11	86.4 (172.52)	13,272.7 (11037.13)
	건강가정지원센터	0.9	1	1.0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7.1	8	21.1 (16.76)	28,250.0 (32679.18)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8	2	11.5 (12.02)	- -
	노인여가복지시설	26.5	30	85.1 (52.83)	5,733.3 (11843.62)

주: 1) 중복응답 문항으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세부 서비스 이용 비중을 산출함. 기타 항목은 제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지역사회서비스 세부 서비스의 경우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는 전반적으로 1 점대의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용 후 삶의 질 개선정도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 공급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3점 이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은 각각 2.6점, 2.8점으로 낮게 평가
- 서비스 이용만족도는 전 영역에서 3.5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3-2-76〉 지역사회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I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sup>2)</sup>	이용후 삶의 질 개선정도 <sup>3)</sup>	공급량 적정성 판단 <sup>4)</sup>	서비스 이용 만족도 <sup>5)</sup>
민간 서비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참여	1.5 (0.66)	3.1 (0.49)	4.0 -	3.7 (0.63)
	사회복지관	1.6 (0.98)	3.7 (0.53)	2.8 (0.60)	4.0 (0.59)
정부	드림스타트	1.0	4.0	3.0	3.5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sup>2)</sup>	이용후 삶의 질 개선정도 <sup>3)</sup>	공급량 적정성 판단 <sup>4)</sup>	서비스 이용 만족도 <sup>5)</sup>
제공 서비스		—	—	—	(2.12)
	지역아동센터 이용	1.3 (0.47)	3.4 (0.92)	2.6 (1.12)	3.7 (1.27)
	건강가정지원센터	1.0 —	3.0 —	3.0 —	4.0 —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1.9 (1.00)	3.1 (0.64)	3.0 (0.53)	4.0 (0.5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0 —	3.0 (1.41)	3.5 (0.71)	4.5 (0.71)
	노인여가복지시설	1.4 (0.56)	3.7 (0.52)	3.5 (0.57)	4.5 (0.51)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해당 서비스 이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부담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 '별로 부담되지 않음(2점)', '대체로 부담되는 편(3점)', '매우 부담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3)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오히려 악화되었음(1점)', '별다른 변화 없음(2점)', '대체로 나아짐(3점)', '매우 좋아짐(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개선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4)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 편의 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에 대해 '매우 부족(1점)', '대체로 부족(2점)', '적당한 편(3점)', '충분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제공기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5)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 '대체로 불만족(2점)', '보통(3점)', '대체로

## 나. 지역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을 희망하고 있는 가구의 특성을 확인한 바,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진 가구는 전체 응답 가구의 10.8%인 438가구로서 월평균 소득 분포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가구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음

○ 전 소득구간에서 10% 이상의 이용 의향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구간에서 서비스 이용희망 의사가 높음이 확인

○ 주관적 경제상태는 2.49점이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2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중중(27.9%)', '하상(18.7%)' 순

〈표 3-2-77〉 지역사회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욕구 보유 가구 (N=438)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3.3
	400만원 이상	34.5
	평균 월소득	320.0 (167.57)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60 (0.79)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1.4
	상하	2.3
	중상	8.0
	중중	22.1
	중하	33.3
	하상	17.1
	하중	8.4
	하하	7.3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임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세부 서비스 욕구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관'에 대한 욕구가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포함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욕구도 17.6%로 높게 나타났음

- '자원봉사자 양성 및 참여'에 대한 욕구 역시 13.9%로 높은 수준인 반면 서비스 이용률은 낮은 수치에 머물렀음
- '사회복지관(7.8%)', '노인여가복지시설(5.7%)'이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로 분석되었으나, 여전히 욕구와 대비해서는 1/3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3-2-78〉 지역사회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단위: %)

		필요도 <sup>2)</sup>	이용률 <sup>3)</sup>
민간 서비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참여	13.9	0.7
	사회복지관	38.4	7.8
정부 제공 서비스	드림스타트	1.8	0.2
	지역아동센터 이용	7.5	1.4
	건강가정지원센터	10.5	0.2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9.8	1.4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0.5	0.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1.4	1.4
	노인보호 전문기관	2.5	2.5
	노인여가복지시설	17.6	5.7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필요도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438명을 대상으로 각 세부서비스별 필요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함.

3) 이용률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로서, 앞서 살펴본 서비스 이용현황의 이용률과 상이할 수 있음.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욕구현황의 이용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유는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정보 접근성을 지적하였는데, ‘서비스 정보 부족’, ‘제공기관 정보 부족’이 가장 중요한 사유로 나타났다

-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드림스타트’나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14.3%, 10.8%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 상대적으로 서비스 욕구가 높았던 ‘자원봉사자 양성 및 참여(19.0%)’, ‘사회복지관(13.4%)’, ‘노인여가복지시설(17.3%)’, ‘건강가정지원센터(15.6%)’의 경우에는 제공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79〉 지역사회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단위: %, 가구)

		비이용 사유						계 <sup>2)</sup>
		비용부담	제공기관 부족	서비스의 불만족	서비스 정보 부족	제공기관 정보 부족	시간이 안됨	
민간 서비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참여	1.7	19.0	3.4	41.4	34.5	—	100.0( 58)
	사회복지관	3.0	13.4	8.2	37.3	35.8	12.2	100.0(134)

		비이용 사유						계 <sup>2)</sup>
		비용부담	제공기관 부족	서비스의 불만족	서비스 정보 부족	제공기관 정보 부족	시간이 안됨	
정부 제공 서비스	드림스타트	—	—	14.3	71.4	14.3	—	100.0( 7)
	지역아동센터 이용	—	3.7	3.7	59.3	33.3	—	100.0( 27)
	건강가정지원센터	6.7	15.6	4.4	46.7	26.7	—	100.0( 45)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2.7	8.1	10.8	51.4	27.0	—	100.0( 37)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	—	100.0	—	—	100.0(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	—	—	33.3	66.7	—	100.0( 6)
	노인보호 전문기관	—	—	18.2	18.2	63.6	—	100.0( 11)
	노인여가복지시설	1.9	17.3	5.8	50.0	25.0	—	100.0( 52)

주: 1) 괄호 안은 가구 수임.

2) 해당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질문임.

○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불 의사는 세부 서비스별 편차가 있었는데,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66.7%)’, ‘방과후아카데미 이용(58.1%)’, ‘다문화가족 지원센터(50.0%)’, ‘드림스타트(50.0%)’의 경우 서비스 지불 의사가 높은 서비스에 속하였지만, ‘자원봉사자 양성 및 참여(18.0%)’, ‘노인보호 전문기관(18.2%)’, ‘노인여가복지시설(23.4%)’ 등은 20% 미만의 낮은 지불의사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불 가능 비용은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가 약 50,000원으로 높은 수준임을 제외한다면, 10,000~30,000원 가량을 적절한 지불 비용으로 응답

〈표 3-2-80〉 지역사회 서비스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I

(단위: %, 원, 시간)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4)</sup>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2)</sup>	지불 가능 비용 <sup>3)</sup>	
민간 서비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참여	4.0 (0.56)	18.0	35,909.1 (32925.54)	9.4 (9.17)
	사회복지관	4.3 (0.60)	44.6	27,400.0 (22260.13)	20.0 (20.88)
정부 제공 서비스	드림스타트	4.8 (0.46)	50.0	17,500.0 (5000.00)	13.8 (6.09)
	지역아동센터 이용	4.3 (0.69)	45.5	32,666.7 (15337.47)	51.7 (107.88)
	건강가정지원센터	4.1 (0.39)	28.3	36,153.8 (24929.39)	13.8 (25.33)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4)</sup>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2)</sup>	지불 가능 비용 <sup>3)</sup>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4.3 (0.49)	58.1	29,800.0 (27706.80)	27.0 (40.95)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4.5 (0.71)	50.0	50,000.0 —	6.5 (4.95)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4.2 (0.41)	66.7	42,500.0 (15000.00)	4.8 (0.75)
노인보호 전문기관	3.5 (0.52)	18.2	20,000.0 (14142.14)	7.2 (2.93)
노인여가복지시설	4.5 (0.53)	23.4	16,944.4 (12383.44)	47.1 (48.40)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3) 지불가능비용이란 해당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에서 월평균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평균임.

4)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한 달 평균 총 이용시간의 평균임.

## 11. 환경서비스

### 가. 환경서비스 이용 현황

□ 환경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가장 낮은 영역으로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내용에 대한 공감감이 부족한 영역으로 판단됨

○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가구 대비 0.3%인 11가구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가구원 수는 12명이었음

○ 이에 본 기초보고서는 기초 분석표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함

〈표 3-2-81〉 환경서비스 이용 가구원 특성

(단위: %, 세)

	이용 가구원 (N=12)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66.7
배우자	33.3
미혼자녀	—
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	—

	이용 가구원 (N=12)
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조부모	—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
기타친족 및 비혈연 동거인	—
성별	
남	66.7
여	33.3
연령	
10세 미만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58.3
50~59세	16.7
60~69세	16.7
70세 이상	8.3
평균연령(표준편차)	51.5(8.97)
교육수준	
미취학(만6세 이하)	—
초졸이하	16.7
중졸이하	—
고졸이하	75.0
대졸이상	8.3
혼인상태	
미혼	—
유배우	75.0
별거	—
이혼	8.3
사별	16.7
경제활동상태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 근로자	—
고용주/자영업자	58.3
무급가족종사자	8.3
일시휴직	—
구직활동	—
주부(임신/출산, 돌봄, 가사)	16.7



	이용 가구원 (N=12)
학업	—
무직/퇴직	16.7
해당없음 <sup>1)</sup>	—
기타	—
장애여부	
장애없음	91.7
장애있음	8.3
만성질환	
신체적 질환	8.3
정신적 질환	—
만성질환 없음	91.7
주관적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함	—
별로 건강하지 못함	16.7
대체로 건강함	58.3
매우 건강함	25.0

주: 1)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표 3-2-82〉 환경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이용 가구 (N=11)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8.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8.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7.3
	400만원 이상	27.3
	평균 월소득	334.3 (229.32)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64 (0.81)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
	상중	—
	상하	—
	중상	9.1
	중중	18.2
	중하	18.2
	하상	18.2

		이용 가구 (N=11)
	하중	36.4
	하하	—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를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표 3-2-83〉 환경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I

(단위: %, 가구, 시간, 원)

		이용 가구		월평균 사용시간 (시간)	월평균 서비스 지출액 (원)
		비율	가구 수		
민간 서비스	청소 및 환경정비 서비스	25.0	3	7.3 (7.57)	2,666.7 (4618.80)
	방역 서비스	25.0	3	0.7 (0.52)	— —
	환경가꾸기	16.7	2	2.0 —	— —
	냉난방 지원 서비스	33.3	4	10.8 (6.99)	45000.0 (42031.73)

주: 1) 환경영역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세부 서비스 이용 비중을 산출함. 즉, 환경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12가구 중 25.0%가 청소 및 환경정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표 3-2-84〉 환경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sup>2)</sup>	이용후 삶의 질 개선정도 <sup>3)</sup>	공급량 적정성 판단 <sup>4)</sup>	서비스 이용 만족도 <sup>5)</sup>
민간 서비스	청소 및 환경정비 서비스	1.7 (0.58)	3.3 (0.58)	2.7 (0.58)	3.7 (0.58)
	방역 서비스	1.0 —	3.0 —	2.7 (1.15)	4.0 —
	환경가꾸기	1.0 —	4.0 —	3.0 —	3.5 (0.71)
	냉난방 지원 서비스	2.0 (0.82)	2.8 (0.50)	2.5 (1.00)	3.5 (0.58)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해당 서비스 이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부담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 '별로 부담되지 않음(2점)', '대체로 부담되는 편(3점)', '매우 부담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3)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오히려 악화되었음(1점)', '별다른 변화 없음(2점)', '대체로 나아짐(3점)', '매우 좋아짐(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개선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4)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 편의 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에 대해 ‘매우 부족(1점)’, ‘대체로 부족(2점)’, ‘적당한 편(3점)’, ‘충분함(4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제공기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5)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 ‘대체로 불만족(2점)’, ‘보통(3점)’, ‘대체로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나. 환경서비스 욕구 현황

□ 환경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응답자의 5.6%인 225가구로 나타났음

○ 월평균 소득은 315.1만원이며, 4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음

－ 주관적 경제 상태는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간의 어려운 편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

－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라고 응답한 가구가 31.6%로 가장 많았음

〈표 3-2-85〉 환경서비스 욕구 보유 가구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욕구 보유 가구 (N=225)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9.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4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8.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8
	400만원 이상	33.8
	평균 월소득	315.1 (187.22)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2.55 (0.82)
사회경제적 지위	상상	
	상중	1.3
	상하	2.2
	중상	4.0
	중중	23.1
	중하	31.6
	하상	12.9

		욕구 보유 가구 (N=225)
	하중	11.6
	하하	13.3

주: 1) 주관적 경제상태는 현재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질문한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어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를 1~5점 척도로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를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표 3-2-86〉 환경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

(단위: %)

		필요도 <sup>2)</sup>	이용률 <sup>3)</sup>
민간 서비스	청소 및 환경정비 서비스	9.1	9.1
	방역 서비스	9.1	9.1
정부 제공 서비스	환경가꾸기	9.1	9.1
	냉난방 지원 서비스	27.3	27.3
	사회복지시설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	—
	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	—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필요도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438명을 대상으로 각 세부서비스별 필요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함.

3) 이용률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로서, 앞서 살펴본 서비스 이용현황의 이용률과 상이할 수 있음.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욕구현황의 이용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환경 영역의 서비스 욕구는 일상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 및 환경정비 서비스', '방역 서비스', '환경 가꾸기' 에서 반드시 이용한다(5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냉난방 지원 서비스'는 3.7점으로 이용 의향이 낮은 편

— '환경 가꾸기'를 제외한 두 영역(청소 및 환경정비 서비스, 방역 서비스)에 서는 서비스 비용 지불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87〉 환경 영역 세부 사회서비스 욕구 현황 II

(단위: %, 원, 시간)

		서비스 이용의향	서비스 지불 의사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 <sup>4)</sup>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 <sup>2)</sup>	지불 가능 비용 <sup>3)</sup>	
민간 서비스	청소 및 환경정비 서비스	5.0 —	—	—	20.0 —
	방역 서비스	5.0 —	—	—	1.0 —
정부 제공 서비스	환경가꾸기	5.0 —	100.0	50,000.0 —	4.0 —
	냉난방 지원 서비스	3.7 (1.53)	33.3	100,000.0 —	13.3 (5.77)
	사회복지시설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	—	—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	—	—	—
	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	—	—	—

주: 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서비스 지불 의사 보유 비율은 해당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3) 지불가능비용이란 해당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에서 월평균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평균임.

4)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희망하는 한 달 평균 총 이용시간의 평균임.

## 제3절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 의견

### 1. 사회서비스 필요도 및 정책인지도

□ 개인적인 서비스 욕구와 별도로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의 필요성 관련 의견 수렴을 시도하였음

○ 사회서비스 11개 서비스 영역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65% 이상의 응답자가 국가적, 정책적 차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해 국가 책임과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국가정책적 차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 사회서비스 공급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 지지적 응답 비율이 높은 서비스 영역으로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78.8%)’서비스

– 그밖에 ‘문화 및 여가 서비스(78.7%)’, ‘교육 및 정보제공(76.3%)’ 순

– 반면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64.7%)’와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68.9%)’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지적 응답 비율이 낮았는데, 이들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자체가 일반화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판단

〈표 3-3-1〉 사회전체의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영역별 필요도

(단위: %)

	서비스 필요도
A.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67.4
B. 재활 지원 서비스	70.0
C.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75.5
D.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69.7
E. 보건의료 및 건강 관리	78.8
F.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76.3
G. 고용지원 서비스	75.5
H.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68.9
I. 문화 및 여가 서비스	78.7
J. 지역사회서비스	73.9
K. 환경 서비스	73.8

주: 1) 전체 응답자는 4,038 가구임.

□ 현행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를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가구 생애주기 및 가구 특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음

○ 전체 응답자 4,038명 중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87.1%로 나타나 사회서비스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인지도라기 보다는 대략적인 노출 경험 정도로 볼 수 있음

○ 그 이유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40%인 것으로 나타나 인지하고 있는 집단의

절반은 대략적인 정보만을 확보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구체적 인지 정도는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점과 주요 사회서비스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알고, 바람직한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함’+‘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알지만 불필요한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함’의 응답을 통합적으로 고려

○ 또한 사회서비스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제공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정책 추진’이라는 응답 비율이 26.9%로 ‘불필요한 정책 추진’이라고 답한 1.7%에 비해 약 20배가량 높게 나타났음

○ 이어서 본 조사의 분석대상 11개 사회서비스 세부 영역의 서비스 중 1가지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인지도의 차이를 살펴보았음

○ 사회서비스 이용자 집단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약 0.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음

- 한 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집단이 12.7%나 존재한다는 점은 여전히 사회서비스 정책의 범위나 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의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한편 사회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 수준도 서비스 이용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약 3%p 차이에 불과했으며, 정책추진의 바람직함에 대한 의견 역시 이용자 집단에서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

〈표 3-3-2〉 사회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정책 인지도 차이(이용자 vs 비이용자)

(단위: %, 명)

	전체	사회서비스 이용자	사회서비스 비이용자
서비스 인지 못함	13.0	12.7	13.2
서비스에 대해 인지함	87.1	87.4	86.9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함	29.3	27.6	30.8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점과 주요 사회서비스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	29.2	32.4	26.5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모르지만 바람직한 정책추진이라 생각함	18.0	17.8	18.1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모르지만 불필요한 정책추진이라 생각함	1.4	1.4	1.4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알고, 바람직한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함	8.9	8.1	9.6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알지만 불필요한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함	0.3	0.1	0.5
계	100.0 (4,038)	100.0 (1,894)	100.0 (2,144)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사회서비스 이용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의 서비스 인지도 차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표본 집단의 성격에 따라 응답자를 구분하여 인지도 차이를 살펴보았음

－ 분석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 표본을 총 4개의 집단으로 분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자로서 표본의 30%로 할당된 서비스 이용자 중 설문조사에서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①전자바우처 표본&서비스 이용자 집단,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로서 표본에 할당되었으나 설문조사에서 사회서비스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②전자바우처 표본&서비스 비이용자 집단,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표본 집단 중 설문조사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③일반표본&서비스 이용자 집단,



-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표본 집단이면서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는 ④일반표본&서비스 비이용자 집단으로 구분

○ 분석 결과, 전자바우처 표본으로 포함된 집단의 경우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표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전자바우처 표본으로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집단 ① 중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5.1%,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설문조사에서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 ② 중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7.1%, 일반표본으로서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사회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 ③의 18.3%에 대한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표 3-3-3〉 사회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정책 인지도 차이

(단위: %, 명)

	실제 서비스 이용 경험자			비 경험자
	①전자바우처 표본&서비스 이용자	②전자바우처 표본&서비스 비이용자	③일반표본 &서비스 이용자	④일반표본 &서비스 비이용자
정부 제공 사회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5.1	7.1	18.3	14.5
정부 제공 사회서비스에 대해 인지함	94.9	92.9	81.7	85.5
계	100.0 (800)	100.0 (438)	100.0 (1,094)	100.0 (1,706)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가구 특성에 따라 정책 인지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수급자 가구’의 경우 미인지율이 가장 높은 17.1%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돌봄 가구원(15.2%)’, ‘장애인 돌봄 가구원(15.1%)’, ‘맞벌이 가구(12.6%)’, ‘12세 미만 돌봄 가구원(9.8%)’ 순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 내용의 구체적인 정보(‘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점과 주요

사회서비스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알고, 바람직한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함’+‘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알지만 불필요한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함’)를 파악하고 있는 비율 역시 ‘12세 미만 돌봄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 전체 응답자 대비 44.9%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65세 이상 돌봄 가구원(32.2%)’, ‘수급자 가구(34.7%)’의 경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 한편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으로는 ‘맞벌이 가구’에서 28.8%의 응답자가 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수급자 가구’의 경우는 21.2%만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음

〈표 3-3-4〉 사회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정책 인지도 차이(가구특성별)

(단위: %, 명)

	돌봄가구원 존재 여부			맞벌이 가구	수급자 가구
	12세 미만 돌봄가 구원	65세 이상 돌봄 가구원	장애인 돌봄 가구원		
서비스 인지 못함	9.8	15.2	15.1	12.6	17.1
서비스에 대해 인지함	90.1	84.7	84.9	87.3	83.0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함	26.0	34.9	29.3	28.0	32.8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점과 주요 사회서비스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	35.3	24.8	31.8	28.7	28.2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모르지만 바람직한 정책추진이라 생각함	17.2	16.2	15.6	19.0	14.9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모르지만 불필요한 정책추진이라 생각함	2.0	1.4	0.7	1.3	0.6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알고, 바람직한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함	9.5	7.3	7.5	9.8	6.3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알지만 불필요한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함	0.1	0.1	0.0	0.5	0.2
계	100.0 (1,237)	100.0 (722)	100.0 (850)	100.0 (1,444)	100.0 (525)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인지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상대적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높았던 ‘첫 자녀 초등학교 재학기’에서 90.7%로 인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음

- 다음으로는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 ‘미혼가구’가 90.0%로 높았으며, ‘노인가구(82.6%)’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

○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의 경우 ‘첫 자녀 초등학교 재학기’,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의 시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가구’에서 가장 낮았음

- ‘미혼가구’의 경우 서비스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서비스 정보의 구체성은 낮음

○ 한편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첫 자녀 대학 교육기’에 놓인 가구의 경우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가구’의 경우 24.2%만이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여 생애주기별 의견 차이가 확인되었음

〈표 3-3-5〉 사회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정책 인지도 차이(생애주기별)

(단위: %, 명)

	미혼 가구	첫 자녀 출생 전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 학교 입학 전	첫 자녀 초등 학교 재학 기	첫 자녀 중고 등학 교 재학 기	첫 자녀 대학 교육 기	성인 자녀 동거 기	노인 가구
서비스 인지 못함	10.0	17.0	10.1	9.5	15.7	12.4	11.2	17.4
서비스에 대해 인지함	90.0	83.1	90.0	90.7	84.4	87.6	88.7	82.6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함	31.8	30.4	23.2	27.7	30.7	27.2	28.9	33.9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점과 주요 사회서비스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	27.9	25.0	38.0	33.5	28.0	26.4	31.1	22.5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모르지만 바람직한 정책추진이라 생각함	24.6	17.9	16.6	17.4	19.0	20.3	17.4	15.8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	0.4	0.9	2.4	1.8	0.8	1.5	1.1	1.5

	미혼 가구	첫 자녀 출생 전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 학교 입학 전	첫 자녀 초등 학교 재학 기	첫 자녀 중고 등학 교 재학 기	첫 자녀 대학 교육 기	성인 자녀 동거 기	노인 가구
해 잘 모르지만 불필요한 정책추진이라 생각함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알고, 바람직한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함	4.6	8.9	9.6	10.3	5.9	11.8	9.9	8.4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알지만 불필요한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함	0.7	—	0.2	—	—	0.4	0.3	0.5
계	100.0 (280)	100.0 (112)	100.0 (595)	100.0 (484)	100.0 (522)	100.0 (459)	100.0 (729)	100.0 (846)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사회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인지 경로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인지 경로는 크게 네 갈래로 구분하였음

- ‘주변 이웃이나 친지 등의 입소문(30.4%)’,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26.0%)’,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청 등)의 안내(23.6%)’,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17.4%)’의 경로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구분하여 서비스 인지 경로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실제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비이용자에 비해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청 등)의 안내’를 통한 접근이 28.1%로 약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 비이용자의 경우에는 ‘주변 이웃이나 친지 등의 입소문’에 의한 정보 획득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29.5%)’등의 활용도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현재 지자체에서 정부주도 사회서비스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단지, 현수막, 포스터 등 인쇄 홍보물’을 통한 정보 수집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표 3-3-6〉 사회서비스 인지 경로 차이(이용자 vs 비이용자)

(단위: %, 명)

	전체	사회서비스 이용자	사회서비스 비이용자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청 등)의 안내로	23.6	28.1	19.6
사회서비스제공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17.4	18.6	16.3
주변 이웃이나 친지 등의 입소문을 통해	30.4	28.3	32.2
전단지, 현수막, 포스터 등 인쇄 홍보물을 통해	2.6	3.0	2.4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26.0	22.0	29.5
기타	0.1	0.1	0.1
계	100.0 (3,514)	100.0 (1,653)	100.0 (1,861)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서비스 인지 경로를 〈표 3-3-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본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차이를 분석하였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표본으로 할당된 집단 ①과 ②의 경우, 일반 표본 집단에 비해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청 등)의 안내 (37.9%, 33.4%)’,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24.8%, 25.8%)’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비율이 일반표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경우 저소득 가정에 우선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의 접근 빈도가 높은 공공기관이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음

－ 반면 일반 표본으로 할당된 집단에서는 주된 정보 인지 경로를 ‘주변 이웃이나 친지 등의 입소문(30.3%, 32.9%)’,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32.9%, 35.7%)’라고 꼽아 차이

－ 또한 표본분류와 관계없이 주변 이웃이나 친지가 사회서비스 정보의 출처가 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어 보임

〈표 3-3-7〉 사회서비스 인지 경로 차이(바우처 표본 vs 일반표본)

(단위: %, 명)

	전자바우처 표본		일반표본	
	①전자바우처 표본&서비스 이용자	②전자바우처 표본&서비스 비이용자	③일반표본 &서비스 이용자	④일반표본 &서비스 비이용자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사군구청 등)의 안내로	37.9	33.4	19.7	15.7
사회서비스제공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24.8	25.8	13.4	13.6
주변 이웃이나 친지 등의 입소문을 통해	26.0	31.9	30.3	32.3
전단지, 현수막, 포스터 등 인쇄 홍보물을 통해	1.2	1.5	4.5	2.6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10.0	7.4	32.1	35.7
기타	0.1	—	—	0.1
계	100.0 (759)	100.0 (407)	100.0 (894)	100.0 (1,454)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가구 특성 및 가구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 정보에 대한 인지 경로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3-8〉, 〈표 3-3-9〉와 같음

- 가구 특성에 따라 구별되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12세 미만 돌봄 가구원’, ‘65세 이상 돌봄 가구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주로 주변 이웃이나 친지에게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돌봄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수집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

○ 가구 생애주기별로 구분해보면, ‘첫 자녀 출생전’, ‘첫 자녀 대학교육기’, ‘노인 가구’의 경우 신문이나 TV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첫 자녀 출생이후 초등학교 입학전’, ‘첫자녀 초등학교 재학기’, ‘성인자녀 동거기’에서는 공공기관의 안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

〈표 3-3-8〉 사회서비스 이용 경로 차이(가구특성별)

(단위: %, 명)

	12세 미만 돌봄 가구원	65세 이상 돌봄 가구원	장애인 돌봄 가구원	맞벌이 가구	수급자 가구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청 등)의 안내로	26.8	26.0	30.5	22.1	27.4
사회서비스제공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20.0	15.2	14.3	18.8	12.4
주변 이웃이나 친지 등의 입소문을 통해	30.8	28.8	26.6	33.0	24.1
전단지, 현수막, 포스터 등 인쇄 홍보물을 통해	2.0	2.1	4.7	2.1	6.4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20.3	27.9	23.8	23.9	29.7
기타	0.1	0.0	0.1	0.1	0.0
계	100.0 (1,116)	100.0 (612)	100.0 (722)	100.0 (1,262)	100.0 (435)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표 3-3-9〉 사회서비스 이용 경로 차이(생애주기별)

(단위: %, 명)

	미혼 가구	첫 자녀 출생 전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 학교 입학 전	첫 자녀 초등 학교 재학 기	첫 자녀 중고 등학 교 재학 기	첫 자녀 대학 교육 기	성인 자녀 동거 기	노인 가구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청 등)의 안내로	19.4	21.5	27.7	26.5	21.4	19.7	25.2	22.5
사회서비스제공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13.9	12.9	22.1	19.6	15.5	16.7	19.2	14.3
주변 이웃이나 친지 등의 입소문을 통해	25.0	34.4	29.0	32.6	32.7	32.3	30.8	28.9
전단지, 현수막, 포스터 등 인쇄 홍보물을 통해	3.2	1.1	2.1	2.3	2.5	2.0	2.3	3.9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10.7	30.1	19.3	18.9	27.5	29.4	22.6	30.5
기타	—	—	—	—	05	—	—	—
계	100.0 (252)	100.0 (93)	100.0 (535)	100.0 (438)	100.0 (440)	100.0 (402)	100.0 (647)	100.0 (699)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2.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및 재원 마련, 제공 주체에 대한 의견

-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부담에 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를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국가와 이용자가 ‘분담’해야 함을 주장하였음
- 국가와 서비스 직접 이용자의 분담 비율에 있어 약 60%의 응답자는 ‘국가와 이용자가 분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1.8%의 응답자는 ‘국가와 이용자가 분담하되 이용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
  - ‘국가와 이용자가 반반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0.8%에 그쳤고, ‘전액 국가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5%였으며 ‘서비스 이용자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0.2%로 매우 작았음
- 가구 생애주기별 서비스 이용료 부담 주체에 대한 의견 차이를 확인한 결과, ‘노인 가구’의 경우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전액 국가 부담을 주장한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음
- 전반적으로 서비스 욕구가 높았던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첫 자녀 출생 전’,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 ‘첫 자녀 초등학교 재학기’, ‘첫 자녀 중고등학교 재학기’)에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 반면 ‘미혼가구’의 경우 응답자의 21.8%만이 전액 국가부담을 주장하였으며, ‘국가와 이용자가 분담하되, 이용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타 주기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가족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국가와 이용자가 분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3-3-10〉 사회서비스 이용료 부담 주체에 대한 의견(생애주기별)

(단위: %, 명)

	전체	미혼 가구	첫 자녀 출생 전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 학교 입학 전	첫 자녀 초등 학교 재학 기	첫 자녀 중고 등학 교 재학 기	첫 자녀 대학 교육 기	성인 자녀 동거 기	노인 가구
서비스비용 전액 국가부담	26.5	21.8	28.6	28.9	27.7	28.0	22.2	22.1	30.6
국가와 이용자가 분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	60.6	63.2	58.0	60.8	62.2	57.5	63.0	64.9	56.0
국가와 이용자가 분담하되, 이용자가 더 많이 부담	11.8	15.0	12.5	9.0	9.1	13.2	12.9	12.3	12.3
국가와 이용자 반반 부담	0.8	—	0.9	0.8	0.8	0.4	1.7	0.7	0.9
서비스 이용자가 전액 책임	0.2	—	—	0.2	0.2	1.0	0.2	—	0.1
기타	—	—	—	0.2	—	—	—	—	—
계	100.0 (407)	100.0 (280)	100.0 (112)	100.0 (595)	100.0 (484)	100.0 (522)	100.0 (459)	100.0 (729)	100.0 (846)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현실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 응답자의 2/3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2.9%,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3%로 필요 정도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

— 그러나 ‘절대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4.8%, ‘그다지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8.0%로 나타남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부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들 집단에 대해 정책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가구생애주기에 따라 살펴보면 생애주기 후반으로 갈수록 세금 부담에 대한 동의 정도(‘어느 정도 필요함’+‘반드시 필요함’)가 높은 특징을 보임

— ‘미혼가구’, ‘첫 자녀 출생전’에서는 각각 61.9%, 61.7%가 세금 부담이 필

요하다고 답하였으나, 이 수치는 점차 증가하여 ‘성인자녀 동거기’, ‘노인 가구’의 경우 71.7%, 70.6%로 높게 나타났음

〈표 3-3-11〉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한 의견(생애주기별)  
(단위: %, 명)

	전체	미혼 가구	첫 자녀 출생 전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 학교 입학전	첫 자녀 초등 학교 재학기	첫 자녀 중고등 학교 재학기	첫 자녀 대학 교육기	성인 자녀 동거기	노인 가구
절대 필요하지 않음	14.8	15.4	18.8	19.2	15.3	17.0	13.5	12.6	12.1
그다지 필요하지 않음	18.0	21.8	19.6	16.8	20.2	19.2	17.9	15.6	17.4
어느 정도 필요함	54.3	54.3	49.1	49.1	52.1	50.8	56.0	57.2	58.9
반드시 필요함	12.9	7.6	12.5	15.0	12.4	13.0	12.6	14.5	11.7
평 균 <sup>2)</sup> (표준편차)	2.65 (0.88)	2.56 (0.85)	2.55 (0.94)	2.60 (0.96)	2.62 (0.89)	2.60 (0.92)	2.68 (0.86)	2.74 (0.86)	2.70 (0.83)
계	1000 (4027)	100.0 (280)	100.0 (112)	100.0 (595)	100.0 (484)	100.0 (522)	100.0 (459)	100.0 (729)	100.0 (846)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2)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적 세금 부담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절대 필요하지 않음 ~ 반드시 필요함(1~4점)’으로 질문하였으며, 가구유형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다음으로 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이용료를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임<sup>7)</sup>

– 전체적으로 91.9%의 응답자가 대체로 동의하거나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동의 정도가 높았음

○ 생애주기별 차이를 살펴보면,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약 90% 가량의 응답자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이용료 부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첫 자녀 출생 전’, ‘첫 자녀 출생이후 초등학교 입학전’, ‘첫 자녀 중학교 재학기’의 주기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수준

7)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이란, 동일한 사회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소득수준이 높은 이용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덜 지불하는 방법임.

〈표 3-3-12〉 서비스 이용료 차등지급에 관한 의견(생애주기별)

(단위: %, 명)

	전체	미혼 가구	첫 자녀 출생 전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 학교 입학전	첫 자녀 초등 학교 재학기	첫 자녀 중고등 학교 재학기	첫 자녀 대학 교육기	성인 자녀 동거기	노인 가구
전혀 동의하지 않음	0.8	1.1	1.8	0.5	0.6	1.5	1.1	0.8	0.6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	7.2	7.1	8.9	6.7	7.4	7.1	8.7	6.2	7.3
대체로 동의함	54.5	56.4	48.2	48.6	56.4	48.9	54.9	56.7	59.2
전적으로 동의함	37.4	35.4	41.1	44.2	35.5	42.5	35.3	36.5	32.9
평 균 <sup>2)</sup> (표준편차)	3.29 (0.63)	3.26 (0.63)	3.29 (0.70)	3.36 (0.63)	3.27 (0.62)	3.32 (0.67)	3.24 (0.65)	3.29 (0.61)	3.24 (0.61)
계	100.0 (4,027)	100.0 (280)	100.0 (112)	100.0 (595)	100.0 (484)	100.0 (522)	100.0 (459)	100.0 (729)	100.0 (846)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2)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서비스 이용료를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음 ~ 전적으로 동의함(1~4점)'으로 질문하였으며, 가구유형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사회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위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정부가 전담하여 제공'하는 방안과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 정도를 파악하였음

– 대부분의 영역에서 '정부가 전담'해서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정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적절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선호는 영역별 차이가 있었는데,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69.4%)', '고용·취업 서비스(68.7%)', '환경 서비스(65.2%)', '지역사회서비스(64.9%)',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61.6%)',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60.4%)'의 경우 응답자의 60% 이상이 '정부가 전담'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영역으로 나타났음

– '재활 지원 서비스(58.5%)',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55.7%)',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54.1%)',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52.2%)'는

‘정부 전담 제공’과 ‘정부와 민간의 분담 제공’에 대한 의견이 각각 절반가량

- ‘문화 및 여가 서비스’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여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타 영역에 비해 민간 분담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표 3-3-13〉 사회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상담 서비스	재활 서비스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동보육 및 보호 서비스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 서비스
정부가 전담하여 제공	69.4	58.5	60.4	54.1	61.6	55.7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여 제공	30.6	42.5	39.6	45.9	38.4	44.3
계	100.0 (2,723)	100.0 (2,827)	100.0 (3,048)	100.0 (2,815)	100.0 (3,181)	100.0 (3,082)
	고용지원 서비스	주거 서비스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정부가 전담하여 제공	68.7	52.2	45.4	64.9	65.2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여 제공	31.3	47.8	54.6	35.1	34.8	
계	100.0 (3,049)	100.0 (2,784)	100.0 (3,177)	100.0 (2,986)	100.0 (2,981)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2) 해당서비스가 우리사회 전체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해 질문함.

## 제4절 사회서비스 이용과 일상생활의 변화

□ 사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내용’, ‘서비스 품질’, ‘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의 전문성’, ‘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제공량’, ‘서비스 본인 부담금’,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주변 평판 및 인지도’ 등 7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 각 항목별 서비스 이용 고려 시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였음

○ 7가지 세부 항목의 중요도는 3.6~3.8점으로 나타나 항목 간 큰 차이를 발견하

기 어려웠으나,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품질’ 영역에서 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주변 평판 및 인지도’ 영역은 3.6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

○ 세부 항목에 대한 서비스 중요도의 차이는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음

〈표 3-4-1〉 서비스 이용시 고려 정도(생애주기별)

(단위: %, 명)

	전체	미혼 가구	첫 자녀 출생 전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 학교 입학전	첫 자녀 초등 학교 재학기	첫 자녀 중고등 학교 재학기	첫 자녀 대학 교육기	성인 자녀 동거기	노인 가구
사회서비스 내용	3.8 (0.44)	3.8 (0.36)	3.8 (0.40)	3.8 (0.44)	3.8 (0.43)	3.8 (0.47)	3.7 (0.46)	3.8 (0.44)	3.8 (0.43)
사회서비스 품질	3.8 (0.45)	3.9 (0.33)	3.8 (0.39)	3.7 (0.48)	3.8 (0.43)	3.7 (0.47)	3.7 (0.47)	3.7 (0.46)	3.8 (0.42)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의 전문성	3.7 (0.49)	3.8 (0.44)	3.7 (0.50)	3.7 (0.50)	3.7 (0.51)	3.7 (0.51)	3.7 (0.51)	3.7 (0.48)	3.7 (0.46)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의 친절도	3.6 (0.52)	3.6 (0.49)	3.6 (0.50)	3.6 (0.52)	3.6 (0.51)	3.6 (0.52)	3.6 (0.53)	3.6 (0.51)	3.6 (0.52)
사회서비스 제공량	3.6 (0.53)	3.6 (0.52)	3.6 (0.54)	3.6 (0.53)	3.7 (0.49)	3.6 (0.55)	3.6 (0.52)	3.6 (0.52)	3.6 (0.56)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3.7 (0.49)	3.8 (0.43)	3.6 (0.59)	3.7 (0.48)	3.7 (0.48)	3.7 (0.49)	3.7 (0.51)	3.7 (0.46)	3.7 (0.5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주변 평판 인지도	3.6 (0.53)	3.7 (0.48)	3.6 (0.48)	3.6 (0.51)	3.6 (0.51)	3.6 (0.54)	3.5 (0.54)	3.6 (0.52)	3.6 (0.55)
계	1000 (4,027)	100.0 (280)	100.0 (112)	100.0 (595)	100.0 (484)	100.0 (522)	100.0 (459)	100.0 (729)	100.0 (846)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2)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을 고려할 경우 각각의 항목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1~4점)’으로 질문하였음.

□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약 90%가량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약 20%로 나타났음

○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자 집단의 경우 사회서비스와 삶의 질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인식

-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용자 집단에서는 23.2%로 나타나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약 7%p 높은 수준

〈표 3-4-2〉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의견(이용자 vs 비이용자)

(단위: %, 명)

	전체	이용자	비이용자
전혀 상관없음	0.6	0.3	0.9
대체로 상관없음	10.8	9.0	12.4
어느정도 상관있음	68.8	67.5	70.1
밀접한 관계가 있음	19.7	23.2	16.6
평균 <sup>2)</sup> *** (표준편차)	3.08 (0.57)	3.14 (0.56)	3.02 (0.57)
계	100.0 (4,038)	100.0 (2,144)	100.0 (1,894)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2) 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삶의 질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상관없음 ~ 밀접한 관계가 있음(1~4점)’으로 질문함.

3) 본 수요조사는 2012년 9월 기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자(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를 전체 표본의 30%로 할당하였으므로 이용률 해석 시 유의해야함.

4) \*\*\*p < .001

○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생애주기에 따른 의견 차이를 살펴보았음

- 전반적으로 80%이상의 응답자가 상관관계가 있다(‘어느 정도 상관있음’+ ‘밀접한 관계가 있음’)고 밝혔으나, ‘첫 자녀 출생 전’,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 ‘첫 자녀 중고등학교 재학기’에 놓인 가구의 경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한 비율이 높았음

〈표 3-4-3〉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의견(생애주기별)

(단위: %, 명)

	미혼 가구	첫 자녀 출생 전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 학교 입학전	첫 자녀 초등 학교 재학기	첫 자녀 중고등 학교 재학기	첫 자녀 대학 교육기	성인 자녀 동거기	노인 가구
전혀 상관없음	1.1	2.7	0.2	0.8	0.8	0.2	0.5	0.7
대체로 상관있음	13.2	17.0	8.6	10.1	10.9	12.6	8.1	12.4
어느정도 상관있음	72.9	63.4	63.5	64.9	69.3	70.6	71.9	70.3
밀접한 관계가 있음	12.9	17.0	27.7	24.2	19.0	16.6	19.5	16.5
평균 <sup>2)</sup> (표준편차)	2.98 (0.55)	2.95 (0.67)	3.19 (0.58)	3.12 (0.60)	3.07 (0.57)	3.03 (0.55)	3.10 (0.54)	3.03 (0.56)
계	100.0 (280)	100.0 (112)	100.0 (595)	100.0 (484)	100.0 (522)	100.0 (459)	100.0 (729)	100.0 (846)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2) 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삶의 질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상관없음 ~ 밀접한 관계가 있음(1~4점)'으로 질문함.

○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이 삶의 질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약 80%('다소 개선될 것임'+ '상당히 개선될 것임')가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22.3%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의견을 실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이용자 집단의 경우 81.5%의 응답자가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하였으나, 비이용자의 경우 이보다 약 10%p 낮은 72.2%의 응답자만이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음

– 반면 서비스 비이용자의 경우 26.4%가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변화가 없을 것'이며, 1.3%는 '나빠질 것'('매우 나빠질 것임'+ '다소 나빠질 것임')이라고 답하여 이용자 집단에 비해 부정적이거나 기대 정도나 낮음을 확인

〈표 3-4-4〉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 정도(이용자 vs 비이용자)

(단위: %, 명)

	전체	이용자	비이용자
매우 나빠질 것임	0.1	0.1	0.1
다소 나빠질 것임	1.0	0.8	1.2
변화 없을 것임	22.3	17.6	26.4
다소 개선될 것임	64.5	67.4	61.8
상당히 개선될 것임	12.1	14.1	10.4
평균 <sup>2)</sup> *** (표준편차)	3.88 (0.62)	3.95 (0.59)	3.81 (0.63)
계	100.0 (4,038)	100.0 (2,144)	100.0 (1,894)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2) 서비스 이용으로 가족의 삶의 질이 어느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나빠질 것임 ~ 상당히 개선될 것임’을 ‘1~5점’으로 답함.

3) 본 수요조사는 2012년 9월 기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자(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를 전체 표본의 30%로 할당하였으므로 이용률 해석 시 유의해야 함.

○ 한편 가구 생애주기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주기에서 70% 이상의 긍정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학교 입학전’, ‘첫자녀 초등학교 재학기’, ‘첫 자녀 중고등학교 재학기’에 놓인 응답자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았음

- 반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은 ‘첫 자녀 대학 교육기’, ‘노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판단은 ‘노인 가구’에서 높았음

〈표 3-4-5〉 서비스 이용으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 정도(생애주기별)

(단위: %, 명)

	전체	미혼 가구	첫 자녀 출생 전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 학교 입학전	첫 자녀 초등 학교 재학기	첫 자녀 중고등 학교 재학기	첫 자녀 대학 교육기	성인 자녀 동거기	노인 가구
매우 나빠질 것임	0.1	—	—	—	—	—	—	—	0.4
다소 나빠질 것임	1.0	0.7	6.3	1.0	1.0	0.8	1.1	0.7	0.8
변화 없을 것임	22.3	27.5	18.8	18.3	18.0	21.8	30.1	21.4	23.2



	전체	미혼 가구	첫 자녀 출생 전	첫 자녀 출생 이후 초등 학교 입학전	첫 자녀 초등 학교 재학기	첫 자녀 중고등 학교 재학기	첫 자녀 대학 교육기	성인 자녀 동거기	노인 가구
다소 개선될 것임	64.5	62.1	65.2	65.5	65.1	65.7	59.7	66.3	64.1
상당히 개선될 것임	12.2	9.6	9.8	15.1	15.9	11.5	9.2	11.7	11.6
평 균 <sup>2)</sup> (표준편차)	3.88 (0.62)	3.81 (0.60)	3.79 (0.70)	3.95 (0.61)	3.96 (0.62)	3.88 (0.61)	3.77 (0.62)	3.89 (0.59)	3.86 (0.63)
계	100.0 (4,027)	100.0 (280)	100.0 (112)	100.0 (595)	100.0 (484)	100.0 (522)	100.0 (459)	100.0 (729)	100.0 (846)

주: 1) 괄호 안은 사례 수임.

2) 서비스 이용으로 가족의 삶의 질이 어느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나빠질 것임 ~ 상당히 개선될 것임'을 '1~5점'으로 답함.





## 제4장

# 2013년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의 설계

제1절 사회서비스 산업의 분류 체계  
제2절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의 개요



## 1. 조사의 준비

□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공급조사 부문은 수요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은 물론, 관련 인프라의 보강과 개발을 위한 기초 통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적 자료의 집적·관리를 고려하여 조사 설계가 이루어 졌음

○ 특히,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제공 여건의 동태적 변화를 포착하는데 착안하여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고용 실태, 재정 상황 등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 사회서비스 공급 판도의 시계열적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2009년도 사회서비스산업의 공급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사회복지서비스사업체를 중심으로 (강혜규 외, 2009)의 조사범위와 조사항목을 염두에 두어 조사표 마련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업체 대상의 공급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이 개발하였음

○ 사회서비스 사업체 조사대상은 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사회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기관이나 사업체 대표자 또는 기관·사업체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표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조사에 참여

- 조사원 교육을 완료한 전문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함

- 사업체 운영 사정상 대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조사원이 조사표 기입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추후 약속된 기일에 조사표를 회수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표 에디팅 과정에서 확인을 요하는 문항을 발견한 경우 응답자와 재차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락처를 확보

## 2. 조사대상과 표본설계

- 본 실태조사는 최근 사회서비스 정책의 역동적 변화와 그 영향으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 욕구를 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용하고 있는 광의의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들을 포괄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주요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보건의료 및 교육서비스 서비스 영역은 본 조사에서 제외하였고, 관련 실태 파악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한 유관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앞서의 수요 실태조사와 함께 통계청에서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사회서비스 사업체용”로 통계승인을 받았는데, 통계청 승인은 보건복지부가 작성기관인 작성주기 2년의 일반조사통계로 2009년, 2011년에 이어 2013년 9월 승인번호 제11778호로 확보한 것임
- 공급 실태조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 개정)를 기준으로 Q영역: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와 M영역: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일부, N영역: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의 일부, P영역: 교육 서비스업의 일부, S영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 구축
  - 전체 표본 중에서 사회서비스 일반 사업체 1,242 표본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사전 훈련된 전문 조사원이 조사대상 사회서비스 기관 또는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직접 면접조사로 방식으로 실시
  - 나머지 Q영역: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수행하는 2,500표본에 대해서는 온라인 조사방법을 활용
    - 온라인 조사가 지연되면서 조사기간은 9월 16일부터 약 60일간이 소요

### 가. 모집단의 구성

- 모집단 구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차 개정) M영역: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일부, N영역: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의 일부, P영역: 교육서비스업의 일부, S영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일부 등 사회

서비스업을 제공할 개연성 내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체로 구성하였음

○ 이에 따라, Q영역: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체 목록을 해당 부서의 협조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부터 시설목록을 직접 입수하여 모집단 사업체를 별도로 구성

- 대상 사업체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들로 2012~13년에 발간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및 각 사업별 안내를 통해 복지부 소관 사업체를 파악
- 관련 서비스의 해당 사업과를 통해 최신 사업체 명부 등을 입수하였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국장기요양기관 정보를 통해 시설 목록 사용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기관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업체 목록을 통해 파악

〈표 4-1-1〉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모집단 구성표

조사영역	사업체 목록	부차 모집단 분류
Q영역(전체):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사업과 시설목록 전국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생활시설(아동)(노인)(장애인) (정신보건)(지역복합서비스) (바우처기관)
		어린이집(보육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
M영역(일부):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목록 (통계청)	기타법무관련서비스업 세무사업
N영역(일부):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목록 (통계청)	고용알선업
P영역(일부): 교육서비스업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목록 (통계청)	특수학교
		사회교육시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교육관련자문및평가업
S영역(일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목록 (통계청)	기타 시민운동단체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 나. 표본규모 및 추정 방식

□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목록을 사용하는 영역(M, N, P, S영역)에서 부차모집단은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세무사업, 고용알선업, 특수학교, 사회 교육 시설,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시민운동단체,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등 9개 분야로 선정

○ 산업별 종사자규모 층내에서 종사자수를 1~9명, 10~49명, 50~99명, 100~299명, 그리고 300명 이상으로 정렬 후 계통 추출

○ 총 종사자수에 대한 허용오차  $\pm 7\%$  이내로 하였으며, 95% 신뢰구간 하에서 모집단 총계의 목표허용오차에 대한 표본의 크기에 대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n = \frac{\sum_{h=1}^L \frac{N_h^2 S_h^2}{a_h}}{N^2 D + \sum_{h=1}^L N_h S_h^2} \quad 8)$$

〈표 4-1-2〉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표본의 규모 산정 기준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M, N, P, S 영역)		모집단 수	총 표본 수	전수층	표본층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M	기타법무관련서비스업	1,823	101	1	100
	세무사업	8,362	153	2	151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N	고용알선업	6,326	235	12	223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P	특수학교	154	75	65	10
	사회교육시설	2,061	147	15	132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6,307	336	10	326
	교육관련자문및평가업	561	78	9	69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S	기타 시민운동단체	1,004	78	76	2

8)  $N_h$  : 종사자 규모 h의 부모집단 크기

$S_h$  : 종사자규모 h의 모표준편차

$$B = 1.96 * \sqrt{\widehat{Var}(N \overline{y}_{st})}$$

$L$  : 상용종사자규모의 수

$N$  : 모집단 크기

$$D = \frac{B^2}{1.96^2 N^2}$$

$$a_h = \frac{N_h S_h}{\sum_{h=1}^L N_h S_h}$$





〈표 4-1-3〉 2013년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Q영역 부차모집단별 최종 표본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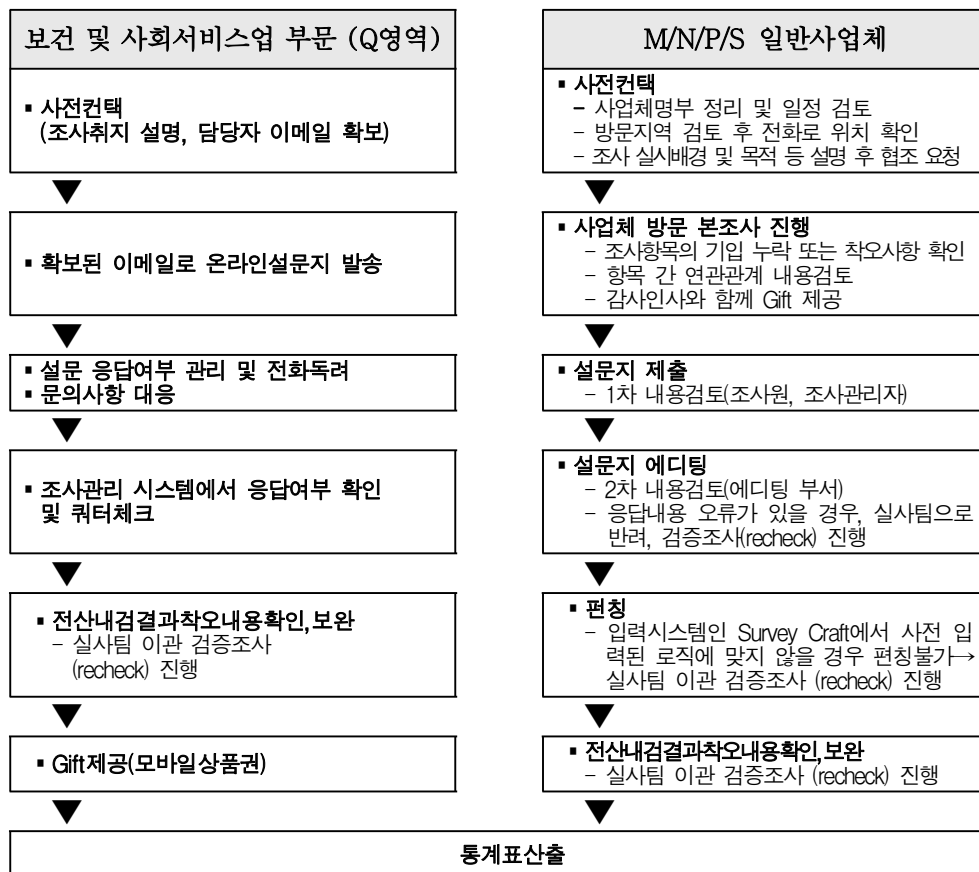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소관 Q영역: 사회복지서비스업 모집단의 부차 모집단		모집단 사업체 수	최종 표본규모
생활시설(아동)	아동양육시설 외 2개 분류	773	81
생활시설(노인)	양로시설 외 3개 분류	382	47
	노인요양시설 외 1개 분류	4,411	153
생활시설(장애인)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외 3개 분류	595	61
생활시설(정신보건 등)	사회복지시설 외 1개 분류	188	31
이용시설(아동)	지역아동센터 외 3개 분류	4,110	193
이용시설(노인)	노인보호전문기관	19	8
	복합노인복지시설	13	6
	재가노인복지시설	1,726	147
이용시설(장애인)	장애인직업활동시설 외 4개 분류	192	1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외 1개 분류	1,825	76
	장애인체육시설 외 3개 분류	232	1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6	26
이용시설(정신보건 등)	정신보건센터 외 2개 분류	64	20
이용시설(지역복합서비스)	자활센터	261	81
	종합사회복지관	415	110
	노인복지관	270	84
	장애인복지관	216	75
	정신질환자종합시설	15	15
이용시설(바우처 공급기관)	가사간병방문	283	5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707	86
	산모신생아도우미	231	49
	장애아동가족지원	1,208	113
	장애인활동지원	845	94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918	143
보육시설	어린이집	43,579	385
노인장기요양시설	재가 외 1개 분류	23,887	335
전 체		88,391	2,500

### 3. 조사의 진행

- 공급 실태조사 중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KSIC 한국표준산업 대분류 기준 Q영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에 해당되는 사업체의 경우 자계식 온라인 조사로 진행
-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목록을 사용하는 일반 사업체 (KSIC, 9차 개정 중 M, N, P, S의 일부 영역)는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 8월 29일 ~ 11월 1일까지 진행

-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부문 조사(Q영역)는 온라인설문지 발송을 위한 조사대상자의 이메일 주소 확보 및 사전안내를 위해 사전 전화컨택을 진행하였으며, 일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조사는 현장 방문 조사를 원칙
- 일반 사업체 중 사업체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조사 응답을 요청할 경우, 면접원은 응답자로 하여금 충분히 응답이 가능하도록 응답요령을 인지시킨 후 조사표를 유치시키고 조사 완료 시점에 재방문, 수거하는 등 유치조사를 일부 병행

[그림 4-1-1] 공급 부문 조사 진행 과정







## 제5장

# 사회서비스사업체의 공급 실태 분석 결과

제1절 사회서비스 사업체 기본 현황

제2절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주요 서비스 내용

제3절 사업체 재정 현황



# 5

##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공급 실태 분석 결과 < <

### 제1절 사회서비스 사업체 기본 현황

□ 본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서 공급 조사의 경우,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시설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공급 구조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공급 지형의 동태적 변화를 포착하여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총 3,394개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사결과가 분석에 포함되었음

– 분석대상 사업체는 복지부 소관시설 2,091개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표집한 일반사업체 1,303개소가 포함

○ 이후 전개되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상세 분석 과정에서 분석대상 사업체 구분은 3단계 시설 유형화 구분 틀을 일관되게 적용

– 1단계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모집단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과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유관시설로 구분

– 2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의 서비스 특성에 따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

• 2단계 유형화 구분 틀에 따라서 분석대상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생활시설 524개소, 이용시설 1,567개소,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유관시설 중 일반 사업체 1,303개소 등

– 분석대상사업체에 대해 세부 시설 유형별 분석이 필요한 경우, 3단계 시설 유형화 틀을 적용하여 보건복지부 소관시설의 경우,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따라 생활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서비스 등 4개 시설로 구분

• 이용시설의 경우 생활시설에 적용된 대상별 분류 이외에 지역복합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전자마우처 사업 수행기관, 보육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을 추가하여 8개 시설로 구분

- 마지막으로 일반사업체의 경우, 당초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표본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기관 유형화 분류기준에 따라 법무관련 서비스업(M), 세무사업(M), 고용알선업(N), 특수학교 50개소(P), 사회교육시설(P), 교육자문 및 평가업(P),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P), 시민운동단체(S),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S)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체 특성별 비교가 가능

○ 각 세부 시설 유형별로 분석에 포함된 조사 사업체 수는 다음과 같음

- 생활시설은 주요 서비스 대상별로 아동 생활시설 106개소, 노인 생활시설 273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103개소, 정신보건 등 관련 생활시설은 42개소
- 이용시설은 아동 이용시설 294개소, 노인 이용시설 132개소, 장애인 이용시설 206개소, 정신보건서비스 등 관련 이용시설 22개소, 지역복합서비스 제공시설 214개소,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수행 사업체 363개소, 보육시설 234개소와 함께 노인장기요양시설 102개소 등이 포함
- 일반 사업체 가운데에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동태적 변화 포착의 기준 시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2009년도 「사회서비스산업의 공급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사회복지서비스 사업체를 중심으로(강혜규 외, 2009)」의 조사와 달리, 2013년도 공급조사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M)의 일부 영역이 추가되어, 법무관련 서비스업 68개소, 세무사업 188개소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
- 그 밖에 고용 알선업 214개소, 특수학교 50개소, 사회교육시설 357개소, 교육자문 및 평가업 51개소 그리고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30개소가 추가되었으며, 시민운동단체 188개소,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57개소가 등 분석에 포함<sup>10)</sup>
- 분석 과정에서 표집이 부적절한 일부 기관과 조사 결과의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각 문항별 분석에서 제외<sup>11)</sup>

10) 이후 동 보고서는 “2009년도 공급 실태보고서”로 축약하여 통칭하였음.

11) 조사결과 에디팅 과정에서 입력의 오류 및 문항 간 논리적인 연계를 점검한 바, 조사 전체의 응답은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나 문항별로 이상치(극단치)나 문항 간 교차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 각 항목별로 오류로 판단된 사례는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표 5-1-1〉 사회서비스 공급실태 분석 대상 사업체 현황 비교(2009 vs 2013)

(단위: 개소, %)

사업체유형		세부 사업체유형 <sup>2)</sup>	2009년 실태조사		2013년 실태조사	
			사업체 수	비율	사업체 수	비율
복지부 소관시설	생활 시설	생활시설: 아동	110	19.3	106	20.2
		생활시설: 청소년	20	3.5	—	—
		생활시설: 노인	213	37.4	273	52.1
		생활시설: 장애인	83	14.6	103	19.7
		생활시설: 정신보건 등	70	12.3	42	8.0
		생활시설: 가족	73	12.8	—	—
		소 계	569	100.0 (13.7)	524	100.0 (15.4)
	이용 시설	이용시설: 아동	464	15.8	294	18.8
		이용시설: 청소년	178	6.1	—	—
		이용시설: 노인	494	16.8	132	8.4
		이용시설: 가족	40	1.4	—	—
		이용시설: 장애인	231	7.9	206	13.1
		이용시설: 정신보건 등	42	1.4	22	1.4
		이용시설: 지역복합서비스	307	10.5	214	13.7
		이용시설: 바우처	335	11.4	363	23.2
		보육시설	441	15.0	234	14.9
		노인장기요양시설	404	13.8	102	6.5
		소 계	2,936	100.0 (70.7)	1,567	100.0 (46.2)
		통계청 전국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의 유관시설 <sup>2)</sup>	일반 사업체	M: 법무관련서비스업	—	—
M: 세무사업	—			—	188	14.4
N: 고용알선업	103			16.0	214	16.4
P: 특수학교	84			13.0	50	3.8
P: 사회교육시설	216			33.5	357	27.4
P: 기술및직업훈련학원	—			—	130	10.0
P: 교육자문및평가업	85			13.2	51	3.9
S: 시민운동단체	38			5.9	188	14.4
S: 개인간병및유사서비스업	119			18.4	57	4.4
소 계	645			100.0 (15.5)	1,303	100.0 (38.4)
전체 사업체 수 <sup>1)</sup>			4,150	(100.0)	3,394	(100.0)

주: 1) 2009년도는 조사표본 4,290개소 중 조사완료 후 분석에 포함된 사업체의 수, 2013년도의 조사표본 3,742개소 중 조사완료 후 분석에 포함된 사업체의 수임. 한편 각 소계의 괄호 안 비율은 전체 응답사례 수 대비 소계 유형별 시설 분포의 비율임.

2) 세부 사업체유형 구분에 대한 근거는 〈표 4-2-3〉의 “세세분류 (5-digit)”를 참고하기 바람.

3) 통계청 「전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유관시설의 “일반 사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의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P.교육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영역 중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실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체들로 구성함(2009년 보고서에 서는 “일반사업체”로 구분하였음).

## 1. 사업체 창설시기

□ 사업체의 창설년도를 파악하여 유형별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신설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활동 시작 시기는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설립년월을 참고하여 기입하였으며, 주요업종이나 조직형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한 때를 창설년월로 간주하였다. 지사, 지점, 분소, 출장소 등은 본사(점)의 창설시기가 아닌 해당 지점의 영업 개시 시점으로 파악하였음

○ 〈표 5-1-2〉와 같이 전체 사업체 3,394개소 중 2012년에 창설된 시설은 4.4%, 2011년 9.0%, 2010년 9.5%, 2009년 10.3%, 2005년~2008년 27%, 2000~2004년 17.5%, 2000년 이전은 20.0%로서, 33.2%가 2009년 이후에 창설된 것으로 나타나 신규 사업체의 신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

○ 시설 유형별로 확인해보면, 최근 3년간(2009년 이후) 신설된 시설은 조사에 참여한 전체 생활시설 대비 32.7%, 이용시설 대비 31.4%, 일반사업체 대비 35.5%로 나타나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시설의 30% 가량이 신생시설임

○ 신규 사업체의 진입은 2004년 이후 주춤하다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본격화되었던 2007년에 이르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2010년 이후로는 다시 신규 설치 시설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

–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일반사업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일반사업체의 1.9%만이 2012년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생활시설(6.7%), 이용시설(5.7%)과의 차이

〈표 5-1-2〉 사업체 창설 시기: 전체 사업체

(단위: %, 개소)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0년 이전	29.5	20.0	42.0	25.8	24.7	15.8	40.3	22.7
2000.1 ~ 2004.12	23.6	17.5	20.4	11.8	23.7	22.0	25.9	14.4
2005.1 ~ 2005.12	8.3	5.0	6.7	4.6	8.7	6.5	8.1	3.4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6.1 ~ 2006.12	8.5	5.5	7.7	7.8	8.3	5.7	9.9	4.2
2007.1 ~ 2007.12	10.2	6.5	9.8	5.0	10.2	8.5	10.7	4.8
2008.1 ~ 2008.12	19.9	10.0	13.4	9.7	24.4	7.7	5.1	13.0
2009.1 ~ 2009.12	—	10.3	—	10.5	—	8.8	—	12.1
2010.1 ~ 2010.12	—	9.5	—	6.9	—	8.6	—	11.6
2011.1 ~ 2011.12	—	9.0	—	8.6	—	8.3	—	9.9
2012.1 ~ 2012.12	—	4.4	—	6.7	—	5.7	—	1.9
계	100.0 (4,150)	100.0 (3,394)	100.0 (569)	100.0 (524)	100.0 (2,936)	100.0 (1,567)	100.0 (645)	100.0 (1,303)

주: 괄호 안은 응답사업체 개소 수임.

○ 사업체의 창설시기를 사업체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세부 유형에 관계없이 전 영역에서 2000년대 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2005년 이후의 신규시설 설치비율은 10% 내외의 낮은 수준

- 시설입소 보다 가정보호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아동 생활시설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전체 응답 사업체의 절반가량(49.1%)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10년 이후의 신규시설은 약 7%로 나타나 신규진입 시설 비율이 활발하지 못한 영역
- 장애인 시설 역시 가정보호로 정책기조가 변화함에 따라 2000년 이전의 시설 설치비율이 35%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5% 미만의 신규시설만이 설치
- 반면 노인 생활시설의 경우 2008년 이후 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신규시설 설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법 제정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의 신규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

〈표 5-1-3〉 사업체 창설 시기: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생활시설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등
2000년 이전	25.8	49.1	11.7	35.0	35.7
2000.1 ~ 2004.12	11.8	10.4	10.6	18.4	7.1
2005.1 ~ 2005.12	4.6	5.7	2.2	5.8	14.3
2006.1 ~ 2006.12	7.8	9.4	5.5	12.6	7.1
2007.1 ~ 2007.12	5.0	2.8	5.5	6.8	2.4
2008.1 ~ 2008.12	9.7	5.7	11.4	8.7	11.9
2009.1 ~ 2009.12	10.5	9.4	13.2	6.8	4.8
2010.1 ~ 2010.12	6.9	.9	11.7	2.9	—
2011.1 ~ 2011.12	8.6	3.8	12.8	1.9	9.5
2012.1 ~ 2012.12	6.7	2.8	10.6	—	7.1
계	100.0 (524)	100.0 (106)	100.0 (273)	100.0 (103)	100.0 (42)

주: 괄호 안은 응답사업체 개소 수임.

- 이용시설의 세부 유형별 창설 시기를 비교해 보면, 앞서 살펴본 생활시설과는 달리 2000년대 초반(2000년 1월~2004년 12월) 신규 진입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
-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응답기관의 54.5%, 지역복합서비스의 34.6%가 해당 기간에 창설
-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주춤하던 신규 사업체 진입 비율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시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2007년 무렵을 기점으로 신규 설치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약 70%, 바우처시설의 약 50%, 노인 이용시설의 약 40%가 2008년 이후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 역시 2010년 이후 확대된 것으로 확인

〈표 5-1-4〉 사업체 창설 시기: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 보건등	지역 복합	마우처	보육	장기 요양
2000년 이전	15.8	6.1	9.8	17.0	—	39.3	10.2	23.9	4.9
2000.1 ~ 2004.12	22.0	18.0	19.7	25.2	54.5	34.6	19.3	21.4	6.9
2005.1 ~ 2005.12	6.5	16.3	8.3	6.8	9.1	1.9	4.4	2.6	1.0
2006.1 ~ 2006.12	5.7	9.5	6.8	8.3	—	3.3	4.1	3.8	4.9
2007.1 ~ 2007.12	8.5	15.6	6.1	8.7	4.5	5.1	9.6	4.7	2.9
2008.1 ~ 2008.12	7.7	8.2	12.1	5.8	4.5	2.8	9.9	5.6	12.7
2009.1 ~ 2009.12	8.8	7.1	7.6	6.3	9.1	2.8	14.0	4.7	23.5
2010.1 ~ 2010.12	8.6	6.1	12.1	7.3	—	2.3	11.3	8.5	18.6
2011.1 ~ 2011.12	8.3	5.8	11.4	8.7	4.5	3.7	10.2	10.7	8.8
2012.1 ~ 2012.12	5.7	5.1	1.5	4.9	9.1	1.4	5.8	11.1	10.8
계	100.0 (1,567)	100.0 (294)	100.0 (132)	100.0 (206)	100.0 (22)	100.0 (214)	100.0 (363)	100.0 (234)	100.0 (102)

주: 괄호 안은 응답사업체 개소 수임.

- 일반사업체의 경우 특수학교(78.4%)나 시민운동단체(57.9%), 사회교육시설(36.9%) 등의 세부 영역은 2000년대 이전에 창설된 시설의 비중이 큰 영역
- 반면 고용알선업이나 개인간병유사서비스업은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창설
- 고용알선업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에 창설된 사업체는 5.1%에 불과하였으나, 약 70%의 사업체가 2007년 이후 신설
- 또한 개인간병유사서비스업 역시 2000년대 이전에 신설된 기관은 0.5%에 지나지 않으나, 약 90% 이상의 사업체가 2008년 이후 신설되었다고 답하여 신규 진입 속도가 타 서비스 영역에 비해 빠른 것으로 파악

〈표 5-1-5〉 사업체 창설 시기: 일반사업체

(단위: %, 개소)

	일반 사업체									
	전체	법무 서비스업	세무 사업	고용 알선업	교육 자문· 평가업	기술 직업 훈련·학원	사회교육 시설	특수 학교	개인간병 유사 서비스업	시민 운동 단체
2000년 이전	22.7	23.5	31.9	5.1	20.0	21.6	36.9	78.4	0.5	57.9
2000.1 ~ 2004.12	14.4	20.6	27.1	13.1	16.0	10.1	28.5	9.8	1.6	10.5
2005.1 ~ 2005.12	3.4	5.9	3.7	5.1	4.0	3.1	1.5	2.0	1.1	7.0
2006.1 ~ 2006.12	4.2	2.9	5.3	7.9	4.0	3.4	2.3	2.0	2.1	7.0
2007.1 ~ 2007.12	4.8	2.9	3.7	10.3	10.0	5.0	2.3	—	2.7	1.8
2008.1 ~ 2008.12	13.0	13.2	3.7	15.4	12.0	19.0	4.6	2.0	18.1	8.8
2009.1 ~ 2009.12	12.1	4.4	4.8	12.6	12.0	14.0	5.4	2.0	29.3	—
2010.1 ~ 2010.12	11.6	7.4	10.6	16.4	14.0	10.1	6.9	—	20.2	1.8
2011.1 ~ 2011.12	9.9	16.2	6.4	11.2	4.0	10.1	2.3	2.0	20.2	3.5
2012.1 ~ 2012.12	1.9	—	2.1	1.9	4.0	2.0	2.3	—	2.7	—
계	100.0 (1,303)	100.0 (68)	100.0 (188)	100.0 (214)	100.0 (50)	100.0 (357)	100.0 (130)	100.0 (51)	100.0 (188)	100.0 (57)

주: 괄호 안은 응답사업체 개소 수임.

## 2. 조직 형태

□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및 사업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의 조직 형태를 조사하였음

○ 〈표 5-1-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전체 사업체 3,394개소 중 과반수인 50.3%가 개인사업체였고, 다음으로는 회사이외법인(24.8%), 비법인단체(12.4%) 순

- 개인사업체의 비중은 일반사업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사업체의 66.6%가 개인사업체였으며, 생활시설은 44.1%, 이용시설은 38.9%가 개인사업체인 것으로 확인
- 반면 회사이외법인의 비율은 일반사업체에서 11.2%로 가장 낮았으며, 이용시설(32.0%), 생활시설(37.0%)순
- 비법인단체의 비중은 이용시설이 18.0%로 나타나 생활시설(8.6%), 일반사

업체(7.3%)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았음

- 2009년도의 공급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3년에는 개인사업체가 50.3%, 회사이외법인이 24.8%로 분석되었으나 2009년도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21.4%, 회사이외법인이 52.7%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존재

〈표 5-1-6〉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 형태: 전체 사업체

(단위: %, 개소)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개인사업체	21.4	50.3	10.5	44.1	20.0	38.9	37.8	66.6
회사법인	3.1	8.2	1.1	9.4	2.4	6.5	8.4	9.9
회사이외법인 <sup>1)</sup>	52.7	24.8	72.4	37.0	52.3	32.0	36.7	11.2
재단법인	10.1	9.5	10.9	8.2	8.9	9.2	16.0	12.3
사단법인	15.8	21.0	3.4	4.1	17.6	23.2	25.3	36.3
사회복지법인	53.4	54.7	70.9	78.9	54.4	55.9	16.5	18.5
종교법인	5.1	3.9	6.8	3.6	4.7	5.0	4.6	0.7
학교법인	5.9	4.8	1.0	1.0	5.5	2.8	16.9	16.4
의료법인	2.1	0.7	5.8	1.0	1.4	0.8	0.4	—
기타	8.2	5.4	2.2	3.1	7.9	3.2	20.3	15.8
국가및지방자치단체	4.1	4.2	1.1	1.0	2.9	4.7	12.6	5.0
비법인단체	18.6	12.4	14.9	8.6	22.4	18.0	4.5	7.3
계	100.0 (4,150)	100.0 (3,394)	100.0 (569)	100.0 (524)	100.0 (2,936)	100.0 (1,567)	100.0 (645)	100.0 (1,303)

주: 1) 회사이외법인은 다시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회사이외법인을 100%로 하여, 각 법인 성격별로 사업체의 비율을 제시한 것임.

-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5-1-7〉 에서와 같이, 생활시설(524개소)에서도 개인사업체가 4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회사이외법인이 37.0%로 뒤를 이었으며, 특히 회사이외법인 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78.9%로 가장 많았음

- 세부 사업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노인 생활시설을 제외한 아동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보건 등 생활시설에서는 회사이외법인의 비중이 50%내외의 높은 수치

- 반면 노인 생활시설의 경우 회사이외법인은 26.7%로 타 영역에 비해 낮았으며,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55.7%로 아동 생활시설(32.1%), 장애인 생활시설(31.1%), 정신보건 등 생활시설(31.0%)에 비해 높은 수준
- 회사이외 법인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아동생활시설은 78.2%, 장애인생활시설 89.1%, 정신보건생활시설 80.0%

〈표 5-1-7〉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형태: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생활시설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등
개인사업체	44.1	32.1	55.7	31.1	31.0
회사법인	9.4	10.4	6.2	18.4	4.8
회사이외법인 <sup>1)</sup>	37.0	51.9	26.7	44.7	47.6
재단법인	8.2	18.2	6.8	2.2	-
사단법인	4.1	3.6	6.8	-	5.0
사회복지법인	78.9	78.2	72.6	89.1	80.0
종교법인	3.6	-	8.2	2.2	-
학교법인	1.0	-	1.4	2.2	-
의료법인	1.0	-	1.4	-	5.0
기타	3.1	-	2.7	4.3	10.0
국가및지방자치단체	1.0	1.9	0.4	-	4.8
비법인단체	8.6	3.8	11.0	5.8	11.9
계	100.0 (524)	100.0 (106)	100.0 (273)	100.0 (103)	100.0 (42)

주: 1) 회사이외법인은 다시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회사이외법인을 100%로 하여, 각 법인 성격별로 사업체의 비율을 제시한 것임.

○ 이용시설 또한 개인사업체가 3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회사이외 법인이 32.0%로 그 뒤를 이었다. 비법인단체의 조직형태를 지닌 사업체도 18.0%로 높은 수준

- 세부 사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5-1-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 이용시설, 정신보건 등 이용시설, 바우처 서비스 이용시설, 보육(이용)시설, 노인장기요양 이용시설은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최소 43.0%(바우처 서비스 이용시설)에서 최대 67.9%(보육 시설)로 높게 나타났음



- 반면 노인 이용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지역복합서비스 이용시설은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낮은 반면(24.2%, 6.3%, 7.0%), 회사이외법인이 각각 53.8%, 62.1%, 5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 간의 차이 확인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를 가진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5% 미만의 낮은 수준을 차지하였으나, 보육(이용)시설과 지역복합서비스 이용시설에서는 각각 11.5%와 10.3%의 비중을 차지
- 비법인단체의 경우, 장애인 이용시설(20.9%), 지역복합서비스 이용시설(22.4%), 바우처 서비스 이용시설(19.3%) 영역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표 5-1-8〉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형태: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 보건등	지역 복합	바우처	보육	장기 요양
개인사업체	38.9	54.8	24.2	6.3	54.5	7.0	43.0	67.9	59.8
회사법인	6.5	2.7	6.8	5.3	9.1	8.9	11.8	-	9.8
회사이외법인 <sup>1)</sup>	32.0	18.0	53.8	62.1	27.3	51.4	25.1	-	20.6
재단법인	9.2	26.4	12.7	1.6	-	11.8	7.7	4.8	-
사단법인	23.2	18.9	5.6	39.1	33.3	9.1	40.7	-	14.3
사회복지법인	55.9	41.5	63.4	52.3	50.0	68.2	41.8	61.9	81.0
종교법인	5.0	11.3	11.3	3.1	-	2.7	-	19.0	-
학교법인	2.8	-	1.4	1.6	16.7	4.5	4.4	4.8	-
의료법인	0.8	-	2.8	-	-	0.9	1.1	-	-
기타	3.2	1.9	2.8	2.3	-	2.7	4.4	9.5	4.8
국가및지방자치단체	4.7	1.4	3.8	5.3	-	10.3	0.8	11.5	1.0
비법인단체	18.0	23.1	11.4	20.9	9.1	22.4	19.3	11.5	8.8
계	100.0 (1,567)	100.0 (294)	100.0 (132)	100.0 (206)	100.0 (22)	100.0 (214)	100.0 (363)	100.0 (234)	100.0 (102)

주: 1) 회사이외법인은 다시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회사이외법인을 100%로 하여, 각 법인 성격별로 사업체의 비율을 제시한 것임.

- 일반사업체의 경우, 앞서 살펴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영역에 비해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세무사업(84.0%), 고용알선업(81.3%), 기술직업훈련학원(80.1%),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84.0%)은 영역별 총 응답 중 80%가 넘는 사업체가 개인사업체였으며, 법무서비스업 역시 66.2%<sup>3</sup> 수준
- 또한 이들 유형의 경우 회사법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나 해당 유형(세무사업, 고용알선업, 기술직업훈련학원,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법무서비스업)의 90%이상의 사업체가 개인사업체나 회사법인에 해당

〈표 5-1-9〉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형태: 일반사업체

(단위: %, 개소)

	일반 사업체									
	전체	법무 서비스업	세무 사업	고용 알선업	교육 자문 평가업	기술직업 훈련학원	사회교육 시설	특수 학교	개인간병 유사 서비스업	시민 운동 단체
개인사업체	66.6	66.2	84.0	81.3	40.0	80.1	13.1	15.7	84.0	3.5
회사법인	9.9	29.4	14.4	9.3	22.0	8.7	7.7	2.0	4.3	1.8
회사이외법인 <sup>1)</sup>	11.2	1.5	1.6	2.8	28.0	6.7	20.8	62.7	5.3	50.9
재단법인	12.3	—	—	—	28.6	33.3	—	9.4	—	10.3
사단법인	36.3	—	—	50.0	50.0	29.2	40.7	9.4	—	75.9
사회복지법인	18.5	—	—	16.7	—	16.7	3.7	31.3	80.0	10.3
종교법인	0.7	—	—	—	—	—	—	—	10.0	—
학교법인	16.4	—	—	—	7.1	12.5	14.8	50.0	—	—
의료법인	—	—	—	—	—	—	—	—	—	—
기타	15.8	100.0	100.0	33.3	14.3	8.3	40.7	—	10.0	3.4
국가및지방자치단체	5.0	—	—	0.9	4.0	—	38.5	17.6	—	3.5
비법인단체	7.3	2.9	—	5.6	6.0	4.5	20.0	2.0	6.4	40.4
계	100.0 (1,303)	100.0 (68)	100.0 (188)	100.0 (214)	100.0 (50)	100.0 (357)	100.0 (130)	100.0 (51)	100.0 (188)	100.0 (57)

주: 1) 회사이외법인은 다시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회사이외법인을 100%로 하여, 각 법인 성격별로 사업체의 비율을 제시한 것임.

- 반면 교육자문평가업, 사회교육시설, 특수학교, 시민운동단체는 세부 유형별로 조직형태 구성의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자문평가업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40.0%로 비중이 높으나, 회사법인과 회사이외의 법인 역시 20% 이상을 차지

- 사회교육시설의 경우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의 비중은 낮으나 회사이외법인(20.8%), 국가및지방자치단체(38.5%), 비법인단체(20.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특수학교는 회사이외법인의 비중이 62.7%로 높았으며, 시민운동단체는 회사이외법인과 비법인단체의 비중이 각각 절반가량을 차지

### 3. 주요 사업 지역 범위 및 경쟁 사업체 현황

□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어떠한 지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주요 사업 수행 지역을 조사하였는데, 주 이용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주요 사업 수행 지역’으로 정의하였음<sup>12)</sup>

- 〈표 5-1-10〉 과 같이 전체 사업체 중 55.3%가 시군구를 중심(소재지 시군구 + 2개 이상의 시군구)으로 사업을 수행한다고 응답
  - 사업체가 위치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응답이 43.8%였으며, 11.5%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응답
  - 이들 사업체는 평균 4.4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다음으로는 2개 이상의 읍면동(12.2%), 소재지 내 읍면동(11.0%), 소재지 내 시도(11.0%), 전국(7.4%), 2개 이상의 시도(3.1%) 순
- 사업체 유형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이용자의 접근성이 중요시되는 이용시설의 경우 시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도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타 사업체 유형에 비해 낮은 7%를 밑도는 수준
  - 소재지 읍면동 혹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사업체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
- 2009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2009년에 비해 시도 범위(소재지 내 시도+2개 이상 시도)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읍면동(소재지

12)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이 전 국민일지라도 실제 대부분의 이용자가 사업체 소재지 등에 거주할 경우 ‘1개 동’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음

내 읍면동+2개 이상 읍면동)과 시군구(소재지 내 시군구+2개 이상 시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비중이 증가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경우, 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체 비중의 감소폭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증가폭이 비슷한 수준
- 으로 분석된 반면, 일반사업체의 경우 읍면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 비중의 증가폭 뚜렷

〈표 5-1-10〉 주요 사업 지역 범위: 전체사업체

(단위: %, 개, 개소)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읍·면·동 단위	소재지 읍면동	12.4	11.0	7.7	10.3	15.0	11.8	4.8	10.4
	2개 이상 읍면동 <sup>2)</sup>	6.7 (5.0)	12.2 (6.2)	1.4 (3.3)	7.5 (5.6)	8.9 (4.9)	17.4 (6.8)	1.7 (8.1)	7.6 (4.2)
시·군·구 단위	소재지 시군구	48.2	43.8	39.1	40.9	50.2	43.3	47.3	45.7
	2개 이상 시군구 <sup>2)</sup>	4.7 (3.8)	11.5 (4.4)	5.3 (5.4)	14.9 (4.4)	4.2 (3.6)	15.3 (4.7)	6.8 (3.3)	5.3 (3.4)
시·도 단위	소재지 시도	20.2	11.0	24.6	10.7	17.9	6.8	27.0	16.3
	2개 이상 시도 <sup>2)</sup>	0.8 (3.2)	3.1 (4.4)	0.7 (2.3)	2.3 (4.4)	0.8 (2.7)	2.9 (6.8)	0.9 (6.0)	3.7 (2.9)
전국 단위		6.9	7.4	21.1	13.4	3.1	2.5	11.5	11.1
계		100.0 (4,149)	100.0 (3,394)	100.0 (568)	100.0 (524)	100.0 (2,936)	100.0 (1,567)	100.0 (645)	100.0 (1,303)

주: 1) 주요 대상지역은 각 사업체가 응답한 주요 활동의 지역적 단위에 대하여 전체 조사대상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계의 괄호 안은 응답사업체 수임.

2) "2개 이상 읍면동, 시군구, 시도"에 표시된 괄호 안의 수치는 이를 선택한 경우, 각각 몇 개의 지역단위가 사업 대상 범위인가에 응답한 결과의 평균치임.

○ 세부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생활시설은 〈표 5-1-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생활시설의 62.9%, 노인생활시설의 52.8%, 장애인생활시설의 65.0%가 사업 대상지역의 범위를 시군구 단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정신보건관련 생활시설은 35.7%인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사업체만이 시군구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28.6%로 타 영역에 비해 높았음

〈표 5-1-11〉 주요 사업 지역 범위: 생활시설

(단위: %, 개, 개소)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생활시설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등
읍·면·동 단위	소재지 읍면동	10.3	10.5	11.0	5.8	16.7
	2개 이상 읍면동 <sup>2)</sup>	7.5 (5.6)	2.9 (2.0)	12.1 (5.9)	2.9 (3.0)	- (-)
시·군·구 단위	소재지 시군구	40.9	41.0	39.6	49.5	28.6
	2개 이상 시군구 <sup>2)</sup>	14.9 (4.4)	21.9 (3.4)	13.2 (5.5)	15.5 (3.4)	7.1 (2.5)
시·도 단위	소재지 시도	10.7	18.1	7.0	12.6	11.9
	2개 이상 시도 <sup>2)</sup>	2.3 (4.4)	1.0 (5.0)	2.2 (2.3)	1.9 (16.0)	7.1 (4.5)
전국 단위		13.4	4.8	15.0	11.7	28.6
계		100.0 (524)	100.0 (106)	100.0 (273)	100.0 (103)	100.0 (42)

주: 1) 주요 대상지역은 각 사업체가 응답한 주요 활동의 지역적 단위에 대하여 전체 조사대상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계의 괄호 안은 응답사업체 수임.

2) “2개 이상 읍면동, 시군구, 시도”에 표시된 괄호 안의 수치는 이를 선택한 경우, 각각 몇 개의 지역단위가 사업 대상 범위인가에 응답한 결과의 평균치임.

- 이용시설은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용자 접근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기 위해 주로 읍면동이나 시군구를 범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5-1-12〉를 확인해보면, 이동에 가장 제약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유아 및 아동으로 대상으로 제공되는 아동 이용시설과 보육(이용)시설의 경우 절반가량의 사업체가 읍면동(소재지 내 읍면동+2개 이상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 중
    - 특히 이들 영역의 경우, 사업체 소재지 내의 1개의 읍면동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타 서비스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한편 노인 이용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정신보건등 이용시설, 지역복합서비스 이용시설, 바우처 서비스 이용시설, 장기요양 이용시설 등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비율이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
    - 이 중 정신보건관련 이용시설이 77.2%로 시군구 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바우처 제공기관이 74.1%, 장애인 이용시설이 65.4%의 순

〈표 5-1-12〉 주요 사업 지역 범위: 이용시설

(단위: %, 개, 개소)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 보건등	지역 복합	바우처	보육	장기 요양
읍면동 단위	소재지 읍면동	11.8	23.8	3.1	10.2	4.5	3.7	3.3	24.4	10.8
	2개 이상 읍면동 <sup>2)</sup>	17.4 (6.8)	27.6 (3.4)	22.1 (6.3)	5.4 (10.8)	13.6 (8.0)	22.0 (8.9)	12.9 (10.0)	17.1 (4.6)	14.7 (5.8)
사군구 단위	소재지 사군구	43.3	24.8	42.7	52.2	54.5	48.1	58.4	26.1	52.0
	2개 이상 사군구 <sup>2)</sup>	15.3 (4.7)	14.6 (5.4)	17.6 (5.3)	13.2 (8.4)	22.7 (3.0)	15.9 (4.6)	15.7 (3.5)	16.7 (2.5)	11.8 (2.5)
시·도 단위	소재지 시도	6.8	7.5	11.5	11.7	4.5	5.1	3.9	6.8	3.9
	2개 이상 시도 <sup>2)</sup>	2.9 (6.8)	0.7 (40.0)	2.3 (18.5)	3.4 (2.8)	—	2.8 (3.5)	1.9 (2.3)	7.3 (4.4)	2.9 (2.0)
전국 단위		2.5	1.0	0.8	3.9	—	2.3	3.9	1.7	3.9
계		100.0 (1,567)	100.0 (294)	100.0 (132)	100.0 (206)	100.0 (22)	100.0 (214)	100.0 (363)	100.0 (234)	100.0 (102)

주: 1) 주요 대상지역은 각 사업체가 응답한 주요 활동의 지역적 단위에 대하여 전체 조사대상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계의 괄호 안은 응답사업체 수임.

2) “2개 이상 읍면동, 시군구, 시도”에 표시된 괄호 안의 수치는 이를 선택한 경우, 각각 몇 개의 지역단위가 사업 대상 범위인가에 응답한 결과의 평균치임.

○ 이용시설 중 바우처 서비스 이용시설, 장기요양 이용시설에 대해 추가적으로 2009년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를 살펴보았음

- 바우처 서비스 이용시설과 장기요양 이용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 운영 범위가 2009년에 비해 협소해진 것이 확인
  - 바우처 서비스 이용시설의 경우 시도(소재지 내 시도+2개 이상 시도)가 사업의 주 영역이라고 응답한 사업체 비율이 2009년 24.2%에서 2013년 5.8%로 감소
  - 반면 읍면동(소재지 내 읍면동+2개 이상 읍면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비중은 9.0%에서 16.2%로, 시군구(소재지 내 시군구+2개 이상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비중도 64.8%에서 74.1%로 증가
- 장기요양 이용시설 역시 시도 범위의 사업 운영이 2009년 25.5%에서 6.8%로 협소해진 반면 읍면동 및 시군구가 사업의 주 영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2.3%에서 25.5%로, 56.7에서 63.8%로 증가

- 이들 사업체의 경우 2009년에 비해 지역에 밀착된 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표 5-1-13〉 바우처, 보육, 장기요양 사업 운영 지역 범위 비교

(단위: %, 개, 개소)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		바우처		장기요양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읍면동 단위	소재지 읍면동	15.0	11.8	5.1	3.3	6.9	10.8
	2개 이상 읍면동 <sup>2)</sup>	8.9 (4.9)	17.4 (6.8)	3.9 (6.5)	12.9 (10.0)	5.4 (4.1)	14.7 (5.8)
사군구 단위	소재지 사군구	50.2	43.3	55.8	58.4	51.0	52.0
	2개 이상 사군구 <sup>2)</sup>	4.2 (3.6)	15.3 (4.7)	9.0 (3.4)	15.7 (3.5)	5.7 (2.6)	11.8 (2.5)
시·도 단위	소재지 시도	17.9	6.8	23.3	3.9	24.0	3.9
	2개 이상 시도 <sup>2)</sup>	0.8 (2.7)	2.9 (6.8)	0.9 (2.3)	1.9 (2.3)	1.5 (2.2)	2.9 (2.0)
전국 단위		3.1	2.5	2.1	3.9	5.4	3.9
계		100.0 (2,936)	100.0 (1,567)	100.0 (335)	100.0 (363)	100.0 (404)	100.0 (102)

주: 1) 주요 대상지역은 각 사업체가 응답한 주요 활동의 지역적 단위에 대하여 전체 조사대상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계의 괄호 안은 응답사업체 수임.

2) “2개 이상 읍면동, 시군구, 시도”에 표시된 괄호 안의 수치는 이를 선택한 경우, 각각 몇 개의 지역단위가 사업 대상 범위인가에 응답한 결과의 평균치임.

○ 다음은 일반사업체의 세부 유형별로 사업 지역의 범위를 확인하였는데, 〈표 5-1-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 사업체의 절반가량이 시군구 단위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술직업 훈련학원의 경우 시군구(소재지 내 시군구+2개 이상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9%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자문평가업의 경우 30.6%로 가장 낮았음
- 일반사업체의 경우,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 비해 세부 영역 간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 범위의 세부 영역 간 차이도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음
- 법무서비스업이나 세무사업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경우, 타 영역에 비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은 수준(20.0%, 16.5%)

- 교육자문평가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2.7%의 사업체가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
  - 전국적 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민운동단체 역시 25.0%가 전국을 단위로 사업을 운영
- 고용알선업, 사회교육시설, 개인간병유사서비스업 등과 같은 상시적인 이용자의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타 영역에 비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차이 뚜렷

〈표 5-1-14〉 주요 사업 지역 범위: 일반사업체

(단위: %, 개, 개소)

		일반 사업체									
		전체	법무 서비스 업	세무 사업	고용 알선업	교육 자문 평가업	기술 직업 훈련 학원	사회 교육 시설	특수 학교	개인 간병 유사 서비스 업	시민 운동 단체
읍면동 단위	소재지 읍면동	10.4	7.7	6.4	14.0	20.4	8.0	17.2	10.0	8.9	10.7
	2개 이상 읍면동 <sup>2)</sup>	7.6 (4.2)	9.2 (3.3)	4.8 (6.6)	10.1 (3.8)	—	5.4 (2.9)	9.0 (4.0)	—	16.2 (4.2)	1.8 (13.0)
사군구 단위	소재지 사군구	45.7	50.8	41.0	41.1	22.4	56.0	41.8	42.0	46.9	35.7
	2개 이상 사군구 <sup>2)</sup>	5.3 (3.4)	3.1 (3.5)	1.1 (2.0)	8.7 (3.5)	8.2 (6.0)	4.0 (3.0)	5.7 (2.5)	14.0 (3.2)	4.5 (3.0)	8.9 (4.0)
시·도 단위	소재지 시도	16.3	6.2	26.1	15.5	14.3	14.9	10.7	24.0	16.2	14.3
	2개 이상 시도 <sup>2)</sup>	3.7 (2.9)	3.1 (2.5)	4.3 (3.2)	2.4 (3.2)	2.0 (3.0)	3.7 (3.0)	6.6 (2.3)	6.0 (3.0)	2.8 (2.4)	3.6 (2.0)
전국 단위		11.1	20.0	16.5	8.2	32.7	8.0	9.0	4.0	4.5	25.0
계		100.0 (1,303)	100.0 (68)	100.0 (188)	100.0 (214)	100.0 (50)	100.0 (357)	100.0 (130)	100.0 (51)	100.0 (188)	100.0 (57)

주: 1) 주요 대상지역은 각 사업체가 응답한 주요 활동의 지역적 단위에 대하여 전체 조사대상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계의 괄호 안은 응답사업체 수임.

2) “2개 이상 읍면동, 시군구, 시도”에 표시된 괄호 안의 수치는 이를 선택한 경우, 각각 몇 개의 지역단위가 사업 대상 범위인가에 응답한 결과의 평균치임.



□ 지역 내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만약 동일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경우, 파악하고 있는 경쟁기관의 개소 수를 질문한 결과

○ 전체 3,394개 사업체 중에 동일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76.1%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의 69.2%, 이용시설의 75.1%, 일반사업체의 80.1%가 경쟁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일반사업체의 경우 지역 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가 존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영역임을 간접적으로 확인

○ 경쟁기관의 수는 전체 응답 기관 평균 19.4개로 분석되었으며, 일반사업체는 29.8개소로 생활시설(12.9개소)이나 이용시설(13.0개소)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경쟁기관을 보유

- 경쟁기관의 수를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역시, 일반사업체의 33.9%가 16개 이상의 경쟁기관이 지역내 존재한다고 답하여 경쟁 상태의 정도가 높음을 짐작
- 반면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경우 유사한 경쟁 수준

〈표 5-1-15〉 지역 내 동일한서비스 제공 사업체 존재 여부 및 경쟁 사업체 수

(단위: %, 개소)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없음	23.9	30.8	24.9	19.9
있음	76.1	69.2	75.1	80.1
1개 이하	7.8	8.3	10.2	5.0
2개 이상 ~ 5개 이하	43.8	49.4	46.3	38.9
6개 이상 ~ 10개 이하	17.7	16.3	18.1	17.7
11개 이상 ~ 15개 이하	4.6	4.4	4.7	4.5
16개 이상	26.1	21.5	20.8	33.9
평균 <sup>1)</sup>	19.4 (50.62)	12.9 (26.41)	13.0 (28.98)	29.8 (72.16)
계	100.0 (3,394)	100.0 (524)	100.0 (1,567)	100.0 (1,303)

주: 1) 평균의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괄호 안은 응답사업체 수임.

#### 4.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활동 및 의견

□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활동 및 의견을 조사하면서,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이용자 확보를 위한 역점 활동, 손익분기점, 사회서비스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사회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희망 정책적 지원 내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표 5-1-16〉은 서비스 이용자 확보를 위해 사업체 자체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 사업체의 43.9%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주된 역점 사항이라고 답하였으며,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20.5%), 홍보 및 마케팅 활동(12.9%) 순

－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상회하는 52.3%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18.1%로 높았음

• 한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은 6.1%로 타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반면 시설 투자에 대한 노력은 9.4% 수준

－ 이용시설의 경우 서비스 품질향상(47.1%),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19.5%), 홍보 및 마케팅 활동(1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절대적 수치는 높지 않으나 신규 서비스 발굴(7.2%), 부가서비스 제공(5.0%)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발굴 및 제공에 대한 노력이 타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

－ 일반사업체는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영역이 36.6%로 가장 역점을 두는 활동으로 제시되었으나, 절대적인 값은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 반면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노력은 각각 22.7%와 18.1%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사업체 유형간 차이

〈표 5-1-16〉 사업체 유형별 서비스이용자 확보를 위한 역점 활동

(단위: %, 개소)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43.9	52.3	47.1	36.6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	20.5	18.1	19.5	22.7
홍보 및 마케팅 활동	12.9	6.1	10.3	18.7
신규 서비스 발굴	5.9	2.1	7.2	5.9
시설 투자	4.5	9.4	4.0	3.1
부가서비스 제공	3.9	2.9	5.0	2.9
서비스 이용료(가격) 인하	3.3	4.2	2.6	3.8
사업비용 절감	2.0	2.1	0.9	3.4
기타	3.1	2.9	3.4	2.8
계	100.0 (3,394)	100.0 (524)	100.0 (1,567)	100.0 (1,303)

주: 괄호 안은 응답사업체 수임.

□ 사업체 유형별 손익분기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 실태조사에서는 손익분기점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숫자로 산출하여, 1개월 평균 몇 명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였는지 조사하였음

○ 응답 결과, 전체 사업체에서 한 달 평균 185.9명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체 유형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

- 생활시설의 경우 월평균 35.4명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숫자가 가장 적은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도 작아 이용시설이나 일반사업체과 차이
- 이용시설과 일반사업체는 표준편차는 크지만, 각각 월평균 191.6명과 214.4명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되어 생활시설에 비해 약 6~7배 이상의 이용자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구간별로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1명 이상~20명 미만의 이용자가 확보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36.7%로 가장 많았음
  - 이용시설은 20명 이상~40명 미만이 3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 반면 일반사업체에서는 33.6%가 100명 이상 이용자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5-1-17〉 사업체 유형별 서비스 손익분기점

(단위: %, 명)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1명 이상 ~ 20명 미만	20.0	36.7	19.2	14.3
20명 이상 ~ 40명 미만	29.4	26.8	30.2	29.5
40명 이상 ~ 60명 미만	14.6	15.0	15.8	13.2
60명 이상 ~ 80명 미만	5.6	4.9	5.8	5.5
80명 이상 ~ 100명 미만	4.0	3.4	4.4	3.8
100명 이상	26.4	13.2	24.6	33.6
평균 <sup>1)</sup>	185.9 (1,383.84)	35.4 (62.01)	191.6 (1383.49)	214.4 (1558.50)
계	100.0 (3,394)	100.0 (524)	100.0 (1,567)	100.0 (1,303)

주: 1) 평균 아래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2) 괄호 안은 응답사업체 수임.

□ 사회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체의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제공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고 응답한 사업체가 전체의 28.8%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는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18.4%)으로 나타나 서비스 제공 인력과 관련한 지원 및 개선에 대한 필요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관련 정책부처의 지원 확대(17.5%),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13.8%) 순

○ 반면 제공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2.9%), 신규 제공기관 진입규제 강화(2.5%), 신규 제공기관 진입규제 완화(0.8%)와 같이 사업체의 규모 및 타 사업체와의 경쟁 등에 관한 외부적 환경과 관련된 필요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사업체 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경우 일반사업체에 비해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욕구가 각각 19.7%, 21.9%로 일반사업체(13.6%)에 비해 높은 수준

〈표 5-1-18〉 사회서비스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요사항

(단위: %, 개소)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	28.8	28.6	28.2	29.7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	18.4	19.7	21.9	13.6
관련 정책부처의 지원 확대	17.5	19.1	15.9	18.7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13.8	15.8	13.8	12.9
사회서비스 브랜드개발 및 인지도 제고	4.3	3.6	4.3	4.5
사회서비스 가격 자율화	4.1	5.5	3.6	4.0
새로운 서비스 유형의 개발	3.2	2.1	3.6	3.2
제공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	2.9	1.1	2.5	4.1
신규 제공기관 진입규제 강화	2.5	1.5	1.6	3.9
신규 제공기관 진입규제 완화	0.8	1.3	0.4	1.1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 없음	2.0	0.6	2.7	1.7
기타	1.8	1.0	1.4	2.6
계	100.0 (3,394)	100.0 (524)	100.0 (1,567)	100.0 (1,303)

주: 괄호 안은 응답사업체 수임.

□ 사회서비스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요사항에 이어 사회서비스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사업체의 의견을 조사하였음

○ 전체 응답 사업체의 34.8%가 서비스 제공인력의 잦은 이직 및 구인의 어려움이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이용자 확보(19.9%), 낮은 서비스 단가(17.4%) 순

○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경우는 절반가량의 사업체가 서비스 제공인력의 잦은 이직 및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낮은 서비스 단가(14.9%, 19.0%), 이용자 확보(11.8%, 15.6%)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반면 일반사업체의 경우 이용자 확보가 서비스 제공인력의 구인보다 어려운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용자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사업체는 28.3%였으며, 서비스 제공인력의 잦은 이직 및 구인의 어려움은 이보다 낮은 19.9%

- 일반사업체의 경우 11.7%의 사업체에서 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는데, 이는 앞서 〈표 5-1-1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내 경쟁업체의 수가 많은 데 따른 어려움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과도한 경쟁구도는 이용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

〈표 5-1-19〉 사회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애로사항

(단위: %, 개소)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서비스 제공인력의 잦은 이직 및 구인의 어려움	34.8	52.5	41.4	19.9
이용자 확보	19.9	11.8	15.6	28.3
낮은 서비스 단가	17.4	14.9	19.0	16.7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요구사항 및 불만	6.8	5.9	7.1	6.9
업체 간 과도한 경쟁	6.7	2.5	4.0	11.7
사업 수행에 따르는 각종 규제	6.0	5.7	5.7	6.5
서비스 수요 예측의 어려움	3.5	1.9	3.2	4.5
지자체 및 유관 행정기관의 관리 및 감동	2.1	2.7	2.2	1.8
기타	2.6	2.1	1.9	3.7
계	100.0 (3,394)	100.0 (524)	100.0 (1,567)	100.0 (1,303)

주: 괄호 안은 응답사업체 수임.

□ 앞서 살펴본 애로사항을 제거하고 사회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여 〈표 5-1-20〉에 제시하였음

○ 전체 사업체 3,394개소 가운데 31.5%인 1,068개의 사업체가 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우선순위로 꼽았음(31.5%)

-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17.9%), 세제 감면 및 세제 지원 확대(11.9%), 사회서비스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11.2%) 순
- 사업체 유형별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사회서비스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앞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듯이 서비스 제공 인력의 구인, 이용자 확보 및 낮은 서비스 단가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관련된 지원, 사회서비스사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등에 대한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5-1-20〉 사회서비스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단위: %, 개소)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	31.5	30.5	35.4	27.2
사회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17.9	20.2	19.7	14.8
세제 감면 및 세제 지원 확대	11.9	10.5	9.8	15.0
사회서비스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1.2	12.0	10.0	12.3
사회서비스 가격 자율화	4.7	4.8	4.9	4.4
사업체 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	8.1	7.6	7.5	9.1
창업자 맞춤형 성장 지원 정책	4.6	5.9	3.7	5.1
창업, 공동홍보, 컨설팅 등 지원 시책 확대	3.5	1.5	2.6	5.4
기타	6.7	6.9	6.4	6.9
계	100.0 (3,394)	100.0 (524)	100.0 (1,567)	100.0 (1,303)

주: 괄호 안은 응답사업체 수임.

## 제2절 사업의 주요 대상 및 서비스 내용 현황

□ 본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에서는 수요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사회서비스를 대상과 서비스 주요 내용 등을 고려하여 11개 영역으로 유형화하고, 사회서비스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세부 서비스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음

○ 먼저 사회서비스를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여 이를 「단위사업 및 서비스유형 표」에서 제시한 11개의 영역, 130개 단위 서비스(기타 제외)로 구성

○ 조사과정에서 단위사업 및 서비스 유형 표를 참고하여, “사업체(시설, 기관) 설치 목적에 따라 2012년 1년간 시행한 세부사업 및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 분류 코드와 상세사업(서비스) 명칭을 최대 15개까지 기입하도록 하였음

- 2가지 이상의 사업(서비스)을 시행하는 경우, 2012년 1년간 사업체의 매출액(소요예산) 비중이 큰 순서에 따라 기입하되, 이러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 수나 해당시설 종사자 규모가 큰 순서대로 기입하도록 함
- 주요 사업내용에 기입한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요 대상, 이용자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시한 15개 항목(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중에 선택하여 해당 대상의 번호를 기입

- 둘 이상의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 모든 기입하도록 함

〈표 5-2-1〉 본 조사에서 구성한 「사회서비스 영역별 세부 서비스 분류표」

A.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서비스	101. 전문 상담서비스(개별상담, 집단상담) 102. 사례관리 서비스 103. 돌봄가족원(부양자) 지원 서비스 104. 가족 상담 서비스(부모상담, 부부상담 등) 105. 위기가정 문제 관련 지원·상담 서비스 106. 폭력·학대관련 상담 서비스 (아동학대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991.기타	151. 정신보건증진센터 152.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게임중독 상담센터 153. Wee프로젝트 이용 (학교부적응 및 위기에 처한 학생 상담) 154.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서비스 155.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B.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201. 장애인단·관정 서비스 202. 신체적 재활 서비스(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203. 직업재활 서비스 204.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205.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 심리치료 206. 언어치료 207. 알코올·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 208. 수화 서비스 992. 기타	251. 발달재활서비스 252.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53. 시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C.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301. 주간보호·야간보호·주간보호·단기보호 302. 간호 및 간병서비스(일반) 303. 방문목욕 304. 복지용품 급여/ 보장구 지급 305. 산후조리서비스(일반)1051 306. 활동보조 서비스(일반) 307.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가사서비스, 목욕, 야간, 심부름, 차량지원 이동지원) 308. 식사제공 서비스 (급식서비스, 경로식당, 밀반찬배달) 993.기타	351.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352.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5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바우처) 354.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바우처) 355.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바우처) 356.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시설급여/ 기타 재가급여 357.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358. 취약노년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359.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 360.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D. 아동 보호 및 보호서비스	401.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0~5세, 도우미 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형태) 402.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0~5세, 돌봄시 설에 직접 아동이 방문하는 형태) 403. 재가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도우 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형태) 404. 방과후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돌 봄시설에 직접 아동이 방문하는 형태) 405. 장애아동 돌봄 406.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프로그램 (사설기관의 청소년 문화·놀이·오락프로그램) 407.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서비스 408. 학교부적응, 위기청소년 지원 994. 기타	451.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452.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만0~2세, 누리과정, 장애아 무상/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453. 아이돌보미 서비스 454.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455. 초등 돌봄교실 45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457. 아동입양 관련 서비스
E. 보건·의료 및	501. 건강관리서비스 502. 운동처방서비스 995. 기타	551. 산전후 건강관리사업(고운맘카드) 552. 보건소 건강증진 방문 보건 서비스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건강관리		553. 임신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 서비스 554. 보건소 금연클리닉 555.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인공임신 중절예방
F.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	601.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 602. 장애아동 (특수)교육 603. 성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604. 부모교육 605. 교육관련 상담, 평가 및 정보제공 606.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607. 세무관련 서비스 608. 법률지원 서비스 609. 진학 및 진로상담 996. 기타	651.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바우처) 652. 유치원이용(유아학비지원- 만3~4세, 누리과정 교육비, 다문화 교육비지원) 653.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654.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서비스 655.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656.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 구조 지원 서비스
G.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	701. 구직·일자리 알선 702. 간병관련 일자리 지원 703. 가사지원 관련 일자리 지원 704. 자영자 창업지원 705.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 706. 근로의욕고취 및 근로관련 심리상담·사회적 지원 997. 기타	751. 정부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공공근로/자활근로) 752.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이용 753.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 및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754.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75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75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757.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758. 출소자를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H. 주거보호 및 지원서비스	801. 대규모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 생활 지원 802. 20명 이내 소규모 그룹홈 등 공동생활가정의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803. 일시보호(일시보호시설, 쉼터 등) 804. 주거비 지원 998. 기타	851. 장애인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852. 요보호 아동을 위한 그룹홈 거주 853.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854. 주택 바우처
I. 문화 및 여가서비스	901. 문화/예술 서비스 902. 체육/스포츠 서비스 903. 여행/관광 서비스 999. 기타	951.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운영: 지방문화원 952. 여행 바우처 953. 문화 바우처 954. 스포츠 바우처
J.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1001. 자원봉사자 양성 및 참여 1002. 사회복지관 9910. 기타	105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1052. 드림스타트(지역사회 중심 아동통합 서비스지원) 105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방과후 돌봄 외 기타 프로그램) 1054. 건강가정지원센터 1055.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청소년 수련 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등) 105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057.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상담, 법률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등) 1058. 노인보호 전문기관(학대노인 대상 법률지원, 보호, 상담 등) 1059.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정, 경로당 등)
K. 환경	1101. 청소 및 환경정비 서비스 1102. 방역서비스 1103. 환경 가꾸기(숯가꾸기, 텃밭 운영 등) 1104. 냉난방 지원서비스(무더위쉼터) 9911. 기타	1151. 사회복지시설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1152.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1153. 주택 속내 급수관 개량지원

## 1. 주요 사업 대상 및 단위 사업 운영 현황

□ 사회서비스사업체의 주요 사업 대상을 확인한 결과, 전체 3,394개의 사업체가 기입한 단위 사업은 총 5,220개로서 1개의 사업체 당 약 2개 미만의 사회서비스 영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전체 사회서비스 영역 중 17.7%가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은 16.5%, 아동(6~17세)은 13.5%, 일반시민 대상 사업은 전체의 12.6%를 차지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단위 사업의 비중이 각각 31.8%, 25.3%로 높은 수준
-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중이 20.8%로 가장 높았고, 아동(18.2%), 노인(16.8%) 순
- 이용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비중이 약 20%를 차지
- 일반사업체의 경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일반사업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35.7%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 장애인 대상 사업, 아동 및 영유아대상 사업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보편적인 사업이 활발한 것으로 해석 가능

○ 2009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3년 실태조사는 2009년과 달리 영유아 및 아동을 연령대로 구분하여 영유아(0~5세)와 아동(6~17세)으로 나누었으며, 빈곤층 대신 정책 집단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분리하였음

- 2009년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노인과 빈곤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영역으로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비중은 2009년 대비 약 8%p가량 감소

-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비중은 약 8%p 가량 증가
- 최근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향에 관한 정책 목표가 강화되고 있으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비중은 2009년 10.2%에서 2013년 12.6%로 약 2%p정도의 상승에 머물음<sup>13)</sup>

〈표 5-2-2〉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주요 사업 대상 현황

(단위: %, 사례)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노인	25.1	17.7	30.5	31.8	26.4	16.8	8.0	13.7
장애인	17.3	16.5	19.3	25.3	17.8	20.8	10.6	4.2
영유아(0~5세)	18.8	6.5	11.3	6.5	20.8	9.0	10.8	1.3
아동(6~17세)		13.5		13.0		18.2		4.2
청소년(18~24세)	6.4	5.9	7.1	7.3	6.7	5.2	3.5	6.7
여성	5.7	5.4	6.2	2.7	3.4	1.4	23.4	14.5
모·부자	2.9	0.9	8.5	0.3	2.2	1.2	1.7	0.6
가족	2.6	0.8	1.2	0.3	2.9	1.2	1.5	0.4
빈곤층	5.8	—	1.3	—	6.9	—	1.9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	—	7.8	—	6.2	—	10.8	—	2.2
차상위 계층등 취약계층	—	6.5	—	2.0	—	9.7	—	1.8
일반시민	10.2	12.6	3.5	1.3	9.0	3.5	28.1	35.7
다문화가족	1.7	1.2	0.1	—	1.8	1.2	3.0	1.7
노숙인·부랑인	1.0	—	6.7	0.1	0.3	—	0.2	—
종사자·근로자	0.8	2.4	0.7	0.3	0.6	0.3	2.6	7.5
기타	1.8	2.2	3.5	2.9	1.2	0.6	4.9	5.3
계	100.0 (18,235)	100.0 (5,220)	100.0 (2,006)	100.0 (720)	100.0 (14,475)	100.0 (3,063)	100.0 (1,754)	100.0 (1,437)

주: 각 사업체에서 실시하는 세부 사업서비스를 파악하면서(15개이하로 제한), 주요 대상을 파악하여 전체 총수에서 각 대상별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며, 하단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사업체에서 실시하는 세부 사업서비스의 대상 유형 총수를 의미함(한개 사업 당 여러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총 사회서비스 영역의 합계와는 다름).

13) 2013년 실태조사는 표본 구성 및 할당에 있어 2009년과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시 주의해야함.

- 2012년 1년간 사회서비스 사업체에서 수행한 평균 세부 사회서비스(단위사업)의 수를 파악하였다. 세부 사회서비스의 수는 15개 이하로 기입하도록 제한하였음
- 조사결과, 전체 3,394개의 사업체 1개소 당 평균 1.5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단위 사업의 숫자는 이용시설이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시설은 1.4개, 일반사업체는 1.1개
- 평균 2.6개의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2009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약 1.1개의 단위사업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부 사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5-2-4〉와 같이 생활시설에서는 정신보건 관련 생활시설이 평균 2.2개로 수행하는 사업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생활시설은 평균 1.8개, 아동과 노인의 생활시설은 평균 1.2개로 동일
- 이용시설에서는 〈표 5-2-5〉와 같이, 지역복합시설이 평균 4.2개로 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신보건관련 이용시설도 평균 3.0개로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
  - 바우처 제공기관이 평균 1.8개, 아동 및 노인이용시설은 1.7개, 장애인 이용시설은 1.5개의 순
- 일반사업체의 경우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에 비해 제공하는 평균적인 단위사업의 수가 적었음
  - 세부 사업체 유형별로 기타시민운동단체가 평균 1.4개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의 사업체 유형들이 모두 평균 1.0개에서 1.2개 사이의 수준
  - 일반사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의 사업체에 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세부적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사업의 개수가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

〈표 5-2-3〉 수행 단위사업 수: 전체 사업체

(단위: 개)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평균	2.6	1.5	2.4	1.4	2.9	2.0	1.7	1.1
표준편차	3.0	1.9	2.7	1.6	3.3	2.5	1.6	0.5

〈표 5-2-4〉 수행 단위사업 수: 생활시설

(단위: 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생활시설				
	전체(N=524)	아동(N=106)	노인(N=273)	장애인(N=103)	정신보건 등(N=42)
평균	1.4	1.2	1.2	1.8	2.2
표준편차	1.6	1.5	0.9	2.6	2.3

〈표 5-2-5〉 수행 단위사업 수: 이용시설

(단위: 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N=1,567)	아동(N=294)	노인(N=132)	장애인(N=206)	정신보건(N=22)	지역복합(N=214)	마우치(N=363)	보육(N=234)	장기요양(N=102)
평균	2.0	1.7	1.7	1.5	3.0	4.2	1.8	1.0	1.4
표준편차	2.5	2.3	1.9	1.8	3.6	4.5	1.5	0.2	1.0

〈표 5-2-6〉 수행 단위사업 수: 일반사업체

(단위: 개)

	일반 사업체									
	전체(N=1,303)	법무서비스업(N=68)	세무사업(N=188)	고용알선업(N=214)	교육자문평가업(N=50)	기술직업훈련학원(N=357)	사회교육시설(N=130)	특수학교(N=51)	개인간병유사서비스업(N=188)	시민운동단체(N=57)
평균	1.1	1.0	1.0	1.1	1.2	1.0	1.2	1.1	1.2	1.4
표준편차	0.5	0.0	0.0	0.4	0.5	0.3	0.7	0.6	0.6	0.9

## 2. 서비스 영역별 운영 현황

□ 사회서비스 영역을 11개로 구분하여 사업체 유형별로 어떠한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제공되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서비스 특성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표 5-2-1>의 「사회서비스 영역별 세부 서비스 분류표」를 참고하여 2012년 1년간 사업체에서 운영한 활동내용에 해당하는 세부 서비스코드를 조사표에 기입하도록 하였음

○ 이는 현재 사회서비스 사업체 유형별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및 단위사업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과거 수행된 2009년의 공급실태조사와 유사한 단위사업의 유형에 대해서는 공급의 추이를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함

○ <표 5-2-7>은 사회서비스 영역별 운영 사업체 현황에 대한 2013년 실태조사 결과로서, 2012년 1년간 사회서비스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이 제공된 사업은 ‘C. 돌봄-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로 32.1%를 차지

- 그 다음은 ‘F. 교육 및 정보제공-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에 대한 서비스로 21.3%, ‘G. 고용-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 서비스’가 14.6%, 그리고 ‘D. 돌봄-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13.8%)’, ‘지역사회서비스(13.2%)’의 순

- 대체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돌봄과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이 비중이 높았고, 아동 돌봄 및 교육과 관련한 사업도 다수 수행되고 있음

○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C. 돌봄-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중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H. 주거-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가 38.0%로 높게 나타났음

○ 이용시설은 생활시설과 마찬가지로 ‘C. 돌봄-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영역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중이 38.5%로 가장 높았으나, ‘H. 주거-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는 1.2%로 낮은 반면 ‘D. 돌봄-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25.0%)’, ‘J. 지역사회 서비스(24.8%)’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생활시설과 차이

- 한편 일반사업체는 돌봄 영역의 사업 운영보다는 주로 ‘F. 교육 및 정보제공-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45.1%)’, ‘G. 고용-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 서비스(30.2%)’ 등의 서비스 영역을 운영하고 있는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

〈표 5-2-7〉 사회서비스 영역별 운영 사업체 현황(2013년): 전체 사업체

(단위: %)

	전체 (N=3,394)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1,303)
		생활시설 (N=524)	이용시설 (N=1,567)	
A.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7.3	7.1	11.9	1.8
B. 재활-재활 및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10.3	8.0	19.3	0.3
C. 돌봄-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2.1	45.2	38.5	19.2
D. 돌봄-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13.8	13.0	25.0	0.6
E. 보건의료 및 건강 관리	2.2	3.4	3.3	0.3
F. 교육 및 정보제공-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21.3	2.7	7.7	45.1
G. 고용-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 서비스	14.6	1.0	6.1	30.2
H. 주거-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6.5	38.0	1.2	0.1
I. 문화-문화 및 여가 서비스	3.2	2.7	4.5	1.8
J. 지역사회 서비스	13.2	3.1	24.8	3.4
K. 환경	1.2	0.8	1.9	0.5

주: 각 사업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서비스)들을 141개(기타 포함) 세부사업 코드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중복 응답임. 각 수치는 전체 사업체 중 각 세부사업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임. 예컨대, 전체 3,394개 사업체 중 7.3%가, 생활시설 524개소 중 7.1%가, 이용시설 1,567개중 11.9%가 ‘A.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지원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 2009년의 공급 실태조사에서는 2013년과 비교할 때, 상담, 보건, 환경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은 8개의 서비스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표 5-2-8〉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8년 1년간 사회서비스 사업체에서 가장 많이 제공된 사업은 ‘D. 보육·보호 서비스’로 전체 4,150개의 사업체 가운데 32.0%
  - 다음으로 ‘A. 요양 및 돌봄서비스’가 29.0%를 차지했으며, ‘C.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서비스’가 21.4%, ‘E. 교육·여가문화서비스’가 21.2%의 순

〈표 5-2-8〉 사회서비스 영역별 운영 사업체 현황(2009년): 전체 사업체

(단위: %)

	전체 (N=4,150)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645)
		생활시설 (N=569)	이용시설 (N=2,936)	
A. 요양 및 돌봄서비스	29.0	14.4	33.8	20.2
B. 주거보호서비스	15.4	93.3	3.2	2.3
C.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서비스	21.4	20.0	24.7	7.8
D. 보육·보호 서비스	32.0	8.4	41.6	9.1
E. 교육·여가문화서비스	21.2	7.7	15.6	58.6
F. 고용지원서비스	14.8	2.3	15.9	21.1
G.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11.8	14.8	13.4	2.0
H.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13.9	6.0	17.1	6.4

주: 각 사업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서비스)들을 68개 세부사업 코드로 기입하도록 하였음. 각 수치는 전체 사업체 중 각 세부사업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임. 예컨대, 전체 4,150개 사업체 중 29.0%가, 생활시설 569개소 중 14.4%가, 이용시설 2,936개중 33.8%가 “A.요양 및 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 ○ 생활시설의 세부 유형을 구분하여 단위사업별 사업 운영 실태를 확인하였음

-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H. 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의 사업 비중이 높음을 〈표 5-2-9〉에서 확인
- 이러한 주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주로 장애인 생활시설(87.4%), 정신보건등 생활시설(59.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노인 생활시설과 아동 생활시설의 비중은 적은 편
- 노인 생활시설의 경우 ‘C.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중이 81.7%
- 아동 생활시설의 경우 ‘D.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가 62.3%를 차지하여 주된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단위사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
- 정신보건 등 생활시설에서는 ‘A. 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및 ‘B.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2.9%, 38.1%



〈표 5-2-9〉 사회서비스 영역별 운영 사업체: 생활시설

(단위: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생활시설				
	전체 (N=524)	아동 (N=106)	노인 (N=273)	장애인 (N=103)	정신보건등 (N=42)
A.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7.1	3.8	3.3	5.8	42.9
B. 재활-재활 및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8.0	2.8	2.6	15.5	38.1
C. 돌봄-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5.2	0.9	81.7	9.7	7.1
D. 돌봄-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13.0	62.3	-	1.9	-
E. 보건의료 및 건강 관리	3.4	0.9	2.6	5.8	9.5
F. 교육 및 정보제공-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2.7	3.8	0.4	4.9	9.5
G. 고용-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 서비스	1.0	0.9	-	2.9	2.4
H. 주거-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38.0	32.1	18.3	87.4	59.5
I. 문화-문화 및 여가 서비스	2.7	0.9	1.1	3.9	14.3
J. 지역사회 서비스	3.1	5.7	1.8	1.9	7.1
K. 환경	0.8	-	-	1.9	4.8

주: 각 사업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서비스)들을 141개 세부사업 코드로 기입하도록 하였음. 각 수치는 전체 사업체 중 각 세부사업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임.

○ 이용시설 역시 생활시설과 유사하게 주된 서비스 대상자(이용자)를 중심으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 이용시설의 경우 ‘D.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44.9%)’, 노인 이용시설은 ‘C.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87.1%)’ 장애인 및 정신보건 등 이용시설은 ‘B. 재활 지원 서비스(55.4%, 77.3%)’ 등으로, 사업체의 주된 이용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한 단위사업이 다소 수행행 중
- 지역복합 서비스 이용시설과 바우처 서비스 이용시설의 경우,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J. 지역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사회서비스 ‘B. 재활 지원 서비스’와 ‘C.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의 돌봄 영역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중 역시 높게 나타났음

〈표 5-2-10〉 사회서비스 영역별 운영 사업체: 이용시설

: (단위: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 (N=1,567)	아동 (N=294)	노인 (N=132)	장애인 (N=206)	정신 보장등 (N=22)	지역 복합 (N=214)	바우처 (N=333)	보육 (N=234)	장기 요양 (N=102)
A.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11.9	14.3	10.6	5.8	54.5	29.9	9.6	0.4	5.9
B. 재활-재활 및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19.3	0.3	6.1	54.4	77.3	30.4	26.2	0.9	2.0
C. 돌봄-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8.5	0.7	87.1	37.4	4.5	49.5	56.2	-	96.1
D. 돌봄-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25.0	44.9	0.8	1.9	-	11.2	0.8	97.4	-
E. 보건의료 및 건강 관리	3.3	3.7	3.0	2.4	13.6	12.1	0.3	-	2.0
F. 교육 및 정보제공-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7.7	11.6	0.8	6.3	18.2	23.8	3.3	2.6	-
G. 고용-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 서비스	6.1	0.7	2.3	9.2	9.1	26.2	3.6	-	1.0
H. 주거-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1.2	0.3	0.8	3.4	-	2.8	1.1	-	-
I. 문화-문화 및 여가 서비스	4.5	9.2	1.5	3.9	13.6	12.6	0.8	-	-
J. 지역사회 서비스	24.8	58.2	6.1	7.8	13.6	44.9	24.8	0.4	3.9
K. 환경	1.9	1.0	2.3	0.5	4.5	7.9	0.8	0.4	1.0

주: 각 사업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서비스)들을 141개 세부사업 코드로 기입하도록 하였음. 각 수치는 전체 사업체 중 각 세부사업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임.

○ 다양한 사업체로 구성된 일반사업체 영역에서는 세부 사업 유형에 따라 운영되는 단위사업의 유형이 상이

-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인 법무서비스업, 세무사업, 교육자문평가업, 사회교육시설, 특수학교 등에서는 ‘F. 교육 및 정보제공’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최소 76.2%에서 최대 99.5%로 높은 수준
- 고용알선업, 기술직업훈련학원은 ‘G.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다수였으며, 개인간병유사서비스업은 ‘C. 성인 돌봄 및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94.7%를 차지하는 등 사업체 유형간 차이
- 시민운동단체는 ‘J. 지역사회 서비스(36.8%)’, ‘F. 교육 및 정보제공(33.3%)’, ‘A. 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28.1%)’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

〈표 5-2-11〉 사회서비스 영역별 운영 사업체: 일반사업체

(단위: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일반사업체									
	전체 (N=1,303)	법무 사업체 (N=68)	세무 사업체 (N=188)	고용 알선업 (N=214)	교육·재 능개발 (N=50)	기술·직 업훈련 (N=357)	사회·교 육시설 (N=130)	특수학교 (N=51)	개인·병 유사 사업체 (N=188)	시민·동 단체 (N=57)
A. 상담-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서비스	1.8	-	-	-	10.0	0.3	1.5	-	-	28.1
B. 재활-재활 및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0.3	-	-	0.5	2.0	0.3	-	-	0.5	-
C. 돌봄-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19.2	-	-	27.1	-	2.8	1.5	-	94.7	3.5
D. 돌봄-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0.6	-	-	0.5	4.0	-	1.5	3.9	-	1.8
E. 보건의료 및 건강 관리	0.3	-	-	-	-	0.3	-	-	-	5.3
F. 교육 및 정보제공-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45.1	97.1	99.5	1.4	84.0	33.6	76.2	98.0	1.1	33.3
G. 고용-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 서비스	30.2	-	0.5	68.7	4.0	64.1	4.6	-	3.2	5.3
H. 주거-주거보호 및 지원 서비스	0.1	-	-	-	-	-	-	-	-	1.8
I. 문화-문화 및 여가 서비스	1.8	-	-	0.5	-	0.6	14.6	-	-	3.5
J. 지역사회 서비스	3.4	2.9	-	0.9	4.0	0.3	11.5	-	0.5	36.8
K. 환경	0.5	-	-	2.3	-	-	0.8	-	-	1.8

주: 각 사업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서비스)들을 141개 세부사업 코드로 기입하도록 하였음. 각 수치는 전체 사업체 중 각 세부사업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임. 예컨대, 전체 1,303개 일반사업체 중 1.8%가 A.일상생활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의미임.

### 3. 세부 서비스별 운영 현황

#### 1) 상담: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서비스

□ ‘상담: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서비스’의 총 11개의 세부 서비스별 운영 현황을 살펴해보았는데, 본 영역의 A. 101~A. 106은 민간 서비스, A. 151~A. 155는 공공 서비스로 구분하였음

○ 전체 247개의 사업체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시설과 일반사업체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절대적 숫자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

－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247개의 사업체 중 절반 가량인 51.8%가 ‘A. 102. 사례관리 서비스’, 44.1%가 ‘A. 101. 전문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집단상담)’를 제공

- 공공서비스 영역(A. 151~A. 155)의 경우 서비스 제공 비율의 총합이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

○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A. 101. 전문 상담서비스(개별상담, 집단상담)’ 운영 비중은 유형에 무관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A. 102. 사례관리 서비스’의 경우 생활시설(48.6%)과 이용시설(58.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4.2%의 일반사업체만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

○ 일반사업체의 경우 ‘A. 106. 폭력·학대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체의 비중이 33.3%로 높게 나타남

〈표 5-2-12〉 상담: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단위: %)

	전체 (N=247)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24)
		생활시설 (N=37)	이용시설 (N=186)	
A. 101. 전문 상담서비스(개별상담, 집단상담)	44.1	56.8	40.3	54.2
A. 102. 사례관리 서비스	51.8	48.6	58.6	4.2
A. 103. 돌봄가족원(부양자) 지원 서비스	0.8	—	1.1	—
A. 104. 가족 상담 서비스(부모상담, 부부상담 등)	12.6	5.4	14.5	8.3
A. 105. 위기가정 문제 관련 지원·상담 서비스	—	—	—	—
A. 106. 폭력·학대관련 상담 서비스	9.3	—	8.1	33.3
A. 151. 정신보건증진센터	3.6	21.6	0.5	—
A. 152.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게임중독 상담센터	0.8	—	1.1	—
A. 153. Wee프로젝트 이용 (학교부적응 및 위기에 처한 학생 상담)	1.2	—	1.6	—
A. 154.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서비스	0.8	—	1.1	—
A. 155.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2.4	5.4	1.1	8.3
A. 991. 기타 <sup>1)</sup>	2.0	—	—	—

주: 1) 기타 항목으로 소비자상담, 입양상담, 외국인 상담·통역 및 컴퓨터,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서비스 등이 있음.

2) 각 수치는 ‘상담: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 중 각 세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임. 예컨대, 전체 37개 일반사업체 중 56.8%가 ‘A. 101. 전문 상담서비스(개별상담, 집단상담)’를 실시하고 있다는 의미임.

## 2) 재활: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 ‘재활: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경우, 총 11개의 세부 서비스를 B. 201~B. 208은 민간 서비스, B. 251~B.253은 공공 서비스로 구분되며, 전체 348개의 사업체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시설에서 제공
-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348개의 사업체 중 민간서비스 영역(B. 201~B. 208)에서는 ‘B. 203. 직업재활 서비스’가 2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B. 205.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심리치료’를 제공하는 기관도 21.6%로 파악
- 공공서비스 영역(B. 251~B.253)에서는 ‘B. 251. 발달재활서비스’가 29.6%로 가장 높은 비율
-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B. 202. 신체적 재활 서비스(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와 ‘B. 204. 사회심리재활서비스’는 생활시설에서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이용시설에서는 공공서비스 영역인 ‘B. 251. 발달재활서비스’에서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민간 서비스 영역 내에서는 ‘B. 203. 직업재활 서비스’가 27.5%로 높은 수준

〈표 5-2-13〉 재활: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단위: %)

	전체 (N=348)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4)
		생활시설 (N=42)	이용시설 (N=302)	
B. 201. 장애진단·판정 서비스	5.7	4.8	6.0	—
B. 202. 신체적 재활 서비스(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14.9	33.3	12.3	25.0
B. 203. 직업재활 서비스	26.7	19.0	27.5	50.0
B. 204.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17.0	33.3	14.9	—
B. 205.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 심리치료	21.6	19.0	22.2	—
B. 206. 언어치료	16.1	4.8	17.9	—

	전체 (N=348)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4)
		생활시설 (N=42)	이용시설 (N=302)	
B. 207. 알코올·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	0.6	2.4	0.3	—
B. 208. 수화 서비스	2.3	—	2.6	—
B. 251. 발달재활서비스	29.6	2.4	33.4	25.0
B. 252.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7.5	7.1	7.6	—
B. 253. 시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위한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1.1	—	1.3	—
B. 992. 기타 <sup>1)</sup>	4.9	26.2	2.0	—

주: 1) 기타 서비스로 정신질환자 서비스,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시각 장애인 재활서비스,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 교육 재활서비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사업 등이 있었음.

### 3) 돌봄: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돌봄: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수행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의 돌봄 관련 서비스는 기타 서비스를 제외하고 총 18개의 세부 서비스로 구성되며, C. 301~C. 308은 민간서비스로, C. 351~C. 360은 공공서비스로 구분

○ 전체 1,090개의 사업체가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과 일반사업체에 비해 이용시설에서 성인 돌봄 관련 서비스를 다수 제공

○ 성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1,090개의 사업체 가운데 ‘C. 356. 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시설급여·기타 재가급여’가 2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이어서 ‘C. 352.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22.8%로 나타났다. 민간 서비스 가운데에서는 ‘C. 307.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14.8%, ‘C. 301.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 13.3%의 순

○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시설 가운데에서는 ‘C. 352.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59.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용시설에서는 공공 서비스 영역의 ‘C. 351.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가 22.7%, 민간 서비스에서는 ‘C. 301.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19.9%가 수행

○ 일반사업체의 경우에도 ‘C. 301.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

## 28.4%로 가장 높은 비율로 파악

〈표 5-2-14〉 돌봄: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단위: %)

	전체 (N=1,090)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250)
		생활시설 (N=237)	이용시설 (N=603)	
C. 301.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13.3	5.5	19.9	4.8
C. 302. 간호 및 간병서비스(일반)	3.4	0.4	2.3	8.8
C. 303. 방문목욕	8.3	—	10.1	12.0
C. 304. 복지용품 급여·보장구 지급	0.1	—	—	0.4
C. 305. 산후조리서비스(일반)	—	—	—	—
C. 306. 활동보조 서비스(일반)	2.1	0.4	3.5	0.4
C. 307.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14.8	3.4	16.3	22.0
C. 308. 식사제공 서비스	4.9	1.3	8.1	0.4
C. 351.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13.8	1.3	22.7	4.0
C. 352.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2.8	59.5	9.0	21.2
C. 35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바우처)	8.1	0.4	13.6	2.0
C. 354.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바우처)	6.0	—	9.6	2.8
C. 355.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바우처)	5.9	—	10.1	1.2
C. 356.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시설급여기타 재가급여	24.8	30.4	21.1	28.4
C. 357.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0.2	—	0.3	—
C. 358.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	—	—	—
C. 359.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	0.1	—	0.2	—
C. 360.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	—	—	—
C. 993. 기타 <sup>1)</sup>	5.4	0.8	7.1	5.6

주: 1) 기타 서비스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 생활지원서비스, 결연후원금 지원서비스 등이 있었음.

## 4) 돌봄 : 아동보육 및 보호서비스

□ ‘돌봄: 아동보육 및 보호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동 돌봄 서비스는 총 15개의 세부 서비스로 구성되며 ‘D. 401~D. 408’은 민간서비스로, ‘D. 451.~D. 457’은 공공서비스로 구분

○ 전체 468개의 사업체가 아동 보육 및 보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과 일반사업체에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는 저조한 것으로 파악

○ 아동보육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468개의 사업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5.7%가 'D. 452. 어린이집'의 공공 서비스를 수행

– 민간 서비스 가운데에서는 'D. 407.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서비스'가 1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시설에서는 'D. 407.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대다수인 77.9%가 수행하였으며, 이용시설 가운데에서는 'D. 452. 어린이집'을 54.6%가 제공

〈표 5-2-15〉 돌봄: 아동보육 및 보호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단위: %)

	전체 (N=468)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8)
		생활시설 (N=68)	이용시설 (N=392)	
D. 401.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0~5세)	0.6	—	0.5	12.5
D. 402.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0~5세)	2.8	4.4	2.6	—
D. 403. 재가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0.2	1.5	—	—
D. 404. 방과후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15.6	1.5	17.9	25.0
D. 405. 장애아동 돌봄	1.7	1.5	1.8	—
D. 406.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프로그램	13.5	—	16.1	—
D. 407.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서비스	17.1	77.9	6.6	12.5
D. 408. 학교부적응, 위기청소년 지원	2.1	—	2.0	25.0
D. 451.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0.4	—	0.5	—
D. 452. 어린이집	45.7	—	54.6	—
D. 453. 아이돌보미 서비스	3.0	10.3	1.5	12.5
D. 454.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0.4	—	0.3	12.5
D. 455. 초등 돌봄교실	1.5	—	1.3	25.0
D. 45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0.9	—	0.8	12.5
D. 457. 아동입양 관련 서비스	1.1	5.9	0.3	—

## 5)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총 7개의 세부 서비스는 E. 501과 E. 502의 민간서비스, E. 551~E. 555의 공공서비스로 구분



- 전체 74개의 사업체가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이용시설인 것으로 파악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74개의 사업체 가운데 대부분이 'E. 501. 건강관리서비스'(82.4%)를 제공
-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18개의 생활시설 가운데 100.0% 전부와 52개의 이용시설 가운데 78.8%가 'E. 501 건강관리서비스'를 수행

〈표 5-2-16〉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단위: %)

	전체 (N=74)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4)
		생활시설 (N=18)	이용시설 (N=52)	
E. 501. 건강관리서비스	82.4	100.0	78.8	50.0
E. 502. 운동처방서비스	10.8	5.6	13.5	—
E. 551. 산전후 건강관리사업(고운맘카드)	—	—	—	—
E. 552. 보건소 건강증진 방문 보건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8.1	—	11.5	—
E. 553. 임신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 서비스	—	—	—	—
E. 554. 보건소 금연클리닉	1.4	—	1.9	—
E. 555.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인공임신중절예방	—	—	—	—
E. 995. 기타 <sup>1)</sup>	4.1	—	1.9	50.0

주: 1) 기타 서비스로 장애인 체육시설, 마약퇴치서비스, 에이즈 예방 및 홍보서비스 등이 있었음.

## 6) 교육 및 정보제공: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

-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기타 세부 서비스를 제외한 15개의 세부 서비스를 F. 601~F. 609의 민간 서비스와 F. 651~F. 656의 공공 서비스로 구분
- 전체 723개의 사업체가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반사업체에 비해 생활시설에서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체의 절대적인 숫자는 저조한 수준
-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723개의 사업체 가운데

26.4%가 ‘F. 603. 성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서비스를 26.1%가 ‘F. 607.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

○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F. 601.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에 대해 생활시설(28.6%)과 이용시설(39.7%)의 운영 비중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F. 603. 성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도 생활시설(28.6%)과 이용시설(34.7%), 그리고 일반사업체(24.7%)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

○ 일반사업체의 경우 타 유형의 시설과 달리 ‘F. 607. 세무관련 서비스’에 대해 32.0%의 높은 비율로 수행

〈표 5-2-17〉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 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단위: %)

	전체 (N=723)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588)
		생활시설 (N=14)	이용시설 (N=121)	
F. 601.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	8.6	28.6	39.7	1.7
F. 602. 장애아동 (특수)교육	8.2	21.4	13.2	6.8
F. 603. 성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26.4	28.6	34.7	24.7
F. 604. 부모교육	4.8	21.4	21.5	1.0
F. 605. 교육관련 상담, 평가 및 정보제공	8.2	28.6	7.4	7.8
F. 606.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0.1	—	0.8	—
F. 607. 세무관련 서비스	26.1	—	0.8	32.0
F. 608. 법률지원 서비스	7.9	—	5.8	8.5
F. 609. 진학 및 진로상담	1.5	7.1	4.1	0.9
F. 651.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바우처)	1.4	—	6.6	0.3
F. 652. 유치원이용(유아학비지원: 만3~4세, 누리과정 교육비, 다문화 교육비 지원)	0.6	7.1	2.5	—
F. 653.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1.8	7.1	—	2.0
F. 654.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서비스	0.4	—	2.5	—
F. 655.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	—	—	—
F. 656.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	—	—	—
F. 996. 기타 <sup>1)</sup>	15.5	7.1	5.8	17.7

주: 1) 기타 서비스로 자기주도학습 캠프운영, 산업교육 및 컨설팅, 요양 보호사 교육, 국제학 교육, 보육교사 교육, 적성검사 서비스, 학술연구 용역 서비스, 간호조무사 교육, 보습학원, 컴퓨터 교육, 근로자 교육, 장애인 정보화 교육, 대체 교사 교육 지원 등이 있었음.

## 7)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 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

타 서비스를 제외한 총 14개의 세부 서비스로 구분, G. 701~G.706은 민간 서비스로, G. 751~G.758은 공공서비스로 구성

- 전체 495개의 사업체에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에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절대적인 숫자는 매우 낮은 수준
-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495개의 사업체 가운데 절반 가량인 51.3%가 ‘G. 705.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의 서비스, 다음으로 24.4%의 사업체가 ‘G. 701. 구직·일자리 알선’서비스를 운영
  - 공공서비스(G. 751~G.758)의 경우, 제공비율의 총합이 15%대에 머무르는 낮은 수준
-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G. 705.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의 서비스가 일반사업체(59.6%)와 생활시설(40.0%)에서 가장 높은 비율
  - 이용시설에서는 ‘G. 751. 정부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공공근로·자활근로)’에서 39.6%의 높은 비중
  - ‘G. 701. 구직·일자리 알선’서비스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높게 나타남

〈표 5-2-18〉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단위: %)

	전체 (N=495)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394)
		생활시설 (N=5)	이용시설 (N=96))	
G. 701. 구직·일자리 알선	24.4	20.0	28.1	23.6
G. 702. 간병관련 일자리 지원	6.1	—	3.1	6.9
G. 703. 가사지원 관련 일자리 지원	7.3	—	2.1	8.6
G. 704. 자영자 창업지원	0.6	—	2.1	0.3
G. 705.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	51.3	40.0	17.7	59.6
G. 706. 근로의욕고취 및 근로관련 심리 상담·사회적 지원	2.2	20.0	8.3	0.5
G. 751. 정부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공공근로·자활근로)	8.5	—	39.6	1.0
G. 752.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이용	0.2	—	—	0.3
G. 753.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 및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1.8	—	9.4	—
G. 754.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0.6	—	3.1	—
G. 75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4.0	20.0	19.8	—
G. 75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0.6	—	1.0	0.5
G. 757.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	—	—	—
G. 758. 출소자를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	—	—	—
G. 997. 기타	1.2	—	—	1.5

## 8) 주거보호 및 지원서비스

□ ‘주거보호 및 지원서비스’의 수행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총 8개의 세부 서비스를 H. 801~H. 804는 민간서비스로, H. 851~H. 854는 공공서비스로 구분

○ 전체 219개의 사업체가 주거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용시설 및 일반사업체에서 주거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절대적 숫자는 매우 낮은 수준

○ 주거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219개의 사업체 중 32.4%가 ‘H. 801. 대규모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  
 - ‘H. 802. 20명 이내의 소규모 그룹홈 등의 공동생활 가정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경우도 28.3%  
 - 공공서비스 가운데에서는 28.8%가 ‘H. 851.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를 지원

○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 유형별로 비중을 두는 서비스가 각기 달랐는데 생활시설의 경우 ‘H. 801. 대규모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의 서비스가 35.7%에 달한 반면, 이용시설은 ‘H. 804 주거비 지원’을 하는 경우가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5-2-19〉 주거보호 및 지원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단위: %)

	전체 (N=219)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1)
		생활시설 (N=199)	이용시설 (N=19)	
H. 801. 대규모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32.4	35.7	-	-
H. 802. 20명 이내 소규모 그룹홈 등 공동생활 가정의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28.3	30.7	5.3	-
H. 803. 일시보호(일시보호시설, 쉼터 등)	2.3	1.0	10.5	100.0
H. 804. 주거비 지원	2.3	-	26.3	-
H. 851.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28.8	30.2	15.8	-
H. 852. 요보호 아동을 위한 그룹홈 거주	1.4	1.5	-	-
H. 853.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	-	-	-

	전체 (N=219)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1)
		생활시설 (N=199)	이용시설 (N=19)	
H. 854. 주택바우처	—	—	—	—
H. 998. 기타 <sup>1)</sup>	5.5	1.5	47.4	—

주: 1) 기타 서비스로 집수리서비스, 연탄지원 서비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중독자 입소 생활시설, 주택 개조사업 등이 있었음.

## 9) 문화 및 여가 서비스

□ ‘문화 및 서비스’의 수행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총 7개의 세부 서비스를 L. 901~L. 904는 민간서비스와 L. 951~L. 954는 공공서비스로 구분하였으며, 전체 108개의 사업체 파악

○ 문화 및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I. 901.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

- 다음으로는 ‘I. 902. 체육·스포츠 서비스(31.5%)’, ‘I. 903. 여행·관광 서비스(20.4%)’의 순
- 중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비율이 타 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대부분 민간 서비스를 주로 제공

〈표 5-2-20〉 문화 및 여가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단위: %)

	전체 (N=108)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24)
		생활시설 (N=14)	이용시설 (N=70)	
I. 901. 문화·예술 서비스	65.7	50.0	70.0	62.5
I. 902. 체육·스포츠 서비스	31.5	28.6	31.4	33.3
I. 903. 여행·관광 서비스	20.4	21.4	25.7	4.2
I. 951.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운영 지방문화원(문화체육관광부)	—	—	—	—
I. 952. 여행 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7.4	28.6	5.7	—
I. 953. 문화 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9.3	35.7	7.1	—
I. 954. 스포츠 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1.9	—	2.9	—
I. 904. 기타 <sup>1)</sup>	2.8	—	1.4	8.3

주: 1) 기타 서비스로 청소년 수련시설, 신문 서비스, 안마 서비스 등이 있었음.

## 10) 지역사회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의 수행 사업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기타 영역을 제외한 총 11개의 세부 서비스로 구성하여 J. 1001과 J. 1002는 민간서비스로, J. 1051~J. 1059는 공공서비스로 구분

○ 전체 449개의 사업체가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생활시설과 일반사업체에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절대적인 숫자는 낮은 수준

○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한 449개의 사업체 중 37.0%가 ‘J. 1053.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J. 105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에 대해서도 29.2%가 수행한다고 보고

– 민간서비스 영역(J. 1001~J. 1002)의 경우 ‘J. 1001 자원봉사자 양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12.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의 유형별로 수행하는 세부 서비스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냈는데, 생활시설 가운데에서는 ‘J. 1001. 자원봉사자 양성’에 대한 서비스를 56.3%가 제공하였고, 일반사업체에서도 다소 높은 15.9%의 비중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

– 이용시설의 경우 ‘J. 1053.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중은 42.4%, ‘J. 105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의 운영비중은 32.4%로 파악

– 일반사업체의 경우 ‘J. 9910. 기타’로 분류된 서비스에 대한 수행 비율이 59.1%로 나타났는데, 장애 인식 개선사업이나 정책 공약에 대한 검증, 주민 참여 교육, 토목 측량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표 5-2-21〉 지역사회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단위: %)

	전체 (N=449)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44)
		생활시설 (N=16)	이용시설 (N=389)	
J. 1001. 자원봉사자 양성 및 참여	12.7	56.3	10.5	15.9
J. 1002. 사회복지관	8.7	—	10.0	—
J. 105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29.2	6.3	32.4	9.1
J. 1052. 드림스타트(지역사회 중심 아동통합서비스지원)	2.0	—	2.3	—
J. 1053. 지역아동센터 (아동 방과후 돌봄 외 기타 프로그램)	37.0	—	42.4	2.3
J. 1054. 건강가정지원센터	0.4	6.3	0.3	—
J. 1055.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등)	0.4	—	0.5	—
J. 105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0.9	—	—	9.1
J. 1057.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 법률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등)	0.2	—	—	2.3
J. 1058.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노인 대상 법률지원, 보호, 상담 등)	0.9	—	1.0	—
J. 1059.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정, 경로당 등)	4.0	6.3	4.1	2.3
J. 9910. 기타 <sup>1)</sup>	8.9	25.0	2.6	59.1

주: 1) 기타 서비스로 주민참여 교육, 장애인식 개선사업, 점자 도서관,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정책 공약 검증, 토목 측량 서비스, 지역 자활 센터등이 있었음.

## 11) 환경 서비스

□ ‘환경 서비스’에 대한 수행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총 7개의 세부 서비스를 K. 1101~K. 1104는 민간서비스, K. 1151~K. 1153은 공공서비스로 구분

○ ‘환경 서비스’제공하는 사업체는 총 41개 기관으로 생활시설과 일반사업체에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절대적 숫자는 저조한 것으로 파악

- 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41개의 사업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3.9%가 ‘K. 1101. 청소 및 환경정비 서비스’를 제공
- 공공서비스 가운데에서도 ‘K. 1152.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9.3%

○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시설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제공 서비스 비율과 유사하게 ‘K. 1101. 청소 및 환경정비 서비스’에서 46.7%, ‘K. 1152. 저소

특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서 40.0%의 비중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  
 - 생활시설에서는 ‘K. 1103. 환경 가꾸기(숲 가꾸기, 텃밭 운영 등)’를 수행하  
 는 비중은 75.0%

〈표 5-2-22〉 환경서비스 수행 사업체 현황

(단위: %)

	전체 (N=41)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7)
		생활시설 (N=4)	이용시설 (N=30)	
K. 1101. 청소 및 환경정비 서비스	43.9	25.0	46.7	42.9
K. 1102. 방역서비스	9.8	—	13.3	—
K. 1103. 환경 가꾸기(숲가꾸기, 텃밭 운영 등)	19.5	75.0	10.0	28.6
K. 1104. 냉난방 지원서비스(무더위쉼터)	14.6	—	20.0	—
K. 1151. 사회복지시설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2.4	—	3.3	—
K. 1152.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29.3	—	40.0	—
K. 1153. 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	—	—	—
K. 9911. 기타 <sup>1)</sup>	4.9	—	—	28.6

주: 1) 기타 서비스로 환경운동, 쓰레기폐기물 처리 등이 있었음.

### 제3절 사업체 재정 현황

#### 1. 수입

□ 조사대상 사회서비스 사업체에서 1년간 영업활동(서비스 제공, 상품판매)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얻은 총 수입(매출, 수익 총액)을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기준(2012년 1월~12월)으로 파악하였음<sup>14)</sup>

○ 응답 시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수입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연간 매출액 조사가 곤란한 영세(개인)사업체인 경우에도, 1일 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조업일수(월평

14)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체는 기타 산업의 사업체와 달리 상품판매를 통한 매출, 수익은 일부이며, 수입의 상당부분을 정부 지원, 후원 등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체 조사에서는 기존 사업체 조사의 ‘매출’개념을 ‘수입’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균 매출액), 연간 영업한 개월 수 등을 감안하여 연간 매출액을 산출하도록 함

- 〈표 5-3-1〉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2012년의 1년간 전체 사업체 유형별 연간 수입액 현황이고, 2009년도 공급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2008년 1년간의 연간 수입액 현황을 〈표 5-3-2〉에 함께 제시하였음(각 표에 사업체당 수입액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업체유형별로 제시)

- 분석 결과 전체 조사대상 사업체(3,394개소)의 2012년 연간 총수입액은 평균 554백만원이었으며, 생활시설(524개소)은 601.3백만원, 이용시설(1,567개소) 611.0백만원, 일반사업체(1,303개소)는 52.7백만원

〈표 5-3-1〉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현황(2013년): 전체 사업체

(단위: 백만원)

	전체 (N=3,394)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1,303)
		생활시설 (N=524)	이용시설 (N=1,567)	
총 수입	554.0 (1146.4)	601.3 (678.9)	611.0 (1360.0)	452.7 (965.8)
정부 보조금 및 수탁 수입	368.1 (967.8)	438.3 (582.7)	436.9 (1142.8)	239.8 (814.2)
사업수입	125.6 (346.9)	100.6 (201.4)	90.9 (242.9)	185.9 (486.9)
후원금	25.6 (162.6)	29.4 (58.3)	36.4 (211.1)	8.7 (69.8)
시설부담금	15.2 (221.9)	10.7 (54.0)	25.1 (311.7)	3.4 (51.4)
회원회비	3.9 (72.0)	1.1 (9.4)	4.5 (100.8)	4.3 (22.1)
그 외 수입활동 수입	3.0 (34.3)	2.0 (22.2)	4.1 (45.3)	1.8 (15.8)
임대료	0.5 (8.0)	0.1 (2.5)	0.3 (4.5)	1.0 (12.2)
기타 수입	12.1 (83.2)	19.0 (125.4)	12.9 (66.0)	7.8 (80.9)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 2009년도 공급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2008년도의 사업체 유형별 연간 수입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조사대상 사업체(4,146개소)의 2008년 연간 총수입액은 평균 552백만원이었으며, 생활시설(569개소)은 731백만원, 이용시설

(2,933개소) 397백만원, 일반사업체(644개소) 1,101백만원

〈표 5-3-2〉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현황(2009년): 전체 사업체

(단위: 백만원)

	전체 (N=4,150)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645)
		생활시설 (N=569)	이용시설 (N=2,936)	
총 수입	552 (1,197.1)	731 (1,280.8)	397 (953.6)	1,101 (1,789.5)
정부 보조금 및 수탁 수입	286 (746.2)	382 (672.1)	186 (389.5)	653 (1,520.1)
사업수입	192 (723.1)	260 (1,051.2)	141 (611.9)	367 (800.5)
후원금	20 (125.4)	36 (134.1)	18 (117.6)	18 (148.6)
시설부담금	12 (69.3)	21 (67.1)	12 (72.9)	6 (51.3)
회원회비	2 (29.1)	2 (45.3)	0.7 (9.1)	7 (56.8)
그 외 수입활동 수입	19 (269.9)	2 (36.9)	24 (316.6)	15 (103.8)
임대료	3 (81.4)	1 (23.1)	1.6 (69.6)	13 (141.6)
기타 수입	17 (110.2)	26 (115.7)	14 (104.4)	23 (129.0)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 사업체의 수입액 규모에 따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액의 구간을 구분하여, 각 구간에 속한 사업체 수의 비율을 제시하였음

- 전체 사회서비스사업체의 절반 가량(45.9%)이 1억 이상 5억 미만의 수입 규모를 갖는 것을 확인
- 연간 총 수입액 5천만원 미만인 업체는 13.2%, 5천 이상 1억 미만인 업체는 16.7%로 나타나, 1/3가량이 연간 1억 매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
- 5억 이상 10억 미만의 업체는 9.6%, 10억~50억 13.0%, 50억~100억 미만의 업체는 1.5%으며, 100억 이상의 사업체도 0.1%로 확인

○ 2009년도 공급실태조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도 5천만 원 미만의 수입액은 20.7%, 5천 이상 1억 미만이 16.1%로 나타나, 전체 사업체 가운데 1/3 정도

## 가 연 매출 1억 미만의 규모

- 1억 이상 5억 미만의 매출액도 3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금번 2013년도 공급실태조사와 유사한 비율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

○ 사업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1억 이상 5억 미만의 규모가 39.1%, 이용시설의 경우 45.7%, 일반사업체는 49.5%가 이에 해당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간이 1억 이상 5억 미만의 규모

- 상대적으로 생활시설은 5억 이상 10억 미만의 업체가 17.3%, 10억 이상 50억 미만의 업체가 23.5%로 나타나, 총 40.8%에 해당되는 절반 가량의 업체가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규모
- 생활시설은 1억 미만인 업체가 20.2%, 5억 미만인 업체는 전체의 59.3%였고, 이용시설의 경우 1억 미만인 업체는 30.8%, 5억 미만의 규모는 76.5%
- 일반사업체의 경우 1억 미만의 업체가 33.0%, 5억 미만의 규모는 82.5%

〈표 5-3-3〉 사업체 유형별·수입액 규모별 분포: 전체 사업체

(단위: %)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5천만원 미만	20.7	13.2	14.2	8.4	21.5	11.7	22.7
5천~1억 미만	16.1	16.7	12.1	11.8	18.7	19.1	8.1	15.6
1억~5억 미만	38.3	45.9	36.4	39.1	41.2	45.7	26.4	49.5
5억~10억 미만	10.0	9.6	15.3	17.3	8.6	8.4	11.8	7.8
10억~50억 미만	13.5	13.0	20.2	23.5	9.4	12.7	26.6	8.5
50억~100억 미만	1.1	1.5	1.6	—	0.3	2.2	4.0	1.2
100억 이상	0.3	0.1	0.2	—	0.3	0.2	0.5	—
계	100.0 (4,150)	100.0 (3,394)	100.0 (569)	100.0 (524)	100.0 (2,936)	100.0 (1,567)	100.0 (645)	100.0 (1,303)

○ 세부 사업체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표 5-3-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시설의 경우 1억에서 5억 미만 사이의 사업체(39.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50억 이상의 사업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10억에서 50억 미만의 사업

체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47.5%)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정신보건관련 생활시설(32.4%), 아동생활시설(27.3%) 순
- 5천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는 아동생활시설이 12.5%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생활시설의 수입규모는 시설유형 내 편차가 적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

〈표 5-3-4〉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규모 분포: 생활시설

(단위: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생활시설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등
5천만원 미만	8.4	12.5	10.2	2.5	-
5천~1억 미만	11.8	20.5	8.8	2.5	29.4
1억~5억 미만	39.1	15.9	52.6	28.8	38.2
5억~10억 미만	17.3	23.9	16.7	18.8	-
10억~50억 미만	23.5	27.3	11.6	47.5	32.4
50억~100억 미만	-	-	-	-	-
100억 이상	-	-	-	-	-
계	100.0 (524)	100.0 (106)	100.0 (273)	100.0 (103)	100.0 ( 42)

○ 이용시설의 경우, 〈표 5-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용시설은 1억~5억 미만 수입 규모의 사업체가 다수를 차지

- 정신보건이용시설은 90.0%, 노인이용시설은 70.2%, 장애인이용시설은 67.9, 장기요양시설은 62.7%, 보육시설도 55.6%가 이에 해당
- 반면 5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 비중도 전체 이용시설 가운데 2.4%
- 사회복지관이 다수인 지역복합시설은 10억 이상의 수입규모 사업체가 57.9%로 이용시설의 사업체 유형 중 수입액 규모가 가장 컸고,
- 가장 영세한 사업체가 많은 시설유형은 보육시설(234개소)로 2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인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사료
- 아동이용시설의 경우 5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가 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정신보건이용시설(5.0%), 지역복합시설(3.4%)순

- 바우처사업기관의 경우는 5천만원 미만 13.5%, 5천~1억 미만 12.8%, 1억~5억 미만 48.3%, 5억~10억 미만 11.8%, 10억~50억 미만은 12.5%로 수입 규모에 따른 사업체 분포가 고르게 넓은 사업체 유형으로 파악

〈표 5-3-5〉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규모 분포: 이용시설

(단위: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 보건등	지역 복합	바우처	보육	장기 요양
5천만원 미만	11.7	14.5	6.4	7.1	-	1.7	13.9	20.1	13.3
5천~1억 미만	19.1	51.2	12.8	8.3	-	4.5	12.8	15.9	14.7
1억~5억 미만	45.7	19.5	70.2	67.9	90.0	20.5	48.3	55.6	62.7
5억~10억 미만	8.4	1.2	7.4	8.9	5.0	15.3	11.8	7.5	6.7
10억~50억 미만	12.7	6.3	3.2	6.0	-	54.5	12.5	0.5	2.7
50억~100억 미만	2.2	6.3	-	1.8	5.0	3.4	0.7	0.5	-
100억 이상	0.2	1.2	-	-	-	-	-	-	-
계	100.0 (1,567)	100.0 (294)	100.0 (132)	100.0 (206)	100.0 ( 22)	100.0 (214)	100.0 (363)	100.0 (234)	100.0 (102)

○ 일반사업체의 경우, 〈표 5-3-6〉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세부 사업체유형간 편차가 큰 편

- 법무 서비스업은 43.5%, 고용알선업은 42.0%가 5천만원 미만의 수입규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특수학교는 10억 이상의 규모의 수입규모가 94.5%로 집중
- 사회교육 시설과 시민운동 단체는 다양한 수입규모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으로 사회교육 시설은 5천만원 미만에 26.5%, 5천 이상 1억 미만에 18.1%, 1억 이상 5억 미만에는 36.1%, 5억 이상 10억 미만에는 9.6%, 그리고 10억에서 50억 사이에도 9.6%로 고르게 분포
- 시민운동 단체도 5천만원 미만에 22.5%, 5천 이상 1억 미만 12.5%, 1억 이상 5억 미만에 37.5%, 5억 이상 10억 미만 20.0%, 그리고 10억 이상 50억 미만에는 7.5%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

일반사업체의 경우에도 1억에서 5억 미만의 사업체에 가장 많은 비중(49.5%)을 보

였는데, 세무 사업은 71.4%, 교육자문·평가업은 48.4%, 기술·직업 훈련학원 58.7%, 개인간병 유사 서비스업도 66.0%가 이에 해당

〈표 5-3-6〉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규모 분포: 일반사업체

(단위: %)

	일반 사업체									
	전체	법무 서비스업	세무 사업	고용 알선업	교육자문 평가업	기술·직업 훈련학원	사회교육 시설	특수 학교	개인간병 유사 서비스업	시민운동 단체
5천만원 미만	17.4	43.5	2.3	42.0	3.2	12.0	26.5	—	8.2	22.5
5천~1억 미만	15.6	26.1	9.7	21.0	19.4	17.4	18.1	—	11.3	12.5
1억~5억 미만	49.5	28.3	71.4	26.1	48.4	58.7	36.1	5.6	66.0	37.5
5억~10억 미만	7.8	—	12.6	5.1	12.9	5.4	9.6	—	8.2	20.0
10억~50억 미만	8.5	2.2	3.4	5.1	16.1	5.4	9.6	77.8	6.2	7.5
50억~100억 미만	1.2	—	0.6	0.6	—	1.2	—	16.7	—	—
100억 이상	—	—	—	—	—	—	—	—	—	—
계	100.0 (1,303)	100.0 ( 68)	100.0 (188)	100.0 (214)	100.0 ( 50)	100.0 (357)	100.0 (130)	100.0 ( 51)	100.0 (188)	100.0 ( 57)

□ 〈표 5-3-7〉은 수입액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세부항목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는 것으로, 2013년도 조사결과와 2009년의 세부 항목의 비율을 비교해 보았음

○ 세부항목은 크게 정부보조금 및 정부개별사업 수탁 수입, 사업수입, 후원금(개인·법인), 법인전입금 및 시설부담금, 회원회비, 그 외 수익활동 수입, 임대료 수입 등으로 구분

- ‘정부 보조금 및 정부 개별사업 수탁 수입’은 사업체(기관)에 대한 정부의 경상보조금, 출연금 또는 정부가 위탁한 프로그램 관련 수입을 의미
- 경상 보조금(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에 대한 국고, 시·도, 시·군·구 보조금)과 개별사업(프로그램) 위탁 수입(국가, 지자체 등 정부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받은 보조금)으로 다시 세분
- ‘사업 수입’은 이용료, 입소비용 등의 수입으로서 사업체의 활동(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수입을 의미
- ‘후원금(개인후원·법인이후원)’은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등으로서 지정후원금 및 비지정후원금 모두를 포함

- ‘시설부담금 및 법인전입금’은 시설운영자의 부담금(시설 운영자가 시설운영을 위해 출자한 자기자본액) 및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의미
- ‘회원회비’는 사업체 시설 운영과 관련된 의결권을 갖거나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회원의 회비로서, 제공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원 회비는 제외하며 그 경우는 서비스 이용료 등의 사업 수입에 포함
- ‘그 외 수익활동 수입’은 사업체 시설의 주요 활동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수입을 포함하며, 수익활동을 하는 하부기관의 수입도 포함하고, ‘임대료 수입’은 토지, 건물, 장비 등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수익 항목의 임대료 수입을 의미함

○ 〈표 5-3-7〉에서 2013년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 전체 사업체의 수입액 구조를 보면, 정부보조금 및 수탁수입이 53.3%, 사업수입이 37.2%로서,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 밖에는 후원금 4.4%, 시설부담금/법인전입금 1.3%, 회원회비 1.4%, 그 외 수입활동수입 0.8%, 임대료 0.1%
- 2009년 공급실태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사업체의 수입액 구조에서 정부보조금 및 수탁수입이 45.7%, 사업수입이 41.8%로서,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금번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태

○ 사업체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2013년도 조사결과는 정부보조금 및 수탁수입 비율이 생활시설의 경우 63.2%, 이용시설은 67.9%를 차지하였고, 일반사업체는 28.3%로 크게 차이를 보임

- 2009년도 조사결과의 경우, 정부보조금 및 수탁수입 비율이 생활시설의 경우 55.7%, 이용시설은 47.0%로 이번 공급실태조사 결과치보다 적었고, 일반사업체는 30.1%로 이번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음
- 2013년도의 조사결과,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 사업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사업체의 경우 65.4%, 생활시설 25.2%, 이용시설 21.1%의 순

- 2009년도 조사결과 역시 일반사업체가 59.2%로 가장 높았고, 이용시설 40.4%, 생활시설 28.8%의 순으로 나타났음
- 민간 자원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후원금의 비중은 생활시설이 6.9%, 이용시설이 5.4%, 일반사업체 1.8%로 나타났음
- 2009년도 조사결과에서도 생활시설이 6.9%, 이용시설은 5.0%로 금번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일반사업체의 경우 3.4%로 다소 높게 나타났음

〈표 5-3-7〉 사업체 유형별 수입의 세부항목 비율 비교(2009 vs 2013): 전체 사업체

(단위: %, 사례)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정부보조금 및 수탁수입	45.7	53.3	55.7	63.2	47.0	67.9	30.1	28.3
사업수입	41.8	37.2	28.8	25.2	40.4	21.1	59.2	65.4
후원금	5.0	4.4	6.9	6.9	5.0	5.4	3.4	1.8
시설부담금·법인전입금	3.4	1.3	5.3	1.7	3.5	1.9	1.2	0.4
회원회비	0.5	1.4	0.1	0.6	0.3	0.8	1.9	2.5
그 외 수입활동수입	1.6	0.8	0.1	0.5	1.8	0.9	1.9	0.8
임대료	0.2	0.1	0.2	－	0.1	0.2	0.6	0.1
기타 수입	2.1	1.5	2.8	1.9	2.0	1.8	1.7	0.8
계	100.0 (4,150)	100.0 (3,394)	100.0 (569)	100.0 (524)	100.0 (2,936)	100.0 (1,567)	100.0 (645)	100.0 (1,303)

주: 1) 계의 괄호 안은 사례 수 임.

○ 생활시설의 경우 〈표 5-3-8〉 과 〈표 5-3-9〉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부적인 시설 유형별 총 수입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생활시설(1014.9백만원), 정신보건생활시설(722.6백만원), 아동생활시설(660.0백만원), 노인생활시설(404.1백만원)의 순

- 수입규모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부유형 내의 시설 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편차를 보면, 정신보건시설의 사업체 간 수입의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짐작



- 정부재정 의존도를 살펴보면, 노인시설(50.6%)과 여타 시설(아동시설 79.3%, 장애인시설 71.1%, 정신보건시설 84.2%)과는 확연한 차이
- 노인생활시설의 사업수입은 40.8%를 차지하였으나, 아동시설 1.2%, 장애인 시설 15.0%, 정신보건시설은 10.3%으로 나타났음
  - － 아동생활시설(13.6%)과 장애인생활시설(9.4%)은 상대적으로 후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후원금액을 보면 장애인시설이 61.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시설은 53.2백만원, 정신보건시설 13.9백만원, 노인시설 10.1백만원 순

〈표 5-3-8〉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현황: 생활시설

(단위: 백만원)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생활시설				
	전체 (N=524)	아동 (N=106)	노인 (N=273)	장애인 (N=103)	정신보건등 (N=42)
총 수입	601.3 (678.9)	660.0 (766.6)	404.1 (441.9)	1014.9 (786.4)	722.6 (906.6)
정부보조금 및 수탁수입	438.3 (582.7)	537.6 (582.7)	210.1 (311.9)	849.3 (707.8)	657.1 (854.4)
사업수입	100.6 (201.4)	1.1 (4.7)	166.3 (255.0)	61.9 (103.1)	33.4 (37.0)
후원금	29.4 (58.3)	53.2 (81.4)	10.1 (31.4)	61.9 (70.5)	13.9 (17.7)
시설부담금	10.7 (54.0)	20.9 (91.2)	3.8 (15.1)	21.2 (72.1)	3.7 (9.2)
회원회비	1.1 (9.4)	— (0.1)	1.8 (12.5)	0.7 (6.0)	0.9 (2.8)
그 외 수입활동 수입	2.0 (22.2)	0.8 (6.2)	2.6 (29.7)	2.3 (12.1)	—
임대료	0.1 (2.5)	—	— (0.6)	0.6 (5.6)	—
기타 수입	19.0 (125.4)	46.6 (262.8)	9.3 (40.0)	17.0 (32.2)	13.7 (25.2)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표 5-3-9〉 사업체 유형별 수입의 세부항목 비율: 생활시설

(단위: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생활시설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등
정부보조금 및 수탁수입	63.2	79.3	50.6	71.1	84.2
사업수입	25.2	1.2	40.8	15.0	10.3
후원금	6.9	13.6	3.9	9.4	3.2
시설부담금	1.7	2.9	1.3	1.9	0.5
회원회비	0.6	-	1.0	0.3	0.6
그 외 수입활동 수입	0.5	0.1	0.6	0.7	-
임대료	-	-	-	0.1	-
기타 수입	1.9	2.9	1.7	1.5	1.3
계	100.0 (524)	100.0 (106)	100.0 (273)	100.0 (103)	100.0 ( 42)

주: 1) 전체 연간 총수입액을 100으로 하여 각각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함.

2) 계의 괄호 안은 사례 수입.

○ 이용시설의 총 수입액 현황 및 세부항목의 비율로, 〈표 5-3-10〉 과 〈표 5-3-11〉 을 보면 아동이용시설 914.3백만원, 노인이용시설 302.4백만원, 장애인시설 465.7백만원, 정신보건시설 633.2백만원, 지역복합시설 1295.4백만원, 바우처사업기관 486.0백만원, 보육시설 234.4백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43.5백만원으로 사업체유형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의 구조를 보면, 정부보조금 및 수탁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경우는 보육시설로 83.7%였으며, 아동이용시설 81.9%, 정신보건시설 80.2%, 장애인이용시설 76.1%, 지역복합시설 65.1%, 노인장기요양기관 58.7%, 노인이용시설 50.2%, 바우처 제공기관 49.1%의 순

- 전체적인 사업수입은 바우처 제공기관이 42.0%, 노인이용시설이 41.1%, 노인장기요양기관이 35.5%로 나타났으며, 이어 지역복합시설 22.1%, 장애인시설 13.6%, 보육시설 9.7%, 정신보건시설 4.7%, 아동시설 0.5%의 순
- 후원금의 경우 평균 금액을 보면 정신보건시설이 19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이용시설이 92.4백만원, 지역복합시설이 71.8백만원 순
- 다음으로 장애인이용시설은 10.1백만원, 바우처제공기관 9.8백만원, 노인이용시설 8.5백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6.3백만원, 보육시설은 5.9백만원

으로 상대적으로 후원금이 적게 나타났음

〈표 5-3-10〉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현황: 이용시설

(단위: 백만원)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 (N=1,567)	아동 (N=294)	노인 (N=132)	장애인 (N=206)	정신보건 (N=22)	지역복합 (N=214)	바우처 (N=363)	보육 (N=234)	장기요양 (N=102)
총 수입	611.0 (1360.0)	914.3 (2297.1)	302.4 (413.9)	465.7 (1226.5)	633.2 (1656.1)	1295.4 (1262.7)	486.0 (848.7)	234.4 (595.0)	243.5 (271.6)
정부 보조금 및 수탁수입	436.9 (1142.8)	738.6 (1866.2)	164.3 (364.6)	362.2 (1179.1)	228.4 (131.1)	943.1 (1141.8)	278.1 (722.2)	187.3 (587.0)	122.8 (138.6)
사업수입	90.9 (242.9)	0.6 (4.8)	115.4 (169.6)	67.4 (224.5)	18.8 (62.0)	184.3 (281.4)	162.7 (372.9)	31.2 (84.0)	107.4 (196.2)
후원금	36.4 (211.1)	92.4 (425.1)	8.5 (25.0)	10.1 (23.5)	192.0 (802.3)	71.8 (97.4)	9.8 (45.0)	5.9 (46.0)	6.3 (35.2)
시설부담금	25.1 (311.7)	76.6 (660.2)	5.1 (15.8)	7.4 (44.1)	6.6 (21.6)	38.9 (106.3)	12.7 (197.7)	1.8 (14.5)	1.4 (5.1)
회원회비	4.5 (100.8)	- (0.6)	- (0.3)	- (0.3)	182.3 (804.5)	2.8 (19.9)	2.9 (14.1)	3.5 (23.6)	- (0.1)
그 외 수입활동 수입	4.1 (45.3)	1.1 (15.1)	1.4 (10.4)	4.3 (32.2)	0.1 (0.2)	5.9 (49.0)	10.4 (81.9)	0.1 (1.4)	1.3 (10.3)
임대료	0.3 (4.5)	0.1 (0.9)	0.7 (4.4)	1.0 (11.0)	-	0.5 (4.6)	0.1 (0.6)	- (0.2)	0.1 (0.7)
기타 수입	12.9 (66.0)	5.0 (44.9)	7.0 (26.1)	13.4 (55.9)	5.2 (10.9)	48.1 (118.6)	9.4 (73.5)	4.4 (31.8)	4.1 (17.0)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표 5-3-11〉 사업체 유형별 수입의 세부항목 비율: 이용시설

(단위: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지역복합	바우처	보육시설	장기요양
정부 보조금 및 수탁수입	67.9	<b>81.0</b>	<b>50.2</b>	<b>76.1</b>	<b>80.2</b>	<b>65.1</b>	<b>49.1</b>	<b>83.7</b>	<b>58.7</b>
사업수입	21.1	<b>0.5</b>	<b>41.1</b>	<b>13.6</b>	<b>4.7</b>	<b>22.1</b>	<b>42.0</b>	<b>9.7</b>	<b>35.5</b>
후원금	5.4	13.2	3.4	4.9	8.4	5.8	3.0	1.3	2.1
시설부담금	1.9	3.5	1.8	1.2	1.5	3.3	0.6	1.4	1.1
회원회비	0.8	-	-	0.1	3.2	0.3	1.9	1.7	-
그 외 수입활동 수입	0.9	0.6	1.3	0.7	-	0.4	2.1	0.1	0.4
임대료	0.2	0.1	0.2	0.6	-	0.1	-	-	1.1
기타 수입	1.8	1.0	1.9	2.8	1.9	3.0	1.2	2.2	1.0
계	100.0 (1,567)	100.0 (294)	100.0 (132)	100.0 (206)	100.0 ( 22)	100.0 (214)	100.0 (363)	100.0 (234)	100.0 (102)

주: 1) 전체 연간 총수입액을 100으로 하여 각각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함.

2) 계의 괄호 안은 사례 수 임.

○ 일반사업체의 세부 사업체유형별 평균 총수입액의 현황과 세부 항목의 비율은 <표 5-3-12> 와 <표 5-3-13> 에서 제시하였음

- 세부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입액의 규모는 법무서비스업 109.9백만원, 세무사업은 362.1백만원, 고용알선업 256.8백만원,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638.1백만원, 기술직업 훈련학원 360.5백만원, 사회교육시설 340.0백만원, 특수학교 3327.5백만원, 개인간병 유사 서비스업 34.8백만원, 시민운동 단체 453.0백만원 등 사업체 특성에 따라 차이가 뚜렷
- 수입의 세부항목별 구성에 있어서도 특수학교는 92.5%가, 시민운동 단체도 52.1%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
- 반면 세무사업의 99.9%, 법무서비스업 86.4%, 고용·알선업 74.8%,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72.8%가 사업수입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은 정부보조금 34.1%, 사업수입 56.4%으로 나타났고, 사회교육 시설은 정부보조금 35.3%, 사업수입 56.3%의 비중이었으며,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은 정부보조 47.4%, 사업수입 50.0%
- 시민운동단체의 경우는 정부보조금 52.1%, 사업수입은 14.4%, 후원금이 20.9%를 차지하여 여타 사업체유형과는 상이한 수입구조

<표 5-3-12> 사업체 유형별 수입액 현황: 일반사업체

(단위: 백만원)

	일반사업체									
	전체 (N=1,308)	법무 서비스업 (N=68)	세무사업 (N=188)	고용 알선업 (N=214)	교육자문 평가업 (N=50)	기술직업 훈련학원 (N=357)	사회교육 시설 (N=130)	특수학교 (N=51)	개인간병 유사 서비스업 (N=188)	시민운동 단체 (N=57)
전체 연간 총수입	452.7 (965.8)	109.9 (164.9)	362.1 (614.2)	256.8 (739.9)	638.1 (1025.4)	360.5 (810.6)	340.0 (547.4)	3327.5 (1877.7)	311.8 (443.3)	453.0 (787.7)
정부 보조금 및 수탁 수입	239.8 (814.2)	18.5 (57.5)	0.1 (0.9)	84.5 (265.2)	215.4 (666.5)	216.1 (734.9)	124.4 (275.9)	3029.9 (1874.0)	174.6 (386.9)	211.1 (408.3)
사업수입	185.9 (486.9)	89.4 (136.7)	362.0 (614.2)	163.0 (688.7)	376.0 (838.4)	120.4 (202.0)	178.5 (323.2)	139.4 (813.5)	126.2 (152.4)	94.0 (314.8)
후원금	8.7 (69.8)	0.3 (1.8)	-	5.0 (43.2)	29.4 (162.7)	1.8 (14.1)	17.9 (85.7)	4.8 (22.5)	2.7 (14.6)	99.0 (244.6)
시설부담금	3.4 (51.4)	-	-	0.3 (2.3)	14.5 (75.4)	2.5 (22.7)	2.8 (25.6)	45.1 (239.0)	1.4 (7.2)	0.9 (5.1)
회원회비	4.3	1.6	-	2.5	-	12.0	0.5	-	0.7	8.2

	일반사업체									
	전체 (N=1,303)	법무 서비스업 (N=68)	세무사업 (N=188)	고용 알선업 (N=214)	교육자문 평가업 (N=50)	기술직업 훈련학원 (N=357)	사회교육 시설 (N=130)	특수학교 (N=51)	개인간병 유사 서비스업 (N=188)	시민운동 단체 (N=57)
	(22.1)	(11.1)		(23.7)		(34.4)	(2.4)		(5.2)	(26.0)
그 외 수입활동 수입	1.8 (15.8)	-	-	0.2 (1.3)	2.3 (12.6)	2.7 (17.8)	4.0 (32.9)	8.9 (36.5)	0.1 (1.0)	4.5 (11.7)
임대료	1.0 (12.2)	-	0.1 (0.8)	-	-	0.7 (8.5)	2.3 (12.2)	0.1 (0.3)	0.2 (1.1)	12.7 (50.8)
기타 수입	7.8 (80.9)	-	0.1 (0.6)	1.3 (8.1)	0.5 (2.7)	4.3 (37.1)	9.6 (53.8)	99.3 (353.7)	5.9 (50.9)	22.7 (110.4)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표 5-3-13〉 사업체 유형별 수입의 세부항목 비율: 일반사업체

(단위: %)

	일반사업체									
	전체	법무 서비스업	세무사업	고용 알선업	교육자문 및평가업	기술직업 훈련학원	사회교육 시설	특수학교	개인간병 유사 서비스업	기타시민 운동단체
정부 보조금 및 수탁 수입	28.3	9.2	-	21.2	22.0	34.1	35.3	92.5	47.4	52.1
사업수입	65.4	86.4	99.9	74.8	72.8	56.4	56.3	2.0	50.0	14.4
후원금	1.8	2.2	-	0.3	2.1	0.6	4.2	0.2	1.1	20.9
시설부담금	0.4	-	-	0.3	1.9	0.3	0.6	2.9	0.4	0.1
회원회비	2.5	2.2	-	1.6	-	6.3	0.8	-	0.3	5.6
그 외 수입활동 수입	0.8	-	-	0.2	1.1	1.3	1.9	0.2	-	3.4
임대료	0.1	-	-	-	-	-	0.3	-	0.1	1.1
기타 수입	0.8	-	-	1.6	0.1	0.9	0.6	2.2	0.7	2.3
계	100.0 (1,303)	100.0 ( 68)	100.0 (188)	100.0 (214)	100.0 ( 50)	100.0 (357)	100.0 (130)	100.0 ( 51)	100.0 (188)	100.0 ( 57)

주: 1) 전체 연간 총수입액을 100으로 하여 각각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함.

2) 계의 괄호 안은 사례 수 임.

## 2. 지출

□ 2012년 1년간 사업 활동을 위해 지출한 총 비용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산하여 기입하도록 하였음

○ 연간 총수입(매출액)과 연간 총지출(영업비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

반적으로 그 차이를 ‘영업이익’으로 볼 수 있음

- 지출 비용에는 인건비, 세금과 공과금, 임차료, 광고 선전비, 재료매입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지급수수료·기타영업비용(통신비, 잡비) 등이 포함
  - 조사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기타경비로 구분하였다. 이는 본 조사대상 사업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업체의 회계를 감안하여 조정<sup>15)</sup>
  - 〈표 5-3-14〉에는 2013년도와 2009년도 공급실태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전체 사업체 유형별 지출구조의 규모 현황을 나타내었고, 〈표 5-3-15〉에서는 2009년도와 2013년도의 전체 사업체 유형별 세부 지출비율에 대해 제시하였음
- 본 조사의 대상 사업체 중 지출현황에 응답한 3,394개 업체의 2012년 연간 총 지출액은 442.2백만원으로 나타났음
  - 2009년도 공급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 사업체 4,150개의 2008년 연간 총 지출액은 522백만원
- 사업체 유형별로 비교하면, 2013년도 조사결과 생활시설의 지출규모는 557.5백만원, 이용시설 378.3백만원, 일반사업체는 471.7백만원으로 사업체 유형별 지출의 규모는 유사한 것으로 파악
  - 반면, 2009년도의 결과에서는 생활시설의 지출규모가 709백만원, 이용시

15) - 인건비는 급여(임원급여, 급여, 임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 퇴직급여 총당금 전입액,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제비용으로 고용주가 무급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하며 각종 세금 등이 공제되기 전 금액으로서, 판매비와 관리비상의 ‘급여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를 합산하여 조사(인건비에 포함되는 사회보험부담 비용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및 기타 보험의 사업체 부담비용을 의미)

- 운영비는 업무추진비, 회의비, 여비, 수송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을 의미하며 시설비는 임차료, 건물관리비 신·증축비, 자산 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포함

- 사업비는 이용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생활시설 각종 재활프로그램 사업 등을 위한 비용과 생활시설 운영·교육비(생활시설 거주자를 위한 생계비, 교육비 등) 항목으로 구분

-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입한 원가성격의 재료 구입비 및 소모품비를 의미하며, 기타 경비에는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를 제외한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등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

설 369백만원, 일반사업체는 1,056백만원으로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일반 사업체의 지출규모에서 큰 차이

〈표 5-3-14〉 사업체 유형별 지출액 현황 비교(2009 vs 2013): 전체 사업체

(단위: 백만원)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N=4,150)	2013 (N=3,394)	2009 (N=569)	2013 (N=524)	2009 (N=2,936)	2013 (N=1,567)	2009 (N=645)	2013 (N=1,303)
	연간총지출	522 (1,117.6)	442.2 (1115.2)	709 (1,248.8)	557.5 (623.5)	369 (846.9)	378.3 (980.3)	1,056 (1,727.0)
총 인건비	276 (565.6)	260.8 (497.9)	403 (609.9)	368.6 (422.2)	191 (395.6)	212.8 (339.7)	551 (947.3)	274.0 (657.3)
운영비	58 (217.5)	48.9 (154.7)	75 (272.6)	52.9 (103.2)	38 (177.5)	33.4 (90.4)	131 (297.1)	66.2 (220.4)
시설비	31 (114.2)	21.9 (100.1)	41 (112.7)	30.5 (82.1)	21 (90.3)	14.2 (57.0)	72 (182.8)	27.7 (140.4)
총 사업비	112 (414.6)	80.2 (485.1)	124 (272.8)	74.1 (119.4)	88 (255.9)	86.5 (379.7)	214 (854.5)	75.1 (665.7)
재료비 및 소모품비	18 (134.8)	16.2 (272.4)	33 (244.9)	11.4 (60.5)	12 (91.7)	21.0 (393.6)	31 (159.9)	12.2 (67.2)
기타 경비	27 (182.3)	14.9 (121.0)	33 (159.3)	19.9 (124.8)	19 (172.2)	10.4 (69.4)	57 (235.4)	18.2 (162.4)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 2009년도와 2013년도의 세부 지출 구조를 비교한 〈표 5-3-15〉의 세부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2013년도 조사결과는 총 지출액 가운데 인건비가 65.9%, 운영비 11.5%, 사업비 11.4%, 시설비 5.5% 등의 순
  - 2009년도 조사결과의 세부 지출구조는 인건비가 58.0%, 사업비 17.7%, 운영비 10.4%, 시설비 6.7%의 순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사업비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세부 사업체 유형별로 지출 구조를 비교하면, 2013년도 조사결과는 인건비 비율에 있어 생활시설은 65.9%, 이용시설 66.0%, 일반사업체 65.8%
  - 2009년의 지출구조에서 인건비 비율은 생활시설 58.1%, 이용시설 59.9%,

그리고 일반사업체는 49.6%로 2009년에 비해 금번 조사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2013년도 조사된 사업비 비율은 생활시설 13.2%, 이용시설 14.4%, 일반사업체 7.0%로 파악되어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그리고 일반사업체는 다소 차이
- 반면 2009년도 조사결과 사업비 비율의 경우 생활시설이 19.9%, 이용시설 17.9%, 그리고 일반사업체는 15.2%로 편차가 작은 편
- 운영비에 있어서 생활시설은 11.7%, 이용시설 10.9%, 일반사업체는 12.2%였으며, 시설비는 생활시설 4.3%, 이용시설은 4.1%인 것과 달리 일반사업체는 7.9%

〈표 5-3-15〉 사업체 유형별 지출의 세부항목 비율 비교(2009 vs 2013): 전체 사업체

(단위: %, 사례)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정부보조금 및 수탁수입	45.7	53.3	55.7	63.2	47.0	67.9	30.1	28.3
사업수입	41.8	37.2	28.8	25.2	40.4	21.1	59.2	65.4
후원금	5.0	4.4	6.9	6.9	5.0	5.4	3.4	1.8
시설부담금·법인전입금	3.4	1.3	5.3	1.7	3.5	1.9	1.2	0.4
회원회비	0.5	1.4	0.1	0.6	0.3	0.8	1.9	2.5
그 외 수입활동수입	1.6	0.8	0.1	0.5	1.8	0.9	1.9	0.8
임대료	0.2	0.1	0.2	－	0.1	0.2	0.6	0.1
기타 수입	2.1	1.5	2.8	1.9	2.0	1.8	1.7	0.8
계	100.0 (4,150)	100.0 (3,394)	100.0 (569)	100.0 (524)	100.0 (2,936)	100.0 (1,567)	100.0 (645)	100.0 (1,303)

주: 1) 계의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표 5-3-16〉부터 〈표 5-3-18〉까지는 앞서 제시한 사업체의 전체 지출 내역과 더불어 세부 사업체 유형별로 지출액의 규모 및 전체 연간 총 지출액 대비 세부 항목별 금액의 비율을 살펴보았음



- 〈표 5-3-1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생활시설의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지출규모는 각각 아동생활시설 556.6백만원, 노인생활시설 419.6백만원, 장애인생활시설 828.5백만원, 정신보건생활시설 698백만원으로 사업체 유형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정신보건시설의 사업체간의 지출액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대적으로 노인시설의 사업체간 편차는 적음
  - 세부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지출 구조 가운데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59.6%, 노인생활시설 65.6%, 장애인생활시설 70.1%, 정신보건시설 72.2%로 사업체 유형별로 차이
  -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사업비의 비중이 20.2%로 다른 시설에 비해 가장 높았음

〈표 5-3-16〉 사업체 유형별 지출액 현황 및 지출의 세부항목 비율: 생활시설

(단위: 백만원,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생활시설				
		전체 (N=524)	아동 (N=106)	노인 (N=273)	장애인 (N=103)	정신보건등 (N=42)
지출 금액	연간총지출	709 (1,248.8)	576.6 (656.0)	419.6 (449.8)	828.5 (740.4)	697.8 (880.4)
	총 인건비	403 (609.9)	322.7 (331.7)	272.0 (295.3)	611.1 (573.8)	476.9 (574.4)
	운영비	75 (272.6)	76.4 (178.2)	47.6 (83.6)	51.7 (54.1)	33.3 (38.6)
	시설비	41 (112.7)	31.8 (105.2)	21.0 (51.7)	50.9 (91.6)	35.4 (129.8)
	총 사업비	124 (272.8)	102.6 (149.3)	47.9 (72.9)	89.5 (111.0)	131.6 (217.5)
	재료비 및 소모품비	33 (244.9)	4.1 (10.1)	16.5 (82.8)	9.4 (20.1)	2.5 (4.3)
	기타 경비	33 (159.3)	38.9 (239.9)	14.6 (83.6)	15.8 (46.7)	18.0 (53.8)
총 지출액 대비 <sup>1)</sup> 비율	총 인건비	65.9	59.6	65.6	70.1	72.2
	운영비	11.5	12.9	12.4	9.9	8.4
	시설비	5.5	3.0	4.5	5.2	3.5
	총 사업비	11.4	20.2	11.6	10.9	12.9
	재료비 및 소모품비	3.0	1.9	3.2	1.9	1.4
	기타 경비	2.6	2.5	2.7	1.9	1.6

주: 1) 전체 연간 총지출액을 100으로 하여 각각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함.

2)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 이용시설의 세부유형별 지출 현황은 <표 5-3-17> 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 이용시설은 100.0백만원, 노인이용시설 269.0백만원, 장애인이용시설 499.1백만원, 정신보건이용시설 249.3백만원, 지역복합시설 954.3백만원, 바우처 제공기관 375.3백만원, 보육시설 265.9백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15.1백만원으로서 사업체유형간의 지출규모 차이 뚜렷

- 지역복합시설의 규모가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출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아동이용시설의 경우 인건비가 53.2%로 비중이 다소 낮은 편
- 노인이용시설은 7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장애인이용시설 65.1%, 정신보건이용시설 75.2%, 지역복합시설은 61.9%, 바우처제공기관 75.7%, 보육시설 61.2%, 노인장기요양기관은 75.2%의 수준
- 지역복합시설의 경우 사업비가 23.7%, 아동이용시설도 22.8%로 타 사업체 유형에 비해 사업비 비중이 높은 편이고, 아동이용시설의 경우, 운영비도 16.0%로 가장 높은 수치

<표 5-3-17> 사업체 유형별 지출액 현황 및 지출의 세부항목 비율: 이용시설

(단위: 백만원,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 (N=1567)	아동 (N=294)	노인 (N=132)	장애인 (N=206)	정신 보건 (N=22)	지역 복합 (N=214)	바우처 (N=363)	보육 시설 (N=234)	장기 요양 (N=102)
지출 금액	연간총지출	378.3 (980.3)	100.0 (258.9)	269.0 (276.4)	499.1 (2267.9)	249.3 (145.5)	954.3 (924.5)	375.3 (601.5)	265.9 (334.7)	215.1 (193.4)
	총 인건비	212.8 (339.7)	39.7 (29.1)	198.5 (167.0)	175.1 (270.4)	177.2 (92.8)	487.5 (509.9)	282.4 (452.8)	147.3 (132.8)	165.5 (156.1)
	운영비	33.4 (90.4)	16.2 (43.6)	23.7 (23.6)	33.2 (65.9)	23.2 (14.3)	74.9 (146.4)	33.2 (117.9)	32.1 (72.2)	17.0 (27.6)
	시설비	14.2 (57.0)	2.5 (6.3)	7.5 (15.6)	28.0 (123.2)	9.9 (22.2)	35.4 (72.8)	11.4 (40.3)	11.0 (19.5)	4.2 (6.9)
	총 사업비	86.5 (379.7)	34.7 (234.5)	30.8 (118.4)	124.4 (796.1)	33.7 (61.2)	320.8 (475.4)	34.0 (130.9)	59.3 (224.8)	15.3 (39.0)
	재료비 및 소모품비	21.0 (393.6)	5.2 (34.1)	4.4 (7.0)	120.1 (1089.9)	1.2 (2.9)	5.2 (21.5)	7.8 (50.1)	8.2 (14.1)	5.4 (16.7)
	기타 경비	10.4 (69.4)	1.7 (9.0)	4.2 (11.6)	18.3 (160.4)	4.0 (7.5)	30.5 (84.8)	6.5 (29.8)	8.0 (28.4)	7.6 (44.7)
총 지출액	총 인건비	66.0	53.2	76.5	65.1	75.2	61.9 (24.2)	75.7	61.2	75.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 (N=1567)	아동 (N=294)	노인 (N=132)	장애인 (N=206)	정신 보건 (N=22)	지역 복합 (N=214)	바우처 (N=363)	보육 시설 (N=234)	장기 요양 (N=102)
대비 비율 <sup>1)</sup>	운영비	10.9	16.0	9.3	12.2	9.3	7.6 (6.8)	8.4	12.0	9.1
	시설비	4.1	3.1	2.5	4.4	3.9	3.5 (6.4)	4.9	5.6	3.2
	총 사업비	14.4	22.8	8.7	13.7	9.1	23.7 (22.2)	6.8	15.1	5.6
	재료비 및 소모품비	2.7	3.6	1.8	3.1	0.5	0.7 (2.4)	2.2	3.5	4.6
	기타 경비	2.0	1.4	1.3	1.6	2.0	2.5 (6.8)	2.1	2.7	2.3

주: 1) 전체 연간 총지출액을 100으로 하여 각각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함.

2)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 일반사업체에 포함된 사업체유형 간에는 지출규모의 편차가 매우 큰 편으로 나타났는데, 특수학교는 3,435백만원, 교육관련자문 및 평가업은 917백만원, 사회교육시설 690백만원, 기타시민운동단체 411백만원, 기술직업훈련학원 372백만원,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은 317백만원, 세무사업 285백만원, 고용알선업 207백만원, 그리고 법무서비스업은 104만원 순

- 일반사업체의 사업체 유형은 지출구조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운동 단체의 경우 인건비가 56.7%였으나, 개인간병은 인건비의 비중이 83.4%
- 사업비에 있어서는 시민운동단체가 1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법무서비스업, 세무사업은 3.4%로 가장 낮은 비중
- 세무사업은 운영비에 있어 16.3%로 가장 많은 지출 구조를 보였고,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에서는 5.9%로 가장 적은 비중

〈표 5-3-18〉 사업체 유형별 지출액 현황 및 지출의 세부항목 비율: 일반사업체

(단위: 백만원, %)

		일반사업체									
		전체 (N=1,308)	법무 서비스업 (N=68)	세무사업 (N=188)	고용 알선업 (N=214)	교육지원 평가업 (N=50)	기술직업 훈련지원 (N=357)	사회교육 시설 (N=130)	특수학교 (N=51)	개인간병 유사 서비스업 (N=188)	시민운동 단체 (N=57)
지출금 액	연간총지출	471.7 (1393.4)	103.6 (149.1)	284.9 (583.4)	207.2 (647.1)	917.4 (2471.9)	371.7 (1132.5)	690.4 (2774.8)	3435.2 (1758.6)	316.6 (476.8)	410.6 (736.2)
	총 인건비	274.0 (657.3)	72.4 (125.9)	172.0 (381.3)	147.6 (465.4)	306.3 (555.0)	164.8 (315.2)	259.9 (674.3)	2549.3 (1378.2)	271.9 (429.2)	167.3 (209.0)
	운영비	66.2 (220.4)	12.6 (17.7)	48.5 (94.7)	34.2 (190.5)	90.1 (191.3)	50.2 (180.6)	109.4 (324.8)	551.8 (543.0)	15.0 (36.0)	54.0 (134.9)
	시설비	27.7 (140.4)	7.1 (10.4)	21.4 (102.2)	11.5 (37.4)	39.8 (80.4)	47.2 (238.6)	25.5 (94.2)	105.8 (134.0)	7.7 (14.0)	4.7 (8.8)
	총 사업비	75.1 (665.7)	5.7 (15.5)	9.7 (29.9)	8.2 (29.7)	347.6 (1723.1)	67.1 (342.5)	280.0 (1725.0)	162.5 (251.8)	11.3 (34.6)	160.4 (419.7)
	재료비 및 소모품비	12.2 (67.2)	2.6 (3.4)	9.5 (24.2)	2.3 (4.6)	6.7 (10.4)	22.9 (109.3)	6.2 (41.3)	53.7 (152.7)	6.1 (15.6)	5.0 (15.5)
	기타 경비	18.2 (162.4)	3.2 (6.0)	23.9 (72.5)	4.9 (22.5)	126.9 (599.0)	20.9 (205.5)	9.4 (59.4)	12.1 (29.9)	5.0 (11.7)	22.0 (82.6)
총 지출액 대비 비율 <sup>1)</sup>	총 인건비	65.8	64.9	61.7	67.1	58.6	62.0	60.2	75.1	83.4	56.7
	운영비	12.2	14.6	16.3	13.1	10.7	10.8	14.2	15.1	5.9	13.8
	시설비	7.9	8.6	6.9	11.0	9.4	10.2	6.8	3.1	3.6	3.6
	총 사업비	7.0	3.4	3.4	3.7	13.3	8.7	14.4	5.0	3.4	19.6
	재료비 및 소모품비	3.6	4.2	3.2	2.4	2.3	6.1	2.9	1.4	2.0	3.5
	기타 경비	3.4	4.3	8.5	2.6	5.6	2.3	1.6	0.3	1.8	2.9

주: 1) 전체 연간 총지출액을 100으로 하여 각각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함.

2)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 3. 바우처사업 추가 구매 현황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바우처 사업 추가 구매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 서비스는 ①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②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③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④가사간병방문서비스, ⑤발달재활서비스, ⑥언어발달지원서비스, ⑦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임

○ 연간 바우처 총 이용자 수는 2012년 기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총 이용자 수(추가 구매자 포함)를 파악하였는데, 연간 총 매출액은 2012년 기준으로 해당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총 매출액을 조사하였고, 연간 추가구매 인원은 2012년 1년간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으로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가 있다면, 추가구매 이용자 수의 규모(인원)를 파악하도록 하였음

－ 연간 추가구매 매출액은 앞서 추가구매 인원과 마찬가지로 2012년 1년간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으로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 추가 구매를 통한 월평균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았으며, 매출액에서도 추가적인 구매 요청이 없었을 경우 ‘0’으로 파악

－ 일반구매자는 정부지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상관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었거나 지원기간이 초과하였으나, 해당 사회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용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 한해 서비스 비용 전액을 자기 부담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 연간 바우처의 총 이용자 수는 〈표 5-3-1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데, 바우처 서비스의 이용자를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았는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와 같은 돌봄 바우처서비스를 주로 이용

－ 발달재활서비스는 51.0명, 언어발달지원서비스 7.0명이 이용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복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세부 사업명을 기입하고 작성하도록 하여 평균 26,549.2명이 연간 이용한 것을 확인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회사이외의 법인에서 11,944.8명이 이용하였는데, 회사이외의 법인에 사회복지법인, 재단 및 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이 있어 이용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사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개인 사업체에서 5,863.2명이 이용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도 개인 사업체에서 5,862명이 이용하여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조직 형태 가운데 개인 사업체의 비중이 두드러짐

○ 가사간병방문서비스는 비법인단체에서 23,707.5명이 이용하여 비법인단체의 조직형태에서 가장 많이 제공되는 것을 파악

○ 발달재활서비스는 회사이외의 법인이나 비법인단체에서 유사하게 각각 65.8명, 70.6명이었고,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회사법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주로 회사이외의 법인에서 14.1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회사이외의 법인에서 59,491.5명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의 분포를 보였고, 회사법인에서 35,813.6명, 개인사업체가 17,588.5명 순

〈표 5-3-19〉 연간 바우처 총 이용자 수

(단위: 명)

	전체	전자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개인 사업체	회사법인	국가 및 지방단체	회사이외 법인	비법인단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976.0 (171,649.83)	9.5 (182.04)	82.5 (417.20)	4.3 (51.18)	11,944.8 (344,825.97)	35.4 (210.5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980.4 (171,649.95)	5,863.2 (241,966.83)	44.2 (409.47)	25.4 (251.72)	79.0 (610.47)	44.2 (357.49)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2,952.2 (171,650.04)	5,862.6 (241,966.81)	5.9 (40.94)	0.1 (1.25)	2.2 (40.12)	6.9 (46.09)
가사간병방문서비스	2,954.1 (171,650.04)	1.0 (21.96)	54.3 (560.51)	0.8 (10.03)	5.6 (52.11)	23,707.5 (486,791.81)
발달재활서비스	51.0 (498.86)	47.3 (438.27)	25.7 (263.52)	0.6 (4.86)	65.8 (627.01)	70.6 (627.90)
언어발달지원서비스	7.0 (235.80)	6.7 (235.26)	-	2.5 (29.52)	14.1 (334.47)	0.2 (4.6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6,549.2 (514,341.31)	17,588.5 (418,852.53)	35,813.6 (597,608.72)	0.7 (8.11)	59,491.5 (769,216.90)	15.7 (149.82)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연간 바우처 사업의 총 매출액에 대해서도 조직의 형태별로 〈표 5-3-20〉에 제시하였는데, 세부사업이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4,417.9만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였음
- 그밖에 발달재활서비스가 연간 5,70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5,072.3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2,847.5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713.7만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1,006.4만원 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회사이외의 법인에서 7,838.4만원으로 조직 형태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는 회사법인이 27,968.7만원으로 월등히 높은 액수를 나타냈음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는 개인사업체에서 5,32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간병방문서비스는 3,517.4만원의 회사이외 법인이 조직 형태 중 제일 큰 비중인 것으로 파악
- 발달재활서비스도 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12,192.6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 개인사업체가 5,107.1만원 수준
-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경우 개인 사업체가 32.7만원, 회사이외의 법인에서 31.5만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가 및 지방단체가 279,720.3만원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으며, 회사이외의 법인에서도 48,354.5만원 정도의 총 매출액을 확인

〈표 5-3-20〉 연간 바우처 총 매출액

(단위: 만원)

	전자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전체	개인 사업체	회사법인	국가 및 지방단체	회사이외 법인	비법인단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713.7 (99,685.81)	221.4 (3,034.31)	5,541.8 (60,847.30)	123.4 (1,470.58)	7,838.4 (196,827.30)	1,596.0 (14,785.5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5,072.3 (147,359.68)	337.0 (5,131.49)	27,968.7 (435,055.80)	700.2 (7,199.84)	8,519.7 (156,057.34)	3,654.0 (18,493.56)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2,847.5 (150,527.71)	5,321.2 (212,031.45)	1,072.5 (14,521.91)	—	58.7 (1,165.95)	522.6 (5,230.45)
가사간병방문서비스	1,006.4 (48,985.06)	12.1 (300.76)	907.8 (6,596.75)	20.0 (238.83)	3,571.4 (98,292.37)	317.2 (3,004.34)
발달재활서비스	5,706.0 (218,605.66)	5,107.1 (193,723.97)	298.7 (2,260.03)	493.7 (5,870.84)	12,192.6 (341,382.67)	529.6 (4,114.46)
언어발달지원서비스	24.6 (926.98)	32.7 (1,213.94)	—	7.7 (91.57)	31.5 (686.82)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4,417.9 (842,487.86)	915.1 (24,593.15)	1,593.8 (11,106.83)	279,720.3 (334,496.71)	48,354.5 (978,215.00)	424.9 (6,084.48)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표 5-3-21〉 추가구매 및 일반구매자 보유 비율

(단위: %)

	연간 추가구매 인원 및 매출액 여부	일반구매자 여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0.4	0.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0.3	0.3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0.4	1.2
가사간병방문서비스	0.1	0.1
발달재활서비스	0.8	1.5
언어발달지원서비스	0.1	0.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6	1.0

주: 전체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중 ‘연간 추가구매 인원 및 매출액’과 ‘일반 구매자’가 있는 비율을 의미함.





## 제6장

# 사회서비스사업체의 고용 실태 분석 결과

제1절 고용 현황

제2절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제도 현황



# 6

##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고용 실태 분석 결과 < <

### 제1절 고용 현황

#### 1. 총 취업자 현황

□ 사회서비스사업체의 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1년간 해당 사업체에 직접 고용된 종사자 수와 간접 고용된 종사자 수를 월평균 종사인원으로 조사하였음<sup>16)</sup>

○ 직접고용 종사자(직접종사자)는 조사대상 사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고 이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

－ 기간제 근로자,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한시적인 위탁 프로그램으로 고용된 인력도 포함

－ 파트타임 종사자도 포함(즉,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중 1일 기준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각 인원에 포함)

－ 그러나 이 사업체에서 일은 하지만 직접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직접고용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간접고용 종사자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자, 특수형태 종사자, 용역 근로자, 기타 종사자(인턴사원, 사회복지요원·공익근무요원) 등을 별도로 파악하였음

○ <표 6-1-1> 에서 직접고용 종사자와 간접고용 종사자를 합한 인원으로 전체 고용규모를 파악한 결과, 2013년도 조사대상 사업체(3,394개소)의 2012년 월평균 전체 고용인원은 사업체 평균 16.7명

16) 일반적으로 고용 현황 관련하여, 총 취업자, 취업자, 고용자 등으로 구분하여 통계가 산출되고 있는데, '총 취업자 = 직접종사자+간접종사자', '취업자 = 직접종사자', '고용자 = 직접종사자 - (무급종사자+자영업자)'로 파악된다. 본 조사에서는 이에 총 취업자, 취업자, 고용자를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구성하였음

- 이들 가운데 직접고용 종사자의 비율은 98.0%, 간접고용 종사자의 비율은 2.0%
- 2009년도 공급실태조사 결과와 이번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조사대상 사업체(4,150개소)의 2008년 월평균 전체 고용인원은 사업체 평균 18.5명이고 이 중 직접고용 종사자의 비율은 93.6%, 간접고용 종사자의 비율은 6.4%
- 즉, 2013년도 조사결과는 총 취업자 수에는 줄었으나, 직접 종사자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세부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시설(524개소)의 평균 인원은 15.9명으로 직접고용 종사자의 비율은 99.9%였으며 간접고용 종사자의 비율은 0.1%로 나타났음

- 이용시설(1,567개소)의 평균 인력은 16.8명이었으며, 직접고용 종사자 비율은 96.9%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일반사업체(1,303개소)의 평균 고용인원은 16.8명이었으며, 직접고용 종사자의 비율은 98.5%
- 2009년도 조사결과와 이번 조사결과를 세부 사업체유형별로 비교하면, 생활시설(569개소)의 평균 인원은 18.0명, 직접고용 종사자 비율은 95.9%로 2009년에 비해 약간의 감소가 있었으나, 직접 종사자의 비율은 높아졌음

○ 이용시설(2,936개소)의 평균 인력은 16.6명이고, 직접고용 종사자의 비율은 92.7%로 총 취업자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직접종사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간접종사자의 비율은 줄어들어 가장 긍정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일반사업체(645개소)의 평균 고용인원은 27.4명이었으며 직접고용 종사자의 비율은 95.5%로 나타나, 일반사업체의 총 취업자의 평균 인력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표 6-1-1〉 사업체 유형별 총취업자 현황 비교(2009 vs 2013): 전체 사업체

(단위: 명, %)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총 취업자	18.5 (29.3)	16.7 (29.4)	18.0 (24.2)	15.9 (14.4)	16.6 (28.3)	16.8 (30.0)	27.4 (35.7)
직접종사자 비율	93.6	98.0	95.9	99.9	92.7	96.9	95.5	98.5
간접종사자 비율	6.4	2.0	4.1	0.1	7.3	3.1	4.5	1.5
계	100.0 (4,150)	100.0 (3,394)	100.0 (569)	100.0 (524)	100.0 (2,936)	100.0 (1,567)	100.0 (645)	100.0 (1,303)

주: 1)직접종사자 및 간접종사자 비율은 총 취업자 수를 100으로 하여 각 해당 종사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함.

2)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이며, 계의 괄호 안은 사례 수 임.

○ 세부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6-1-2〉와 같이, 생활시설의 총 취업자는 장애인생활시설이 22.4명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의 평균 인원이 타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 직접고용 근로자의 비율은 정신보건생활시설은 100.0%로 전원 직접고용 종사자로 운영
- 아동생활시설이 99.9%, 노인생활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은 99.8% 등으로 대부분 직접고용 형태를 유지

〈표 6-1-2〉 사업체 유형별 총취업자 현황: 생활시설

(단위: 명,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생활시설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등
총 취업자	15.9 (14.4)	10.2 (10.3)	15.8 (14.5)	22.4 (14.5)	15.1 (16.0)
직접종사자 비율	99.9	99.9	99.8	99.8	100.0
간접종사자 비율	0.1	0.1	0.2	0.2	-
계	100.0 (524)	100.0 (106)	100.0 (273)	100.0 (103)	100.0 ( 42)

주: 1)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2) 계의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표 6-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용시설의 총 취업자 인원은 세부 사업체 유형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 지역복합시설 32.9명, 바우처제공기관 26.7,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7명 인 것에 반해, 아동이용시설 4.3명, 정신보건시설 7.4시설, 보육시설 7.5명으로 지역복합시설의 총 취업자 수는 다른 사업체유형보다 인원 규모면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였음
  - 직접고용 종사자의 비율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은 99.6%, 노인이용시설과 보육시설은 99.4%, 장애인이용시설과 정신보건시설은 98.9%, 지역복합시설은 98.5%, 바우처제공기관 98.2%, 그리고 아동이용시설은 88.7%의 순
  - 아동이용시설은 상대적으로 다른 세부 사업체에 비해 간접고용 형태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6-1-3〉 사업체 유형별 총취업자 현황: 이용시설

(단위: 명,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지역복합	바우처	보육시설	장기요양
총 취업자	16.8 (30.0)	4.3 (14.0)	18.3 (33.9)	9.8 (21.5)	7.4 (6.9)	32.9 (41.5)	26.7 (37.0)	7.5 (5.2)	20.7 (25.6)
직접종사자 비율	96.9	88.7	99.4	98.9	98.9	98.5	98.2	99.4	99.6
간접종사자 비율	3.1	11.3	0.6	1.1	1.1	1.5	1.8	0.6	0.4
계	100.0 (1,567)	100.0 (294)	100.0 (132)	100.0 (206)	100.0 ( 22)	100.0 (214)	100.0 (363)	100.0 (234)	100.0 (102)

주: 1)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2) 계의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표 6-1-4〉에 제시하는 일반사업체의 경우에도, 총 취업자에서 세부 사업체 유형별로 편차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법무서비스업은 3.1명, 세무사업 6.3명, 기타시민운동단체 8.9명,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이 9.7명 인 것에 반해, 특수학교 86.8명,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30.1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26.8명 인 것으로 파악
  - 직접고용 종사자의 비율에 있어서도 법무서비스와 세무사업은 100.0% 직

접고용,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99.6%, 시민운동단체 98.9%,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과 특수학교는 98.4%, 고용알선업과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은 98.3%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94.9%가 직  
접고용 종사자로 구성

〈표 6-1-4〉 사업체 유형별 총취업자 현황: 일반사업체

(단위: 명, %)

	일반 사업체									
	전체	법무 서비스업	세무 사업	고용 알선업	교육 자문 평가업	기술직업 훈련학원	사회교육 시설	특수 학교	개인간병 유사 서비스업	시민운동 단체
총 취업자	16.8 (33.0)	3.1 (6.0)	6.3 (9.1)	13.3 (39.0)	26.8 (67.2)	9.7 (13.0)	17.9 (20.1)	86.8 (35.2)	30.1 (41.7)	8.9 (11.2)
직접종사자 비율	98.5	100.0	100.0	98.3	98.4	98.3	94.9	98.4	99.6	98.9
간접종사자 비율	1.5	-	-	1.7	1.6	1.7	5.1	1.6	0.4	1.1
계	100.0 (1,303)	100.0 ( 68)	100.0 (188)	100.0 (214)	100.0 ( 50)	100.0 (357)	100.0 (130)	100.0 ( 51)	100.0 (188)	100.0 ( 57)

주: 1)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2) 계의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2. 직접고용 현황

### 가. 직접고용 종사자

□ 직접고용 종사자는 종사상의 지위형태에 따라,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다른 업체로 보낸 종사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상용근로자는 고용주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었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자로서, 정규직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다시 세분

○ 정규직은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  
면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로서, 전체근로자 가운데 기간제(계약직·한시  
적) 근로자는 제외

○ 기간제 계약직은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

도 포함) 이의 반복갱신을 통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되, (2012년 기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다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

－ 임시근로자는 2012년 기준으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일용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로서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대가를 일급으로 받는 경우를 의미(특히 임시일용종사자 수는 연인원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유의하되, 월평균 인원표시)

○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이며, 무급 가족종사자는 정상 영업시간의 1/3이상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가 없는 자영업주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포함

○ 다른 사업체로 보낸 종사자의 경우는 파견 및 용역업체인 경우, 외부에 파견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용알선업체의 구직자는 직원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음

○ 한편 각 사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교육을 위한 ‘강사’(사회교육 강사, 어린이집 특기교사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별되도록 하였음

－ 먼저 시설(사업체)에서 계약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기간제 계약직(1년 이상) 혹은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해당시설이나 협회에서 파견 받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간접고용의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자’로, 단기 특강을 위해 일회성 수강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고용 인력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였음

□ 사업체유형별 고용인원을 규모별로 구분한 <표 6-1-5>에서는 2009년도 공급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직접고용 종사자의 규모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사업체가 2009년도 공급실태 조사결과에서도 32.1%로 가장 많았고, 2013년도 조사에서도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사업체는 2009년도 조사결과 25.2%, 2013년도 조사결과 25.5%로 지난 2009년도 공급 실태조사와 이번 조사가 비슷한 수치로 나



타났으며,

-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각각 26.6%, 26.0%로 파악되어, 전체의 85%가 30인 미만의 사업체로 확인
- 사업체유형별로 보면, 생활시설 가운데 10인 이상의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도 조사결과 45.7%, 2013년도 조사결과 54.6%로 파악되었음
- 이용시설 가운데 10인 이상의 종사자 규모를 갖춘 사업체는 2009년 조사결과 39.7%, 2013년도 조사결과 37.8%로 파악되었으며 일반사업체의 경우에는 2009년 조사결과 54.3%, 2013년도 조사결과 37.6%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10인 미만 사업체 비율을 비교하면, 생활시설은 2013년도 조사결과 45.3%, 이용시설은 2013년도 조사결과 62.2%로 나타나, 2009년도 공급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2013년도의 조사결과에서도 이용시설의 경우 소규모업체가 다소 많은 것으로 파악

〈표 6-1-5〉 사업체 유형별직접고용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 비교(2009 vs 2013): 전체 사업체  
(단위: %)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1인~4인	32.1	34.2	32.0	21.6	32.5	38.1	30.0	34.6
5인~9인	25.2	25.5	22.2	23.7	27.8	24.1	15.6	27.8
10인~29인	26.6	26.0	26.9	38.8	26.3	23.3	28.1	24.0
30인~49인	8.7	7.8	12.1	12.4	7.6	7.3	10.4	6.5
50인 이상	7.4	6.6	6.7	3.4	5.8	7.2	15.8	7.1
계	100.0 (4,150)	100.0 (3,394)	100.0 (569)	100.0 (524)	100.0 (2,936)	100.0 (1,567)	100.0 (645)	100.0 (1,303)

주: 1) 전체 응답 사업체 중 각 종사자규모별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비율임.

2)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세부 사업체유형별로 직접고용 종사자규모에 따른 사업체 분포를 분석하여  
〈표 6-1-6〉에서 제시하였음

- 생활시설의 직접고용 종사자가 10인 이상의 사업체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체가 51.9%로 나타났으나, 10인 이상의 규모 역시 4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생활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은 10인 이상의 규모인 사업체의 비율이 각각 54.0%, 74.8%였음

〈표 6-1-6〉 사업체 유형별·직접고용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 생활시설

(단위: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생활시설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등
1인~4인	21.6	51.9	12.1	6.8	42.9
5인~9인	23.7	5.7	33.8	18.4	16.7
10인~29인	38.8	40.6	37.1	50.5	16.7
30인~49인	12.4	0.9	13.2	19.4	19.0
50인 이상	3.4	0.9	3.7	4.9	4.8
계	100.0 (524)	100.0 (106)	100.0 (273)	100.0 (103)	100.0 ( 42)

주: 1) 전체 응답 사업체 중 각 종사자규모별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비율임.

2)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표 6-1-7〉은 이용시설을 세부유형별로 구분하였는데, 고용규모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아동이용시설의 경우 5인 미만의 종사자를 둔 사업체가 91.5%에 이르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 등을 비롯, 지역사회 기반 소규모 이용시설의 제한적 고용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임
- 장애인 이용시설과 정신보건 이용시설, 그리고 보육시설은 10인 미만의 직접 고용 종사자를 둔 사업체의 비율이 각각 82.9%, 86.4%, 76.1%인 것으로 파악
- 반면, 30인 이상의 종사자 규모를 지닌 사업체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시설에 비해 높은 시설도 있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지역복합시설의 경우는 30인 이상의 사업체가 31.9%를 차지했고, 50인 이상의 사업체도

17.1% 확인되었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중에도 5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가 전체의 14.1%로 파악되어 고용규모가 큰 사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표 6-1-7〉 사업체 유형별·직접고용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 이용시설

(단위: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등	지역복합	바우처	보육	장기요양
1인~4인	38.1	91.5	12.2	56.4	27.3	7.1	19.9	34.2	20.2
5인~9인	24.1	6.8	41.2	26.5	59.1	21.0	20.2	41.9	19.2
10인~29인	23.3	1.0	32.1	11.3	9.1	40.0	32.6	23.1	36.4
30인~49인	7.3	0.3	8.4	2.0	4.5	14.8	13.3	0.9	16.2
50인 이상	7.2	0.3	6.1	3.9	-	17.1	14.1	-	8.1
계	100.0 (1,567)	100.0 (294)	100.0 (132)	100.0 (206)	100.0 ( 22)	100.0 (214)	100.0 (363)	100.0 (234)	100.0 (102)

주: 1) 전체 응답 사업체 중 각 종사자규모별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비율임.

2)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일반사업체의 경우 〈표 6-1-8〉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사업체 유형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 10인 미만의 종사자 규모를 가진 사업체의 비율이 법무서비스업은 97.1%, 세무사업 93.1%,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73.9%, 시민운동단체 71.9%, 고용알선업 67.3% 등의 순
- 반면 30인 이상의 종사자 규모를 갖춘 사업체의 비율이 높은 분야도 있었는데, 특수학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94.1%
-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의 경우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종사자를 둔 사업체의 비중이 46.8%로 사업체 유형 간의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6-1-8〉 사업체 유형별·직접고용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 일반사업체

(단위: %)

	일반 사업체									
	전체	법무 서비스업	세무사업	고용 알선업	교육자문 평가업	기술직업 훈련학원	사회교육 시설	특수 학교	개인간병 유사 서비스업	시민운동 단체
1인~4인	34.6	82.4	43.1	57.0	42.0	28.1	22.8	—	9.0	42.1
5인~9인	27.8	14.7	50.0	10.3	16.0	45.8	19.7	—	11.7	29.8
10인~29인	24.0	1.5	5.9	22.9	30.0	22.2	42.5	5.9	46.8	21.1
30인~49인	6.5	1.5	—	7.5	—	2.2	10.2	9.8	20.2	5.3
50인 이상	7.1	—	1.1	2.3	12.0	1.7	4.7	84.3	12.2	1.8
계	100.0 (1,303)	100.0 ( 68)	100.0 (188)	100.0 (214)	100.0 ( 50)	100.0 (357)	100.0 (130)	100.0 ( 51)	100.0 (188)	100.0 ( 57)

주: 1) 전체 응답 사업체 중 각 종사자규모별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비율임.

2)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표 6-1-9〉는 2009년도 조사결과와 2013년도 조사 결과를 통해, 종사상 지위별로 해당인원과 전체 직접고용 종사자 대비 비율을 분석하여 제시한 것임

○ 2013년도 조사결과 전체 직접고용 종사자 중 상용직 비율은 90.6%로서, 정규직은 67.5%, 기간제계약직 18.4%, 무기계약직 4.7%로 나타났음

○ 임시 및 일용직은 6.8%였으며, 자영업자도 1.7%, 무급가족종사자 0.8%, 타사업체파견종사자도 0.1%로 확인

○ 2009년도 공급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종사상 지위별 해당 인원과 전체 직접고용 종사자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직접고용 종사자 중 상용직의 비율은 75.0%로서 이번 조사에 비해 상용직의 비율이 다소 낮았음

— 정규직의 비율은 59.1%, 기간제계약직은 15.9%, 임시직은 12.8%, 일용직은 5.4%였으며 자영업자 5.6%, 무급가족종사자도 1.2%로 나타났다.

○ 2013년도 공급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사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용직 비율은 생활시설 98.6%, 이용시설 91.8%, 일반사업체 85.9% 순

○ 정규직은 생활시설 92.5%, 이용시설 65.2%, 일반사업체 60.1%로 사업체유형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기간제계약직은 생활시설 4.9%, 이용시설 21.1%, 일반사업체 20.6%의 순

- 무기계약직도 생활시설 1.2%, 이용시설 5.6%, 일반사업체 5.2%였으며 임시 및 일용직의 비율은 생활시설 0.5%, 이용시설 6.5%, 일반사업체 9.7%로 생활시설의 경우는 임시 및 일용직보다 기간제계약직 및 무기계약직의 활용이 더 많은 것을 확인
-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로 응답한 경우도 생활시설 0.7%, 이용시설 1.5%, 일반사업체 4.3%로, 일반사업체에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2009년도 조사결과를 세부 사업체유형별로 보았을 때에는 상용직의 비율이 생활시설에서는 91.6%, 이용시설 73.3%, 일반사업체 67.4%로 이용시설과 일반사업체에 비해 생활시설에서의 상용직 고용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
- 정규직은 생활시설 84.1%, 이용시설 55.2%, 일반사업체 54.4%로 사업체유형 간 차이가 보였으며,
  - 기간제계약직의 비율은 생활시설 7.5%, 이용시설 18.1%, 일반사업체 13.0%,
  - 임시 및 일용직의 비율은 생활시설이 4.9%, 이용시설 20.8%, 일반사업체 18.1%
- 2013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생활시설의 경우 임시 및 일용직보다는 기간제 계약직의 활용이 더욱 많았음
  -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로 응답한 경우도 생활시설에서 3.4%, 이용시설 5.8%, 일반사업체 14.5%로 나타나, 2013년도 공급 실태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사업체의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표 6-1-9〉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직접고용 종사자 현황 비교(2009 vs 2013): 전체 사업체  
(단위: 명, %)

		전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일반사업체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인원	전체	17.2 (27.8)	16.1 (27.5)	16.7 (21.7)	15.8 (14.4)	15.5 (27.3)	16.2 (28.8)	25.1 (33.3)	16.1 (29.8)
	상용직	12.2 (22.4)	14.2 (25.5)	15.9 (21.5)	15.7 (14.4)	9.8 (20.2)	13.9 (25.5)	19.6 (29.5)	13.9 (28.8)
	정규직	8.6 (15.3)	8.6 (18.2)	14.5 (20.1)	14.8 (14.3)	6.1 (11.1)	7.0 (16.6)	14.6 (22.2)	8.0 (20.7)

		전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일반사업체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기간제계약직	3.6 (14.8)	4.2 (14.5)	1.5 (6.3)	0.7 (3.4)	3.7 (16.4)	5.0 (16.5)	5.0 (12.1)	4.7 (14.5)
	무기계약직	4.7 (15.9)	1.3 (8.1)	0.6 (2.5)	0.2 (1.5)	5.4 (17.2)	1.9 (10.8)	5.0 (16.1)	1.2 (5.4)
	임시 및 일용직	3.2 (13.9)	1.8 (10.8)	0.4 (2.1)	0.1 (0.4)	3.7 (15.1)	2.2 (13.3)	3.6 (13.7)	2.1 (9.6)
	자영업자	1.5 (8.3)	0.1 (0.6)	0.2 (1.4)	—	1.7 (8.8)	0.1 (0.8)	1.4 (8.9)	0.1 (0.3)
	무급가족종사자	0.2 (0.4)	—	0.1 (0.3)	—	0.2 (0.4)	—	0.4 (0.5)	—
	타사업체파견 종사자	—	—	—	—	—	—	—	—
전체 인원 대비 비율1)	상용직	75.0	90.6	91.6	98.6	73.3	91.8	67.4	85.9
	정규직	59.1	67.5	84.1	92.5	55.2	65.2	54.4	60.1
	기간제계약직	15.9	18.4	7.5	4.9	18.1	21.1	13.0	20.6
	무기계약직	18.2	4.7	4.9	1.2	20.8	5.6	18.1	5.2
	임시 및 일용직	12.8	6.8	3.3	0.5	14.6	6.5	13.0	9.7
	자영업자	5.4	1.7	1.6	—	6.2	1.1	5.1	3.2
	무급가족종사자	5.6	0.8	2.4	0.7	4.8	0.4	12.5	1.1
	타사업체파견종사자	1.2	0.1	1.0	0.3	1.0	0.1	2.0	0.1
	계	100.0 (4,150)	100.0 (3,394)	100.0 (569)	100.0 (524)	100.0 (2,936)	100.0 (1,567)	100.0 (645)	100.0 (1,303)

주: 1) 전체 직접고용 종사자 수 대비 각 종사상 지위별 평균인원 수의 비율임.

2)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3) 계의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생활시설의 경우 <표 6-1-10>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직접고용 종사자의 총인원은 장애인생활시설(22.4명)이 다른 시설들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생활시설(15.7명)과 정신보건시설(15.1명)이 뒤를 이었으며, 아동생활시설이 10.1명으로 가장 적었음
  - 상용직의 비율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아동생활시설이 상용직 99.6%, 정규직 98.0%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생활시설이 상용직 97.9%, 정규직 88.5%로 가장 낮았음
  - 노인생활시설은 기간제 계약직 비율(7.4%)과 무기 계약직(1.9%)의 비율이 다른 사업체유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표 6-1-10〉 사업체 유형별·종사자 지위별 직접고용 종사자 현황: 생활시설

(단위: 명,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생활시설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등
전체 인원	15.8 (14.4)	10.1 (10.3)	15.7 (14.4)	22.4 (14.5)	15.1 (16.0)
상용직	98.6	99.6	97.9	99.0	99.4
정규직	92.5	98.0	88.5	95.2	97.1
기간제계약직	4.9	1.6	7.4	2.9	2.1
무기계약직	1.2	—	1.9	0.9	0.2
임시 및 일용직	0.5	0.3	0.5	0.5	0.6
자영업자	—	—	—	—	—
무급가족종사자	0.7	—	1.2	0.4	—
타사업체파견종사자	0.3	0.1	0.5	—	—
계	100.0 (524)	100.0 (106)	100.0 (273)	100.0 (103)	100.0 ( 42)

주: 1)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2) 계의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이용시설의 사업체 유형별 직접고용 종사자 현황을 제시하는 〈표 6-1-11〉을 살펴보면, 지역복합시설의 평균 인원은 30.1명으로 월등히 많았고, 바우처사업기관이 26.1명, 장기요양시설 20.0명, 노인이용시설이 18.1명, 장애인이용시설 9.6명, 보육시설 7.4명, 정신보건시설 7.3명, 아동시설 3.7명 순으로 나타났음
- 상용직의 비율도 사업체유형간 편차가 매우 큰 편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전체 종사자의 73.0%가 상용직인 반면, 정신보건시설은 100.0%가, 장애인이용시설 97.8%, 보육시설 97.0%, 노인이용시설 96.0%, 아동이용시설은 95.9%, 지역복합시설은 93.1%가 상용직
  - 바우처제공기관은 84.3%가 상용직으로 타 업체에 비해 상용직의 비율이 다소 낮은 편
  - 그러나 상용직에 포함된 기간제계약직 및 무기계약직의 비율은 바우처제공기관(45.8%), 지역복합시설이(39.9%), 노인이용시설(39.8%), 장기요양시설 (37.9%)에서 높았으며, 정신보건시설과 보육시설의 정규직 비율은 각각 92.6%와 90.4%로 높았음

〈표 6-1-11〉 사업체 유형별·종사자 지위별 직접고용 종사자 현황: 이용시설

(단위: 명,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지역복합	바우처	보육	장기요양
전체 인원	16.2 (28.8)	3.7 (14.0)	18.1 (33.8)	9.6 (21.2)	7.3 (7.0)	30.1 (36.2)	26.1 (36.8)	7.4 (5.2)	20.0 (25.4)
상용직	91.8	95.9	96.0	97.8	100.0	93.1	84.3	97.0	73.0
정규직	65.2	83.2	56.1	87.2	92.6	52.8	38.7	90.4	35.2
기간제계약직	21.1	11.4	33.4	7.0	5.7	30.6	35.1	6.2	30.8
무기계약직	5.6	1.4	6.4	3.6	1.7	9.3	10.7	0.4	7.1
임시 및 일용직	6.5	2.7	3.3	1.5	—	6.7	12.4	2.8	21.0
자영업자	1.1	0.2	—	—	—	—	2.7	0.2	5.4
무급가족종사자	0.4	1.0	0.4	0.4	—	—	0.6	—	0.5
타사업체파견종사자	0.1	0.2	0.3	0.2	—	0.2	—	—	—
계	100.0 (1,567)	100.0 (294)	100.0 (132)	100.0 (206)	100.0 ( 22)	100.0 (214)	100.0 (363)	100.0 (234)	100.0 (102)

주: 1)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2) 계의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일반사업체 유형에 포함된 사업체의 직접고용 종사자 총인원은 특수학교의 경우 85.4명으로 다른 사업체 유형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매우 컸음

—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이 30.0명, 교육자문 및 평가업이 26.5명, 사회교육시설 16.3명, 고용알선업 10.8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9.4명, 시민운동단체 8.7명, 세무사업 6.3명, 법무서비스업 3.1명의 순

○ 특수학교는 상용직의 비중이 98.2%(정규직 64.5%), 세무사업은 상용직의 비중이 98.0%(정규직 97.0%), 시민운동단체 92.8%(정규직 76.1%)로 상용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법무서비스업은 상용직이 정규직(85.3%)으로만 이루어져있는 특징이 있었고, 고용알선업은 상용직의 비율이 73.7%로 가장 낮았음

—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도 상용직의 비중이 78.3%였으나, 정규직이 30.5%이고, 기간제 계약직과 무기 계약직의 비율이 47.8%로 정규직보다 많았음

— 사회교육시설도 상용직은 78.6%였으나 기간제 계약직과 무기 계약직이



34.1%로 나타났다

-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은 임시 및 일용직이 20.7%, 사회교육시설도 18.7%로 타 유형에 비해 임시 및 일용직의 비중이 높았음
- 법무서비스업의 경우 자영업자가 12.7%로 나타났고, 고용알선업도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15.3%로 파악되었음

〈표 6-1-12〉 사업체 유형별·종사상 지위별 직접고용 종사자 현황: 일반사업체

(단위: 명, %)

	일반사업체									
	전체	법무서비스업	세무사업	고용알선업	교육자문평가업	기술직업훈련학원	사회교육시설	특수학교	개인간병유사서비스업	시민운동단체
전체 인원	16.1 (29.8)	3.1 (6.0)	6.3 (9.1)	10.8 (18.9)	26.5 (67.1)	9.4 (12.6)	16.3 (20.1)	85.4 (34.9)	30.0 (41.7)	8.7 (11.1)
상용직	85.9	85.3	98.0	73.7	88.5	90.4	78.6	98.2	78.3	92.8
정규직	60.1	85.3	97.0	53.0	74.4	56.2	44.6	64.5	30.5	76.1
기간제계약직	20.6	-	0.2	16.7	11.9	27.1	27.5	21.8	41.3	10.2
무기계약직	5.2	-	0.7	4.0	2.3	7.2	6.6	11.9	6.5	6.6
임시 및 일용직	9.7	2.0	0.9	11.0	8.6	8.0	18.7	1.8	20.7	5.3
자영업자	3.2	12.7	1.0	9.6	2.6	1.3	1.8	-	1.1	0.6
무급가족종사자	1.1	-	0.2	5.7	0.3	0.3	0.4	-	-	0.9
타사업체파견종사자	0.1	-	-	-	-	-	0.5	-	-	0.4
계	100.0 (1,303)	100.0 ( 68)	100.0 (188)	100.0 (214)	100.0 ( 50)	100.0 (357)	100.0 (130)	100.0 ( 51)	100.0 (188)	100.0 ( 57)

주: 1)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2) 계의 괄호 안은 사례 수임.

## 나. 파트타임 종사자

□ 파트타임 종사자를 별도로 조사하였는데, 2012년 1년간 사업체에 직접 고용된 종사자 가운데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로서, 정규직(전일제), 기간제계약직, 임시 및 일용직, 다른 사업체로 보낸 종사자 중 1일 기준으로 '8시간 미만' 근무하는 종사자의 수를 기입하도록 하여, 앞에 제시된 직접고용 종사자에 포함된 인 규모임

○ 〈표 6-1-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접고용 현황이 파악된 3,394개의 사업체

중 12.1%인 409개 사업체에서 파트타임 근로자가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체유형별로 보면 파트타임 근로자가 종사하는 비율은 각각 생활시설 5.0%, 이용시설 20.5%, 일반사업체는 4.7%의 순

－ 2009년도 공급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4,121개 사업체 가운데 14.3%인 589개 사업체가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

○ 사업체유형별로 파트타임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 비율을 비교했을 때에도 생활시설은 5.8%, 이용시설 16.4%, 일반사업체 12.2%로 나타나, 이번 2013년도 공급 조사에 비해 이용시설의 비중은 늘어나고, 일반사업체는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표 6-1-13〉와 같이 파트타임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만 평균 인원을 산출하면, 생활시설 12.2명, 이용시설 16.9명, 일반사업체는 12.5명

－ 이를 조사대상 전체 사업체 평균으로 산출하면, 전체 평균 1.9명, 생활시설 0.6명, 이용시설 3.5명, 일반사업체 0.6명에 해당

－ 이는 각각 직접고용 종사자 수 대비 20.6%, 21.0%, 35.3%, 2.7%에 해당되는 규모

○ 2009년도 공급실태조사와 대비하면 파트타임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의 평균 인원을 살펴볼 때 생활시설 4.3명, 이용시설 11.2명, 일반사업체 10.6명으로 생활시설의 평균인원이 이번 조사에서 증가됨을 알 수 있음

－ 전체평균으로도 1.5명, 생활시설 0.2명, 이용시설 1.8명, 일반사업체 1.3명에 해당되며 각각의 직접고용 종사자 수 대비 8.7%, 1.2%, 11.6%, 5.2%로 나타나, 이번 2013년도 공급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직접고용 종사자 대비 비율에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표 6-1-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상용직은 1.5명(정규직은 0.7명, 기간제계약직 0.6명, 무기계약직 0.2명), 임시 및 일용직 0.4명으로 나타났음

○ 현재 종사상 지위별로 모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일부 사업체에 극

히 소수인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

- 이용시설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높았는데, 기간제 계약직(1.1명)과 무기 계약직(0.4명), 임시 및 일용직(0.6명)이 많은 편
- 또한 이용시설은 각 사업체 유형에 포함된 개별 사업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SD= 21.9).

〈표 6-1-13〉 사업체 유형별 파트타임 종사자 현황 비교(2009 vs 2013): 전체 사업체

(단위: 개소, %, 명)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2009	2013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응답업체 수 <sup>1)</sup>	589 (14.3)	409 (12.1)	33 (5.8)	26 (5.0)	479 (16.4)	322 (20.5)	77 (12.2)	61 (4.7)
전체	1.5 (8.3)	1.9 (16.6)	0.2 (1.7)	0.6 (8.9)	1.8 (9.2)	3.5 (23.5)	1.3 (7.3)	0.6 (2.1)
(응답업체 평균) <sup>2)</sup>	10.7 (19.6)	16.0 (45.5)	4.3 (6.1)	12.2 (38.8)	11.2 (20.3)	16.9 (49.7)	10.6 (18.6)	12.5 (14.5)
(직접고용종사자 대비 비율)	8.7	20.6	1.2	21.0	11.6	35.3	5.2	2.7
상용직	0.5 (4.1)	1.5 (15.4)	0.3 (1.8)	0.6 (8.9)	0.6 (4.8)	2.9 (21.9)	0.2 (1.2)	0.2 (3.0)
정규직	0.1 (0.7)	0.7 (12.2)	0.1 (0.9)	0.6 (8.9)	0.1 (0.6)	1.3 (17.3)	0.1 (0.7)	- (0.1)
기간제계약직	0.4 (4.0)	0.6 (6.0)	0.1 (0.4)	-	0.5 (4.7)	1.1 (8.4)	0.1 (1.1)	0.2 (2.9)
무기계약직	-	0.2 (3.0)	-	-	-	0.4 (4.3)	-	-
임시 및 일용직	1.1 (7.3)	0.4 (3.5)	0.1 (1.4)	- (0.2)	1.2 (7.9)	0.6 (4.4)	1.1 (7.2)	0.3 (2.8)

주: 1) 응답업체 수의 괄호안은 조사대상 전체 사업체 대비 응답업체의 비율을 의미함.

2) 응답업체 평균인원은 파트타임 종사자를 기입한 응답업체만으로 산출한 평균 인원임.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3) 응답업체 평균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표준편차)인원은 전체 조사대상업체를 100으로 한 평균치를 제시한 것임.

○ 세부 사업체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표 6-1-14〉에 제시된 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생활시설의 파트타임 종사자는 전체 평균 0.6명이며 그 가운데 상용직이 0.6명을 차지

- 세부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생활시설의 파트타임 종사자 수가 2.1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노인생활시설 0.3명, 장애인과 정신보건 관련 생활시설 0.1명

〈표 6-1-14〉 사업체 유형별 파트타임 종사자 현황: 생활시설

(단위: 명)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생활시설				
	전체 (N=524)	아동 (N=106)	노인 (N=273)	장애인 (N=103)	정신보건등 (N=42)
전체	0.6 (8.9)	2.1 (19.5)	0.3 (2.0)	0.1 (0.6)	0.1 (0.3)
상용직	0.6 (8.9)	2.1 (19.5)	0.3 (2.0)	—	0.1 (0.3)
정규직	0.6 (8.9)	2.1 (19.5)	0.3 (2.0)	—	—
기간제계약직	—	—	—	—	—
무기계약직	—	—	—	—	—
임시 및 일용직	—	—	—	—	—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 이용시설의 경우 〈표 6-1-15〉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용시설의 파트타임 종사자는 평균 3.5명이며, 상용직은 평균 2.9명, 임시 및 일용직은 0.6명이었고, 상용직 가운데 정규직 1.3명, 기간제 계약직 1.1명, 무기계약직 0.4명으로 파악
- 세부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바우처제공기관과 장기요양시설의 파트타임 종사자 수가 각각 9.6명과 6.3명으로 두드러진 편
  - 지역복합시설 3.2명, 정신보건관련 이용시설 1.5명, 노인 이용시설 1.2명의 순
  - 바우처제공기관의 상용직은 7.8명으로 그 중 4.5명이 정규직이었고, 기간제계약직 및 무기계약직은 3.2명, 임시 및 일용직이 1.8명
  -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상용직 5.0명에 정규직 1.9명, 기간제계약직 및 무기계약직이 3.1명, 임시 및 일용직이 1.3명으로 타 이용시설 사업체 유형과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었음

〈표 6-1-15〉 사업체 유형별 파트타임 종사자 현황: 이용시설

(단위: 명)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 (N=1,567)	아동 (N=294)	노인 (N=132)	장애인 (N=206)	정신보건 (N=22)	지역복합 (N=214)	마우처 (N=363)	보육 (N=234)	장기요양 (N=102)
전체	3.5 (23.5)	0.7 (3.2)	1.2 (3.6)	0.9 (5.4)	1.5 (6.4)	3.2 (11.3)	9.6 (45.5)	0.3 (0.7)	6.3 (23.8)
상용직	2.9 (21.9)	0.6 (3.2)	1.1 (3.6)	0.8 (5.1)	1.5 (6.4)	2.9 (11.1)	7.8 (42.2)	0.2 (0.6)	5.0 (23.4)
정규직	1.3 (17.3)	0.3 (0.9)	0.3 (1.6)	0.6 (4.9)	0.1 (0.4)	0.1 (0.6)	4.5 (34.7)	0.2 (0.5)	1.9 (14.3)
기간제계약직	1.1 (8.4)	0.4 (3.1)	0.6 (2.7)	0.1 (0.9)	1.4 (6.4)	2.3 (10.4)	2.0 (11.1)	— (0.2)	2.6 (18.7)
무기계약직	0.4 (4.3)	—	0.3 (2.0)	0.1 (1.2)	—	0.2 (1.7)	1.2 (8.6)	—	0.5 (3.5)
임시 및 일용직	0.6 (4.4)	—	—	0.1 (1.7)	—	0.3 (2.3)	1.8 (8.4)	0.1 (0.4)	1.3 (5.3)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 일반사업체에서는 파트타임 종사자가 평균 0.6명으로, 그 가운데 상용직은 0.2명, 임시 및 일용직은 0.3명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가운데에서도 기간제 계약직이 0.2명으로 파악되었음

- 세부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이 2.1명으로 다른 사업체에 비해 확연하게 파트타임의 종사자 수가 많았으며, 사회교육 시설 1.0명, 고용알선업과 특수학교가 0.5명
-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의 경우 2.1명의 파트타임 종사자 가운데 상용직은 0.8명에 불과했고, 오히려 임시 및 일용직이 1.3명

〈표 6-1-16〉 사업체 유형별 파트타임 종사자 현황: 일반사업체

(단위: 명)

[illegible]

	일반사업체									
	전체 (N=1,303)	기타법무 서비스업 (N=68)	세무사업 (N=188)	고용 알선업 (N=214)	교육자문 평가업 (N=50)	기술및 직업훈련 학원 (N=357)	사회교육 시설 (N=130)	특수학교 (N=51)	개인간병 유사 서비스업 (N=188)	시민운동 단체 (N=57)
기간제계약직	0.2 (2.9)	-	-	-	0.2 (1.0)	0.1 (1.5)	0.8 (5.6)	-	0.7 (5.7)	-
무기계약직	-	-	-	0.1 (0.7)	-	-	-	-	0.1 (1.1)	-
임시 및 일용직	0.3 (2.8)	-	-	0.5 (3.1)	-	0.1 (0.6)	0.2 (1.8)	0.5 (3.6)	1.3 (6.0)	-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 3. 간접고용 현황

- 간접고용 종사자는 해당 사업체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하고 있는 인력을 의미하는데, 이를 다시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용역 근로자, 기타 종사자로 구분하여 2012년 영업기간 중 월평균 인원을 파악하였음
- 첫째,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 사업주(인력 공급업체 사업주)를 통해 고용되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조사대상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에서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시 등 근로제공방법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
- 둘째, 특수형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종사자(예를 들어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 셋째, 용역 근로자는 다른 사업주(용역업체)가 고용하고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sup>17)</sup>로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시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17) 파견받은 종사자와 용역근로자는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고용한 사업주에 의해 지급 관리되지만 고용된 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조사대상 사업체)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파견받은 종사자는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아닌 실제로 파견된 사업체(조사 대상사업체)의 사업주에 의해 지휘 감독을 받지만, 용역근로자는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체(조사대상 사업체)의 사업주가 아닌 고용한 용역업체의 사업주에 의해 지휘감독을 받는 점이 다르다.

통해 받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 넷째, 기타종사자에는 인턴사원, 사회복지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이 파악(단, 학생 실습생은 제외)
- 〈표 6-1-17〉은 전체 조사대상 사업체의 간접고용 종사자 현황으로, 조사대상 전체 사업체의 간접고용 인력은 사업체 평균 0.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시설 0.6명, 일반사업체는 0.7명이었음
-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는 평균 0.1명, 특수형태종사자는 0.3명, 기타 종사자는 0.1명으로 파악
- 전체 사업체 중 간접고용 종사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165개소(4.9%)였으며, 생활시설은 6개소(1.1%), 이용시설 117개소(7.5%), 일반사업체 42개소(3.2%)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용시설의 간접고용 인력 활용이 두드러졌음
  - 2009년도 공급 실태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조사대상 전체 사업체의 간접고용 인력은 사업체 평균 1.3명으로, 생활시설 1.3명, 이용시설 1.1명, 일반사업체는 2.4명
  - 다른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는 평균 0.2명, 특수형태종사자 0.3명, 용역종사자 0.3명, 기타종사자는 0.5명
  - 전체 사업체 가운데 간접고용 종사자가 응답한 사업체는 825개소(19.9%)로 생활시설은 92개소(16.2%), 이용시설 609개소(20.7%), 일반사업체 124개소(19.2%)였음

〈표 6-1-17〉 사업체 유형별 간접고용 종사자 현황 비교(2009 vs 2013): 전체 사업체

(단위: 개소, %, 명)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응답업체 수 <sup>1)</sup>	825 (19.9)	165 (4.9)	92 (16.2)	6 (1.1)	609 (20.7)	117 (7.5)	124 (19.2)
계	1.3 (7.6)	0.5 (10.1)	1.3 (7.6)	— (0.3)	1.1 (6.3)	0.6 (7.3)	2.4 (11.6)	0.7 (14.1)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0.2 (2.0)	0.1 (2.3)	0.3 (2.9)	— (0.2)	0.2 (2.0)	0.2 (3.3)	0.1 (0.9)	— (0.5)
특수형태종사자	0.3 (4.8)	0.3 (9.4)	— (—)	— (0.1)	0.3 (4.2)	0.2 (5.6)	0.8 (8.4)	0.5 (13.9)
용역종사자	0.3 (3.7)	— (1.1)	0.7 (6.6)	—	0.1 (3.0)	— (0.1)	0.6 (3.0)	0.1 (1.7)
기타 종사자	0.5 (3.9)	0.1 (2.4)	0.4 (2.6)	— (0.1)	0.5 (2.9)	0.2 (3.3)	1.0 (7.4)	0.1 (1.4)

주: 1) 응답업체 수의 괄호안은 조사대상 전체 사업체 대비 응답업체의 비율을 의미함.

2)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 〈표 6-1-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시설은 간접고용 종사자가 평균 0.5명으로, 그 가운데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가 0.1명, 특수형태 종사자가 0.3명, 기타 종사자가 0.1명
- 세부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은 전체 사업체 평균 0.4명의 간접고용 인력을 (이 중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0.2명), 아동생활시설은 평균 0.3명의 간접 고용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6-1-18〉 사업체 유형별 간접고용 종사자 현황: 생활시설

(단위: 명)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생활시설				
	전체 (N=524)	아동 (N=106)	노인 (N=273)	장애인 (N=103)	정신보건등 (N=42)
전체	0.5 —	0.3 —	0.2 —	0.4 —	0.1 —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0.1 —	0.2 —	0.2 —	0.3 —	0.1 —
특수형태종사자	0.3 —	0.1 —	—	0.2 —	—
용역종사자	—	—	—	—	—
기타 종사자	0.1 —	0.1 —	—	0.2 —	—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가운데 간접고용 종사자 현황을 보면 전체 평균 0.6명 가운데,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및 특수형태종



사자, 기타 조사자 모두 0.2명으로 파악되었음

- 세부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복합시설이 전체 사업체 평균 2.2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 중 특수형태종사자는 1.0명, 기타종사자 0.6명
- 아동 이용시설은 0.6명 간접고용 종사자 가운데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가 0.5명으로 나타났고,
- 바우처 제공기관은 0.5명의 간접 고용 종사자 가운데, 특수형태 종사자는 0.2명, 기타 종사자 0.3명으로 확인

〈표 6-1-19〉 사업체 유형별 간접고용 종사자 현황: 이용시설

(단위: 명)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 (N=1,537)	아동 (N=294)	노인 (N=132)	장애인 (N=206)	정신보건 (N=22)	지역복합 (N=214)	바우처 (N=363)	보육 (N=234)	장기요양 (N=102)
전체	0.6 (7.3)	0.6 (1.3)	0.1 (0.5)	0.1 (0.9)	-	2.2 (18.7)	0.5 (4.7)	0.1 (0.3)	0.1 (0.4)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0.2 (3.3)	0.5 (1.2)	-	-	-	0.6 (8.8)	-	-	-
특수형태종사자	0.2 (5.6)	-	-	-	-	1.0 (14.3)	0.2 (3.9)	-	-
용역종사자	-	-	-	-	-	-	-	-	-
기타 종사자	0.2 (3.3)	0.1 (0.4)	-	0.1 (0.8)	-	0.6 (8.2)	0.3 (2.7)	-	-

○ 일반사업체에서는 간접고용 종사자를 평균 0.7명 활용하는데, 그 가운데 특수형태 종사자가 0.5명, 기타 종사자 및 용역 종사자가 각각 0.1명으로 나타났음

- 세부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용 알선업은 전체 사업체 평균 2.5명의 간접 고용 종사자를 두고 있었으며 이 중 특수형태종사자가 2.4명인
- 특수학교는 간접고용 종사자가 평균 1.4명으로 이 중 기타 종사자가 1.1명이었고, 사회교육시설은 평균 1.3명 가운데, 특수형태 종사자 0.6명을 간접 고용 종사자로 활용

〈표 6-1-20〉 사업체 유형별 간접고용 종사자 현황: 일반사업체

(단위: 명)

	일반사업체									
	전체 (N=1,338)	법무 서비스업 (N=68)	세무사업 (N=188)	고용 알선업 (N=214)	교육자문 평가업 (N=50)	기술및 작업훈련 학원 (N=357)	사회교육 시설 (N=130)	특수학교 (N=51)	개인간병 유사 서비스업 (N=188)	시민운동 단체 (N=57)
전체	0.7 (14.1)	-	-	2.5 (34.2)	0.3 (1.6)	0.3 (3.3)	1.3 (5.6)	1.4 (3.5)	0.1 (1.2)	0.1 (0.8)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	-	-	-	0.3 (1.6)	-	0.1 (1.1)	0.1 (0.5)	-	0.1 (0.8)
특수형태종사자	0.5 (13.9)	-	-	2.4 (34.2)	-	-	0.6 (4.1)	-	-	-
용역종사자	0.1 (1.7)	-	-	-	-	0.2 (3.3)	-	0.2 (0.7)	-	-
기타 종사자	0.1 (1.4)	-	-	-	-	-	0.5 (3.5)	1.1 (3.3)	0.1 (1.2)	-

## 4. 직종별 고용현황

□ 사회서비스 사업체에서 고용된 근로자를 직종별로 파악하였는데, 직종은 관리직, 전문직 및 준전문직(직접서비스인력), 사무직, 단순직, 그 외 직종종사자로 구분하였음

○ 이는 직무 내용과 전문성(유자격) 수준, 종사상 지위 등이 함께 고려된 구분으로서 명확하게 배타성을 갖지 못하지만, 사회서비스 사업의 특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범주로 구성하였음

○ 따라서 2가지 이상의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보다는 수행중인 ‘직무(업무)’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전문직/준전문직(자격증소지자)이 관리직을 담당할 경우 관리직에 기입하고, 전문직/준전문직(자격증소지자)이 사무직을 주 업무(60%이상)로 담당할 경우 사무직에 기입하도록 하였음

○ 또한 2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주 업무(60%이상)를 기준으로 한 곳에만 기입하도록 하였음

○ 각 해당 직종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직접고용 근로자 중 기간제계약직, 무기계약직과 임시 및 일용근로자) 모두 포함한 인원을 기준으로 기입하였음

- 전체 근로자 수는 2012년 12월 말 현재 직접고용 종사자 중에서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총 수를 의미하며,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와 성별 종사자 수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하였음<sup>18)</sup>
- 직종의 구분은 사회복지사업 실시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과 사업지침 등을 참고하여 보다 광범위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세분화된 직종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음
  - ① 관리직: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역사회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 등의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인력(시설장 및 국장, 부장, 실장, 총무 등)
  - ② 전문직/준전문직(직접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과 인접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사회복지사/생활복지사, 특수교육교사, 보육교사, 임상심리상담사 등)
    - 의료보건: 환자의 진료 혹은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신체적 장애, 정신 질환이나 불안정 등의 장애를 치료하는 전문 인력(의사, 간호사, 재활전문인력, 치과위생사, 영양사 등)
    - ※ 전문직에는 관리직, 사무직에 기입한 인원을 제외함(예를 들어, 관장, 사무국장이 사회복지사자격증 혹은 의사자격증이 있어도 이를 전문직에 포함하지 않음)
    -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제39조 2항에 의거하여 광역시도에서 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법에서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하여 1급(2급)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인력
    - 가정봉사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인력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함
    -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이 없더라도 사회복지 시설에서 시설생활자들의 생활전반을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생활재활교사/보육사)

18) 앞서 파악한 직접고용 근로자 수는 2012년 1년간 기준이므로, 직접고용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총 수(월평균)와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한 직종별 인원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간병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으며 바우처사업에 의해 고용된 인력을 제외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 기타: 위에 제시되지 않은 직접서비스 제공 인력

③ 사무직: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금전 취급활동, 법률 및 감사, 상담 및 행정과 관련하여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행정 사무원, 회계 및 경리 사무원, 방문고객 상담원, 시설예약 접수원 등이 포함)

④ 단순직: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같이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경비원, 청소원, 주차관리원 등 포함)

○ 〈표 6-1-21〉은 직종별 종사자 현황을 제시한 결과로서, 본 분석에서는 평균 인원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음

- 첫째, 다른 조사문항 분석에서의 평균 산출과 동일하게 응답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균인원

- 둘째, 이와 달리 각 직종별로 고용된 인원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인원

- 이는 세부 직종별로 모든 사업체에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평균치를 활용할 경우, 전체 사업체 중 어느 정도의 사업체에서 고용이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가 없고, 특히 전문직과 준전문직, 직접서비스 인력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특화된 고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현재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먼저 〈표 6-1-2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사업체를 기준으로 한 평균 인원을 살펴보면 취업자 인원 16.1명 중에 관리직은 1.1명, 전문직 및 준전문직(직접서비스인력)은 12.8명, 사무직 1.3명, 단순직 0.5명, 그 외 직종 종사자는 0.4명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본 문항에 응답한 3,394개 사업체 가운데 관리직이 있는 사업체는 2,205개소였으며, 전문직 및 준전문직(직접서비스인력)은 2,289개소로 나타났음

- 따라서 전문직 및 준전문직의 직접서비스 인력이 있는 사업체만 한정할 경

우 평균 15.0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

○ 또한 종사상 지위별,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인력의 정규직 비중은 69.9%였으나, 이는 직종별로 큰 편차를 보였음

- 관리직(95.6%)과 사무직(86.2%)은 정규직 비율이 높은 반면, 단순직(52.9%) 뿐만 아니라 전문직 및 준전문직(직접서비스인력)도 64.2%에 불과
- 전체 인력의 성별비중은 남성이 23.3%, 여성이 76.7%였는데, 전문직/준전문직(직접서비스인력)은 82.1%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직은 47.4%가 여성으로 보고
- 2009년도 공급실태조사의 결과를 이번 조사와 비교하면, 전체 사업체를 기준으로 한 평균 인원에서 취업자 인원은 17.7명으로 그 중 관리직은 1.3명, 전문직 및 준전문직 7.6명, 직접서비스인력 5.7명, 사무직 1.1명, 단순직 1.2명, 그 외 직종 종사자는 0.8명으로 나타났음
- 2009년도 분석 당시, 해당 문항에 응답한 4,063개 사업체 가운데 관리직이 있는 사업체는 2,803개소였으며, 전문직 및 준전문직은 3,384개소, 직접서비스인력이 있는 곳은 1,235개소에 불과

○ 따라서 직접서비스 인력이 있는 사업체만 한정할 경우에는 평균 18.9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종사상지위별, 성별 비중에서는 전체 인력의 정규직 비중은 63.5%였으나, 이는 직종별로 큰 편차가 나타났음
- 관리직(94.1%)과 사무직(81.5%)은 정규직 비율이 높았으나 단순직(43.9%)과 전문직 및 준전문직은 73.1%에 불과
- 전체 인력의 성별비중은 남성이 23.4%, 여성이 76.6%였으나, 직접서비스인력은 91.0%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직은 44.6%가 여성

〈표 6-1-21〉 직종별 종사자 현황 비교(2009 vs 2013)

(단위: 개소, 명, %)

	응답업체1)		평균 인원				종사상지위별 비중				성별 비중			
			응답업체 평균2)		전체업체 평균3)		정규직		비정규직		남자		여자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전체	4,063	3,394	17.7	16.1	17.7	16.1	63.5	69.9	36.5	30.1	23.4	23.3	76.6	76.7
관리직	2,803	2,205	1.8	1.8	1.3	1.1	94.1	95.6	5.9	4.4	55.4	52.6	44.6	47.4
전문·직·준전문직 (직접서비스인력)	3,384	2,896	9.1	15.0	7.6	12.8	73.1	64.2	26.9	35.8	19.9	17.9	80.1	82.1
	1,235		18.9		5.7		36.7		63.3		9.0		91.0	
사무직	1,193	1,103	4.0	3.9	1.1	1.3	81.5	86.2	18.5	13.8	28.9	23.9	71.1	76.1
단순직	827	303	5.7	6.3	1.2	0.5	43.9	52.9	56.1	47.1	30.0	43.6	71.0	56.4
그 외 직종종사자	393	209	8.6	7.6	0.8	0.4	53.2	57.1	46.8	42.9	45.4	41.7	54.6	58.3

주: 1) 응답업체는 각 세부 직종별로 해당 인력이 있는 것으로 기입한 사업체 즉, 실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체를 의미함.

2) 각 직종별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1명이상인 사업체의 평균 인원을 산출함.

3) 각 직종별로 고용인력이 없어도 본 문항에 응답한, 전체 응답 사업체 3,394개소의 평균 인원임.

4) 2009년도 공급실태조사에서는 ‘전문·직·준전문직’과 ‘직접서비스인력·서비스직’을 구분하여 조사함.

□ 〈표 6-1-22〉에서 사회서비스부문의 특성에 따라 사회서비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전문직과 준전문직(직접서비스인력)을 세분하여 고용현황을 파악하였음

○ 전문직종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가 전체 시설평균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생활복지사 포함)가 전체 시설 평균 2.1명, 특수교육교사 1.0명, 그 외 교사 및 강사가 0.9명 등의 순

- 상담지도원 및 임상심리상담원은 155개 업체에 평균 2.7명이 고용되어 있었고, 69.6%가 정규직
- 보육교사는 269개 업체에 평균 5.5명이며, 89.9%가 정규직이었다. 평생교육사는 43개 업체에 5.9명을 고용하고, 67.5%의 정규직을 구성
- 직업훈련교사는 128개 업체가 평균 21.8명을 고용하고 있었고, 73.2%가 정규직
- 요양보호사는 793개 업체에 평균 19.4명, 미술/음악/놀이치료사는 161개 업종에 4.4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두 직종은 각각 비정규직 비율이 51.8%, 70.9%로 타 직종에 비해 높았음

-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은 사회복지사·생활복지사와 생활지도원(90.3%), 보육교사(89.9%), 물리치료사(88.6%), 간호사(87.9%), 영양사(84.2%), 직업재활사(83.8%), 간호조무사(83.4%)의 순
- 여성인력 비율도 의사(남성비율 84.5%)를 제외하고는 여성비율이 70~90%를 크게 상회

〈표 6-1-22〉 전문직-준전문직(직접서비스인력) 직종별 현황

(단위: 개소, 명, %)

	응답업체 <sup>1)</sup>	평균 인원		종사상지위별 비중		성별 비중	
		응답업체 평균 <sup>2)</sup>	전체업체 평균 <sup>3)</sup>	정규직	비정규직	남자	여자
전문직/준전문직	2,708	15.0	12.8	64.2	35.8	17.9	82.1
사회복지사/생활복지사	1534	3.9	2.1	90.3	9.7	26.5	73.5
상담지도원/임상심리상담사	155	2.7	0.1	69.6	30.4	18.9	81.1
교사(보육)	269	5.5	0.5	89.9	10.1	2.0	98.0
교사(아동 복지)	115	2.0	0.1	40.8	59.2	6.4	93.6
교사(특수 교육)	128	21.8	1.0	73.2	26.8	29.3	70.7
교사(직업훈련)	240	5.3	0.4	55.9	44.1	29.6	70.4
그 외 교사/강사	321	8.1	0.9	32.3	67.7	22.8	77.2
평생교육사	43	5.9	0.1	67.5	32.5	23.1	76.9
의사	51	1.3	—	71.6	28.4	84.5	15.5
간호사	316	1.6	0.2	87.9	12.1	2.1	97.9
간호조무사	305	1.5	0.2	83.4	16.6	3.3	96.7
재활전문인력(물리치료사)	193	1.6	0.1	88.6	11.4	31.1	68.9
재활전문인력(직업재활사)	64	2.8	0.1	83.8	16.2	27.3	72.7
재활전문인력(언어치료사)	147	2.9	0.1	48.2	51.8	4.6	95.4
미술/음악/놀이치료사	161	4.4	0.2	29.1	70.9	6.4	93.6
요양보호사	793	19.4	5.3	48.2	51.8	5.8	94.2
가정봉사원	11	4.1	—	61.7	38.3	19.6	80.4
생활지도원	132	8.4	0.4	90.3	9.7	36.2	63.8
영양사	285	1.2	0.1	84.2	15.8	0.7	99.3
간병인	22	21.4	0.2	41.0	59.0	4.8	95.2
기타	752	10.8	2.8	61.9	38.1	22.9	77.1

주: 1) 응답업체는 각 세부 직종별로 해당 인력이 있는 것으로 기입한 사업체 즉, 실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체를 의미함.

2) 각 직종별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1명이상인 사업체의 평균 인원을 산출함.

3) 각 직종별로 고용인력이 없어도 본 문항에 응답한, 전체 응답 사업체 3,394개소의 평균 인원임.

- 〈표 6-1-23〉은 직종별 고용 인원을 사회서비스 사업체유형별로 세분하여 파악한 결과로, 전체 평균 인원은 생활시설 16.0명, 이용시설 16.0명, 일반사업체 16.4명으로서, 직접고용 분석 〈표 6-1-9〉에서 산출된 15.8명, 16.2명, 16.1명과 근소한 차이를 보임
- － 이는 조사기준 시점의 차이와 응답 사업체 수의 차이(직종별 분석에 응답한 사업체와 직접고용 분석에 포함된 사업체의 응답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표 6-1-23〉 사회서비스 사업체 유형별·직종별 고용 인원 비교(2009 vs 2013)

(단위: 명, 개소)

	전체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전체	17.7 (4,063)	16.1 (3,394)	16.6 (564)	16.0 (524)	16.0 (2,894)	16.0 (1,567)	26.6 (605)	16.4 (1,303)
관리직	1.8 (2,803)	1.8 (2,205)	1.6 (426)	1.9 (400)	1.6 (1,924)	1.9 (885)	3.0 (453)	1.6 (920)
전문직·준전문직 (직접서비스인력·서비스직) <sup>1)</sup>	9.1 (3,384)	15.0 (2,896)	8.5 (520)	13.7 (519)	6.9 (2,443)	14.0 (1,516)	22.6 (421)	17.6 (861)
	18.9 (1,235)		10.9 (283)		21.2 (897)		20.7 ( 55)	
사무직	4.0 (1,193)	3.9 (1,103)	2.4 (164)	1.8 (133)	2.8 (714)	2.0 (270)	7.6 (315)	5.0 (700)
단순직	5.7 (827)	6.3 ( 303)	2.7 (163)	2.2 ( 68)	6.5 (516)	9.2 (110)	6.1 (148)	6.1 (125)
그 외 직종종사자	8.6 (393)	7.6 ( 209)	4.3 ( 74)	3.2 ( 51)	9.4 (239)	8.0 ( 90)	10.3 ( 80)	10.6 ( 68)

주: 1) 2009년도 공급실태조사에서는 ‘전문직·준전문직’과 ‘직접서비스인력·서비스직’을 구분하여 조사함.

2) 괄호 안은 응답업체 개소 수임.

## 5. 신규 고용 및 이직 현황

- 〈표 6-1-24〉는 이와 같이 파악한 고용동향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2009년과 2013년도의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응답하지 않은 업체는 신규자, 이퇴직자, 추가필요인력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전체 조사 사업체의 평균 인원도 산출해 보았음

- 2013년도 조사결과, 전체 3,394개 사업체의 2012년 연간 신규자 수는 사업체당 평균 1.8명, 2012년 연간 이직자는 1.6명,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



력의 수는 0.5명으로 나타났음

- 전체 조사사업체의 2012년 말 평균 직접고용 인력(16.1명)대비 비율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신규자 수는 9.7%, 연간 이직자는 9.7%, 추가 필요인력 수는 6.0%
- 2009년도 공급실태조사에서 파악한 고용동향 관련 자료의 분석 결과는 전체 4,150개 사업체의 2008년 연간 신규자 수는 사업체당 평균 2.20명, 2008년 연간 이·퇴직자는 1.43명,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력의 수는 0.41명였음
- 전체 조사사업체의 2008년 말 평균 직접고용 인력(17.7명)대비 비율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신규자 수는 12.8%, 연간 이·퇴직자는 8.3%, 추가 필요인력 수는 2.4%

〈표 6-1-24〉 사회서비스 사업체 고용 동향 비교(2009 vs 2013)

(단위: 개소, 명, %)

		전체							
		2009		2013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연간 신규자	응답업체	1,169	1,042	180	132	866	597	123	313
	응답업체 평균	7.8	5.8	6.5	4.7	8.1	5.7	7.5	6.3
	합계인원	9,130	5,908	1,177	613	7,037	3,383	916	1,912
	전사업체 평균 <sup>1)</sup>	2.20	1.8	2.07	1.2	2.40	2.2	1.42	1.5
	08 12현원대비 비율	12.8	9.7	13.4	8.2	15.5	12.8	5.7	6.6
연간 이직자	응답업체	1,138	1,039	181	135	841	594	116	310
	응답업체 평균	5.2	5.4	5.6	4.7	5.1	5.2	5.7	6.0
	합계인원	5,933	5,473	1,015	628	4,253	3,019	665	1,826
	전사업체 평균 <sup>1)</sup>	1.43	1.6	1.78	1.2	1.45	1.9	1.03	1.4
	08 12현원대비 비율	8.3	9.7	11.5	8.6	9.4	12.5	4.1	6.8
추가 필요인력	응답업체	577	532	91	99	439	359	47	74
	응답업체 평균	2.9	3.3	3.1	3.5	3.0	3.2	2.3	3.8
	합계인원	1,691	1,710	279	344	1,302	1,118	110	248
	전사업체 평균 <sup>1)</sup>	0.41	0.5	0.49	0.7	0.44	0.7	0.17	0.2
	08 12현원대비 비율	2.4	6.0	3.2	7.1	2.9	9.6	0.7	1.3

주: 1) 전 사업체 평균은 본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사업체를 포함한 전체 조사대상 사업체의 평균인원임. 즉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본 것임. 예컨대, 응답업체 평균 신규자는 신규채용이 있었던 사업체가 실제 채용한 평균인원이 5.8명이며, 전 사업체 평균 신규자는 조사사업체 전체 평균 신규채용이 1.8명임을 의미함.

## 제2절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제도 현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복지후생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유형의 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음

○ 조사대상 복리후생제도는 ①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 이외의 별도 수당 지급), ②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 유급휴일, 병가), ③주거비 보조(임대주택/사택, 기숙사, 주택 구입 자금 대여, 전월세 자금 지원 등), ④건강보건관련 비용지출 지원(의료서비스, 건강검진 등), ⑤식사비 보조(식비지원, 급식시설 운영, 외부식당 이용, 식권 제공 등), ⑥문화·체육·오락비용 보조(도서관, 휴게실, 운동장, 체육관 샤워시설, 사내동호회 지원), ⑦사보험료 지원(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개인연금 등의 사보험료 지원), ⑧경조비(결혼·출산 축의금, 사망 조의금, 상병 위로금, 퇴직 전별금 등), ⑨자녀학비 보조(근로자 자녀의 정규 학교 학자금 지원 등), ⑩보육 지원(탁아 및 양육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⑪근로자 휴양 지원(휴양소, 콘도미니엄, 상여에 포함되지 않은 하계 휴가비), ⑫통근 비용(통근버스, 주차비 지원 등), ⑬자기계발 지원(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수강비 등), ⑭근로자 상담(상담전문가에 의한 고충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⑮탄력근무제(근무시간(출퇴근시간)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⑯기타 등 16가지를 제시

○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사업체에서 운영중인 제도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음

○ 〈표 6-2-1〉에서 사업체유형별로 복리후생제도를 평균적으로 몇 가지 제공하는지 살펴보았는데, 전체 3,394개의 시설 가운데 평균 2.4개의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시설(524개소)의 경우 평균 2.9개 제공하였으며, 그 가운데 장애인생활시설(103개소)이 평균 3.3개로 가장 많은 복리후생제도를 실시
- 이용시설(1,567개소) 가운데에서는 평균적으로 2.5개의 복리후생제도가 수행되고 있었으며, 지역복합시설에서 3.5개로 가장 많았고, 정신보건등 이용시설 3.2개, 보육시설 2.9개 순

- 또한 아동이용시설이 평균 1.1개로 가장 저조한 복리후생제도 기반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사업체(1,303개소)의 경우 평균 2.2개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특수학교가 평균 5.3개로 가장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시행
- 교육관련자문 및 평가업이 3.8개, 사회교육시설 3.2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알선업은 1.3개, 법무서비스업과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은 1.5개로 저조

〈표 6-2-1〉 사업체 유형별 평균 복리후생제도 운영 수

(단위: 개소)

	사업체 개소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94	2.4	2.2
생활시설	524	2.9	2.2
아동생활시설	106	2.7	2.5
노인생활시설	273	2.9	2.0
장애인생활시설	103	3.3	2.3
정신보건생활시설	42	2.8	1.6
이용시설	1,567	2.5	2.1
아동이용시설	294	1.1	1.1
노인이용시설	132	2.5	2.1
장애인이용시설	206	2.4	2.0
정신보건이용시설	22	3.2	2.8
지역복합시설	214	3.5	2.4
바우처제공기관	363	2.6	2.0
보육시설	234	2.9	2.0
노인장기요양시설	102	2.6	2.4
일반사업체	1,303	2.2	2.2
법무관련서비스업	68	1.5	1.9
세무사업	188	2.4	1.5
고용알선업	214	1.3	1.7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50	3.8	3.0
기술및직업훈련학원	357	2.3	2.0
사회교육시설	130	3.2	3.0
특수학교	51	5.3	2.9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188	1.5	1.7
기타 시민운동단체	57	1.9	1.8

- 〈표 6-2-2〉를 통해 각 사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는 식사비 보조로 전체 3,653개 사업체중 48.7%가 시행
- 세부 사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시설(543개소)의 53.6%, 이용시설(1,754개소)의 40.8%, 일반사업체(1,356개소)의 57.0%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식사비보조에 이어, 초과근무수당(41.3%), 경조비(39.8%), 유급휴가(39.0%)순
  - 초과근무수당은 생활시설에서 62.4%인데 비해, 이용시설 41.3%, 일반사업체 32.9%로 생활시설에서 가장 높은 비중 보였음
  - 경조비는 생활시설 40.3%, 이용시설 41.1%, 일반사업체 37.9%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유급휴가의 경우 생활시설 49.2%, 이용시설 44.0%, 일반사업체는 28.5%로 일반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음
- 가장 시행이 미미한 복리후생제도는 주거비 보조로 전체 3,653개 사업체중 1.9%의 사업체에서만 운영(생활시설 4.1%, 이용시설 1.5%, 일반사업체 1.6%)
- 보육지원 또한 전체 2.1%에서 제공되었는데, 생활시설 1.3%, 이용시설 1.5%, 일반사업체는 3.1% 수준이었으며, 자녀학비 보조 4.2%, 종사자 휴양지원은 전체 분석사례의 4.8% 수준에 불과
- 〈표 6-2-3〉에서부터 〈표 6-2-5〉까지는 세부 사업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 〈표 6-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시설의 경우 62.4%가 초과근무수당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아동생활시설의 73.4%가 수행
  - 생활시설의 53.6%가 식사비 보조를 지원하였는데, 노인생활시설 65.4%가 시행하고 있었고, 유급휴가는 전체 중 49.2%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로, 장애인생활시설과 정신보건시설에서 각각 63.5%, 64.6%로 제공
  - 보육지원은 전체 중 1.3%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장애인생활시설과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아예 제공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였음
  - 자녀학비보조의 경우에도 1.8%로 저조한 수준이었는데, 아동생활시설 2.8%, 노인시설 1.4%, 장애인시설 2.9%였으며, 정신보건시설은 지원하지 않았음

〈표 6-2-2〉 복리후생제도 운영 현황: 전체 사업체

(단위: %)

	전체 (N=3,653)	보건복지부소관시설		일반사업체 (N=1,356)
		생활시설 (N=543)	이용시설 (N=1,754)	
식사비보조	48.7	53.6	40.8	57.0
초과근무수당	41.3	62.4	41.3	32.9
유급휴가	39.0	49.2	44.0	28.5
경조비	39.8	40.3	41.1	37.9
기타	20.2	13.4	17.8	26.0
건강보건관련비용지출지원	14.4	17.9	13.4	14.3
탄력근무제	13.5	13.3	16.9	9.1
통근비용	9.7	13.8	9.0	8.8
자기개발지원	8.5	5.9	9.6	8.0
종사자상담	6.3	6.4	8.2	3.8
사회보험료지원	5.8	7.6	6.3	4.4
문화·체육·오락비용보조	5.3	7.6	5.2	4.5
종사자휴양지원	4.8	5.0	3.9	5.9
자녀학비보조	4.2	1.8	3.0	6.7
보육지원	2.1	1.3	1.5	3.1
주거비보조	1.9	4.1	1.5	1.6

주: 중복 응답 문항으로, 해당하는 모든 제도를 표시하도록 함. 예를 들면, 전체 시설 3,394개소 사업체 중 40.3%가 '초과근무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임.

- 〈표 6-2-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많이 운영된 복리후생제도는 유급휴가로 전체 1,567개소 이용시설 가운데 44.0%가 지원하였음
  - － 특히 지역복합시설에서 68.5%가 유급휴가제도를 지원하고 있었음
- 유급휴가제도에 이어서 보편화된 복지후생 제도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전체 이용시설의 41.3%가 운영하고 있음
  - － 특히 정신보건시설에서 81.8%, 즉 대다수의 시설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원
- 유사한 수준으로 경조비도 전체 이용시설 중 41.1%가 지원하고 있었는데, 보육시설 가운데 71.3%의 비율에서 경조비를 제공
- 식사비 보조는 전체 가운데 40.8%로, 노인이용시설이 51.3%, 장기요양기관

이 49.2%로 식사비 보조를 운영

○ 주거비보조는 전체 이용시설의 1.5% 만이 지원하고 있었는데, 정신보건시설의 9.1%가 지원했으나, 아동이용시설에서는 동 제도운영 경우가 전체의 0.7%에 불과

○ 종사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지원에 있어서도 전체 이용시설 가운데 1.5%만이 일정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보육시설의 5.1% 만이, 그리고 정신보건시설은 아예 제공하지 않았음

〈표 6-2-3〉 복리후생제도 운영 현황: 생활시설

(단위: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생활시설				
	전체 (N=524)	아동 (N=106)	노인 (N=273)	장애인 (N=103)	정신보건등 (N=42)
초과근무수당	62.4	73.4	55.2	69.2	65.9
식사비보조	53.6	33.0	65.4	46.2	45.5
유급휴가	49.2	45.0	43.4	63.5	63.6
경조비	40.3	35.8	43.4	41.3	29.5
건강보건관련 비용지출지원	17.9	11.9	17.8	17.3	34.1
통근비용	13.8	9.2	15.0	17.3	9.1
탄력근무제	13.3	11.9	13.3	13.5	15.9
문화/체육/오락비용 보조	7.6	8.3	6.6	10.6	4.5
사회보험료 지원	7.6	7.3	7.7	8.7	4.5
종사자상담	6.4	10.1	4.2	10.6	2.3
종사자상담	6.4	10.1	4.2	10.6	2.3
자기계발 지원	5.9	7.3	3.5	12.5	2.3
종사자휴양 지원	5.0	2.8	5.6	6.7	2.3
주거비보조	4.1	3.7	4.5	4.8	—
자녀학비보조	1.8	2.8	1.4	2.9	—
보육지원	1.3	3.7	1.0	—	—
기타	13.4	14.7	14.0	14.4	4.5

주: 중복 응답 문항으로, 해당하는 모든 제도를 표시하도록 함. 예를 들면 전체 생활시설 524개소 사업체 중 62.4%가 ‘초과근무 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임.

〈표 6-2-4〉 복리후생제도 운영 현황: 이용시설

(단위: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공급 이용시설								
	전체 (N=1,567)	아동 (N=294)	노인 (N=132)	장애인 (N=206)	정신보건 (N=22)	지역복합 (N=214)	바우처 (N=363)	보육 (N=234)	장기요양 (N=102)
초과근무수당	41.3	15.5	46.8	54.6	81.8	50.2	35.8	50.6	41.8
유급휴가	44.0	20.9	42.4	60.4	54.5	68.5	34.1	45.1	45.8
경조비	41.1	10.8	38.6	27.1	36.4	47.0	51.1	71.3	47.5
식사비보조	40.8	30.7	51.3	34.4	27.3	42.0	41.1	47.3	49.2
탄력근무제	16.9	7.4	8.9	10.6	9.1	18.7	28.8	23.2	15.3
건강보건관련 비용지출 지원	13.4	4.7	13.9	14.3	22.7	21.9	11.0	11.8	21.5
자기계발 지원	9.6	4.7	7.6	5.1	18.2	16.9	11.8	14.3	5.6
통근비용	9.0	2.7	6.3	9.5	13.6	14.6	11.3	4.2	15.3
종사자상담	8.2	1.7	7.6	6.6	4.5	9.6	13.2	5.9	13.6
사회보험료 지원	6.3	5.7	8.2	6.6	9.1	8.7	5.6	3.4	6.8
문화/체육/오락비용 보조	5.2	—	5.7	2.9	18.2	16.0	5.4	2.5	5.1
종사자휴양지원	3.9	1.4	4.4	1.1	4.5	7.3	5.6	3.8	4.5
자녀학비보조	3.0	1.0	3.2	1.1	4.5	11.0	2.2	0.4	4.0
보육지원	1.5	0.3	0.6	0.4	—	2.7	0.3	5.1	2.3
주거비보조	1.5	0.7	1.3	1.1	9.1	1.4	1.6	1.7	2.3
기타	17.8	36.8	17.1	16.5	9.1	7.3	17.5	7.2	18.1

주: 중복 응답 문항으로, 해당하는 모든 제도를 표시하도록 함. 예를 들면, 전체 시설 1,567개소 사업체 중 41.3%가 ‘초과근무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임.

- 〈표 6-2-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일반사업체에서 가장 많이 운영된 복리후생제도 식사비 보조였는데, 전체 1,303개 일반사업체 중 절반 이상의 56.5% 사업체에서 직원들에게 식사비를 보조하고 있음
- 경조비 지급 및 초과 근무 수당은 각각 37.1%와 32.1%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교육자문관련 평가업체 중 66.0%가 경조비를, 특수학교의 88.2%가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주거비 보조는 전체 일반사업체 가운데 1.5%만이 지원하고 있었는데, 특수학교의 지원율이 9.8%로 일반사업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법무서비스업과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에서는 아예 지원하지 않았음

〈표 6-2-5〉 복리후생제도 운영 현황: 일반사업체

(단위: %)

	일반사업체									
	전체 (N=1,303)	법무 서비스업 (N=68)	세무사업 (N=188)	고용 알선업 (N=214)	교육자문 평가업 (N=50)	기술직업 훈련학원 (N=357)	사회교육 시설 (N=130)	특수학교 (N=51)	개인간병 유사 서비스업 (N=188)	시민운동 단체 (N=57)
식사비보조	56.5	39.7	86.7	36.4	72.0	65.5	55.4	58.8	35.6	50.9
경조비	37.1	26.5	55.3	23.4	66.0	39.8	36.2	43.1	24.5	36.8
초과근무수당	32.1	13.2	20.2	16.4	40.0	40.6	43.8	88.2	30.3	21.1
유급휴가	28.2	30.9	31.4	16.4	54.0	23.2	43.1	78.4	13.8	36.8
건강보건관련 비용지출지원	14.1	13.2	11.7	10.7	26.0	8.7	36.2	33.3	9.6	7.0
통근비용	8.9	2.9	5.9	6.5	8.0	10.4	10.0	31.4	8.5	5.3
탄력근무제	8.5	4.4	3.7	6.5	20.0	9.0	19.2	13.7	5.3	5.3
자기계발 지원	8.0	4.4	6.4	3.3	34.0	8.1	12.3	31.4	0.5	5.3
자녀학비보조	6.8	—	1.1	0.5	18.0	3.9	16.2	70.6	0.5	7.0
종사자휴양 지원	5.6	2.9	9.0	0.9	12.0	5.0	13.8	3.9	2.1	7.0
문화/체육/오락비용 보조	4.4	1.5	2.1	1.4	10.0	3.9	9.2	33.3	—	1.8
사회보험료 지원	4.4	4.4	2.7	1.4	10.0	3.1	6.9	15.7	5.9	3.5
종사자상담	3.8	2.9	0.5	6.1	2.0	2.8	5.4	7.8	5.9	—
보육지원	3.1	2.9	2.1	—	4.0	2.0	13.8	13.7	—	—
주거비보조	1.5	—	0.5	0.5	6.0	1.7	1.5	9.8	—	1.8
기타	26.6	47.1	2.7	49.1	8.0	21.0	20.8	3.9	42.0	29.8

주: 중복 응답 문항으로, 해당하는 모든 제도를 표시하도록 함. 표 해석은 전체 시설 1,303개소 사업체 중 32.1%가 '초과근무수당'제도를 운영함.





## 부록



---

## 부 록 < <

1.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조사표 : 가구용
2.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조사표 : 사업체용



승인번호  
제11778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대한 조항)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  
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지역코드	※설문유형분류	※ID

##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가구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사회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커스컴퍼니의 면접원 ○○○입니다.  
귀 닥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포커스컴퍼니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욕구 및 공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은 향후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정책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조사를 위한 통계적인 용도 이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도록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8월

연구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연구전담기관 :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조사기관 : (주)포커스컴퍼니  
담당연구원 : 신중식 팀장 ☎ 02-3456-0292  
담당감독원 : 황현선 팀장 ☎ 02-3456-0261  
하지영 과장 ☎ 02-3456-0252

### □ 응답자 선점질문

SQ1) 응답자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SQ2) 응답자와 가구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1) 가구주 본인	<input type="checkbox"/> 2)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3) 미혼자녀	<input type="checkbox"/> 4) 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5) 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6)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input type="checkbox"/> 7)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8)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9) 기타친족	<input type="checkbox"/> 10) 비혈연 동거인
	<input type="checkbox"/> 11) 기타( )	
SQ3) 가구생애주기:	<input type="checkbox"/> 1) 미혼	<input type="checkbox"/> 2) 첫 자녀 출생 전
	<input type="checkbox"/> 3) 첫 자녀 출생~초등학교 입학전	<input type="checkbox"/> 4) 첫 자녀 초등학교 재학기
	<input type="checkbox"/> 5) 첫 자녀 중고등학교 재학기	<input type="checkbox"/> 6) 첫 자녀 대학 교육기
	<input type="checkbox"/> 7) 비경제활동 자녀 동거기	<input type="checkbox"/> 8) 경제활동 자녀동거기
	<input type="checkbox"/> 9) 노인(단독)가구	
SQ4) 거주지 유형	<input type="checkbox"/> 1)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2) 중소도시(도단위 동지역)
	<input type="checkbox"/> 3) 농어촌(읍/면 지역)	

### 면접원 가입사항

응답자성명	List-ID (이용경험자 명부)
응답자주소	연락처
면접일시	면접원 ID
면접원성명	검증원 ID



## I. 가구 특성(1)

※ 귀 닥의 가구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연구목적의 통계 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며, 귀하의 응답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을 위한 귀중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면접원은 응답자의 응답을 받아 보기번호 옆 □이나 표의 공란에 ✓표기함(이하 표기요령 동일)

문1) 귀 닥에 함께 살고 있는(생활하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본인 포함)

문2) 귀 닥 가구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한)조부모+부모+자녀      □ 2) (한)조부모+한부모+자녀      □ 3) 부부+자녀  
□ 4) 한부모(어머니 또는 아버지)+자녀      □ 5) (한)조부모+손자녀      □ 6) 부부  
□ 7) 1인 가구      □ 8) 기타 (☞) 면접원 기입: \_\_\_\_\_

문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들은 누구입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아래 <보기>의 응답코드를 참조해 응답해 주십시오.

면접원은 아래 해당 문항의 응답코드 보기를 참고하여 위 표의 공란에 응답자의 응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합니다.

가구원 번호	① 가구주와의 관계	② 성 별	③ 만 연령	④ 교육수준		⑤ 혼인 상태	⑥ 경제활동 상태	⑦ 가구원의 건강상태		
				교육수준	수학여부			⑦-1. 장애여부	⑦-2. 만성질환	⑦-3. 주관적 건강상태
1			<input type="text"/> 세							
2			<input type="text"/> 세							
3			<input type="text"/> 세							
4			<input type="text"/> 세							
5			<input type="text"/> 세							
6			<input type="text"/> 세							
7			<input type="text"/> 세							
8			<input type="text"/> 세							
응 답 코 드	1.가구주	1.남	<input type="text"/>	1.미취학 (만6세 이하)	1.졸업	1.미혼	1.상용근로자	1.장애 없음	1.신체적 질환	<input type="text"/>
	2.배우자	2.여		2.재학 (휴학포함)	2.배우자 있음 (결혼/동거)	2.임시·일용 근로자	2.있음 (등록1급)	2.정신적 질환		
보 기 V	3.미혼자녀		3.초등학교	3.중퇴 (수료포함)	3.고용주 / 자영업자	3.별거	3.고용주 / 자영업자	3.있음 (등록2급)	3.있음 (우울증 등)	
	4.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		4.중학교	4.미취학	4.이혼	4.무급가족 종사자	4.있음 (등록3급 이상)	4.있음	3.있음	
	5.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		5.고등학교	5.고등학교 (전문대포함)	5.사별	5.일시휴직 이상	5.있음 (비등록 장애인)	5.있음	1.전혀 건강하지 못 함	
	6.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		6.대학교	6.대학교 (전문대포함)	6.해당 없음	6.구직활동 중	6.있음 (등록3급 이상)	6.있음	2.별로 건강하지 못 함	
	7.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조부모		7.대학원	7.대학원		7.주부 (임신·출산, 돌봄, 가사)	7.있음 (등록3급 이상)	7.있음	3.대체로 건강함	
	8.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응답 생일이 지났을 경우 현재년도- 출생년도	응답 생일이 안 지났을 경우 현재년도- 출생년도-1		8.학업 중	8.있음 (등록3급 이상)	8.있음	4.매우 건강함	
	9.기타친족					9.기타	9.있음 (등록3급 이상)	9.있음		
	10.비혈연 동거인									
	11.기타 (응답기입)						응답 가구원의 지난 3개월간 주요 경제활동 상태를 기입합니다.			

문4) 다음 가구원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해당되는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 면접원은 문3)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 후 해당 가구원에 해당하는 문항을 질문합니다.

<p>☞ 만 12세 미만의 아동 가구원이 있는 경우 질문</p> <p>☑ ③ 만 연령 문항으로 판단</p>	<p>문4-1) 귀하의 자녀 또는 귀댁의 12세 미만 아동 가구원을 돌보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1) 일주일의 대부분, 낮시간에 종일(하루 8시간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돌봄)이 필요</p> <p><input type="checkbox"/> 2) 일주일의 대부분, 낮시간 의 일부(하루 4시간 이하), 다른 사람의 도움(돌봄)이 필요</p> <p><input type="checkbox"/> 3) 일주일의 대부분, 밤시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도움(돌봄)이 필요</p> <p><input type="checkbox"/> 4) 일주일의 대부분, 낮과 밤 모두(하루종일), 다른 사람의 도움(돌봄)이 필요</p> <p><input type="checkbox"/> 5) 주말동안에 다른 사람의 도움(돌봄)이 필요</p> <p><input type="checkbox"/> 6) 비정기적으로,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돌봄)이 필요</p>
<p>☞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질문</p> <p>☑ ③ 만 연령 문항으로 판단</p>	<p>문4-2) 귀하 또는 귀댁의 노인 가구원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십니까?</p> <p>☞ 면접원은 만65세이상 노인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고령자 기준으로 응답을 받으십시오</p> <p><input type="checkbox"/> 1)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2)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돌봄)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3) 일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돌봄)이 필요하다</p> <p><input type="checkbox"/> 4)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돌봄)이 필요하다</p> <p><input type="checkbox"/> 5)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돌봄)이 필요하다</p>
<p>☞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질문</p> <p>☑ ⑦-1 장애여부 문항으로 판단</p>	<p>문4-3) 귀하 또는 귀댁의 장애가 있는 가구원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1)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2)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돌봄)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3) 일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돌봄)이 필요하다</p> <p><input type="checkbox"/> 4)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돌봄)이 필요하다</p> <p><input type="checkbox"/> 5)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돌봄)이 필요하다</p>

문5) 귀 댁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귀 댁의 상황	예	아니오	모름	비해당
①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② 주말 부부이다: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부부가 국내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③ 기러기 가족이다: 자녀 유학 등으로 부부 중 한명은 자녀와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④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중에 국제결혼을 통해 가족원이 된 사람이 있다(다문화 가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 가구이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

☞ 면접원은 상황 ①, ②, ③, ④의 경우, SQ3 가구 생애 주기에서 1) 미혼 가구나 9)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에만 비해당에 체크하고 해당 문항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상황 ⑤의 경우 비해당 응답은 나타낼 수 없습니다.

## II. 사회서비스 경험, 욕구 및 수요

문1) 다음 표의 사회서비스 유형 가운데, 지난 1년간 귀하 또는 귀댁의 가족 중에서 이용 경험이 있는 사회서비스 유형이 있다면 해당하는 서비스를 모두 골라 체크(✓)해 주십시오.

문2) 다음 표의 11개 사회서비스 유형 가운데, 귀하 또는 귀댁의 가족 중에서 이용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용 희망 의사가 있는 서비스를 모두 골라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3) 다음 각각의 사회서비스 영역이 우리사회 전체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필요하다는 응답자에게는 추가 질문함) 그럼, 귀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회서비스 유형을 정부에서 전담해 제공하는 방식과, 정부와 민관이 분담하여 제공하는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사회서비스 유형		문1)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	문2) 서비스에 대한 이용 희망	문3) 필요 여부			
				① 불필요	② 필요하며 정부가 전담해 제공	③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이 분담해 제공	
상	담	① 정신건강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	①있다 → 6p로	①있다 → 14p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재	활	② 재활서비스 (장애진단 및 판정, 직업재활, 물리치료, 심리재활 서비스 등)	②있다 → 6p로	②있다 → 14p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돌	성인 돌봄	③ 성인(장애인, 노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서비스	③있다 → 7p로	③있다 → 15p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아동 돌봄	④ 아동 보육 및 보호를 위한 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파견, 방과후 돌봄서비스, 장애아동 돌봄 등)	④있다 → 8p로	④있다 → 16p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보건/의료/ 건강관리		⑤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영양보조, 금연 클리닉 등)	⑤있다 → 8p로	⑤있다 → 16p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교육 및 정보제공		⑥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서비스 (아동 학습지원, 성인 평생교육, 법률지원서비스, 노후설계 서비스 등)	⑥있다 → 9p로	⑥있다 → 17p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고용/취업		⑦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 (구직일자리 알선,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 근로자 상담 등)	⑦있다 → 10p로	⑦있다 → 18p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주 거		⑧ 주거보호 및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서비스 (시설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소규모 그룹홈 등)	⑧있다 → 11p로	⑧있다 → 19p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문 화		⑨ 문화,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문화서비스 (문화, 여가, 스포츠 바우처, 여행지원, 문화생활 체험, 캠프 등)	⑨있다 → 11p로	⑨있다 → 19p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지역사회 서비스		⑩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⑩있다 → 12p로	⑩있다 → 20p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환 경		⑪ 환경서비스 (청소, 환경정비, 방역, 환경가꾸기, 냉난방비 지원 등)	⑪있다 → 12p 로	⑪있다 → 20p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 조사진행요령: 문3까지 응답이 완료되면, 문1)과 문2)의 기입된 칸에 화살표로 표시된 페이지로 이동하여, 서비스유형별 세부 서비스에 대한 경험(A형 설문지 이용)과 수요 및 욕구(B형 설문지 이용)를 질문합니다.

## A

##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관련 문항

## ☞ 조사표 기입 요령

- 조사표 상단에 **A.이용경험** 이 표기된 페이지의 11개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에 대해 조사대상 가구의 이용 경험을 파악합니다.
- 4쪽 문1)에서 응답한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응답자가 이용한 세부 서비스에 대해 다음 7개의 질문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응답값을 다음 페이지 표의 해당 기입란에 기입합니다.
- 응답기준은 지난 1년간(2012.8.1.~2013.7.31.)의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입니다

## 문1-1) 【이용 경험 가구원 번호】

귀하 또는 귀 닥의 가구원 중에 해당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원은 누구입니까?

- ☐ 1) 응답자 본인  
☐ 2) 다른 가구원

➔ 다음 페이지 문 1-1에 서비스 이용 가구원과 가구원의 번호(2쪽 문3 응답내용 참조)를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 문1-2) 【월평균 총 사용 시간】

귀하 또는 귀 닥의 가구원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월 평균 총 이용 시간은 몇 시간이었습니까?

월평균 총  시간

## 문1-3) 【월평균 서비스 사용 지출】

귀하 또는 귀 닥의 가구원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월 평균 총 이용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월평균 총 

백만원	십만원	만원	천원	백원	십원	원
-----	-----	----	----	----	----	---

 원

## 문1-4) 【경제상황 대비 부담 정도】

귀하 또는 귀 닥의 가구원이 해당 서비스 이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귀 닥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부담이 되셨습니까?

- ☐ 1) 매우 부담됨 ☐ 2) 대체로 부담되는 편 ☐ 3) 별로 부담되지 않음 ☐ 4) 전혀 부담되지 않음

## 문1-5) 【사회서비스 이용 후 삶의 질 개선 정도】

귀하 또는 귀 닥의 가구원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오히려 악화되었음 ☐ 2) 별다른 변화 없음 ☐ 3) 대체로 나아짐 ☐ 4) 매우 좋아짐

## 문1-6) 【사회서비스 공급량 적정성에 대한 판단】

귀하 또는 귀 닥의 가구원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 편의 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부족 ☐ 2) 대체로 부족 ☐ 3) 적당한 편 ☐ 4) 충분함

## 문1-7) 【사회서비스 이용 만족도】

귀하 또는 귀 닥의 가구원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 ☐ 1) 매우 불만족 ☐ 2) 대체로 불만족 ☐ 3) 보통 ☐ 4) 대체로 만족 ☐ 5) 매우 만족



## A.이용경험

## ■ 상담서비스 이용 경험: 정신건강 및 정서적 지원

A.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문1-1		문1-2 월평균 총 사용 시간	문1-3 월평균 서비스 사용지출	문1-4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1) ~ 4)	문1-5 이용 후 삶의 질 개선정도 1) ~ 4)	문1-6 공급량 적정성 판단 1) ~ 4)	문1-7 서비스 이용 만족도 1) ~ 5)
	본인/ 가족 여부	이용 가구원 번호						
101. 전문 상담서비스(개별상담, 집단상담)			시간	원				
102. 사례관리 서비스			시간	원				
103. 돌봄가족원(부양자) 지원 서비스			시간	원				
104. 가족 상담 서비스(부모상담, 부부상담 등 )			시간	원				
105. 위기가정 문제 관련 지원·상담 서비스			시간	원				
106. 폭력·학대관련 상담 서비스 (아동학대·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시간	원				
151. 정신보건 증진센터			시간	원				
152.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게임중독 상담센터			시간	원				
153. Wee프로젝트 이용 (학교부적응 및 위기에 처한 학생 상담)			시간	원				
154.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서비스			시간	원				
155.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시간	원				
991. 기타(☞사업명기입 )			시간	원				

## ■ 재활서비스 이용 경험

A.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문1-1		문1-2 월평균 총 사용 시간	문1-3 월평균 서비스 사용지출	문1-4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1) ~ 4)	문1-5 이용 후 삶의 질 개선정도 1) ~ 4)	문1-6 공급량 적정성 판단 1) ~ 4)	문1-7 서비스 이용 만족도 1) ~ 5)
	본인/ 가족 여부	이용 가구원 번호						
201. 장애인단판정 서비스			시간	원				
202. 신체적 재활 서비스(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시간	원				
203. 직업재활 서비스			시간	원				
204.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시간	원				
205.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 심리치료			시간	원				
206. 언어치료			시간	원				
207. 알코올·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			시간	원				
208. 수화 서비스			시간	원				
251. 발달재활 서비스			시간	원				
252.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시간	원				
253. 시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시간	원				
992. 기타(☞사업명 기입 )			시간	원				

## A.이용경험

## ■ 성인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A.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문1-1 이용 경험 가구원		문1-2 월평균 총 사용 시간	문1-3 월평균 서비스 사용지출	문1-4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1) ~ 4)	문1-5 이용 후 삶의 질 개선정도 1) ~ 4)	문1-6 공급량 적정성 판단 1) ~ 4)	문1-7 서비스 이용 만족도 1) ~ 5)
	본인/ 가족 여부	이용 가구원 번호						
301.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시간	원				
302. 방문요양 및 간호			시간	원				
303. 방문목욕			시간	원				
304. 복지용품 급여 / 보장구 지급			시간	원				
305. 산후조리 서비스(일반)			시간	원				
306. 활동보조 서비스(일반)			시간	원				
307.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가사서비스, 목욕, 이·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이동지원)			시간	원				
308. 식사제공 서비스 (급식서비스, 경로식당, 밀반찬배달)			시간	원				
351.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시간	원				
352.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시간	원				
35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바우처)			시간	원				
354.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바우처)			시간	원				
355.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바우처)			시간	원				
356.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시설급여, 기타 재가 급여)			시간	원				
357.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간	원				
358.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시간	원				
359.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			시간	원				
360.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시간	원				
993. 기타(☞사업명 기입 )			시간	원				

## A.이용경험

## ■ 아동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보육 및 보호서비스

A.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문1-1 이용 경험 가구원		문1-2 월평균 총 사용 시간	문1-3 월평균 서비스 사용지출	문1-4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1) ~ 4)	문1-5 이용 후 삶의 질 개선정도 1) ~ 4)	문1-6 공급량 적정성 판단 1) ~ 4)	문1-7 서비스 이용 만족도 1) ~ 5)
	본인/ 가족 여부	이용 가구원 번호						
401.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0~5세,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형태)			시 간	원				
402.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0~5세, 돌봄시설에 직접 아동이 방문하는 형태)			시 간	원				
403. 재가 아동돌봄 서비스 (6~12세,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형태)			시 간	원				
404. 방과후 아동돌봄 서비스 (6~12세, 돌봄시설에 직접 아동이 방문하는 형태)			시 간	원				
405. 장애 아동 돌봄			시 간	원				
406.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프로그램 (사실기관의 청소년 문화놀아오락 프로그램)			시 간	원				
407.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시 간	원				
408. 학교부적응, 위기청소년 지원			시 간	원				
451.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시 간	원				
452.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만0~2세, 누리과정, 장애아 무상/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시 간	원				
453. 아이돌보미 서비스			시 간	원				
454.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시 간	원				
455. 초등 돌봄교실			시 간	원				
45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시 간	원				
457. 아동입양 관련 서비스			시 간	원				
994. 기타(☞사업명 기입 )			시 간	원				

##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경험

A.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문1-1 이용 경험 가구원		문1-2 월평균 총 사용 시간	문1-3 월평균 서비스 사용지출	문1-4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1) ~ 4)	문1-5 이용 후 삶의 질 개선정도 1) ~ 4)	문1-6 공급량 적정성 판단 1) ~ 4)	문1-7 서비스 이용 만족도 1) ~ 5)
	본인/ 가족 여부	이용 가구원 번호						
501. 건강관리 서비스			시 간	원				
502. 운동처방 서비스			시 간	원				
551. 산전후 건강관리사업(고운맘카드)			시 간	원				
552. 보건소 건강증진 방문 보건 서비스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시 간	원				
553.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시 간	원				
554. 보건소 금연클리닉			시 간	원				
555.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인공임신중절예방)			시 간	원				
995. 기타(☞사업명 기입 )			시 간	원				

## A.이용경험

## ■ 교육 및 정보제공서비스 이용 경험: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 사회서비스

A.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문1-1 이용 경험 가구원		문1-2 월평균 총 사용 시간	문1-3 월평균 서비스 사용지출	문1-4 경제상황 대비 부담 정도 1) ~ 4)	문1-5 이용 후 삶의 질 개선정도 1) ~ 4)	문1-6 공급량 적정성 판단 1) ~ 4)	문1-7 서비스 이용 만족도 1) ~ 5)
	본인/ 가족 여부	이용 가구원 번호						
601.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			시간	원				
602. 장애아동 (특수)교육			시간	원				
603. 성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시간	원				
604. 부모교육			시간	원				
605. 교육관련 상담, 평가 및 정보제공			시간	원				
606.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시간	원				
607. 세무관련 서비스			시간	원				
608. 법률지원 서비스			시간	원				
609. 진학 및 진로상담			시간	원				
651.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바우처)			시간	원				
652. 유치원 이용 (유아학비 지원, 만3~ 4세, 누리과정 교육비, 다문화 교육비 지원)			시간	원				
653.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시간	원				
654.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서비스			시간	원				
655.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간	원				
656.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 구조 지원 서비스			시간	원				
996. 기타(☞사업명 기입 )			시간	원				

(주)포커스컴퍼니

## A.이용경험

## 고용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직업훈련, 취업지원, 기타 고용지원서비스

A.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문1-1 이용 경험 가구원		문1-2 월평균 총 사용 시간	문1-3 월평균 서비스 사용지출	문1-4 경제상황 대비 부담 정도 1) ~ 4)	문1-5 이용 후 삶의 질 개선정도 1) ~ 4)	문1-6 공급량 적정성 판단 1) ~ 4)	문1-7 서비스 이용 만족도 1) ~ 5)
	본인/ 가족 여부	이용 가구원 번호						
701. 구직·일자리 알선			시간	원				
702. 간병관련 일자리 지원			시간	원				
703. 가사지원 관련 일자리 지원			시간	원				
704. 자영업자 창업지원			시간	원				
705.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			시간	원				
706. 근로의욕고취 및 근로관련 심리 상담·사회적 지원			시간	원				
751. 정부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공공근로/자활근로)			시간	원				
752.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이용			시간	원				
753.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 및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시간	원				
754.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시간	원				
75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간	원				
75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시간	원				
757.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시간	원				
758. 출소자를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시간	원				
997. 기타(사업명 기입 )			시간	원				

(주)포커스컴퍼니

## A.이용경험

## 8 주거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주거보호, 주거 관련 지원서비스

A.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문1-1 이용 경험 가구원		문1-2 월평균 총 사용 시간	문1-3 월평균 서비스 사용지출	문1-4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1) ~ 4)	문1-5 이용 후 삶의 질 개선정도 1) ~ 4)	문1-6 공급량 적정성 판단 1) ~ 4)	문1-7 서비스 이용 만족도 1) ~ 5)
	본인/ 가족 여부	이용 가구원 번호						
801. 대규모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시간	원				
802. 20명 이내 소규모 그룹홈 등 공동생활가정의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시간	원				
803. 일시보호(일시보호시설, 쉼터 등)			시간	원				
804. 주거비 지원			시간	원				
851. 장애인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시간	원				
852.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그룹홈 거주			시간	원				
853.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시간	원				
854. 주택 바우처			시간	원				
998. 기타(☞사업명 기입 )			시간	원				

## 9 문화서비스 이용 경험: 문화 및 여가서비스

A.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문1-1 이용 경험 가구원		문1-2 월평균 총 사용 시간	문1-3 월평균 서비스 사용지출	문1-4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1) ~ 4)	문1-5 이용 후 삶의 질 개선정도 1) ~ 4)	문1-6 공급량 적정성 판단 1) ~ 4)	문1-7 서비스 이용 만족도 1) ~ 5)
	본인/ 가족 여부	이용 가구원 번호						
901. 문화/예술 서비스			시간	원				
902. 체육/스포츠 서비스			시간	원				
903. 여행/관광 서비스			시간	원				
951.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이용: 지방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시간	원				
952. 여행 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시간	원				
953. 문화 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시간	원				
954. 스포츠 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시간	원				
999. 기타(☞사업명 기입 )			시간	원				

(주)포커스컴퍼니



## A.이용경험

■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종합사회서비스 시설이용 및 지역사회자원개발

A.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문1-1 이용 경험 가구원		문1-2 월평균 총 사용 시간	문1-3 월평균 서비스 사용지출	문1-4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1) ~ 4)	문1-5 이용 후 삶의 질 개선정도 1) ~ 4)	문1-6 공급량 적정성 판단 1) ~ 4)	문1-7 서비스 이용 만족도 1) ~ 5)
	본인/ 가족 여부	이용 가구원 번호						
1001. 자원봉사자 양성 및 참여			시간	원				
1002. 사회복지관			시간	원				
105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 상세사업명 기입 )			시간	원				
1052. 드림스타트 (지역사회 중심 아동통합 서비스지원)			시간	원				
105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방과후 돌봄 외 기타 프로그램)			시간	원				
1054.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간	원				
1055.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시간	원				
105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간	원				
1057.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 법률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등)			시간	원				
1058.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노인 대상 법률지원, 보호, 상담 등)			시간	원				
1059.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시간	원				
9910. 기타(☞사업명 기입 )			시간	원				

■ 환경부문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A.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문1-1 이용 경험 가구원		문1-2 월평균 총 사용 시간	문1-3 월평균 서비스 사용지출	문1-4 경제상황 대비 부담정도 1) ~ 4)	문1-5 이용 후 삶의 질 개선정도 1) ~ 4)	문1-6 공급량 적정성 판단 1) ~ 4)	문1-7 서비스 이용 만족도 1) ~ 5)
	본인/ 가족 여부	이용 가구원 번호						
1101. 청소 및 환경정비 서비스			시간	원				
1102. 방역 서비스			시간	원				
1103. 환경 가꾸기(숲가꾸기, 텃밭 운영 등)			시간	원				
1104. 냉난방 지원 서비스(무더위쉼터)			시간	원				
1151. 사회복지시설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시간	원				
1152.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시간	원				
1153. 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시간	원				
9911. 기타(☞사업명 기입 )			시간	원				

## B

## 사회서비스 수요 및 욕구 파악 문항

## ☞ 조사표 기입 요령

- 조사표 상단에 **B.욕구** 라고 표기된 페이지부터 11개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에 대해 조사대상 가구의 이용 욕구를 파악합니다.
- 4쪽 문2)에서 응답한 사회서비스 중 응답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세부 서비스들에 대해 다음 7개의 질문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응답값을 다음 쪽 표의 해당 기입란에 기입합니다.

## 문2-1) 【사회서비스 필요도】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은 다음 세부 영역의 사회서비스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해 주십시오.

## 문2-2) 【현재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 ☞ 문2-1)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세부 서비스에 한해 질문합니다.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까?

- ☐ 1) 이용하고 있음 → 문2-3)으로  
☐ 2) 이용하지 않음 → 문2-2-1)로

## 문2-2-1) 【현재 사회서비스 비이용 사유】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이 해당 사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1)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 2) 제공기관이 없거나 부족해서  
☐ 3)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서  
☐ 4)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 5)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 6) 기타(☞적어주십시오)

## 문2-3)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은 앞으로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이용 의향 없음	별로 이용 의향 없음	보통	대체로 이용 의향 있음	반드시 이용

## 문2-4)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불의사】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이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 ☐ 1) 지불의사 없음 → 문2-5)로  
☐ 2) 지불의사 있음 → 문2-4-1)로

## 문2-4-1) 【지불 가능 비용】

지불한다면, 월평균 얼마정도 까지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평균 금액을 만원 단위로 기입해 주십시오.

백만원	십만원	만원	천원	백원	십원	원
월평균 총						원

## 문2-5)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량】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 달 평균 총 몇 시간 정도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월평균 총    시간



## B. 욕구

## ■ 상담서비스 욕구: 정신건강 및 정서적 지원

☞ 문2-2-1은 문2-2의 응답이 ② 비이용일 경우에 한해 응답하며, 문2-4-1은 문2-4에서 ② 지불의사가 있다는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B.사회서비스 이용 욕구	문2-1 서비스 필요 여부 (✓표기)	문2-2 현재 이용 여부 1)이용 2)비이용▶	문2-2-1 현재 비이용사유 1) ~ 6)	문2-3 향후 이용 의향 ① ~ ⑤	문2-4 이용시 지불의사 1)없음 2)있음▶	문2-4-1 지불가능 비용	문2-5 이용 희망시간
101. 전문 상담서비스(개별상담, 집단상담)						원	시간
102. 사례관리 서비스						원	시간
103. 돌봄가족원(부양자) 지원 서비스						원	시간
104. 가족 상담 서비스(부모상담, 부부상담 등)						원	시간
105. 위기가정 문제 관련 지원·상담 서비스						원	시간
106. 폭력·학대관련 상담 서비스 (아동학대·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원	시간
151. 정신보건 증진센터						원	시간
152.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게임중독 상담센터						원	시간
153. Wee프로젝트 이용 (학교부적응 및 위기에 처한 학생 상담)						원	시간
154.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서비스						원	시간
★155.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원	시간

## ■ 재활서비스 욕구

☞ 문2-2-1은 문2-2의 응답이 ② 비이용일 경우에 한해 응답하며, 문2-4-1은 문2-4에서 ② 지불의사가 있다는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B.사회서비스 이용 욕구	문2-1 서비스 필요 여부 (✓표기)	문2-2 현재 이용 여부 1)이용 2)비이용▶	문2-2-1 현재 비이용사유 1) ~ 6)	문2-3 향후 이용 의향 ① ~ ⑤	문2-4 이용시 지불의사 1)없음 2)있음▶	문2-4-1 지불가능 비용	문2-5 이용 희망시간
201. 장애진단판정 서비스						원	시간
202. 신체적 재활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원	시간
203. 직업재활 서비스						원	시간
204.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원	시간
205.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 심리치료						원	시간
206. 언어치료						원	시간
207. 알코올·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						원	시간
208. 수화 서비스						원	시간
251. 발달재활 서비스						원	시간
252.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원	시간
253. 시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원	시간

## B. 욕구

## B. 성인 돌봄서비스 욕구: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문2-2-1은 문2-2의 응답이 ② 비이용일 경우에 한해 응답하며, 문2-4-1은 문2-4에서 ② 지불의사가 있다는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B.사회서비스 이용 욕구	문2-1 서비스 필요 여부 (✓표기)	문2-2 현재 이용 여부 1)이용 2)비이용▶	문2-2-1 현재 이용 사유 1) ~ 6)	문2-3 향후 이용 의향 ① ~ ⑤	문2-4 이용시 지불의사 1)없음 2)있음▶	문2-4-1 지불가능 비용	문2-5 이용 희망시간
301.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원	시간
302. 방문요양 및 간호						원	시간
303. 방문목욕						원	시간
304. 복지용품 급여 / 보장구 지급						원	시간
305. 산후조리 서비스(일반)						원	시간
306. 활동보조 서비스(일반)						원	시간
307.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가사서비스, 목욕, 이·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이동지원)						원	시간
308. 식사제공 서비스 (급식서비스, 경로식당, 밀반찬배달)						원	시간
★ 351.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원	시간
352.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원	시간
35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바우처)						원	시간
★ 354.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바우처)						원	시간
355.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바우처)						원	시간
356.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시설급여, 기타 재가 급여)						원	시간
357.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원	시간
358.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원	시간
359.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						원	시간
360.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원	시간

**B. 육구****■ 아동 돌봄서비스 육구: 보육 및 보호서비스**

☞ 문2-2-1은 문2-2의 응답이 ② 비이용일 경우에 한해 응답하며, 문2-4-1은 문2-4에서 ② 지불의사가 있다는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B.사회서비스 이용 육구	문2-1 서비스 필요 여부 (✓표기)	문2-2 현재 이용 여부 1)이용 2)비이용▶	문2-2-1 현재 비이용사유 1) ~ 6)	문2-3 향후 이용 의향 ① ~ ⑤	문2-4 이용시 지불의사 1)없음 2)있음▶	문2-4-1 지불가능 비용	문2-5 이용 희망시간
401.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0~5세,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형태)						원	시간
402.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0~5세, 돌봄시설에 직접 아동이 방문하는 형태)						원	시간
403. 재가 아동돌봄 서비스 (6~12세,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형태)						원	시간
404. 방과후 아동돌봄 서비스 (6~12세, 돌봄시설에 직접 아동이 방문하는 형태)						원	시간
405. 장애 아동 돌봄						원	시간
406.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프로그램 (시설기관의 청소년 문화놀아오락 프로그램)						원	시간
407.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원	시간
408. 학교부적응, 위기청소년 지원						원	시간
451.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원	시간
452.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 만0~2세, 누리과정, 장애아 무상/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원	시간
★ 453. 아이돌보미 서비스						원	시간
454.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원	시간
455. 초등 돌봄교실						원	시간
45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원	시간
457. 아동입양 관련 서비스						원	시간

**■ 보건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육구**

☞ 문2-2-1은 문2-2의 응답이 ② 비이용일 경우에 한해 응답하며, 문2-4-1은 문2-4에서 ② 지불의사가 있다는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B. 사회서비스 이용 육구	문2-1 서비스 필요 여부 (✓표기)	문2-2 현재 이용 여부 1)이용 2)비이용▶	문2-2-1 현재 비이용사유 1) ~ 6)	문2-3 향후 이용 의향 ① ~ ⑤	문2-4 이용시 지불의사 1)없음 2)있음▶	문2-4-1 지불가능 비용	문2-5 이용 희망시간
501. 건강관리 서비스						원	시간
502. 운동처방 서비스						원	시간
551. 산전후 건강관리사업(교운맘카드)						원	시간
552. 보건소 건강증진 방문 보건 서비스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원	시간
553.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원	시간
554. 보건소 금연클리닉						원	시간
555.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인공임신중절예방)						원	시간

(주)포커스컴퍼니

## B. 육구

## B 교육 및 정보제공서비스 육구: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 사회서비스

☞ 문2-2-1은 문2-2의 응답이 ② 비이용일 경우에 한해 응답하며, 문2-4-1은 문2-4에서 ② 지불의사가 있다는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B. 사회서비스 이용 육구	문2-1 서비스 필요 여부 (✓표기)	문2-2 현재 이용 여부 1)이용 2)비이용▶	문2-2-1 현재 비이용사유 1) ~ 6)	문2-3 향후 이용 의향 ① ~ ⑤	문2-4 이용시 지불의사 1)없음 2)있음▶	문2-4-1 지불가능 비용	문2-5 이용 희망시간
601.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						원	시간
602. 장애아동 (특수)교육						원	시간
603. 성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원	시간
604. 부모교육						원	시간
605. 교육관련 상담, 평가 및 정보제공						원	시간
606.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원	시간
607. 세무관련 서비스						원	시간
608. 법률지원 서비스						원	시간
609. 진학 및 진로상담						원	시간
651.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바우처)						원	시간
652. 유치원 이용 (유아학비 지원, 만3~ 4세, 누리과정 교육비, 다문화 교육비 지원)						원	시간
653.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원	시간
654.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서비스						원	시간
655.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원	시간
656.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 구조 지원 서비스						원	시간

## B. 욕구

## 7 고용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직업훈련, 취업지원, 기타 고용지원서비스

☞ 문2-2-1은 문2-2의 응답이 ② 비이용일 경우에 한해 응답하며, 문2-4-1은 문2-4에서 ② 지불의사가 있다는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B. 사회서비스 이용 욕구	문2-1 서비스 필요 여부 (✓표기)	문2-2 현재 이용 여부 1)이용 2)비이용▶	문2-2-1 현재 비이용사유 1) ~ 6)	문2-3 향후 이용 의향 ① ~ ⑤	문2-4 이용시 지불의사 1)없음 2)있음▶	문2-4-1 지불가능 비용	문2-5 이용 희망시간
701. 구직일자리 알선						없음	시간
702. 간병관련 일자리 지원						없음	시간
703. 가사지원 관련 일자리 지원						없음	시간
704. 자영업자 창업지원						없음	시간
705.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						없음	시간
706. 근로의욕고취 및 근로관련 심리 상담· 사회적 지원						없음	시간
751. 정부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공공근로/자활근로)						없음	시간
752.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이용						없음	시간
753.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 및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없음	시간
754.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없음	시간
75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없음	시간
75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없음	시간
757.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없음	시간
758. 출소자를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없음	시간

B. 육구							
8. 주거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주거보호, 주거 관련 지원서비스							
☞ 문2-2-1은 문2-2의 응답이 ② 비이용일 경우에 한해 응답하며, 문2-4-1은 문2-4에서 ② 지불의사가 있다는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B. 사회서비스 이용 욕구	문2-1 서비스 필요 여부 (✓표기)	문2-2 현재 이용 여부 1)이용 2)비이용▶	문2-2-1 현재 비이용사유 1) ~ 6)	문2-3 향후 이용 의향 ① ~ ⑤	문2-4 이용시 지불의사 1)없음 2)있음▶	문2-4-1 지불가능 비용	문2-5 이용 희망시간
801. 대규모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원	시간
802. 20명 이내 소규모 그룹홈 등 공동생활가정의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원	시간
803. 일시보호(일시보호시설, 쉼터 등)						원	시간
804. 주거비 지원						원	시간
851. 장애인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원	시간
852.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그룹홈 거주						원	시간
853.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원	시간
854. 주택 바우처						원	시간

9. 문화서비스 욕구: 문화 및 여가서비스							
☞ 문2-2-1은 문2-2의 응답이 ② 비이용일 경우에 한해 응답하며, 문2-4-1은 문2-4에서 ② 지불의사가 있다는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B. 사회서비스 이용 욕구	문2-1 서비스 필요 여부 (✓표기)	문2-2 현재 이용 여부 1)이용 2)비이용▶	문2-2-1 현재 비이용사유 1) ~ 6)	문2-3 향후 이용 의향 ① ~ ⑤	문2-4 이용시 지불의사 1)없음 2)있음▶	문2-4-1 지불가능 비용	문2-5 이용 희망시간
901. 문화/예술 서비스						원	시간
902. 체육/스포츠 서비스						원	시간
903. 여행/관광 서비스						원	시간
951.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이용: 지방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원	시간
952. 여행 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원	시간
953. 문화 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원	시간
954. 스포츠 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원	시간



## B. 욕구

## III 지역사회서비스 욕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종합사회서비스 시설이용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

☞ 문2-2-1은 문2-2의 응답이 ② 비이용일 경우에 한해 응답하며, 문2-4-1은 문2-4에서 ② 지불의사가 있다는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B. 사회서비스 이용 욕구	문2-1 서비스 필요 여부 (✓표기)	문2-2 현재 이용 여부 1)이용 2)비이용▶	문2-2-1 현재 비이용사유 1) ~ 6)	문2-3 향후 이용 의향 ① ~ ⑤	문2-4 이용시 지불의사 1)없음 2)있음▶	문2-4-1 지불가능 비용	문2-5 이용 희망시간
1001. 자원봉사자 양성 및 참여						원	시간
1002. 사회복지관						원	시간
105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 상세사업명 기입 )						원	시간
1052. 드림스타트 (지역사회 중심 아동통합 서비스지원)						원	시간
105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방과후 돌봄 외 기타 프로그램)						원	시간
1054. 건강가정지원센터						원	시간
1055.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원	시간
105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원	시간
1057.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상담, 법률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등)						원	시간
1058.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노인 대상 법률지원, 보호, 상담 등)						원	시간
1059.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원	시간

## III 환경부문 사회서비스 욕구

☞ 문2-2-1은 문2-2의 응답이 ② 비이용일 경우에 한해 응답하며, 문2-4-1은 문2-4에서 ② 지불의사가 있다는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B. 사회서비스 이용 욕구	문2-1 서비스 필요 여부 (✓표기)	문2-2 현재 이용 여부 1)이용 2)비이용▶	문2-2-1 현재 비이용사유 1) ~ 6)	문2-3 향후 이용 의향 ① ~ ⑤	문2-4 이용시 지불의사 1)없음 2)있음▶	문2-4-1 지불가능 비용	문2-5 이용 희망시간
1101. 청소 및 환경정비 서비스						원	시간
1102. 방역 서비스						원	시간
1103. 환경 가꾸기(숲가꾸기, 텃밭 운영 등)						원	시간
1104. 냉난방 지원 서비스(무더위쉼터)						원	시간
1151. 사회복지시설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원	시간
1152.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원	시간
1153. 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원	시간

## III. 사회서비스 정책 인지도 및 의견

귀 닥의 사회서비스 욕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회서비스란, 개정 『사회복지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포함합니다.

“사회서비스 단위사업 분류표” 이미지 보기카드 중 정부 제공 사회서비스를 살펴보고 응답해 주십시오.  
 \* 면접원은 별도 보기카드인 사회서비스 단위사업 분류표 컨셉카드(이미지 자료)를 제시하고 질문함.

문1) 귀하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 1)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몰랐음 → 문2로
- ☐ 2)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은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함
- ☐ 3)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주요 서비스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
- ☐ 4)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모르지만 바람직한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함
- ☐ 5)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모르지만 불필요한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함
- ☐ 6)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알고, 바람직한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함
- ☐ 7)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알지만 불필요한 정책추진이라고 생각함

→ 문1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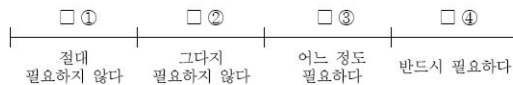
문1-1) 귀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다음 중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거나 듣게 되셨습니까?

- ☐ 1)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읍면사무소, 시군구청 등)의 안내로
- ☐ 2)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 ☐ 3) 주변 이웃이나 친지 등의 입소문을 통해
- ☐ 4) 전단지, 현수막, 포스터 등 인쇄 홍보물을 통해
- ☐ 5)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 ☐ 6)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문2)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 부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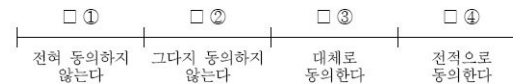
- ☐ 1) 서비스 비용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 2) 서비스 비용을 국가와 이용자(개인)가 일정 부분 분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 ☐ 3) 서비스 비용을 국가와 이용자(개인)가 일정 부분 분담하되, 서비스 이용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 ☐ 4)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개인)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
- ☐ 5)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문3)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4)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서비스 이용료를 이용자(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동일한 사회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소득수준이 높은 이용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덜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주)포커스컴퍼니



문5) 귀하는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고려할 경우, 다음 각각의 항목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각 항목의 아래쪽 □에 각각 ✓표기 해주시시오.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①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내용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②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제공기관의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④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제공기관의 친절도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⑤ 사회서비스 제공량(서비스 이용기간, 1회 이용시간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⑥ 사회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 액수(이용료)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⑦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주변의 평판, 인지도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문6) 앞서 보신 <사회서비스 단위사업 분류표>에 제시된 사회서비스 유형 이외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7) 귀 닥의 현재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만족

문8) 사회서비스의 이용이 귀하 또는 귀 닥 가족원의 삶의 질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전혀 상관없다	대체로 상관없다	어느정도 상관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9) 사회서비스의 이용으로 귀하 또는 귀 닥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매우 나빠질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변화 없을 것이다	다소 개선될 것이다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문10) 귀하 또는 귀 닥에서 가족갈등이나 부부간의 불화, 부모-자녀관계의 악화, 사회부적응, 심한 스트레스 및 불안, 우울, 자살충동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input type="checkbox"/> 1) 그냥 참거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3) 주위 사람(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등)과 이야기 한다 <input type="checkbox"/> 5) 술을 마신다 <input type="checkbox"/> 7) 가출을 고려한다 <input type="checkbox"/> 9) 기타(적어주십시오: )	<input type="checkbox"/> 2) 종교 등에 의지한다 <input type="checkbox"/> 4) 다른 가족원에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하게 된다 <input type="checkbox"/> 6) 등산이나 여행 등을 떠난다 <input type="checkbox"/> 8) 병원을 찾는다

(주)포커스컴퍼니

#### IV. 가구 특성(2)

문1) 다음은 귀 닥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평균 소득과 지출, 자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① 월평균 총소득		* 면접절: 소득은 세금 공제전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가. 근로소득 (임금소득, 사업소득, 무업소득 등)			
나. 재산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 주식매매차익, 배당금 등/부동산소득: 임대료, 매매차익, 월세금 등)			
다. 사회보험 급여 및 정부보조금 (국민/사학/공무원/군인/보훈 연금 등, 신체보험, 고용보험 등,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지원금,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애수당, 국가유공자 호환금 등)			
라. 사적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가족, 친인척 및 기타의 금전적 도움과 보험, 보철금, 퇴직금, 종여/상속 등)			
<b>① 월평균 총소득 = 가 + 나 + 다 + 라</b>			
다. 월평균 총소득 금액을 잘 모르실 경우, 아래 보기에서 귀 닥 상황과 가장 가까운 월평균 소득수준을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① 100만원 미만(            원) <input type="checkbox"/> ②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⑦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⑧ 400만원 이상 ~ 4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⑨ 4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⑩ 50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⑪ 55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⑫ 600만원 이상(            원)			

② 월평균 총지출	
가. 소비지출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주거비, 교육비-보육비 포함,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의류비,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경조사비 등)	
나. 비소비지출 (세금, 대출 이자, 공적연금-국민/군인/공무원 등,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 등에 대한 정기적 생활보조금, 기부금 등)	
<b>② 월평균 총지출 = 가 + 나</b>	
다. 월평균 총지출 금액을 잘 모르실 경우, 아래 보기에서 귀 닥 상황과 가장 가까운 월평균 지출수준을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① 100만원 미만(            원) <input type="checkbox"/> ②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⑦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⑧ 400만원 이상 ~ 4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⑨ 4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⑩ 50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⑪ 55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⑫ 600만원 이상(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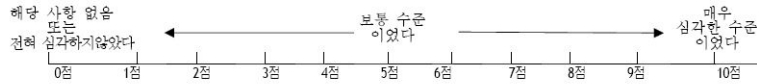
③ 경제상태 및 부채 현황	
③-1. 귀 닥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어쨌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매우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2) 어려운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3)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4) 여유로운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5) 매우 여유롭다	
③-2. 귀 닥에는 현재 부채가 있습니까? 총 부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input type="checkbox"/> 1) 없다 →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0</span> <input type="checkbox"/> 2) 있다 →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100px; height: 20px; vertical-align: middle;"></span> 만원 ↳ ③-2-1. 귀 닥 부채의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골라주십시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input type="checkbox"/> 1)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때문  <input type="checkbox"/> 3) 주거비/주택관련 때문  <input type="checkbox"/> 5) 노부모 부양비 때문  <input type="checkbox"/> 7) 가구내 소득활동이 없기 때문  <input type="checkbox"/> 9) 기타(적어주십시오: )               </div> <div> <input type="checkbox"/> 2) 의료비(병원비, 약값 등) 때문  <input type="checkbox"/> 4) 가구소득이 부족하기 때문  <input type="checkbox"/> 6) 사업자금 조달(사업실패 포함)  <input type="checkbox"/> 8) 혼인 또는 장례비용 때문               </div> </div>	
③-3. 귀 닥의 사회적 지위는 다음 중 어느 정도 수준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input type="checkbox"/> 1) 상상    <input type="checkbox"/> 2) 상중    <input type="checkbox"/> 3) 상하  <input type="checkbox"/> 4) 중상    <input type="checkbox"/> 5) 중중    <input type="checkbox"/> 6) 중하  <input type="checkbox"/> 7) 하상    <input type="checkbox"/> 8) 하중    <input type="checkbox"/> 9) 하하               </div> </div>	

문2) 귀 닥은 다음의 지출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번호 옆 ☐에 ☒표기 해주시시오.

지출 요인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부담되는 편이다	매우 부담된다	비해당
①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을 위한 지출(주거비, 식생활 등 생계비)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② 의료비 지출(병원비, 약값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⑥
③ 자녀 돌봄을 위한 지출(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방과후 돌봄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⑥
④ 자녀 교육을 위한 지출(학원, 사교육비, 체현, 특별활동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⑥
⑤ 부모 부양을 위한 지출(경제적 부양, 용돈, 노부모 부양 의료비나 치매치료비, 장기요양시설 입소비, 생활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⑥
⑥ 장애가 있는 가구원을 위한 지출(재활, 돌봄, 활동지원, 특수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⑥
⑦ 건강 증진 및 체력관리를 위한 지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⑥
⑧ 일상생활 관련 정보 취득을 위한 지출(법률서비스, 세무서비스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⑥
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출(여가·오락·취미생활, 여행 등 포함)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⑥
⑩ 노후준비나 은퇴준비를 위한 지출(예·적금, 보험, 민간 연금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⑥

## V. 생활사건 경험 및 스트레스 수준

다음은 일반적으로 한 가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도 있는 다양한 가족생활 스트레스 사건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아래의 스트레스 항목 중 지난 1년간, 귀하 또는 귀 댁에서(귀 댁의 가족원 포함) 경험한 사건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을 경험했을 때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느끼셨는지 0점(=전혀 심각하지 않았다)에서 10점(='매우 심각한 수준') 사이의 점수를 선택하여 아래 표의 빈칸에 적어 주십시오.



☞ 관련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 '0'으로 기입하십시오.

	생활사건 경험여부	스트레스 수준		생활사건 경험여부	스트레스 수준
건강 문제	① 심한 질병이나 부상		경제적 상황 및 직장 문제	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상사, 동료와 불화	
	② 시력, 청력, 치아 상태의 갑작스런 변화			㉕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해고(실직, 부당해고)	
	③ 알콜 중독, 약물 중독			㉖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정년퇴직( 명예퇴직 포함)	
가족 갈등 및 불화	④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 대화 줄어들			㉗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 실패 또는 장기 실직	
	⑤ 배우자 이외 가족원과의 갈등, 불화			㉘ 금전상 큰 손실을 봄(빚보증, 사기, 투자실패 등)	
	⑥ 시가(처가)나 친정(본가)과 갈등, 불화			㉙ 자녀 교육비 부담	
	⑦ 기타 친인척(형제자매)와 심한 갈등, 불화			㉚ 실수입의 현저한 감소	
	⑧ 부모(시부모, 처부모)의 재혼이나 이혼			㉛ 주택관련 문제(전세값 인상)	
결혼 생활	⑨ 부모-자녀관계의 갈등, 불화		취미 및 친교 활동	㉜ 여행이나 휴가의 취소	
	⑩ 부부간의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 갈등			㉝ 취미생활이나 클럽(모임)활동 중단	
	⑪ 배우자의 가정 불성실이나 외도			㉞ 신앙생활의 중단 또는 전환	
	⑫ 별거, 이혼		주거 환경 변화	㉟ 열악한 주거지로 이사	
	⑬ 성생활의 불만			㊱ 이웃과의 갈등(충간소음 등)	
자녀 양육	⑭ 가사노동의 부담		사건 사고	㊲ 협박을 당함	
	⑮ 가사결정권이나 경제권이 줄어들			㊳ 법적 소송의 제기	
	⑯ 자녀의 가출 및 탈선			㊴ 교통사고(피해나 가해)	
죽음	⑰ 자녀의 출가(군입대, 유학, 결혼)			㊵ 도둑, 강도의 침입 또는 화재사고	
	⑱ 자녀 진로 걱정(학업, 취업, 결혼 등)			㊶ 본인 또는 가족원의 수감(유치장, 교도소 등)	
	㉑ 부모(시부모, 처부모)의 죽음				
	㉒ 배우자의 죽음				
	㉓ 자녀의 죽음				
	㉔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의 죽음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중한 정보,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승인번호  
제11778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대한 조항)**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  
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사업종코드	시설유형분류	ID

##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 【사회서비스 사업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사회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커스컴퍼니의 면접원 ○○○입니다.

귀 기관·시설·사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욕구 및 공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은 향후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정책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조사를 위한 통계적인 용도 이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도록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8월

연구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연구전담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기관 : (주)포커스컴퍼니  
담당연구원 : 신중식 팀장 ☎ 02-3456-0292  
담당감독원 : 우세나 과장 ☎ 02-3456-0255

행정구역분류부호	시설유형분류	표본구분 (①전수 / ②표본)

#### 면접원 기입란

응답자 성명		List ID	
응답자 직위		부서 / 연락처	/
면접 일시	2013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소재지구분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지역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검증원 성명		검증원 ID	

본 조사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회계연도 기간이 이와 다른 경우에는 최근 결산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 I. 일반 현황

## 1 일반사항

※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일반사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사업체명		2) 사업체 창설년월	년 월
3) 대표전화번호	( ) -	4) 사업자 등록번호	
		4-1) 국세청 고유번호	
5) 사업체 구분	<input type="checkbox"/> 1) 단독사업체 <input type="checkbox"/> 2) 본사·본점 <input type="checkbox"/> 3) 지사·지점, 영업소		
6) 소재지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법정)동 _____가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빌딩·시장·상가 _____동 _____층 _____호 [도로명주소]		

☞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2 조직형태

※ 귀사의 조직(운영)형태는 아래 다섯 가지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체크(✓)하신 후 연결되는 질문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 1) 개인 사업체

☐ 2) 회사 법인 → 법인등록번호 \_\_\_\_\_ - \_\_\_\_\_ 기입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4) 회사이외법인 → 어떤 유형의 '회사이외 법인' 인지 골라 주십시오  
☐ ① 재단법인    ☐ ② 사단법인    ☐ ③ 사회복지법인    ☐ ④ 종교법인  
☐ ⑤ 학교법인    ☐ ⑥ 의료법인    ☐ ⑦ 기타 \_\_\_\_\_  
 법인등록번호 \_\_\_\_\_ - \_\_\_\_\_ 기입

☐ 5) 비법인단체 → 어떤 유형의 '비법인단체' 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등록 민간단체    ☐ ② 미등록 민간단체

## 3 프랜차이즈 가입여부

※ 귀사가 프랜차이즈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신 후, 프랜차이즈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연결되는 질문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 1) 가입하지 않음/직영점

☐ 2) 가입함 → 어떤 유형의 '프랜차이즈' 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점  
☐ ② 임의형(볼런터리)체인 가맹점

☞ 프랜차이즈 유형 설명

①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점이란?  
 본부회사(프랜차이즈)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로열티를 본부회사에 지불하는 대신, 상품, 교육, 경영관리의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임(예시: 영유아 전문 어린이집 프랜차이즈, 산후 가사 서비스 프랜차이즈인 인터파크 홈스토리 등).

② 임의형(볼런터리) 체인 가맹점이란?  
 본부는 집중매입, 판매촉진, 운송, 보관 등 공동업무를 담당하고 가맹점은 독립적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체임.

## II. 사업체 특성 및 운영 현황

## 1 사업체 특성

※ 표 하단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대상, 사업착수시점, 재정지원 유형을 응답해 주십시오.

가. 주요사업내용	서비스 코드	나. 주요사업대상			다. 사업착수시점	라. 재정지원 유형		
예시 ① 직업재활서비스	203	3	6	10	2008년 11월	2	3	5
① 사업내용	코드				____년 ____월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p>☞ 조사표 마지막장의 별첨 자료인 &lt;사회서비스 단위사업분류표&gt;를 보시고 사업내용과 해당코드를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귀사가 제공하는 사업내용과 코드가 단위사업분류표에 없을 경우, 각 영역의 [기타 서비스]를 선택하고, 상세사업내용과 코드를 기입해 주십시오.</p> <p>☞ 2013년 1월 이후에 시작한 사업(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입하지 않습니다.</p> <p>☞ 2012년 1년간을 기준으로 매출액(혹은 예산) 비중이 큰 순서에 따라 사업내용을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단, 동일한 사업(코드)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서비스)을 복수로 운영하는 경우, 주된 사업 하나로 통합하여 기입합니다.</p> <p>☞ 매출액 구분이 곤란한 경우, 종사자 규모, 이용자 규모가 큰 순서로 기입합니다.</p>	<p>☞ 아래 보기 중 선택하여 기입하거나, '기타'의 경우 직접 기입합니다. (중복응답 가능)</p> <p>① 영유아(0~5세)      ② 아동(6~17세)          ③ 청소년(18~24세)      ④ 여성(성인)          ⑤ 모(부)자      ⑥ 장애인          ⑦ 노인      ⑧ 가족단위          ⑨ 일반인      ⑩ 근로자          ⑪ 다문화가족      ⑫ 노숙인·부랑인          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      ⑭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⑮ 기타(☞적어주십시오)</p>	<p>☞ 해당 사업의 착수년월을 기입해 주십시오.</p>	<p>☞ 해당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유형을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기입하시되, 1개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p> <p>① 중앙정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② 지자체 지원사업 (시도 및 시군구보조금)          ③ 민간 지원사업          ④ 노인요양보험사업          ⑤ 전자바우처사업          ⑥ 지원 없음          ⑦ 모르겠음</p>					

## 1-1 시설 유형

※ 귀사의 시설유형이 이용시설인지, 아니면 생활시설인지 응답해 주십시오

- ☐ 1) 이용시설(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방문해 서비스를 받는 유형) ➡ 4페이지 문2로
- ☐ 2) 생활시설(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거주,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유형) ➡ 5페이지 문3으로

## 2 이용시설 이용자 현황

※ 이 문항은 시설을 방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사회복지기관이나 사업체)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주요 사업내용에 따른 이용자 규모를 기입합니다. 생활시설 관련 사업체(시설)의 경우에는 본 조사표 바로 뒷 페이지인 5페이지 3항의 생활시설 거주자 현황에 기입해 주십시오.

☞ 면접원은 이용자 현황을 각 단위사업별로 기입합니다.

단, 주요 사업내용이 15개 이상인 경우, 이용자 현황의 '전체'는 앞서 기입한 15개 사업의 합계가 아닌 조사대상 사업체(시설)의 총 이용자 수를 기입합니다.

주요 사업내용 (코드)	가. 연간 이용자 수(명)		나. 사업별 연간 총예산 (단위:만원)	다. 비용 부담 유형별 이용자 비율(%)				라. 월평균 대기자 수 (명)
	연인원	실인원		무료 이용자	실비 부담 이용자	전액 유료이용 자	계	
예시 ① 203	300 명	60 명	3500 만원	15 %	80 %	5 %	100%	3
① 코드	명	명	만원	%	%	%	100%	
② 코드	명	명	만원	%	%	%	100%	
③ 코드	명	명	만원	%	%	%	100%	
④ 코드	명	명	만원	%	%	%	100%	
⑤ 코드	명	명	만원	%	%	%	100%	
⑥ 코드	명	명	만원	%	%	%	100%	
⑦ 코드	명	명	만원	%	%	%	100%	
⑧ 코드	명	명	만원	%	%	%	100%	
⑨ 코드	명	명	만원	%	%	%	100%	
⑩ 코드	명	명	만원	%	%	%	100%	
⑪ 코드	명	명	만원	%	%	%	100%	
⑫ 코드	명	명	만원	%	%	%	100%	
⑬ 코드	명	명	만원	%	%	%	100%	
⑭ 코드	명	명	만원	%	%	%	100%	
⑮ 코드	명	명	만원	%	%	%	100%	
전 체	총 명	총 명	총 만원	%	%	%	100%	
☞ 조사표 3페이지에 작성한 사업코드를 옮겨 적어 작성합니다.  ☞ 개별 사업이 15개 이상인 경우, 주요 사업 순으로 15개까지만 우선 기입하므로, 인원수나 예산은 전체 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요 사업내용에 기입한 이용시설 관련 사업에 대해 2012년 1년간 귀 사업체(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를 연인원과 실인원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참고  - 이용자란, 프로그램 당, 단위사업 당 출석 인원을 말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명으로 산정함(1년 단위)  - 동일한 사람 10명이 한 달에 20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연인원은 10명 x 20일 x 12개월 = 2,400명이고, 실인원은 10명x12개월 =120명으로 기입		☞ 해당 단위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를 서비스 비용의 부담유형에 따라 무료, 실비부담, 전액 유료 이용자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각 유형별 비용부담의 비율의 합은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합니다.	☞ 각 사업 내용(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라 월평균 서비스 이용 대기자 수를 기입합니다.				



### ③ 생활시설 거주자 현황

※ 이 문항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시설생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생활시설이란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시설(또는 사업체)을 의미합니다.

(단위: 명)

주요 사업내용	가. 정원	나. 현원	다. 비용 부담 유형별 거주자 비율(%)				라. 월평균 대기자 수
			기초수급자	실비 부담 거주자	전액 유료거주자	합계	
예시 ① 22	30 명	26 명	30%	45 %	25 %	100 %	3명
① 코드	명	명	%	%	%	100%	명
② 코드	명	명	%	%	%	100%	명
③ 코드	명	명	%	%	%	100%	명
④ 코드	명	명	%	%	%	100%	명
⑤ 코드	명	명	%	%	%	100%	명
전 체	총 명	총 명	%	%	%	100%	명
☞ 조사표 3페이지에 작성한 사업코드를 옮겨 적습니다.	☞ 주요 사업내용에 기입한 주요 사업내용 중에서 생활시설 관련 사업에 대해 2012.12.31. 기준으로 귀 사업체(시설)에서 생활한 거주자의 정원과 현원을 기입합니다. - 정원: 시설(사업체) 설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인원 - 현원: 2012년 12월 31일 기준 현재의 인원		☞ 생활시설에서 거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 하는 유형에 따라 거주자(생활자) 수를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각 사업 내용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라 월평균 서비스 이용 대기자 수를 기입합니다.	

### ④ 사업활동 관련

※ 귀 사업체의 사업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4-1)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사업 수행 지역(범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체크(✓)하고 관할 지역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사업체 소재지 근처 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②에 체크(✓)하고 괄호( )에 3이라고 기입합니다.

- ☐ 1) 사업체 소재지의 1개 읍·면·동    ☐ 2) 읍·면·동 (    )개    ☐ 3) 사업체 소재지 시·군·구  
☐ 4) (    ) 개 시·군·구    ☐ 5) 소재지 특별·광역시·도  
☐ 6) (    ) 개 특별·광역시·도    ☐ 7) 전국

문4-2) 귀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 내(문 4-1)에서 응답한 지역)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시설 또는 기관)가 있습니까?

- ☐ 1) 없다    ☐ 2) 있다 →

문4-2-1)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가운데, 귀 사업체의 경쟁기관은 몇 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쟁기관  개소로 파악

문4-3) 귀 사업체(시설·기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서비스 이용자의 확보를 위하여 역점을 두는 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1) 서비스 품질 향상  
☐ 2)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  
☐ 3) 서비스 이용료(가격) 인하  
☐ 4) 부가서비스(기본서비스 이외 추가서비스) 제공  
☐ 5)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6) 사업비용 절감  
☐ 7) 신규 서비스 발굴  
☐ 8) 시설투자  
☐ 9)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문4-4) 귀 사업체(시설·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1개월 평균 이용자가 몇 명일 때, 손익이 '0' 이 되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월 평균 

--	--	--	--	--

 명

문4-5) 사회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 중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1)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      ☐ 2)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3) 사회서비스 가격 자율화      ☐ 4) 사회서비스 브랜드 개발 및 인지도 제고  
☐ 5) 제공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      ☐ 6)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  
☐ 7) 관련 정책부처의 지원 확대      ☐ 8) 신규 제공기관 진입규제 완화  
☐ 9) 신규 제공기관 진입규제 강화      ☐ 10) 새로운 서비스 유형의 개발  
☐ 11) 없음      ☐ 12)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문4-6) 사회서비스업이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3가지를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1) 서비스 제공인력의 잦은 이직 및 구인의 어려움      ☐ 2) 낮은 서비스 단가  
☐ 3) 이용자 확보      ☐ 4)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요구사항(불만)  
☐ 5) 업체 간 과도한 경쟁      ☐ 6) 서비스 수요 예측의 어려움  
☐ 7) 사업 수행에 따르는 각종 규제      ☐ 8) 지자체 및 유관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 9)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문4-7) 사회서비스업이 발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 중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1)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의 양성      ☐ 2) 사회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 3) 사회서비스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4) 사회서비스 가격 자율화  
☐ 5) 사업체 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      ☐ 6) 창업자 맞춤형 성장 지원 정책  
☐ 7) 세제 감면 및 세제 지원 확대      ☐ 8) 창업, 공동홍보, 컨설팅 등 지원 시책 확대  
☐ 9)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 III. 고용 실태

#### 1 종사자 수 및 급여액

- ※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항목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월평균 근로자 수는 2012년도 영업기간 중 월평균 종사자 수를 성별 및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 월평균 파트타임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직접고용 종사자) 중 1일 기준, 8시간 미만 근무하는 종사자 수를 기입합니다.  
(1주일에 30시간 또는 통상 근무일수보다 적은 주당 3~4일 근무하는 경우)
  - 연간 총급여액은 2012년 1년간 유급 종사자에게 지급한 각종 임금 공제 이전의 급여총액을 기입합니다.

직접 및 간접고용 종사자 지위	가. 월평균 근로자 수(명)			나. 월평균 파트타임 근로자 수(명)	다. 연간 총급여액
	남성	여성	계		
① 상용종사자					□□□, □□□ 백만원
㉠ 정규직					□□□, □□□ 백만원
㉡ 기간제 계약직					□□□, □□□ 백만원
㉢ 무기계약직					□□□, □□□ 백만원
② 임시 및 일용종사자					□□□, □□□ 백만원
③ 자영업자					□□□, □□□ 백만원
④ 무급 가족종사자					
⑤ 다른 사업체로 보낸 종사자					□□□, □□□ 백만원
직접고용 전체 = ①+②+③+④+⑤					□□□, □□□ 백만원
⑥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⑦ 특수형태 종사자					□□□, □□□ 백만원
⑧ 용역 종사자					□□□, □□□ 백만원
⑨ 기타 종사자					□□□, □□□ 백만원
간접고용 전체 = ⑥+⑦+⑧+⑨					□□□, □□□ 백만원

#### ☞ 직접고용 종사자의 구분 및 설명

- ① 상용종사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종사자
- ↳ ㉠ 정규직: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종사자
  - ↳ ㉡ 기간제 계약직: 일정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관계를 유지하나,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종사자
  - ↳ ㉢ 무기계약직: 계속 고용이 보장되기는 하나, 형식적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하는 계약직 종사자
- ② 임시 및 일용종사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근무하는 종사자.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대가를 일급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 특히 임시 및 일용종사자 수는 연인원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유의(월평균 인원으로 표시)
- ③ 자영업자: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경영하는 자(법인사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
- ④ 무급 가족종사자: 정상 영업시간의 1/3이상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가 없는 자영업주의 가족이나 친인척
- ⑤ 다른 사업체로 보낸 종사자: 파견 및 용역업체의 경우, 외부에 파견한 종사자로서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조사 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고용알선업체의 조직자는 이런 유형의 직원이 아님)

#### ☞ 간접고용 종사자의 구분 및 설명

- ⑥ 다른 사업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 사업주를 통해 고용되나, 파견 받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사자
- ⑦ 특수형태 종사자: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을 개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종사자(예시: 학습지 교사, 보충설계사 등)
- ⑧ 용역 종사자: 다른 사업주(용역업체)가 고용하나 사용자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예시: 파출,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 ⑨ 기타종사자: 인턴사원,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등

## 2 직종별 종사자 수

※ 귀 사업체(시설·기관) 종사자의 직종별, 고용형태별, 성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별 종사자 및 연간 이직자 수와 신규자 수, 추가 필요인력 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위: 명)

종사 직종 (업무)	가. 전체 종사자 수	나. 고용형태		다. 성별		라. 연간 이직자 수	마. 연간 신규자 수	바. 추가 필요인력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1) 관리직								
2) 전문직 / 준전문직: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① 사회복지사/생활복지사								
② 상담지도원/임상심리상담사								
③ 보육교사								
④ 아동복지 교사								
⑤ 특수교육 교사								
⑥ 직업훈련 교사								
⑦ 그 외의 교사 및 강사								
⑧ 평생교육사								
⑨ 의사								
⑩ 간호사								
⑪ 간호조무사								
⑫ 재활전문인력(물리치료사)								
⑬ 재활전문인력(직업재활사)								
⑭ 재활전문인력(언어치료사)								
⑮ 미술·음악·놀이치료사								
⑯ 요양보호사								
⑰ 가정봉사원(건강가정기본법 근거)								
⑱ 생활지도원								
⑲ 영양사								
⑳ 간병인								
㉑ 기타1: _____								
㉒ 기타2: _____								
㉓ 기타3: _____								
3) 사무직								
4) 단순직								
5) 그 외 직종 근로자								
전체 = 1)+2)+3)+4)+5)								

☞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보다는 수행 중인 직무(업무)를 중심으로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준전문직(관련 자격증소지자)이 관리직을 담당할 경우, 관리직에 기입하도록 하고,  
사무직을 주업무로(60% 이상) 담당할 경우 사무직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 3 고용실태

※ 다음은 고용실태와 관련된 구체적 질문입니다. 모든 응답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아래 3-1에서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매출액 최대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조사표 3쪽에서 작성한 사업코드를 기입하며, 해당하는 사업의 근로자 고용실태에 대해 응답합니다.
- 사업체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할 때는 귀 사업체(시설·기관) 전체 현황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 3-1. 매출액 최대사업 및 중점 추진사업

※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매출액(예산) 최대사업은 무엇입니까? 조사표 3쪽의 서비스 코드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했거나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된 주요사업의 코드를 기입합니다.

문3-1) 매출액 최대사업(서비스)

사업 코드

#### 3-2. 근로자 특성별 고용실태

(단위: 명, 원)

※ 매출액 최대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사업체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 기준에 따른 고용실태를 기입해주시요.  
예를 들어, A, B, C, D 네 가지의 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체의 경우, 매출액 최대사업이 A사업이라면, A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연령, 교육수준, 근속기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별 근로자 숫자를 해당 칸에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A, B, C, D 네 가지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전체 근로자에 대한 연령, 교육수준, 근속기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별 근로자 숫자를 사업체 전체 기준 칸에 기입하면 됩니다.

		매출액 최대사업 기준	사업체 전체 기준
연령별	30세 미만 근로자수는?	명	명
	30대(30~39세) 근로자 수는?	명	명
	40대(40~49세) 근로자 수는?	명	명
	50대(50~59세) 근로자 수는?	명	명
	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명	명
교육수준별	고졸 이하 학력의 근로자 수는?	명	명
	대졸 이상 학력의 근로자 수는?	명	명
근속기간별	12개월 미만인 근로자 수는?	명	명
	12개월 이상인 근로자 수는?	명	명
월평균 근로일수별	10일 미만인 근로자수는?	명	명
	10~20일 미만인 근로자수는?	명	명
	20일 이상인 근로자수는?	명	명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수는?	명	명
	15~40시간 미만인 근로자수는?	명	명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수는?	명	명

☞ 연령별 근로자수의 합, 교육수준별 근로자 수의 합, 근속기간별 근로자 수의 합, 월평균 근로일수별 근로자수의 합, 주간 평균 근로시간별 근로자수의 합이 서로 동일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③-3. 종사자의 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사업내용 코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상자 수	가입자 수	대상자 수	가입자 수	대상자 수	가입자 수	대상자 수	가입자 수	대상자 수	가입자 수	대상자 수	가입자 수
매출 최대사업 기준 ①코드												
전체사업 기준												

### ④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의 운영 실태

※ 귀 사업체(시설·기관)에 종사 중인 근로자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골라 체크란에 ✓표시 합니다(중복체크 가능).

체크란	복리후생 제도 유형	제도 내용 예시
<input type="checkbox"/>	1)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 이외의 별도 수당 지급
<input type="checkbox"/>	2) 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 유급휴일, 병가
<input type="checkbox"/>	3) 주거비 보조	임대주택(사택), 기숙사, 주택 구입 자금 대여, 전월세 자금 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4) 건강보건관련 비용지출 지원	의료서비스, 건강검진 등
<input type="checkbox"/>	5) 식대비 보조	식비지원, 급식시설 운영, 외부 식당 이용, 식권 제공 등
<input type="checkbox"/>	6) 문화체육오락비용 보조	도서관, 휴게실, 운동장, 체육관 샤워시설, 사내동호회 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7) 사보험료 지원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개인연금 등의 사보험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8) 경조비	결혼출산 축의금, 사망 조의금, 상병 위로금, 퇴직 전별금 등
<input type="checkbox"/>	9) 자녀학비 보조	근로자 자녀의 정규 학교 학자금 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10) 보육 지원	탁아 및 양육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input type="checkbox"/>	11) 근로자 휴양 지원	휴양소, 콘도미니엄, 상여에 포함되지 않는 하계 휴가비 등
<input type="checkbox"/>	12) 통근 비용	통근버스, 주차비 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13) 자기계발 지원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수강비 등
<input type="checkbox"/>	14) 근로자 상담	상담전문가에 의한 고충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input type="checkbox"/>	15) 탄력근무제	근무시간(출퇴근시간)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input type="checkbox"/>	16) 기타	(자세히 기술: _____)

#### IV. 재무 실태

##### 1 재무제표 작성 여부

※ 재무실태 조사에 앞서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재무제표 작성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귀사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 ① 재무제표 작성하고 있음 ☐ ② 재무제표 작성하지 않고 있음

##### 1-1. 연간 총수입

※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재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표 하단의 설명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 2012년 1년간의 영업활동(서비스 제공 등)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확보된 총 수입액을 기입합니다.  
 - 총수입액은 통계청 시행 『경제총조사』의 “매출액”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백만원 단위로 기입합니다

1) 정부 보조금 및 정부 개별사업 수탁 수입	□□□,□□□ 백만원
① 경상보조금 등(국고보조금+시도보조금+시군구보조금 등)	□□□,□□□ 백만원
② 개별사업(프로그램) 수탁 수입(재무회계규칙 상 사업비)	□□□,□□□ 백만원
2) 사업수입(매출액/이용료, 입소비용 등의 수입)	□□□,□□□ 백만원
3) 후원금 수입	□□□,□□□ 백만원
① 개인후원금	□□□,□□□ 백만원
② 법인후원금	□□□,□□□ 백만원
4) 시설부담금 / 법인전입금	□□□,□□□ 백만원
5) 회원 회비	□□□,□□□ 백만원
6) 그 외 수익 활동 수입	□□□,□□□ 백만원
7) 임대료 수입	□□□,□□□ 백만원
8) 기타 (차입금/이월금/잡수입)	□□□,□□□ 백만원
<b>연간 총수입 = (1)+(2)+(3)+(4)+(5)+(6)+(7)+(8)</b>	

##### ☞ 재무실태 관련 문항 설명

- 정부 보조금 및 정부 개별사업 수탁 수입: 귀 기관에 대한 정부의 경상보조금, 출연금 또는 정부가 위탁한 프로그램(사업) 수입
  - 경상 보조금 등: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경상적 보조금(정부로부터 매년 지급받는 보조금)
  - 개별사업(프로그램) 수탁 수입: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 공모, 선정되어 지원받은 보조금
- 사업수입(매출액/이용료, 입소비용 등의 수입): 귀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수입
- 후원금 수입: 개인 및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지정기탁 등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 중 후원금 수입)
- 회원 회비: 귀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의견권을 갖거나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회원의 회비
 

☞ 단,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원 회비는 제외 → 서비스 이용료 등의 수입에 포함
- 그 외 수익 활동 수입: 기관의 주요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수입을 포함하며, 수익활동을 하는 하부 기관의 수입도 포함
- 임대료 수입: 토지·건물·장비 등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

## ② 바우처사업 추가 구매 현황

※ 다음 문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귀하의 사업체(시설·기관)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 ☐ 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은 수행하지 않음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 ②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가 - 마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유형	가. 연간 바우처 총 이용자수	나. 연간 총 매출액	다. 연간 추가구매 인원	라. 연간 추가구매 매출액	마. 일반구매자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3)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4) 가사간병방문서비스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5) 발달재활서비스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6) 언어발달지원서비스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7-1)사업명: _____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7-2)사업명: _____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7-3)사업명: _____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7-4)사업명: _____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7-5)사업명: _____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_____만원	_____명

### ☞ 바우처 추가 구매 관련 문항 설명

#### 가. 연간 바우처 총 이용자수

연간 바우처 총 이용자수는 2012년 기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총 이용자 수(추가구매자 포함)를 기입합니다.

#### 나. 연간 총 매출액

연간 총 매출액은 2012년 기준 해당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총 매출액을 기입합니다.

#### 다. 연간 추가구매 인원

2012년 1년간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으로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가 있다면, 추가구매 이용자 수의 규모 (인원 수)를 기입합니다. 추가구매 요청이 없었으면 "0"으로 표시합니다.

#### 라. 연간추가구매 매출액

"다"문항과 마찬가지로 2012년 1년간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으로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가 있다면, 추가구매를 통한 월평균 매출액이 얼마인지 기입합니다. 추가구매 요청이 없었으면 "0"으로 표시합니다.

#### 마. 일반구매자

일반구매자란 정부지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상관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제외 되었거나 지원기간이 초과하였으나, 해당 사회서비스의 지속적 이용 의사가 있는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을 자기 부담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 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복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단위사업별로 세부 사업명을 기입한 후, 총이용자수, 총매출액, 추가구매 인원과 추가구매 매출액을 확인하고, 일반구매자 수를 기입합니다.



**③ 연간 총지출**

※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재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표 하단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2012년 1년간의 영업활동(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지출한 총비용(사업자의 비용 제외)을 기입합니다.  
 - 총지출액은 통계청 시행 「경제총조사」의 “영업비용”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백만원 단위로 기입합니다

1) 인건비= ① + ②	□□□,□□□ 백만원
① 급여	□□□,□□□ 백만원
② 급여 외 인건비	□□□,□□□ 백만원
2) 운영비	□□□,□□□ 백만원
3) 시설비	□□□,□□□ 백만원
4) 사업비= ① + ②	□□□,□□□ 백만원
① 사업비	□□□,□□□ 백만원
② 생활시설 운영비, 교육비	□□□,□□□ 백만원
5) 재료비 및 소모품비	□□□,□□□ 백만원
6) 기타 경비	□□□,□□□ 백만원
<b>연간 총지출 =1)+2)+3)+4)+5)+6)</b>	□□□,□□□ 백만원

**지출 관련 문항 설명**

## 1) 인건비:

① 급여: 임원급여, 급여, 임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

② 급여 외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급여 총당금 전입액,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성격의 모든 비용으로, 무급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

2) 운영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여비, 수송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

3) 시설비: 임차료, 건물관리비, 산증축비, 자산 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4) 사업비: 사업을 위한 지출

① 사업비: 이용시설 서비스·프로그램 운영, 생활시설 각종 재활프로그램 사업비 등

② 생활시설 운영비·교육비: 생활시설의 생계비 등, 교육비 등

5) 재료비 및 소모품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입한 원가성격의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6) 기타 경비: 영업 비용에서 1)인건비~5)재료비 및 소모품비를 제외한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운영충당 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등 모든 영업비용

**4 자산, 부채 및 자본실태**

- ※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재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표 하단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2012년 12월 31일 기준의 자산, 부채, 기본금 현황을 항목별로 기입합니다.
  - 조사표 2쪽에서 응답한 조직형태가 ②회사법인이거나 ④회사 이외의 법인에 한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의 해당항목을 기입합니다.

\*십만원 단위로 기입합니다

구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원
<b>1) 자산총계=①+②+③+④</b>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원
① 유동자산(현금, 매출채권, 기타 당좌자산 등)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원
② 투자자산(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등)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원
③ 유형 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 등)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원
④ 무형 고정자산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원
<b>2) 부채 총계=①+②</b>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원
① 유동부채(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등)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원
② 고정부채(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등)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원
<b>3) 기본금 총계(자본금,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등)</b>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원

**☞ 자산, 부채, 자본실태 관련 문항 설명****1) 자산총계**

- ① 유동자산: 현금 및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받을 어음·외상매출금·미수금·유가증권 등의 당좌자산(當座資産)과 상품·제품·반제품·원재료·재공품(在工品)·저장품 등의 재고자산이 포함됨
- ② 투자자산: 사업운영보다는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등
- ③ 유형고정자산: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기구·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을 포함. 단, 해당 사업체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만을 기입
- ④ 무형고정자산: 영업 및 생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특허권, 신용신인권, 의장권 등)

**2) 부채총계**

- ① 유동부채: 지불기한이 1년 미만인 부채로 외상매입금·지급어음·기타 영업거래에서 생긴 금전채무와 일반적으로 기한 1년 이내의 단기차입금·미지급금·미지급비용·선수금·예수금·충당금 등이 포함
- ② 고정부채: 지불기한이 1년을 넘는 부채로 사채(社債)·장기차입금·임대보증금 등

**3) 기본금 총계:**

최초의 납입자본금이 아닌 2012. 12. 31. 현재 납입 완료한 자본금(출자금)과 자본잉여금 총액을 기입

### 특이사항

※ 귀 사업체(시설·기관)의 특이사항이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  
(회계연도 기간, 사업 착수 시점, 기타 사업비용이 과대한 사유, 운영 시 애로사항 등)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중한 정보,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 ★부록-별첨자료

사회서비스 단위사업 분류표 ①

구분	사 회 서 비 스		중앙정부 사회서비스
1. 상담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서비스	101. 전문 상담서비스(개별상담, 집단상담) 102. 사례관리 서비스 103. 돌봄가족원(부양자) 지원 서비스 104. 가족 상담 서비스(부모상담, 부부상담 등)	105. 위기가정 문제 관련 지원·상담 서비스 106. 폭력학대관련 상담 서비스(아동학대방 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991. 기타(중앙제시할별 기입 )	161. 정신보건증진센터 162. 일보울 또는 약물중독, 게임중독 상담센터 163. Web프로젝트 이용(학교부적응 및 위기에 처한 학생 상담) 164.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서비스 165.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2. 재활 재활지원서비스	201. 장애인단련 서비스 202. 신체적 재활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203. 직업재활 서비스 204.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205.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 심리치료 206. 언어치료 207. 알코올약물중독 치료 및 재활 208. 수화 서비스 992. 기타(중앙제시할별 기입 )	251. 발달재활서비스 252.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53. 시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3. 돌봄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301. 주간보호·야간보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302. 간호 및 간병서비스(일반) 303. 방문목욕 304. 복귀용품 공급/보장구 지급 305. 산후조리서비스(일반) 306. 활동보조 서비스(일반)	307.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가사서비스, 욕조, 이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이동지원) 308. 식사제공 서비스(급식서비스, 경로식당, 발판한데탕) 993. 기타(중앙제시할별 기입 )	351.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352.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5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바우처) 354.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바우처) 355.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바우처) 356.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시설급여/기타 재가급여 357. 특기노인 응급안전 돌봄비 358. 취약노년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359.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 360.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4. 돌봄 아동 보육 및 보호서비스	401.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0~5세,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형태) 402.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0~5세, 돌봄시설에 직접 아동이 방문하는 형태) 403. 재가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형태) 404. 방과후 아동돌봄 서비스(6~12세, 돌봄시설에 직접 아동이 방문하는 형태)	405. 장애아동 돌봄 406.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프로그램 (시설기반의 청소년 문화놀이·오락 프로그램) 407. 아동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서비스 408. 학교폭력중, 위기청소년 지원 994. 기타(중앙제시할별 기입 )	451.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만12세 이하 취약아동) 452.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만0~2세, 누리과정, 장애아 투상/시 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453. 아이돌봄비 서비스 454. 장애아아육 양육 지원 455. 초등 돌봄고교 45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457. 아동일일 안전 서비스

(주)포커스컴퍼니

::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 사업제대상

## ★부록-별첨자료

사회서비스 단위사업 분류표 ②

구분	사 회 서 비 스		중앙정부 사회서비스
5.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501. 건강관리서비스 502. 운동처방서비스 ※ 의료서비스는 본 실태조사의 사회서비스 표달 범위에서 제외하고 논의함.	995. 기타(중앙제시할별 기입 )	551. 산전후 건강관리사업(고분임카드) 552. 포진소 건강증진 방문 보건 서비스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553. 임신부 및 영유아영양관리 서비스 554. 포진소 금연클리닉 555.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인공임신중절예방
6. 교육 및 경보제공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	601.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 602. 장애아동 (특수)교육 603. 성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604. 부모교육	605. 교육관련 상담, 평가 및 정보제공 606. 노후설계지원 서비스 607. 새우관련 서비스 608. 법률지원 서비스 609. 진학 및 진로상담 996. 기타(중앙제시할별 기입 )	651.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바우처) 652. 유치원이용(유아학비지원 - 만3~4세, 누리과정 교육비, 다문화 교육비(지원)) 653.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교 지원 654.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서비스 655. 가정교육·성교육 피하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656. 중장기복무 재대군인 법률 구조 지원 서비스
7. 고용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	701. 구직알자리 알선 702. 간병관련 알자리 지원 703. 가사지원 관련 알자리 지원 704. 자영업 창업지원	705.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 706. 근로의욕고취 및 근로관련 심리 상담·사회적 지원 997. 기타(중앙제시할별 기입 )	751. 정부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공공근로/자활근로) 752.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이용 753.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 및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754. 시장경제인인양성 사업 75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75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757. 적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758. 홀소자를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주)포커스컴퍼니

:: 2013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 사업제대상

## ★부록-별첨자료

사회서비스 단위사업 분류표 ③

구분	사 회 서 비 스	중앙정부 사회서비스
8. 주거 주거보호 및 지원서비스	801. 대규모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 생활 지원 802. 20명 이내 소규모 그룹홈 등 공동 생활가정의 생활시설 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803. 일시보호(일시보호시설, 쉼터 등) 804. 주거비 지원 998 기타(☞상세사업명 기입 )	851. 장애인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852. 오폭호 아동을 위한 그룹홈 거주 853.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서비스 854. 주택 바우처
9. 문화 문화 및 여가서비스	901. 문화/예술 서비스 902. 체육/스포츠 서비스 903. 여행/관광 서비스 999 기타(☞상세사업명 기입 )	951.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운영: 지방문화원(문화체육관광부) 952. 여행 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953. 문화 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954. 스포츠 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10.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특화사업 통합사회서비스 시설이용 및 지역사회자원개발	1001. 자원봉사자 양성 및 참여 1002. 사회복지관 9910 기타(☞상세사업명 기입 )	1051. 지역사회서비스 특화사업(바우처)(☞상세사업명 기입 ) 1052. 드림스타트(지역사회 중심 아동통합서비스지원) 105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방과후 돌봄 외 기타 프로그램) 1054. 간접가정지원센터 1055.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등) 105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057.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상담, 법률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등) 1058. 노인보호 전문기관(학대노인 대상 법률지원, 보호, 상담 등) 1059.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정, 경로당 등)
11. 환경	1101. 장소 및 환경정비 서비스 1102. 방역서비스 1103. 환경 가꾸기(습가꾸기, 텃밭 운영 등) 1104. 영남방 지원서비스(부녀회일터) 9911 기타(☞상세사업명 기입 )	1151. 사회복지시설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1152.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1153. 주택 국내 급수관 개량지원

(주)포커스 컴퍼니